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정, 교수학습 개선 연구·개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대규모 평가사업 및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과 경험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무 살, 청년이 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 공교육 내실화를 주도하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998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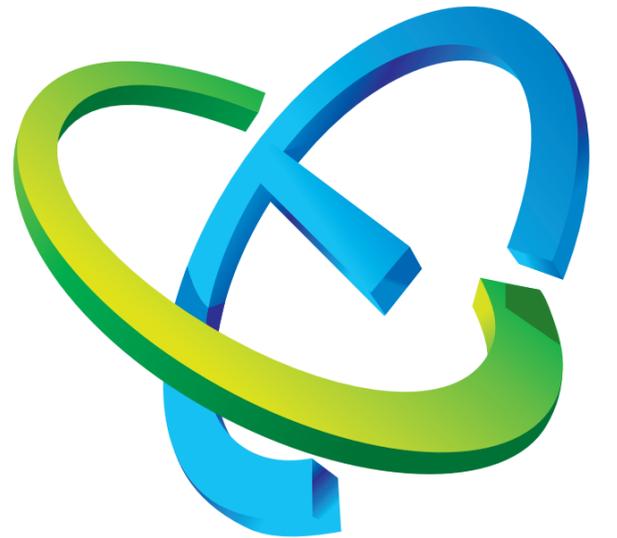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1998 — 2018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1998 —————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1998 — 2018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전경

발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사 등 교육의 뿌리를 가꾸기 위한 연구와 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교육 정책 입안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원은 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정책 실현과 현장 안착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원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우리원을 거쳐 간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관련 기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998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우리원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영역인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만들었으며, 그 수준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우리원은 언제나 우수한 연구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장성을 중시한 연구,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선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원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에서 우리원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관의 20년 역사를 정리한다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 기술을 위해 사료를 충실히 정리해 준 각 부서의 담당자들과 꼼꼼하게 감수를 시행해 준 편찬위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가 교육 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정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기현

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년 역사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온전히 담아내느라 애쓰신 성기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98년 설립 이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존재 의의는 더욱 확대·강화되어 왔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부응하며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교육평가 연구·개발과 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교수학습 관련 연구·개발,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인정 업무, 각종 국가고사를 출제·관리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무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운생동하는 활력으로 올라르고 발전적인 교육 연구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큼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펼치는 오늘의 교육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 교육의 미래라는 여러분의 자부와 자긍 또한 무척이나 미덥습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한 여러분의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현재의 교육을 바르게 정립하고 더 나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선취해 가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20주년과 20년사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성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축사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완성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의 20년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교육 발전의 초석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원 20주년을 맞는 2018년은 과거 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디지털 구조 전환,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교육 혁신이 향후 국가 교육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이상설 선생의 고향인 진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지역 이동을 넘어 포용과 다양한 가치의 반영이라는 교육의 핵심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교육이 나아갈 바를 명확히 밝히고, 공교육 혁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에 공헌하는 싱크탱크로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개원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성기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범한 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놀라운 발전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가원의 발전에 애쓰신 평가원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연계시켜, 초·중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사를 출제·시행·관리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초·중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실 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는 물론 교육정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책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 교육 개혁을 완성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성, 교육에의 기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나아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자료, 수업, 교육평가 등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전문적으로 진단·처방하고, 연구력을 통한 공신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계적인 교육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개원 20주년으로 성년을 맞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성기선 원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앞날에 더욱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 원장

축사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독보적인 교육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동문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어려웠던 1997년, 대한민국학술원 사무실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탄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국립교육평가원의 업무 전반을 이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기능을 이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과정-수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평가원은 국가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였고, 교과용도서의 연구와 다양한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사를 안정적으로 출제·관리해왔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선진적 교육평가 방법을 도입·적용해 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위상을 얻기에 20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간 이룩한 높은 성과와 명성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개원 초기 청담동에서 문을 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삼청동, 정동 시대를 거쳐, 2018년 진천혁신도시에 독립청사를 마련하여 새로운 진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지난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발판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현장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배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 사무국장

Content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발간사	4
축사	6

설립전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탄생하기까지

연혁화보 | 한눈에 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

제1편 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의 발자취

제1장 1998 - 2003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제1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31
제2절 기관 운영 기반 조성	37
제3절 연구의 체계적 토대 구축	45
제4절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체계 개선	53
제5절 국가고사 관리 업무 수행	57

제2장 2004 - 2007

위기를 넘어 교육과정·교육평가 사업의 영역을 넓히다

제1절 수능 출제관리 체제의 강화	65
제2절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원 기능 보강	69
제3절 연구 업무의 안정과 확장	77
제4절 국가고사 관리 업무의 확대	84
제5절 국제 협력 업무의 활성화	89

제3장 2008 - 2010

질 높은 교육 연구, 신뢰받는 교육평가 사업을 수행하다

제1절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	93
제2절 정보시스템 및 연구지원 강화	100

제3절 수준 높은 교육 연구 수행	105
제4절 수능 체제 안정과 지속	115
제5절 국가고사 관리 업무의 다양화	118

제4장 2011 - 2014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으로 거듭나다

제1절 최적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조화	123
제2절 연구 기획 기능 강화 및 시스템 개선	135
제3절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	141
제4절 무결점 수능을 향한 노력	156
제5절 국가고사 관리 효율화	161

제5장 2015 - 2018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KICE로 도약하다

제1절 창의·융합 인재 양성 연구	169
제2절 교육평가시스템의 진화	176
제3절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182
제4절 새로운 수능 체제 운영 방법 모색	189
제5절 충북 시대 개막과 KICE의 미래	200

제2편 부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문별 변천과 현황

제1장 교육과정·교과서	210
제2장 교수학습	218
제3장 교육평가	224
제4장 대학수학능력시험	234
제5장 국가고사	240
제6장 기관운영	248

제3편 부록

자료로 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

01 연표	264
02 주요 수상 내역	273
03 조직도	274
04 역대 원장 및 부원장	276
05 비전	278
06 CI 및 캐릭터	279
07 연도별 기본 연구 목록	280
08 연구사업 수 변동 추이	288
09 수능 응시자 수 변동 추이	290
10 국제 학업성취도 변동 추이	292
11 교과서 검정 심사 현황	294
12 주요 간행물 변천사	296
13 MOU 체결 현황	298
14 운영 웹사이트 현황	300
15 재직자 및 퇴직자 명단	302

편찬후기	306
편찬위원회 명단	307

• 일러두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는 크게 설립전사, 연혁화보, 통사, 부문사,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설립전사는 기관 설립 이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며, 연혁화보는 총 5개의 시대 구분에 따라 사진과 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2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통사 또한 총 5장의 시기 구분을 통해 각 시기별 주요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부문사에서는 총 6개의 장 구분을 통해 각 사업별 변천과 현황, 나아가 주요 성과와 향후 전망을 기술하였다. 부록에서는 연표를 비롯해 주요 수상 내역, 조직도, 연도별 기본 연구 목록 등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 표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의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적용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 및 사업명 등 일부에 한해서는 한글맞춤법 표기안에서 벗어난 표기법도 적용되었다.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만, 억, 조 등의 보조단위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탄생하기까지

1994년 12월, 정부는 국립교육평가원 폐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약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 기간에도 새로운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못했다. 결국 1997년 초에 이르러 그해 말까지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1997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동년 8월 22일 제 184회 임시국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법률 제5344호)’이 공포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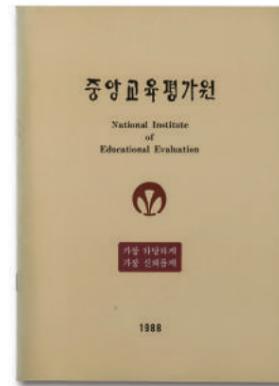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당시 최초의 청담동 청사

01 중앙교육평가원 설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태는 1985년 8월 12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분리 개원한 ‘중앙교육평가원’이다. 당시 중앙교육평가원은 문교부(文敎部, 현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초·중등학교의 학력평가 및 각종 고사를 전문적으로 연구·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기존의 대입관리 업무는 중앙교육연수원이 맡았으며, 그 밖의 입시 업무는 지역교육위원회가 맡았는데,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 연수도 겸하고 있어 대학입시 관리와 평가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각종 선발시험 시행과 함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기 학력평가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선을 목표로 중앙교육평가원을 출범시켰다.

중앙교육평가원은 설립 첫해 기존 중앙교육연수원의 평가 업무 담당인원 56명에 32명을 추가하여 총 88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향후 1991년까지 총 191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정부는 1985년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교육평가원 직제안을 의결하고, 원내 정원을 88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36명은 기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명은 대한민국학술원 및 예술원 사무국에서 각각 충원받아 운용하기로 했다.

조직 구성은 당초 차관급으로 하려던 원장을 1급으로 정하고, 기구도 5부 1과 20실로 구성하려던 계획을 축소·조정해 3부 1과 13실로 결정하였다. 또한 고사운영부, 기획부, 출제관리부 등 3개 부 가운데 1개 부의 편제는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2개 부는 대학교수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1988 중앙교육평가원 기관 소개 책자

02 평가 업무의 점진적 확대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중앙교육평가원은 1985년 9월 11일 현관식을 갖고 정식으로 관련 업무에 착수하였다. 사무공간은 임시로 중앙교육연수원 3층에 마련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기 옥 초대 원장은 1985년 9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개원 후 중앙교육평가원은 초·중·고교 과정의 학력평가를 위해 각급 학교 전 교과에 걸쳐 단일별 교수학습 목표를 세분화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각종 시험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은행을 운영하여 적절한 문제를 적립·활용해 나간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중앙교육평가원은 설립 첫해에 대입학력고사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이듬해인 1986년부터 국비유학시험, 자비



1996~1997 국립교육평가원 요람

유학시험, 특수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 등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등을 출제하는 등 업무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이와 함께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교육평가원은 해당 업무도 함께 관장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9년 12월 12일 독학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과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중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해 원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조직, 인력 및 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앙교육평가원 내에 국가학위관리부를 신설하여 학위 취득시험의 출제, 관리 및 국가학위 수여 외에도 독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학위과정 관련 자격증의 학력 인정,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1993.09.24 국립교육평가원 청담동 청사 이전 기념 헌판식



이에 따라 중앙교육평가원은 1990년 교양과정 인정시험, 1991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1992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등을 차례로 시행했으며, 1993년에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시행함으로써 한국 교육 사상 처음으로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였다.

03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중앙교육평가원은 1992년 3월 28일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였으나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부터 국립교육평가원의 구조조정과 민간이양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교육과정 개발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평가 업무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맡고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4년 12월, 정부는 국립교육평가원 폐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약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 기간에도 새로운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못했다.

결국 1997년 초에 이르러 그해 말까지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1997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동년 8월 22일 제184회 임시국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법률 제5344호)’이 공포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두 번째 청사가 되었던 삼청동 청사 모습



연혁화보

한눈에 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1998
2003

위기를 넘어 교육과정·교육평가
사업의 영역을 넓히다 2004
2007

질 높은 교육 연구, 신뢰받는
교육평가 사업을 수행하다 2008
2010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으로
거듭나다 2011
2014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KICE로 도약하다 2015
2018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1998-20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과 개원 1998.01.01

1997년 12월, 우리원은 유관 업무의 인수인계와 청담동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새롭게 출범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 기간 동안 기존 국립교육평가원의 기능 이관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부로 국립교육평가원은 폐지되었다.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상정하고, 제184회 임시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22일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9월 1일에는 기관의 정식 설립을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다. 개원 초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인력 구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 업무 이관의 일환으로 연구직 36명, 일반직 11명 등 47명을 특채 형식으로 우선 채용하였으며, 연구직 26명, 일반직 23명 등 49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1998.03.27

우리원은 출범 직후 이해찬 교육부 장관, 김윤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장을 비롯한 교육계 주요 인사와 일선 학교의 교사, 학부모 등 약 500명이 참석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립 기념 세미나를 통해 우리원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9년도 시무식 1999.01.02

1999년은 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원의 조직 또한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당시 정부부처 소속의 모든 출연연구기관이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변경되는 변화를 맞았으며, 우리원의 조직 또한 원장과 비상임감사를 포함한 3본부 1국 2실 체제로 축소되었다.



삼청동 청사 이전 1999.06.14

우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담동 청사보다 충분한 업무 공간을 갖춘 새로운 청사 확보가 절실했다. 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끝에 우리원은 과거 중앙교육연수원 자리인 삼청동에 새롭게 업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초대 박도순 원장 퇴임 2000.12.31

우리원 설립 당시부터 설립준비기획단장을 맡았던 박도순 초대 원장이 퇴임하였다. 개원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원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쏟은 시기였다. 한편, 처음으로 주관했던 1999학년도 수능에 있어서도 고사관리본부를 설치, 이를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와 진행으로 수능 업무에 대한 역량을 대내외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 탐색 세미나 2001.02.23

우리원은 2001년 2월 23일,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 김상권 차관 등 교육 관련 인사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최사는 김성동 원장이, 축사는 김상권 차관이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원은 주제 발표, 분과별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KICE-TLC) 설치·운영 및 웹사이트 개설 2003.06.20

2002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수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원은 중앙단위 교수학습센터로서 2002년 7월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설치하고, 2003년 6월 교수학습 전문사이트인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KICE-TLC)'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원의 연구역량과 현장의 실천력을 연계하여 현장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교수학습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제2대 김성동 원장 취임 2001.01.01

초대 박도순 원장의 퇴임에 따라 제2대 김성동 원장이 취임하였다. 김성동 원장은 조직의 안정적 기반과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 우리원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3대 이종승 원장 취임 2002.09.14

2002년 9월 14일 이종승 원장이 취임하였다. 이종승 원장은 우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신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연구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제4·5대 정강정 원장 취임 2003.12.24

정강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을 이끌어 나갔다. 그 결과 우리원은 조직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을 도모하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원은 이 기간 동안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통한 실무역량 활용 중심의 인력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직무 중심의 중견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실무형 핵심인재의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위기를 넘어 교육과정·교육평가 사업의 영역을 넓히다 2004-2007

우리원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그리고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과 연구의 질 개선 노력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04학년도 수능 복수정답 인정으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2004년 148명이던 우리원의 정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개선을 위한 꾸준한 전담인력의 증원과 맞물려 2005년 173명, 2006년 186명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 예산상 정원과 직제상 정원을 조정한 결과 17명이 증원되어 203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의 점진적 구축과 국제 협력 활성화의 노력, 웹진 발간을 비롯한 홍보 기능의 강화와 함께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4년 사무식

2004.01.02

우리원은 2004년 원장과 비상임감사를 포함하여 2차 4본부 1국 1센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5년에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미래 대응력을 갖춘 조직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기존의 2차 4본부 1국 1센터 체제를 유지하되 혁신 마인드 조성을 위하여 기획처를 기획혁신처로 변경하였고, 기획혁신처 내에 혁신관리부를 운영함으로써 전 부문에 걸친 혁신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5학년도 수능 시행관리 개선을 위한 세미나

2004.06.16

2004학년도 수능에서 복수정답 문제가 제기되어 위기를 겪게 된 우리원은 이를 계기로 2004년 1월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를 신설하였으며, 하부 조직으로 시행관리부와 출제관리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기획분석부, 출제연구부와 함께 4개 부서로 재편하였다. 한편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고사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였다.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05.01.03

2005년 1월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이 구축되어 실제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원은 그룹웨어를 구축하여 기존 대면결재로만 이루어지던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온라인 문서철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인사·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수업 방법 및 수업·평가 자료 공모전 시상식

2005.01.20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가 안정적으로 확립된 2005년 이후에는 계속과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부문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 교수학습연구본부에서 수행한 기본과제는 2002년부터 시작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KICE-TLC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연구'를 비롯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 '수업 평가기준 개발 연구' 등의 계속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초등 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한·영 국제 학술세미나

2005.02.26

2005년 2월 26일, 우리원은 초등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한·영 국제 학술세미나를 주한영국문화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국제 학술대회를 추진하였다.



미국 ETS와 MOU 체결

2005.08.10

우리원은 2005년 8월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ETS와 상호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SAT와 토플, 토익 시험 등을 개발·시행하는 평가 전문기관으로 당시 교류를 통해 문제은행 개발과 평가기준, 평가 기법, 자료 분석 등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평가 체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세미나

2006.09.22

우리원은 개원 8주년을 맞아 '교육평가 체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핀란드,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 교육평가 전문가와 국내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학업성취도, 대학입학 시험제도, 문제은행, 영어인증제도 등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연계 방안 협의회

2005.06.29

EBS 강의와 대입시험을 연계하여 출제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가 부각되던 2004년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수험생이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 모색 차원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주한영국문화원과의 MOU 체결

2005.09.22

우리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교류협정을 체결한 기관들과 활발히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주한 외국공관과의 교류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독일, 영국, 칠레, 프랑스, 호주 등의 공관과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과 동시에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과 새롭게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제11회 한국어능력시험

2007.04.22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연 1회 실시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연 2회, 매년 4월과 9월 셋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이 실시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대학(원) 입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수험자들이 시행 횟수 증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연 2회 시험을 모두 시행하였으나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의 경우 두 번의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 1회의 시험을 시행하였다.



질 높은 교육 연구, 신뢰받는 교육평가 사업을 수행하다 2008-2010

우리원은 2008년부터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을 경영정보 중심으로 개선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선임 연구원들이 신입 연구원들을 멘토링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정보시스템 및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 수능 체제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하기도 하였다. 한편,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및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시행 등 국가고사 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기존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타당성을 제고하며 국가적인 평가 사업에 있어서도 공신력을 갖춘 평가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갔다.

제6대 김성열 원장 취임

2008.05.16

2008년 5월 16일, 제6대 김성열 원장이 취임했다. 김성열 원장이 취임한 2008년에는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구조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였다. 가장 큰 변화로는 연구실 직제를 신설한 것으로 이러한 조직 개편은 연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집중적인 연구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개원 10주년 기념식

2008.08.21

2008년 8월 21일, 우리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전 직원들의 참여 아래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치러진 이 행사에는 박도순 초대 원장을 비롯하여 과거 평가원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

2008.09.26

우리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존에 교류를 이어오던 호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해외 유관기관 연구자를 초청하여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교교육 선진화를 위한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2009.06.30

우리원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KICE 정책포럼에서 '학습부진학생과 학교교육의 현실, 그리고 개선의 방향'과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방향 탐색'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2009.09.29

2009년 7월 24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이 발표된 후 우리원은 이를 기반으로 발의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9월과 11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으며 우리원에서는 '국가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시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KICE-EBS MOU 체결

2010.03.10

수능과 EBS 연계 정책은 2010년 3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KICE-EBS 간 MOU를 체결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10년 수능-EBS 연계 정책은 70%라는 구체적인 연계율이 제시되어 내실화되었고 EBS 수능강의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다양해졌다.



2010 Korea-OECD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2010.10.22

우리원은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주최로 '국제화와 외국어 능력'이라는 주제로 '2010 Korea-OECD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핀란드 교육에 관심이 고조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핀란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모형안 공청회

2009.09.30

2008년 12월 시작된 기초연구를 통해 우리원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모형 및 문항지침을 개발하고, 예시문항 및 점수 체계를 설계하였다. 나아가 예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8월에는 '2011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진행하였다.



정동 청사 이전

2010.04.01

우리원은 청담동에서 삼청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지 10년째인 2010년에 다시금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원은 2010년 1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이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10년 4월 정동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다.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으로 거듭나다 2011-20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년 12월 26일, 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직속부서를 마련해 원장의 통솔 범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며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관리시스템(RIMS)을 도입하였으며, 선도적인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강화 등 보다 내실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갔다. 이 밖에도 수능 문항 오류 예방 노력과 이미지스캐너 도입 및 보안 강화를 통해 무결점 수능을 위한 다양한 강구책을 펼쳐 나갔으며, 국가고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국가고사 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임용시험 사업의 전문화와 연구에 기반한 검정고시 사업을 수행해 나갔다.

제7대 성태제 원장 취임

2011.03.16

성태제 원장은 취임 이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선도하는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방향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 선진적 교육평가 방법을 적용한 연구,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대안 제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현대화 등이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공개 토론회

2011.05.26

2012년 수시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기존의 독해, 문법, 듣기 위주의 학교 영어교육을 말하기와 쓰기를 동시에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으로 바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존의 함축형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은행 기반 출제 방식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 국가수준 시험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시험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2013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성취평가제 시행을 위한 중학교 교과 핵심교원 연수

2012.04.03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원에서는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정착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중학교 핵심교원, 중학교 현장지원단의 워크숍을 통해 단위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성취평가제 안착을 지원하였다.



2012년 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상 및 우수기관장상 수상

2013.05.07

우리원은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기관 평가에서 '장려기관상' 및 '우수기관장상'을 수상하고 이어 2012년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상' 및 '우수기관장상'을 수상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연구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수능-EBS 연계 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

2013.08.20

수능-EBS 연계 정책은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후 해당 정책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KICE-EBS 간 MOU를 체결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선연적 의미였던 수능-EBS 연계 정책은 이후 보다 내실화되어 갔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관심과 비판 속에서 해마다 개선되었다.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평가 개선 방안 탐색 세미나

2013.10.16

우리원은 2009년에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2009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지원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잠시 유보되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 핵심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제8대 김성훈 원장 취임

2014.04.11

2014년 4월 11일, 제8대 김성훈 원장이 취임하였다. 김성훈 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교과서 검정 체제 타당성 진단 연구 등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우리원과 인연을 맺어왔다. 취임식 당일에는 초대 원장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개원 15주년 기념 행사

2013.08.21

2013년 8월, 우리원은 설립 1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그간의 노고와 성과를 되짚었다. 또한 개원 15주년 기념 단행본인 '2020년 한국 초·중등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2013년 8월 21일 발간하여 정부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MOU 체결기관, 국회 등에 배포함으로써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및 정립과 더불어 효과적인 확산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시연 및 세미나

2013.12.03

우리원은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서답형 문항의 한국어 답안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단어·구 수준의 답안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채점 전문가를 돕는 지원도구로서 채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우리원은 2014년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검정고시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세미나

2014.11.07

2012년 인재선발관리센터에 연구직 2명이 배치되면서 우리원은 검정고시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단순히 검정고시 문항을 출제하는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정고시 제도 및 출제 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검정고시 제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였다.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KICE로 도약하다 2015-2018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교과서 연구를 비롯하여,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 연구, 형성평가·과정 중심 평가·수행평가 연구 등 교육평가 시스템의 진화를 통해 보다 역량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또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수능 체제 운영 방법을 모색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정·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나아가 2018년에는 신청사 이전과 함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9대 김영수 원장 취임

2015.04.10

우리원의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영수 원장은 2017년 6월까지 임기를 이어나갔다. 김영수 원장은 충북 진천 신청사 착공 등 우리원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다지기도 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교육평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갔다.



2015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공동 워크숍

2015.05.18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UNESCO 회원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급 대표들이 모여 '교육 2030: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을 향하여'라는 인천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부대행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UNESCO 방콕이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연계의 의미와 목적'이란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OECD 20주년 기념 국제 교육콘퍼런스

2016.03.10

우리원은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국제 교육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PSA와 PISA-D 연구에 기반한 글로벌역량과 학습의 질 제고'라는 주제로 글로벌역량, 세계시민교육,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사회에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토의하기도 하였다.



2015년 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상 수상

2016.05.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우리원은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종합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다. 우리원은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비 경감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국가고사 관련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사업 시행 간의 환류를 활성화하여 국가고사 안정화 및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캄보디아 PISA-D 출범식

2016.05.30

우리원은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우리원은 OECD PISA-D 프로젝트에 2015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를 확정된 캄보디아의 멘토 국가로서 PISA-D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캄보디아의 교육 환경에 맞춘 학습성과 및 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1회 KICE 연구성과 발표회

2016.11.24

우리원은 2016년 11월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에서 우리원은 학교, 관계기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보다 현장에 기반한 실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OECD 국제 세미나

2017.11.29

우리원은 2017년 11월, 교육부와 함께 '미래의 우수한 교육시스템 창조'를 주제로 2017 한-OECD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OECD 사무국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약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학생의 성취도 및 웰빙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의 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혁신도시 신축청사 착공식

2016.09.06

우리원은 2013년 12월, 신축청사 이전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하였다. 충북혁신도시에 건설될 신축청사는 우리원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합리적이고 독창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침내 2016년 9월, 우리원은 착공식을 가지고 개원 20주년을 맞는 2018년에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10대 성기선 원장 취임

2017.10.31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한 성기선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 교육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교육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청사 개청식

2018.04.04

우리원은 2018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자료실 이전을 시작으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부서별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고, 2월 5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우리원은 4월 4일 충청북도 진천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년의 발자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우리원은 지난 20년 동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수능, 교사임용시험 등 각종 국가 고사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출제·관리해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공교육 발전에 앞장 서고 있다. 신청사를 충북 진천에 마련하고 20주년을 맞은 우리원은 앞으로도 교육현장과의 소통 및 지역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1세기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다.

제 1 장 •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1998 2003

제 2 장 • 위기를 넘어 교육과정·교육평가 사업의 영역을 넓히다 2004 2007

제 3 장 • 질 높은 교육 연구, 신뢰받는 교육평가 사업을 수행하다 2008 2010

제 4 장 •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으로 거듭나다 2011 2014

제 5 장 •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KICE로 도약하다 2015 2018

1998

제1장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2003

제 1 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제 2 절 • 기관 운영 기반 조성

제 3 절 • 연구의 체계적 토대 구축

제 4 절 •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체계 개선

제 5 절 • 국가고사 관리 업무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제 1 절

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제정

02 설립준비기획단 발족 및 활동

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제정

(1)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정부는 1994년 12월 3일,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1998년 1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설립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새로 출범할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태동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평가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구상한 새로운 기관의 역할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었다. 즉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물론, 학교평가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 기능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우리원은 설립 단계부터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한 전 영역을 모두 관장함으로써 새로운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고 개정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개발센터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의 초기 구상은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국립교육평가원과 같은 동종 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다각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조정되었다. 우선 새로운 기관을 기존의 관련 기관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설립할 것인지, 통합해 설립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독립적으로 설립할 경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존 기관을 발전시켜서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새 기관의 기능 중에서 고등교육 평가와 관련된 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초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상은 대학교육 평가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할 경우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까지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대학교육협의회와의 기능 조정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교육개혁위원회는 기관평가와 학교평가를 한 기

관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복수의 기관이 수행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우리원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 설립 방안의 확정

국립교육평가원의 폐지 결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고도 새 기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되지 않자 교육부 일각에서는 국립교육평가원을 존치해야 한다며 폐지를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1997년 말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여러 논의 과정 속에 1997년 5월 마침내 새 기관의 설립에 대한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설립 방안은 당초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것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며, 이때 확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새 기관의 설립 방향

- ① 새 기관은 공무원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형태가 바람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맡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육평가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 ③ 학교평가나 대학평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므로 핵심기능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설립 방안을 토대로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후 제184회 임시국회의결 과정을 거쳐 동년 8월 22일 공포(법률 제5344호)하였다. 우리원의 설립이 비로소 가시화된 순간이었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정부 제안의 주요 내용

-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학업 성취기준 및 성취도 평가 도구의 개발,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시험의 관리,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



1997.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 관련 교육부 발행 책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왜 필요한가?



1997.06.27~07.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에 관한 국회 회의록

함(안 제7조)

- 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학력평가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정함(안 제12조)
- 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⑥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시험 시행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직원과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학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3조)

02 설립준비기획단 발족 및 활동

1997년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같은 해 9월 1일, 기관 설립을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다. 설립준비기획단은 초대 원장을 맡게 될 박도순 전 국립교육평가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크게 행정 부문의 준비를 맡은 ‘총괄준비반’과 연구·개발 부문의 준비를 맡은 ‘연구기획반’으로 구성되었다. 기획단의 인력은 단장 외에 교육부와 국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기획단 조직

구분	소속기관	직책	성명	
단장	국립교육평가원	원장	박도순	
총괄준비반	반장	교육부	과장	배우창
		교육부	행정사무관	고기동
		교육부	행정주사	손윤선
		교육부	기능직	양미경
		국립교육평가원	교육연구관	박수형
		국립교육평가원	행정주사	박상석
		국립교육평가원	행정주사보	황상실
		한국교육개발원	경리부장	양배희
연구기획반	반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최석진
		교육부	장학관	김영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유균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이양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김재춘
		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남명호
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양길석		

교육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참여한 16명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기획단은 서울 서초동 소재 교육부 산하 대한민국학술원 3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정관과 직제 및 규정 마련, 인력 채용, 기존 유관기관 업무 인수 등 개원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진행하였다.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은 1997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개원 초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유경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우리원은 한국교육개발원 업무 이관의 일환으로 연구직 36명, 일반직 11명 등 47명을 특채 형식으로 우선 채용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직 26명, 일반직 23명 등 49명을 공개 채용하였는데, 당시 IMF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취업난의 영향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수의 지원자가 몰려 선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편 1997년 12월 중순 경에는 정관, 보수규정, 복무규정, 예산제도 등 제반 규정과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국립교육평가원 청사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양 받아 업무 공간 역시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원의 얼굴인 심벌마크와 로고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정했는데, 이 시기에 우리원의 영문 명칭이 ‘KICE(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로 확정되었다.

이후 1997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유관 업무의 인수인계와 청담동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수대상 업무는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업무 및 설립준비기획단의 설립 추진 업무 등이었다. 이 기간에 기존의 국립교육평가원의 기능 이관이 모두 완료되면서 1997년 12월 31일부로 ‘국립교육평가원’은 폐지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롭게 출범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마침내 1998년 1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우리원은 사무실 재배치와 제 규정의 이사회 심의 처리,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각종 기기 정비 및 자료 정리, 홍보유인물 제작 등 안정적인 업무 추진 여건을 마련한 뒤 1998년 1월 24일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이명현 교육부 장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비서관, 김종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정희경, 박범진, 서한샘, 설훈 위원, 유인중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1998.05.30 최초 규정집



1998 개원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로고



1998.03.27 창립 기념 세미나

교육부 관계자, 이영덕 전 총리를 비롯한 유관기관 기관장, 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여 우리원의 창립을 축하하였다.

이날 박도순 초대 원장은 개원식사를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명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력 극대화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력 있는 한국인, 경쟁력 있는 국가 동량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교육의 내용·방법·평가의 방향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등 교실 개혁에 앞장섬으로써 교육 개혁을 완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이렇듯 의욕적으로 출범을 알린 우리원은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국가 공통 절대평가 교과별 기준 개발’, ‘과정별 선택교과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개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제3차 수학·과학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 개선 연구’, ‘정서·실기 관련 교과의 평가 방법 개선 연구’ 등 6개 과제를 개원 첫해의 사업으로 선정·추진하였다.

특히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 27일에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김윤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장을 비롯한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학교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원은 설립 동기와 개원의 의미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과 각종 학력평가에 관한 연구·개발의 산실로서 교육 연구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교육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1998.03.27
이해찬 교육부 장관 방문

창립 기념 세미나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우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창립 기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원은 이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인력 충원의 보류, 예산 삭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 및 사업의 기반을 충실하게 다져나갔다.

> 창립 기념 세미나 주제

제1주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연구·개발의 방향

- 발표 : 김재복(인천교육대학교)
- 토론 : 함수곤(한국교원대학교), 윤병희(숙명여자대학교)

제2주제

우리나라 교육평가 연구·개발의 방향

- 발표 : 허형(중앙대학교)
- 토론 : 이종승(충남대학교), 변영계(부산대학교)

제3주제

교육과정 및 평가 관련 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향

- 발표 : 허경철*(한국교육개발원)
- 토론 : 김철연(신림고등학교), 장석우(인천전문대학)

허경철* | 1998년 9월 1일부터 우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

기관 운영 기반 조성

제 2 절

01 조직 구성과 삼청동 청사 마련

02 인사 및 평가 체제 정비

03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04 기관 홍보 및 주요 간행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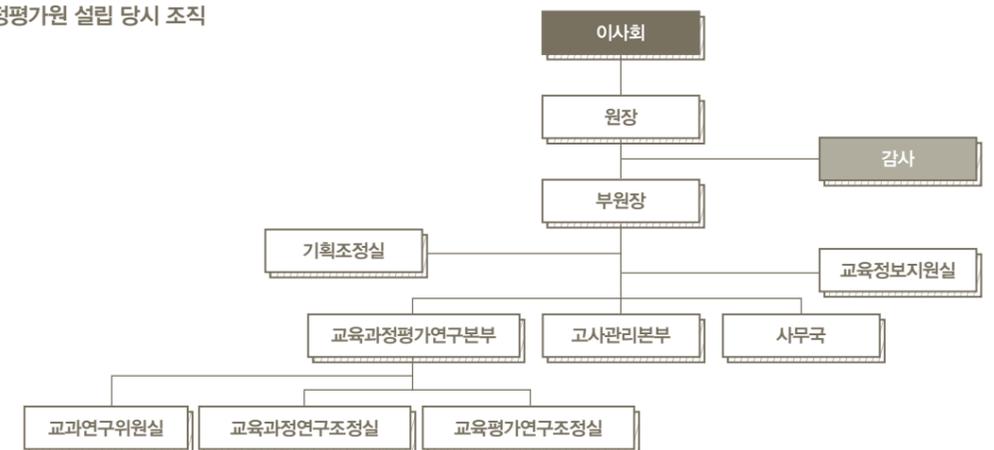
01 조직 구성과 삼청동 청사 마련

(1)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조직 구성의 변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추진 당시 이사회와 원장, 상임감사, 부원장과 기획조정부, 교육과정개발부, 학업성취기준개발부, 학력평가부, 고사관리부, 사무국, 정보자료센터 등 5부 1국 1센터의 조직을 갖추기로 계획되었다. 아울러 우리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약 27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설립 당시 조직은 이사회와 원장, 상임감사, 부원장과 기획조정실,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 및 교과연구위원회실, 교육과정연구조정실, 교육평가연구조정실, 그리고 고사관리본부, 사무국, 교육정보지원실 등 2본부 1국 5실 체제로 구성되었다. 인력 정원 역시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14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마저도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제 인원은 110명에 그쳤다. 또한 1998년 하반기에 추가로 부원장과 29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던 계획도 정부의 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당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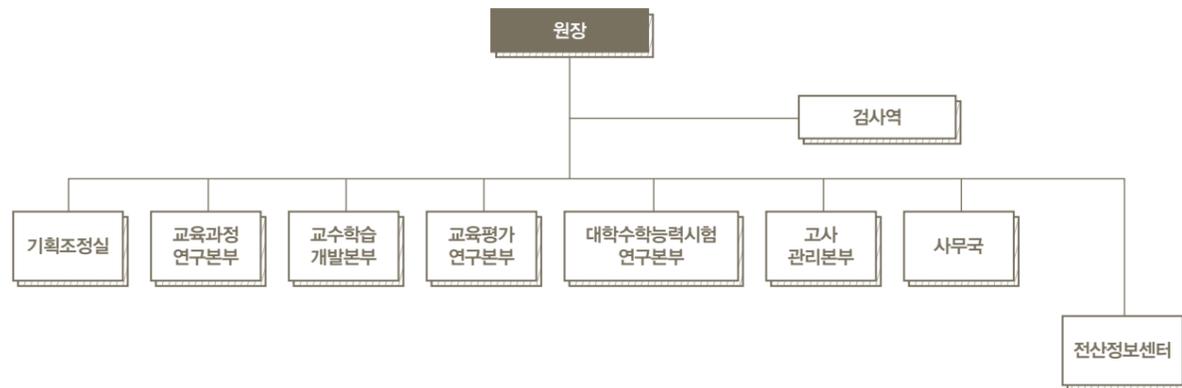
1999년에는 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원의 조직 또한 큰 변화를 겪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당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정부부처 소속의 모든 출연연구기관이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은 폐지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우리원의 이사회와 상임감사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 아래에 있던 교과연구위원실, 교육과정연구조정실, 교육평가연구조정실 등 3실이 폐지되고,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는 교육과정연구본부와 교육평가연구본부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우리원의 조직은 원장과 비상임감사를 포함한 3본부 1국 2실 체제로 축소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3본부 1국 1실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서 편찬 및 검정 업무 수행을 위해 교과서연구본부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교육과정연구본부와 교육평가연구본부를 통합하여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가 만들어졌다. 이후 2002년 우리원의 조직은 1국 6실 체제로 변경되었다.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와 교과서연구본부가 교육과정평가연구실, 교과교육연구실, 교수학습특임연구실 등 3개 실로 변경되고, 고사관리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출제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연구실과 각종 고사를 관리하는 고사관리실 등 2개 실로 변경되었다. 그 밖에 전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부를 설치하였다.

2003년에는 '실' 체제를 '본부' 체제로 다시 환원하여 5본부 1국 1센터 1실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획조정실과 교육과정연구본부, 교수학습개발본부, 교육평가연구본부,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 고사관리본부 등 5본부 및 사

200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직도



2000.12.29 초대 박도순 원장 취임식



2001.01.02 제2대 김성동 원장 취임식



2002.09.14 제3대 이종승 원장 취임식



1998.01~1999.06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사



1999.06~2010.04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사

무국 체제를 갖추었으며, 전산정보부를 전산정보센터로 격상시켰다. 이와 함께 비상임감사를 보좌하고 기관운영과 회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역을 신설하였다.

한편 정원은 2001년까지 설립 당시의 140명을 유지하다가 2002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보다 안정적인 출제 및 관리를 위해 153명으로 증원되었다. 110명 내외로 유지되던 현원도 2002년부터 140명 수준으로 증원되어 연구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삼청동 청사 이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과 동시에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옛 국립교육평가원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종로구 삼청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청담동 청사는 기관의 성장세에 비해 사무실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공간을 갖춘 새로운 청사 확보가 절실했고, 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로부터 옛 중앙교육연수원 자리를 새로운 업무 공간으로 배정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당시 경기도 파주에 건립 중이던 감사원 연수원과 삼청동 청사의 상호 교환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우리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삼청동 청사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1999년 6월 14일 모든 이전 작업을 완료하였다.

02 인사 및 평가 체제 정비

(1) 인사관리 및 평정을 위한 기반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당시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및 성과에 기초한 연봉제와 성과급을 선도적으로 도입·시행해 왔다. 직원 임용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기관의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채용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우수인력 확보 및 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채용 역시 실시하였다.

직원평정 체제에서도 상위자평가 외에 하위자평가, 동료평가 등 설립 초기부터 다면평가제와 부서장 평정점수에 대한 조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우리원은 설립 첫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계약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용계약 기간의 경우 최초 1년으로 설정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3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국민 고충분담 차원에서 정

부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원도 1998년 임원은 5%, 직원은 4% 감액된 수준에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퇴직금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했으며, 명예퇴직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1999년은 업무평정 결과에 의한 연봉제를 정착시킨 시기이기도 했다. 우리원은 평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 상하 간 상호평정을 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신규채용 시 특별채용을 축소하고 공개채용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직은 1년, 일반직은 6개월로 되어 있던 시보기간 또한 직종 구분 없이 1년으로 통일하여 신규직원의 적격심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정년 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원의 정년시한인 근무 상한연령을 연구위원 이상 및 일반직 2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책임연구원 이하 및 일반직 3급 이하(기능직 포함)는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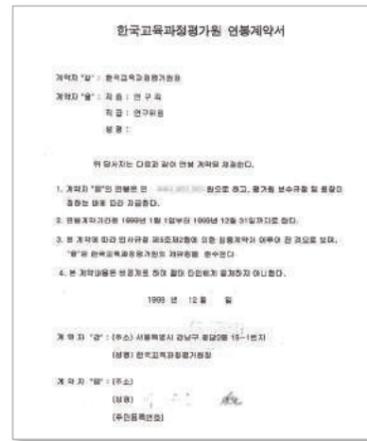
(2) 평정 체제의 대대적인 개선

2000년에는 연구원의 원외 활동에 대해 전체 근무평가의 5%를 새로 반영하도록 하고, 질 평가의 비율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최종보고서만 질 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연구계획서와 중간보고서도 포함시켜 질 평가의 내실을 다졌다. 원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하위직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연구위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노사협의회의 노측 추천위원 2인을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원은 2003년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공정한 평가 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평가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인사사고에 반영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평가 체제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직원평가 체제 주요 개정 내용

- 근태평정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기본평정에서 제외하고 감점제를 채택
- 하위자평정을 1·2차로 구분하고 동료평가의 개념으로써 관련자평정을 도입
- 부서장 간 평정점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평정점수의 조정 방법을 도입



1998.12 초기 연봉계약서



ID카드의 변천

- 연구원별 과제 수의 형평을 고려하여 초과수행한 과제의 가산점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
- 승진 결정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100% 반영하던 것을 90%로 축소하고 현 직급 경력 10%를 추가

03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1) 전산 업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당시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채점 관련 전산장비를 인수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전산정보 환경은 열악했고, 채점 업무 인수뿐만 아니라 전산인프라 및 전산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했다. 이에 우리원은 1998년 5월 기관 웹서버용 장비(Compaq proliant 3000) 2대를 도입하고, 6월 29일부터 인트라넷(메일, 전자계시판)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 1일에는 기관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경리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Compaq proliant 1600)와 이메일시스템을 위한 장비(SUN Enterprise 450)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점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 주전산기 장비(IBM S80/RS6000)로 교체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원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채점 성적처리 업무에 있어 신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채점 장비로는 채점 DB용 주전산기 외에도 답안지 판독 처리용 서버(LG netfinity 5000), 성적 및 통계처리용 서버(Compaq DL760, IBM X440) 등을 보유하여 채점 및 성적처리 업무의 전문성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우리원은 단순한 성적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서 산출되는 각종 연구자료를 DB화하고, 최신 정보화 기술을 이용해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추진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관련 연구를 체계화하여 연구보고서, 교수학습 자료, 연수자료 등 각종 연구결과물을 DB화하였고,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시험의 기출 문항 등 각종 교육정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DB화해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우리원의 정보화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사용자 폭주로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서버 운영 및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 우리원은 원내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전산자원의 재

배치와 활용,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장비 도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전산인프라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독립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도 구축하였다. 자체 구축한 시스템 12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원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20여 대의 시스템을 통해 전산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관련 인프라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2) 네트워크 구축

전산인프라 구축은 우선 청사 내부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원은 1998년 6월 12일 LAN 구축을 완료하였다. 당시에는 대국민 서비스 비중이 크지 않아 전용회선 속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결되어 T1급(1.544Mbps) 전송속도를 확보했다. 이어서 1999년 6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종로구 삼청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자료실, 전산실, 채점 작업 공간을 확충하고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함에 따라 전용회선 전송 속도는 E1급(2,048Mbps)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우리원 홈페이지에 연계된 각종 콘텐츠 및 국가고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원내 접속이 계속 증가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전후한 접속 폭주 시기에는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서비스 성능 향상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결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전용회선 속도도 E1급 속도에서 T3급(45Mbps)으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각종 통신 장비(라우터, CSU, 백본 등)를 T3급으로 새롭게 도입·구축하였다.

이후 우리원은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의 진행과 함께 각종 네트워크 전산장비들을 신규로 도입하였고, 신기술을 접목한 기능 고도화 작업을 병행하면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환경을 갖추 수 있었다.

(3) 각종 DB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용

우리원의 초기 홈페이지는 주요 연구 및 사업을 홍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었다. 이후 1999년부터 내부에서 생산한 연구보고서, 자료집, 세미나자료 등 각종 연구 산출물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는 1999년과 2000년 2차에 걸쳐 대학 도서관 및 학술 연구기관의 상호 대차 서비스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교육평가, 국가고사 관련 연구 등 각종 연구 결과를 DB화하고, 자료실의 각종 자료를 Web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문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각종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웹사이트 확대 구축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정보유통시스템의 장기적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과정·평가 DB 구축 설계를 문서화하였다. 2000년에는 교육과정 평가 DB시스템의 질 관리 및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정보 DB 개발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1년에는 교육과정·평가 DB시스템, 인터넷 회원제 운용, 국가고사 등 검사 관련 자료 DB 구축 등 KICE 웹사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와 함께 각종 DB의 구축·보완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 유관기관과의 정보 통합 검색시스템을 운영하였다.

2002년에는 구축된 KICE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질 관리와 더불어 각종 DB시스템의 수정·보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관련 자료 DB,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자료 DB, 한국어능력시험, 고입·고졸 검정시험,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모의평가 등 각종 검사 관련 자료의 DB 수정 및 통합시스템과의 연동을 이루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원은 이후 여러 차례 웹사이트 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사용자 중심의 웹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갔다.



199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기 홈페이지



1998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1998 기관 홍보 국·영문 브로슈어

04 기관 홍보 및 주요 간행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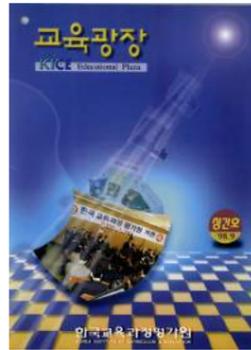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개원 당시 대외협력부를 출범시키면서 홍보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원은 개원 초기부터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관 이미지 제고 활동을 비롯하여 연구 산출물 및 홍보 출판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원은 개원 직후인 1998년 5월 20일 기관 홍보와 관련된 3개의 간행물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기관의 홍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지를 연 2회 100쪽 300부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으며, 교육과정·평가 분야의 학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지와 기관의 사업추진 실적을 기록하기 위한 연보를 각각 매년 12월에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원내 공모를 통해 기관지의 이름을 ‘교육광장’으로, 학술지의 이름을 ‘교육과정평가연구’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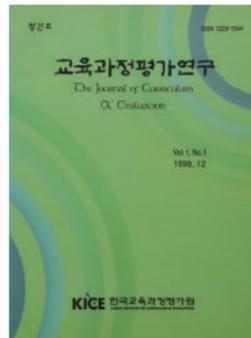
‘교육광장’은 우리원이 중심이 되어 교육에 관한 여러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1998년 9월 1일 36쪽 분량으로 창간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0년부터 교육광장의 발행 횟수를 연 4회로 늘려 계간지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발간 지면도 100여 쪽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발행 부수도 매년 늘려 2002년 봄호부터는 1만 3,000여 부를 발행해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와 사범대 및 교육대학 등에 발송함으로써 교육현장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지로 발전시켜 나갔다.

‘교육과정평가연구’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 논문의 발굴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되었으며, 우리원은 1998년 12월 창간호를 낸 후 매년 500부씩 발행해 교육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후 교육과정평가연구는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 체제로 확대·개편되었고⁰¹⁾, 게재 논문의 엄격한 질 관리와 학술지 발간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2005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교육 전문 학술지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보하였다.



1998.09 교육광장 창간호



1998.12 교육과정평가연구 창간호

01) ‘교육과정평가연구’는 2009년 연 3회, 2016년에는 연 4회로 발간 규모가 확대되었다.

연구의 체계적 토대 구축

제 3 절

01 연구 기획 업무의 체계 정립

02 교육과정·교과서 연구의 내실화

03 교수학습개발센터 출범과 웹사이트 개설

04 교육평가 연구과제의 확장

01 연구 기획 업무의 체계 정립

설립 이후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 기획 업무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과제 선정, 과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연구 전반에 적용하고자 했다. 먼저 과제 선정을 할 때 수요자, 특히 연구과제의 수요자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고객 요구조사와 수혜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우리원 연구과제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단계에서 연구기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과제 선정 및 과제의 완성도 제고에 활용하였다.

효과적인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서는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우리원은 자체적인 연구관리지침을 만들고 이러한 지침이 잘 시행되도록 ‘연구노트’와 ‘행정업무편람’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 후 활용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연구 계획 단계(실행계획서), 중간 단계(중간보고서), 최종 단계(최종보고서) 등 세 차례에 걸쳐 일정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과제의 질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 공개심의회를 마련하고, 평가단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연구 기획 업무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원은 연구 기획 및 수행 체계를 제도화하고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했다. 따라서 우리원은 연구과제의 개발 및 선정 과정에서 전 연구원의 공동 사고 기회를 확충하려는 노력도 함께 전개하였다. 원내 전공별, 부서별 과제 선정 협의 기회를 확대하고, 과제 제안과 발굴이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연구 의지와 역량을 반영한 과

제 발걸음을 유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 기획 업무가 체계화되면서 우리원은 연구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기관 정체성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과제 배분의 합리성, 산학연 협동 연구 수행 등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우리원은 이러한 외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02 교육과정·교과서 연구의 내실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관에 제시된 주요 기능의 하나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과 동시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검·인정 업무를 지원해 왔다.

먼저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한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지침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사업과 교과용도서의 관리, 그리고 관련 연구사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에도 힘썼다.

(1) 교육과정 연구의 기반 조성 및 내실화 추진

우리원의 교육과정 연구는 1997년 12월 30일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1998년 새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주요 개정 사안인 수준별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적용과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는 교육과정 및 평가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초등학교 1, 2학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단계적인 교육과정 지원 연구를 기본과제로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의 후속 조치 연구로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는 수탁과제로 계속 수임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각 교과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해당 분야 연구는 주요국의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 개정 방식 등 교육과정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살펴 유의미한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



1998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2000 제7차 교육과정 설명자료

가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2001년부터 시작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 및 적용 지원 체제, 편성·운영·평가 등 7차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 차원의 연구들이었고, 연구 결과는 후속 연구로 확장되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수시적, 부분적, 지속적 개정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다.

교과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 수학, 사회과부터 시작해 매년 교과를 추가하면서 차기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각 교과 내용 체계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축적하였다.

2001년에 시작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는 질적 접근을 바탕으로 2년 동안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을 분석하여 좋은 수업 사례를 도출하는 등 교과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개선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2003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예·체능계 교과에 대한 평가 체제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고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설립 초기에 수행한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연구나 현장 지원 연구로부터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의 기초자료 산출 연구,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생생한 실증자료의 도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다각적인 교과서 정책 지원과 교과서 연구 기반 조성

가. 교과서 개발

우리원의 교과서 연구 역시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교과서 개발 연구는 2002년까지 학년 및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교과용도서 체제 개선 연구’를



2001 교과별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실적(1998~2002년)

학교급별		1998~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초등학교	실험본 교과용도서	44책	150책	12책	-
	정본 교과용도서	22책	36책	136책	12책
중학교	교과서	-	14책	-	-
	청각자료	-	14종	-	-
고등학교	교과서	-	16책	24책	-
	청각자료	-	-	16종	-

통해 매년 실험본 및 정본 개발 과정을 기술한 연구 결과물이 5년차까지 산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과 각 과정에서의 주요 원리, 쟁점 사항 및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원은 교과용도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차기 교과용도서 개발에 대한 발전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나. 교과서 검정

우리원은 2000년부터 중학교 1학년 교과용도서 25종의 검정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진행된 검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체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검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업무는 2001년에 중학교 2학년 교과용도서 20종과 고등학교 기본교과 20종, 일반 선택과목 29종, 전문교과 9종의 교과용도서 검정이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중학교 3학년 20종,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 68종의 교과용도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2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용 인정도서를 심사하였다.

다. 교과서 정책 연구

교과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우리원은 1999년 과목별로 적정한 교과용도서 수준을 제안하는 '2종 교과용도서 과목별 적정 합격 중 수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0년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로 '교육과정·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을 대상으로 교과서 발행 및 편찬제도, 심의제도, 공급 및 채택제도를 고찰·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하여 국정제를 점차 축소하면서 검정제와 인정제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라.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 및 공급

우리원은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제교육진흥원(현 국립국제교육원)의 위탁을 받아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서 매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9년 시청각자료 2종을 포함한 6종 7책 개발을 시작으로 이후 2007년까지 매년 수준별 한국어 및 회화 지도, 한국 문화와 역사 소개



1998 귀국학생 중학교 교과별 교사용 지도서

를 위한 책자와 오디오테이프, VTR, CD 등 각 언어권별로 총 37종 45책에 달하는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2002년에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도 수행하였다.

03 교수학습개발센터 출범과 웹사이트 개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3월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수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수학습센터는 중앙-시·도-학교 간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기구였다.

이와 같은 체계 속에서 우리원의 역할은 중앙단위 교수학습센터 운영 주관, 교수학습 연구 및 자료 개발·질 관리, 교사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교육 연구 활동 지원, 교수학습 전문사이트 운영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원은 2002년 7월 조직 개편 및 인력지원을 통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 연구기관,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 나갔다.

교수학습센터 네트워크 조직도



우리원은 중앙단위 교수학습센터 역할의 일환으로 온라인상에 교수학습 전문사이트인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 KICE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웹사이트를 2003년 6월 구축하였다.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수학습 자료의 질 관리 및 공유 체제 기반을 구축하여 자료지원의 중앙센터 역할을 확립하고 전국 현장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사를 위한 총체적 장학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센터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KICE-TLC는 중앙단위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 전문사이트로서, 우리원의 연구역량과 현장의 실천력을 연계하여 현장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교수학습 자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채널로 구성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KICE-TLC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연구물, 자료, 평가 문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 교육 연구 유관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의 주요 활동



2007 당시 KICE-TLC 웹사이트

04 교육평가 연구과제의 확장

1998년 개원 당시 교육평가 연구과제의 기본방향은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의 강화', '교육 프로그램 평가 수행', '교육평가에서 컴퓨터의 활용',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의 전환' 등이었다. 이 중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의 전환은 학생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질적평가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우리원은 1998년 교육평가 부문에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1998년도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 개발 연구'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우리원은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평가 체제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국립교육평가원에서 1987년부터 수행해 온 성취도 평가는 1998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질 관리 체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제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수준을 파악하고 각국의 교육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 비교 연구도 시작되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과거 국립교육평가원에서 1990년 초부터 수행해온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주관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관련 과제를 1998년부터 수행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주관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PISA는 OECD가 산출하는 교육지표 체제의 한 부분인 교육산출지표를 조사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등의 소양을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 개발 연구'를 통해 교육평가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9년에는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를 비롯하여 7개의 기본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1999년에는 한 개의 연구과제로 수행해온 TIMSS와 PISA를 각각 분리하여 독립 연구과제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에는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각 교육 영역에서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와 국가 교육 과정에 근거한 평가 현장 적용 연구가 수행되었고 교육과정·평가 DB 구축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1999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성취수준 설정을 위한 협의회 자료



2001 PISA 2000 평가 결과 분석 연구

2000년에는 총 8개의 기본과제가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 연구가 처음 도입되어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IEA가 주관하는 교육정보화 국제 비교 연구(SITES; Second Information Technology in Education Study)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에서의 ICT 활용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KICE 심리검사 도구 개발 계획 및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교육 및 심리 분야에서 필요한 검사 도구 개발 연구도 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우리원에서 총 9개의 교육평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연속과제인 국내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이외에도 평가도구 개발 과제와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평가도구 개발 과제로는 '사고력검사 개발 연구(I)',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 개발 연구(II)', '초등영어 교수 능력 신장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로 2001년 교육평가연구본부에서 수행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교육과정연구본부에서 수행하였다.

2002년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수행한 과제는 총 7개로, 이 중에서 국제 정보화 연구인 SITES는 연구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02년부터 중단되었다.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는 이 시기부터 시행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시행 시기도 연말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2년은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 사고력검사,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 등 각종 검사와 도구 개발이 활발하게 수행된 시기였다.

2003년부터는 주로 국내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과제에 집중하여 총 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는 2003년부터 과제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성취도 평가 연구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로서 교과를 집중교과와 기본교과로 나누고, 그해 집중교과의 경우 기본교과에 비해 두 배의 문항을 개발하고 학생 및 설문조사 내용도 강화하여 집중교과에 대한 성취도와 교육맥락변인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8년에 설정했던 주요 연구 방향의 하나인 검사 개발은 2003년부터 연구 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2003 2003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설문지



2003 2003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수행평가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체제 개선

- 01 고사관리본부의 설치와 첫 수능 업무
- 02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팀 구성
- 03 수능기획분석부 및 수능연구개발부 신설
- 04 수능 관련 연구과제 수행

01 고사관리본부의 설치와 첫 수능 업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설립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1998년 1월 1일 우리원 설립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우리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8년 9월 1일 전 국립교육평가원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기관 내에 고사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 고사관리본부는 크게 고사기획부와 고사운영부로 구성되었다. 고사기획부에서는 수능출제본부 개설과 시행 등의 업무를 맡았고, 고사운영부에서는 수능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사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수능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 나갔다.

우리원에서 처음으로 주관한 1999학년도 수능은 1998년 11월 18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0개 시험지구, 828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시자는 83만 9,837명이었다.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마침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시험으로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수리, 탐구 영역Ⅱ에서 선택과목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각 수험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치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 표준점수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원은 설립 이후 첫 수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향후 수능 업무 진행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우리원은 첫 수능 실시 이후 수능 담당 조직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였다. 먼저 2001년 1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정보실이 폐지되면서 교육정보실에 속해 있던 전산부를 고사관리본부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우리원의 고사관리본부는 기존의 고사기획부, 고사운영부와 함께 전산부를 포함한 3부 체제로 개편되었다.



1999.03.30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1999.11.10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앙감독관 회의

02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팀 구성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처럼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 75점을 목표로 하였으나 채점 결과 평균점수가 84.2점으로 나타나 소위 '물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영역별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1~2명을 출제위원에 참여시키고, 수험생이 기존 유형에 익숙한 점을 감안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출제 난이도 조정 업무를 위해 우리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팀(이하 수능특임팀)'을 구성하였다.

수능특임팀이 구성되기 이전에는 고사관리본부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 집행, 출제위원 구성, 문제지 인쇄 및 배부 등 시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제 업무는 전담 연구원 없이 시험일이 다가오면 일시적으로 연구원을 구성해 출제위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수능의 중장기 방안은 물론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능특임팀은 연구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방식이었으며, 주요 업무는 오른쪽 표와 같았다.

하지만 수능특임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했으며, 출제 방향에 대한 공통인식도 미흡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을 느낀 우리원은 2002학년도 수능의 평균점수 목표치를 과거와 같은 단일 수치 대신 77.5±2.5점이라는 범위 기준으로 잡았다. 소수점까지 밝힌 것은 수능특임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했던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났고, 점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01년 11월 9일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출제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위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02학년도 수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질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우리원의 수능특임팀 운영이 장기적으로 수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03 수능기획분석부 및 수능연구개발부 신설

수능 난이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정 난이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대책 방안은 상시 연구·관리 전담기구 설치, 계약제 재택 출제제도 운영, 파견교사제도 운



2001.11.07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기자회견

> 2002학년도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팀 주요 업무

- 기출 문항의 각종 양호도 분석
- 수험생의 학력수준 파악
 - 응시자 특성 파악
 - 2002 학업성취도 결과 분석
 - 각종 모의평가 자료 수집·분석
 - 현장교사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 난이도 경향 분석
 - 계열별 경향 분석, 영역별 경향 분석
 - 배점 조정과 점수 변화 분석
- 난이도 조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영역별 출제지침 및 워크숍 자료 개발



1995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영, 모의평가 시행, 출제위원 증원 및 현장교사 비율 확대, 출제 과정 개선, 표집채점 결과 발표, 보안 대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대책에 따라 우리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팀을 상시 연구·관리 전담기구인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연구실(이하 수능특임연구실)'로 변경하였다. 수능특임연구실에는 수능기획분석부, 수능연구개발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수능관리부와 함께 3부 체제를 갖추었다. 수능특임연구실의 인력은 연구직 27명, 행정직 4명, 전산직 3명 총 34명으로 구성되었고, 원서접수, 출제, 채점 기간에는 타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 활용하도록 했다. 수능특임연구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연구실의 기능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채점 관리, 시험 결과 분석
- ② 대입제도 연구, 새로운 유형 문항 연구 개발, 모의평가 실시
- ③ 국내외 각종 대입 및 학력고사 출제 문항 자료 수집·결과 분석·정리, 문항 DB 구축 관리
- ④ 민원 처리, 각종 위원 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정 난이도 대책 방안에 따라 우리원은 2002년 9월 3일 수험생이 전국적인 능력 분포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2002년 7월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국어, 일반사회, 생물, 지구과학,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과목교사 7명을 파견 받았다. 이러한 파견교사 제도는 수험생의 수준을 고려한 출제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수능특임연구실 체제는 2002년 12월 30일 연구 효율 및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부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수능특임연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로 개편되었으며, 본부 내에는 기획분석부, 출제연구부, 수능관리부의 세 부서가 편제되었다.

04 수능 관련 연구과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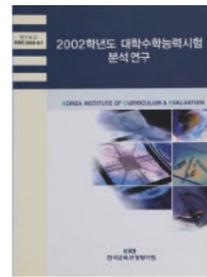
개원 초기 고사관리본부 체제 아래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시행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우리원은 수능이 끝나면 별도의 연구팀에서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수능과 관련된 그 밖의 연구도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해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표준점수제를 도입함에 따라 2001년 우리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Q&A'를 개발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립 초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설립 초기 수능 관련 연구과제(1998~2001년)

시기	기본과제
1998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보고 및 분석 방안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기 발전 방안 연구
1999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연구 • 언어·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 •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출제지침 개발 연구
2000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연구 • 언어·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
2001년	•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 제2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을 위한 문항 개발 •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 개선 연구

수능 관련 연구과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2002년부터였다. 우리원은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체제 개선의 일환으로 고사관리본부에서 수행하던 수능 사업을 수능특임연구실로 이관하였고, 수능특임연구실이 연구본부로 개편되면서 본부 차원에서 기본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05학년도 수능의 출제·시행 관리에 관한 연구와 각 영역별 문항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수능과 관련하여 수행된 기본과제는 다음과 같다.



2002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연구본부 체제 확립 이후 수능 관련 연구과제(2002~2003년)

시기	기본과제
2002년	•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방안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기관 개원 세미나) •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 개선 연구 • 제2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을 위한 문항 개발
2003년	•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 체제 개선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 관리지침 개발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

이 시기에는 기본과제 외에도 기관 자체 연구비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원서 개발 연구’, ‘문항 난이도 추정 모형 개발 연구’, ‘재수생과 재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비교 분석’ 등 3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이들 과제에는 타 부서 소속 연구원도 참여하였다.

국가고사 관리 업무 수행

제 5 절

01 검정고시 및 고입선발고사

(1)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고사이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원 이후 검정고시 출제, 인쇄 및 시험지 배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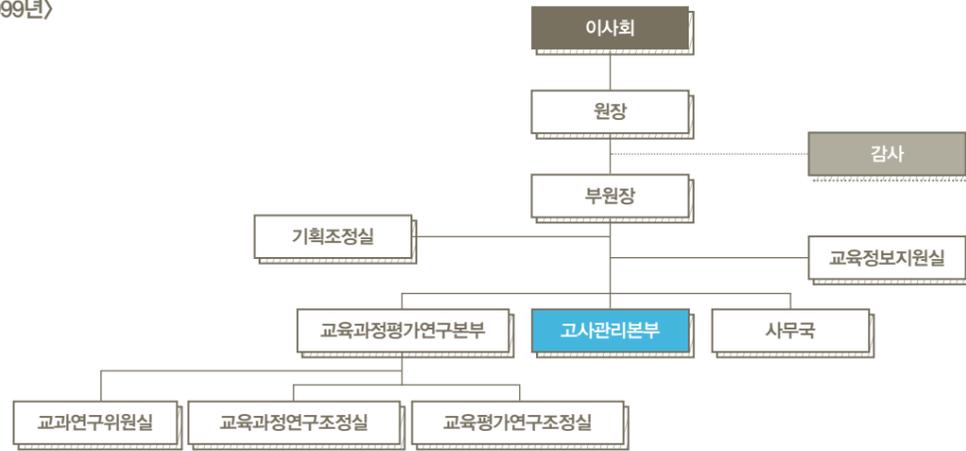
우리원에서 검정고시 출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로, 당시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고입자격·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위탁받아 출제한 것이 그 시초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의 명칭은 변하였지만 우리원은 2017년 현재까지 검정고시 출제 및 인쇄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첫 업무를 진행했던 1999년에는 전담 주체 없이 ‘고사관리본부’에서 일종의 TF팀을 구성하여 검정고시 출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연구 조직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우리원은 그동안 축적된 출제위원단 구성, 출제본부 운영 등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고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출제 문항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2013년부터 전문조직인 임용시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우리원은 검정고시를 더욱 안정적으로 출제 및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항 오류 시비, 행정소송,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고 없이 검정고시 출제 및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검정고시 위탁 업무

국가고사명	위탁기관	시행 개시	위탁 근거
고입자격·고졸학력 검정고시(1회, 2회)	16개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1999년 2월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고등학교 졸업학력자격 검정고시 규칙 • 검정고시 출제 업무 수탁 요청 • 교육부 학총1742-986(1998.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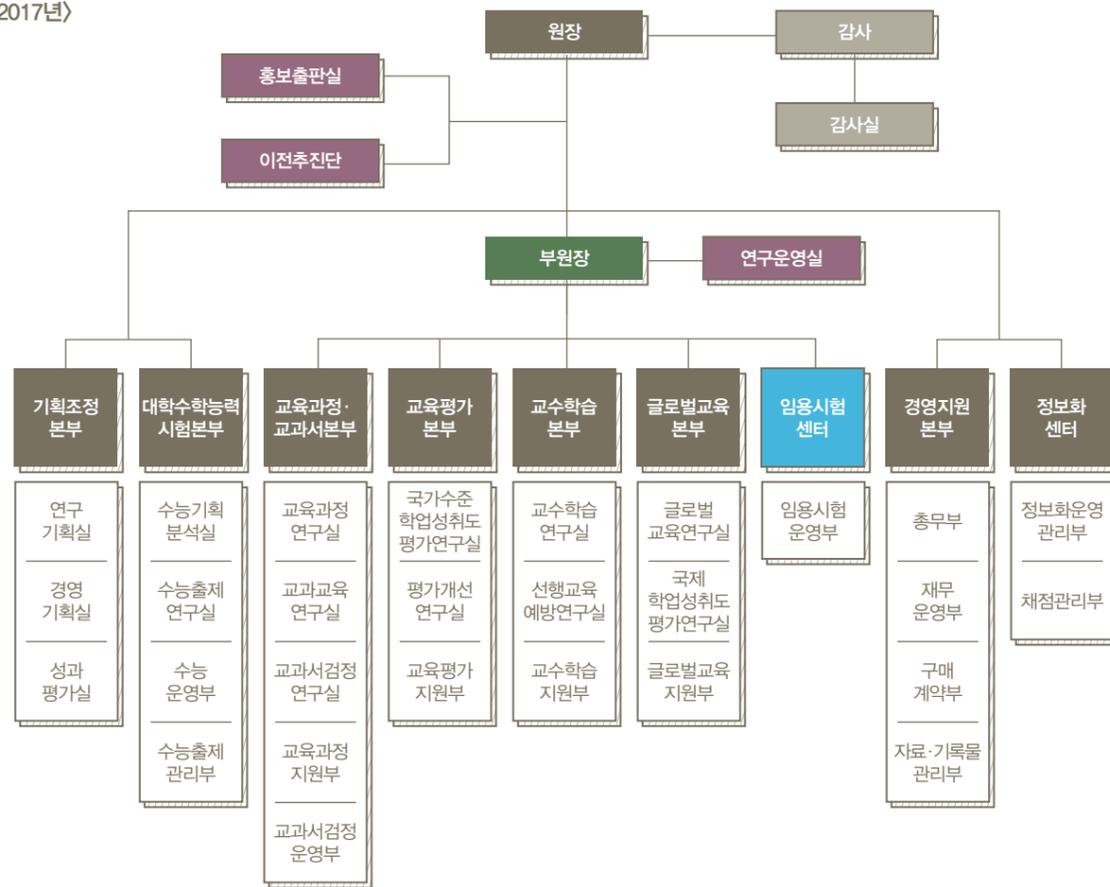
검정고시 담당 조직의 변화

<1999년>



※ 고사관리본부 안에 검정고시 담당 상근 연구원 부재

<2017년>



※ 임용시험센터 내 졸업학력사업단(검정고시) 담당 기본 연구과제 연구원 4명 근무



1998~2002 고입선발고사 출제업무요람 책자

(2) 고입선발고사

고입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우리원은 1999학년도 고입선발고사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 고입선발고사까지 약 20여 년간 시·도교육청(공동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고입선발고사 출제를 시행해 왔다.

고입선발고사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닌 이해력과 사고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양질의 문항 출제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고입선발 전형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입선발고사를 국가고사에 준해서 출제해왔다. 사실 고입선발고사는 매년 시험을 실시하는 시·도교육청에 차이가 있어 시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제위원단의 변화 및 관리 업무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원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고입선발고사의 기반을 견고화하였다.

고입선발고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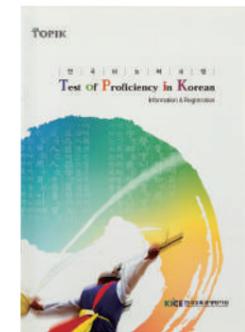
구분	1999학년도	2018학년도
출제본부 개설 기간	1998.11.25 ~ 12.15	2017.12.08 ~ 12.22
참가 교육청	8개 교육청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3개 교육청 (울산, 경북, 제주)
출제위원단 규모	출제위원 39명 포함 총95명	출제위원 47명 포함 총143명
출제 과목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전 학년 필수 11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음악, 기술·산업, 가정, 영어 (단, 체육은 경기도에서만 시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전 학년 필수 9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미술, 음악, 기술·가정, 영어 (단, 음악, 미술은 경북, 제주도에서만 시행)
문항 형태	객관식 5지 선다형	객관식 5지 선다형

※ 2019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2018학년도 고입선발고사(2017년 시행)를 마지막으로 우리원의 고입선발고사 출제 업무는 종료되었음

02 한국어능력시험

(1) 한국어능력시험의 탄생에서 우리원 이관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영문 명칭은 제9회 시험까지 'KPT(Korean Proficiency Test)'라고 불리었으나, 발음하기 어렵고 친근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6년 제10회 시험부터 'TOPIK'으로 불리게 되었다. 응시자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한국어 숙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2006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홍보 브로슈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도구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원할 때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고, 1997년 10월 제1회 시험이 시행되었다. 제1~2회 한국어능력시험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위탁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종 국내의 학술연구사업을 주관하는 재단 특성상 시험을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제2회 시험 시행 이후 한국어능력시험을 발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의 이관이 추진되었고, 적임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되어 1999년 제3회 시험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원은 국가수준의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필요한 경험 및 전문인력, 문항 개발 및 분석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이후 한국어능력시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한국어능력시험(KPT) 개요

명칭 한국어능력시험(Korean Proficiency Test)

평가 목적

- 한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 한국어교육기관의 연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방법을 표준화한다.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의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 학습 및 국내외 대학에의 유학, 기업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응시 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나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자, 또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자

등급 체계 6등급제(등급별 문제 사용)

평가 영역 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영역

문항 유형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의 혼합형, 주관식 문항의 비율은 초급은 10% 이내, 중급은 20% 이내, 고급은 30% 이내로 함

시행 횟수 연 1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기 이전의 최초 시험 개요이며, 우리원으로 이관된 후 영문 명칭, 등급 부여 방식, 문항 유형, 시행 횟수 등이 크게 변화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1998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의 발자취 通 史



1999 제2회 한국어능력시험(KPT) 문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제 1 장

국가고사 관리 업무 수행 제 5 절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국가 및 응시자 수 (1997~2003년)

구분	시행 국가 수	응시자 수
1997년	4개국	2,274명
1998년	6개국	2,663명
1999년	8개국	3,445명
2000년	9개국	4,850명
2001년	10개국	6,049명
2002년	10개국	7,306명
2003년	13개국	1만 416명



2003 제5회 한국어능력시험(KPT) 문제

(2)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과 확대

한국어능력시험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국내의 시행기관에 대한 시험관리를 총괄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관리기관으로서 시험 시행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 처리지침 제작 배부, 시험문제 출제, 문·답지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통지표 및 인증서 배부 등을 담당했다.

우리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수준 시험으로서의 공신력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양적 확대 및 질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실제로 1997년 실시된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4개국 14개 지역에서 2,274명이 응시하는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으나, 우리원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1999년에는 8개국에서 3,445명이 응시하는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2003년에는 13개국 1만 416명이 응시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주관기관이 우리원으로 바뀐 이후에는 시험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었다. 먼저 평가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평가 내용 및 목록을 상세화하였고, 시험이 시행된 후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수험자 분포와 특성 등에 주목하고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 방식과 문항 유형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어능력시험 체제가 안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초급 수준의 하향 조정이었다. 시행 초기에는 초급 수준이 너무 높아 국외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 어려운 수험자들의 학습 의욕을 좌절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6회 시험 이후로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수준은 하향 조정하고, 최종 단계인 6급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 5급과 6급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03 교사임용시험 및 교육전문직시험

(1) 교사임용시험

교사임용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한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험으로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국·공립 사범교육기관 졸업생을 우선 임용하던 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공개경쟁시험이다. 교사임용시험은 각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출제되다가 1996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출제관리를 담당하게 되었

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999년부터 초등교사임용시험, 2001년부터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출제관리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교사임용시험 문항의 출제 범위는 해당 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자이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기초·필수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우리원은 채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해결하였고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조정을 통해 출제 및 채점 과정의 문제들을 최소화하였다. 우리원은 교사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면서 기관의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였고, 고도의 출제·채점 관리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2) 교육전문직시험

교육전문직시험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우수한 교육연구사를 선발·배치할 수 있는 타당성 및 신뢰도 높은 전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전문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우리원은 1999년부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로부터 교육전문직시험을 위탁 받아 출제와 채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총 3차 전형으로 시행되는 교육전문직시험에서 1차 서류심사와 3차 심층면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였고, 2차 전형인 필답고사의 출제와 채점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였다. 우리원은 우수 교육연구사에게 요구되는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 추리력, 응용력 등 고등정신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필답고사 문제를 출제하였고, 공정하게 채점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공하였다.

04 기타 국가고사 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검정고시, 한국어능력시험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고사를 관리하였으며, 이러한 국가고사를 관리하기 위해 오른쪽 표와 같은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리원은 이러한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적용하여 각종 국가고사를 관리하였다.



2002 중등교사임용시험 관리, 출제, 채점 매뉴얼

> 국가고사의 전략적인 발전 방향

- ①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 : 특정 학연, 지연, 혈연, 학파, 이념 등에 얽매이거나 편중되지 않는 출제를 지향하며, 특히 문제 암시나 유출 등의 보안 대책, 채점 시 채점자들의 비도덕 행위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신뢰성 강화
- ② 고객만족 지향적 관리 : 국가고사 시행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응시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응시자들의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국가고사 관리에 환류시킴으로써 고객인 응시자의 만족도 제고
- ③ 고사관리 중심 상시체제 구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가고사별로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활용

> 국가고사 사업 기간

- 교육전문직시험 : 2001~2007년
-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 : 1998~2011년
- 국비유학생선발시험 : 1999~2009년

(1)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고사이다. 과학기술 연구자가 병역 의무로 인해 학문적으로 질 높은 연구·개발 성과 산출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을 실시하였다.

우리원은 1998년부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을 전기(2월)와 후기(8월) 연 2회 시행하였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관리기관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합격자 사후관리를 담당하였고, 우리원은 시행계획 수립, 출제 및 인쇄, 시험 실시, 채점과 결과 통보를 수행하였다.

(2) 국비유학생선발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은 우수인력에게 지속적인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해외유학을 통해 외국의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습득·전수받은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인기 학문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은 1999년 2월 국제교육진흥원(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우리원으로 위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험은 필기시험을 통해 다양한 전공과목의 전문지식과 국가관, 창의력, 발전가능성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평가 분야에 고도로 전문화된 기관이 아니면 출제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원은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쌓아 온 출제 업무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2004

제2장

위기를 넘어 교육과정·교육평가 사업의 영역을 넓히다

2007

제 1 절 • 수능 출제관리 체제의 강화

제 2 절 •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원 기능 보강

제 3 절 • 연구 업무의 안정과 확장

제 4 절 • 국가고사 관리 업무의 확대

제 5 절 • 국제 협력 업무의 활성화

수능 출제관리 체제의 강화

제 1 절

01 복수정답 파동과 기관의 위기 극복

02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강화

01 복수정답 파동과 기관의 위기 극복

(1) 수능 역사상 첫 복수정답 인정

우리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으나 2004학년도 수능에서 뜻하지 않게 '복수정답' 문제가 제기되어 위기를 겪게 되었다. 당시 문제가 된 문항은 배점 2점짜리 언어 영역 짝수형 17번 문항으로, 백석의 시 '고향'과 그리스의 미노타우로스 신화를 지문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각 구성 요소들과 전체 작품 구조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출제진은 제시된 시의 '나(북관)-의원-고향'이 <보기>의 '테세우스(미궁 밖)-미궁의 문-비밀의 방'과 일치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이 문항의 정답을 '㉓ 미궁의 문'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11월 7일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최 모 교수가 우리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7번 문항 복수정답 파동이 시작되었다. 그는 시의 화자가 '의원'을 통해 정신적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테세우스'도 '실'을 통해 고향 아테네로 돌아가며, <보기>의 '미궁'은 괴물 세계, '실'은 괴물 세계로부터 친근한 세계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 때문에 정답은 '㉓ 실'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겨레신문이 이 주장을 보도하면서 복수정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되었고, 우리원 홈페이지에도 ㉓번 역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원에서는 출제위원의 답변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3인의 현대시 전공 교수의 자문의견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면서 대응에 나섰으나 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8일 공신력 있는 학회에 17번 문항의 정답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11월 20일 한국국어교육연구회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원 5명: ㉓이 정답, 그 중 2명은 ㉓가 정답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움, 위원 1명: ㉓가 정답, 위원 1명: ㉓과 ㉓ 둘 다

정답”이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받았다. 자체적으로 개최한 수능자문위원회에서도 복수정답과 단수정답이 6:4 정도로 같았고, 결국 우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24일 17번 문항의 정답이 둘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이후 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였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안

복수정답 인정 이후 시위, 국민감사 청구, 소송 등의 후폭풍이 뒤를 이었다. ③번을 선택한 학생들은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시위를 가진 뒤에 복수정답 인정 경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⑤번을 선택한 수험생들도 수능 사후처리 절차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들이 청구한 국민감사가 받아들여져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 특별감사 결과 우리원의 관련 책임자 10여 명이 징계되었고, 수능 등 평가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도록 권고 받았다.

③번을 선택한 수험생 449명은 우리원을 상대로 복수정답 인정행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17번 문제는 ‘유사한 기능’이라는 용어 앞에 아무런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평균적인 수험생들로서는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라며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 460명은 이듬해 우리원 원장을 상대로 복수정답 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7월 8일 “시의 특성상 백석의 시 「고향」에서 ‘의원’과 <보기>의 ‘실’이 아무런 기능적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유사성에 관해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후 우리원의 사후대응 방식과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관해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화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허용된 판단 여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여러 판결을 통해 수능 17번 문항의 논란은 가까스로 종결될 수 있었다.

복수정답 사건을 계기로 우리원은 2003년 12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개선을 위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이 기획단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위원



2003.11.25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수정답 관련 보도기사



2004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홍보자료



2004.06.16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 개선을 위한 세미나

선정개선위원회’, 총리실 정책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체제개선위원회’ 등 민관합동의 2개 분과위로 구성되었다. 동 기획단은 3개월여의 작업 끝에 2004년 3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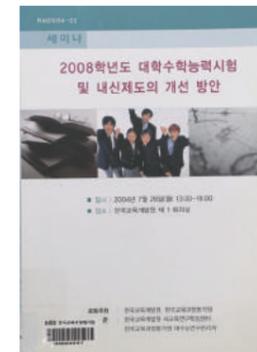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안

- 출제위원 선정 풀(pool) 확대 및 다변화
- 출제위원 검증시스템 강화
- 문항 출제 체제 개선
- 문항 검토 체제 개선
- 이의제기 처리 절차 개선
- 2005학년도 수능 시행·관리 체제 개선

이와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3년 12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능지원단’을 파견받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의 협조기구로 운영하였다. 단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 수능지원단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 지원, 응시수수료 결정, 시·도교육청 협조 관련 업무 수행,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지원,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각종 언론보도 대응,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 확정과제 추진 점검 및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어서 우리원은 2004년 1월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를 신설하였으며, 하부 조직으로 시행관리부와 출제관리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기획분석부, 출제연구부와 함께 4개 부서로 재편하였다. 한편 2004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복수정답을 계기로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고사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였다.

02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강화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함께,



2004.07.26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내신제도의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EBS에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수능강의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새로운 대입제도인 수능의 문제 유형이 너무 낯설어 학교현장에서도 학습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 수능 방송은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생·교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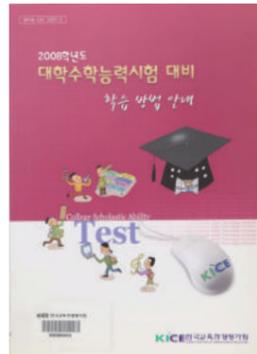
이와 같이 EBS 강의와 대입시험을 연계하여 출제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가 부각되던 2004년이였다. 이 무렵 사교육비 문제는 가계경제를 위축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교습 단속 행위에 대해 '과의 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교육 시장은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이에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를 민생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EBS 수능강의를 수능 출제에 연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EBS 강의를 활용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단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가 2004년 4월 1일 시작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EBS 인터넷 수능강의 서비스 역시 제공되었다.

EBS 방송 및 인터넷 강의 내용을 수능 출제에 참고하는 데 따른 비판도 있었으나, EBS 방송의 공공성, 즉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이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 모색 차원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 방송·인터넷 강의 연계의 효율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2007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 방송·인터넷 강의의 연계를 위한 문항 유형 개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2005.06.29 수능-EBS 연계 방안 협의회



200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안내 자료집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원 기능 보강

제 2 절

01 조직의 안정화와 조직 규모의 확대

02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03 국제 협력 활성화와 홍보 기능의 강화



2003.12.26 제4대 정강정 원장 취임식

> 혁신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

- ① 공개채용 방법의 개선
- ② 예산 배분의 효율화와 제안제도의 활성화
- ③ 직원평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책임 경영 정착
- ④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인력풀 정보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서비스 혁신
- ⑤ 혁신 교육의 강화로 원내에 혁신적 분위기를 조성

01 조직의 안정화와 조직 규모의 확대

(1) 조직의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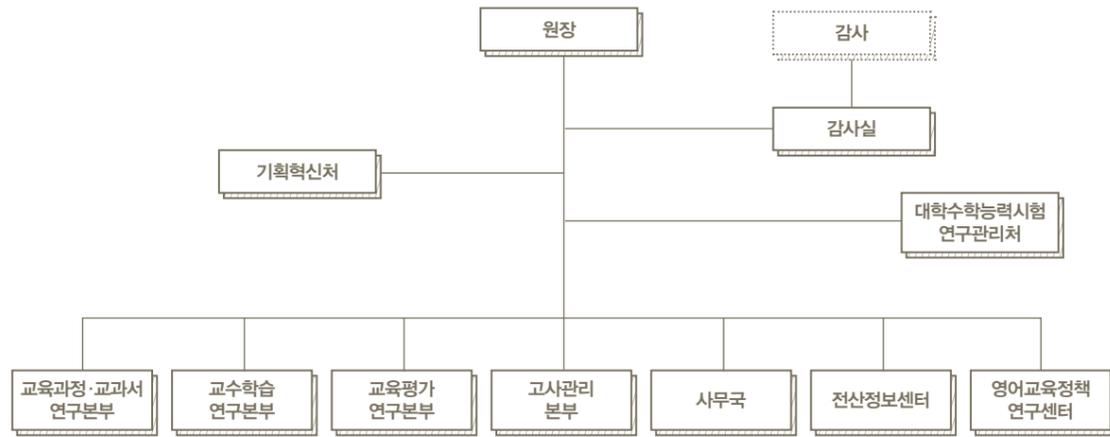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대 정강정 원장 취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위기 극복에 나섰다. 조직 측면에서 기존의 '실' 체제를 다시 '본부' 체제로 환원하고 기획조정실은 기획처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로 격상하여 수능의 출제관리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우리원은 2004년 원장과 비상임감사를 포함하여 2처 4본부 1국 1센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5년에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미래 대응력을 갖춘 조직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기존의 2처 4본부 1국 1센터 체제를 유지하되 혁신 마인드 조성을 위하여 기획처를 기획혁신처로 변경하였고, 기획혁신처 내에 혁신관리부를 운영함으로써 전 부문에 걸친 혁신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원은 원족 표와 같은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나갈 수 있었다.

또한 우리원은 2005년 교과용도서 개발·검정 사업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본부의 명칭을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로 변경하였으며 교수학습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본부를 교수학습연구본부로 변경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감안한 하부 조직의 업무 조정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 구축 연구의 효율화 및 집중화를 위해 문제은행연구부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국가고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고사기획부 및 고사운영부를 고사운영1부와 고사운영2부로 각각 개편하여 고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였다.

2006년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정부의 영어교육 혁신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를 신

200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직도



설하고 2차 4본부 1국 2센터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는 영어교사의 양성·선발·연수 개선 방안과 영어 평가 방식 개선 등을 연구하고 향후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의 변화를 통해 영어학습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교육 영어교육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07년 우리원은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를 더욱 책임성 있게 수행하고자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 내에 교과용도서 검정 전담부서인 교과서평가연구부와 교과서검정운영부를 신설하고 전체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를 주관할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전체 조직 체계의 근간을 재정비함으로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변화하는 대내외 교육 환경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 인력 증원 등 기관 규모의 확대

정강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외적으로 실추된 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을 이끌어 나갔다. 그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직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을 도모하게 되었다. 2004년 148명이던 정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개선을 위한 꾸준한 전담인력의 증원과 맞물려 2005년 173명, 2006년 186명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 예산상 정원과 직제상 정원을 조정한 결과 17명이 증원되어 203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3월에는 연구원 직급을 조정하여 선임연구위원은 수석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은 선임연구위원으로, 부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전문연

구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각각 격상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연구 인력 확충은 각종 연구사업 및 기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 조직 운영과 기관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정강정 원장의 기관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원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통한 실무역량 활용 중심의 인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간부직급의 비율은 축소하고, 직무 중심의 중견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실무형 핵심인재의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02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개원 초기부터 여러 업무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실무에 적용하였다. 1999년 2월에는 경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자체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웹 방식의 인사·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시스템은 내부 전산부서에서 시스템 디자인, D/B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우리원의 전산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자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원은 2003년부터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 개발에 착수하였다. 우리원은 인사·회계관리시스템으로 행정 업무 간소화 및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업무 처리 통합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정보시스템(MIS)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본 업무 전산화를 통해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개발 시점부터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원은 2003년 1차 연도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시작으로 하여, 2차 연도 그룹웨어를 도입해 전자결재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기반을 확보하고, 3차 연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이어 사업관리시스템, 규정관리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였다.

2003년 9월 KIMS 개발·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2004년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은 물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 직원 교육 및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5년 1월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이 구축되어 실제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원은 그룹웨어를 구축하여 기존 대면결재로만 이루어지던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온라인 문서철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인사·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



2004 당시 전산실 모습



2005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 초기 화면

지게 되었으며, 전자게시판, 협업지원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통합검색 등 개인화된 포털 서비스도 제공하여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편리한 소통·공유를 지원하였다.

이어서 2005년에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기반 지식·프로젝트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체계가 구축되면서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실적물 DB 구축, 기본 연구과제 및 각종 수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전자결재 연동을 통한 행정전산 고도화, 규정집 관리 및 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우리원은 정보화 기술을 통한 지식경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연구 및 업무 결과물의 축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식자원의 자산화를 통해 기관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05년 12월에는 문서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계모듈 설치를 통한 행정기관 간 표준화된 문서수발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2006년에는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우리원 업무 방식에 맞는 운영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정보시스템이 복잡화, 거대화, 다양화, 전문화되고 새로운 IT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운영을 통한 유지관리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IT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 구축으로 우리원은 지식경영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관의 가치 증진, 그리고 지속적인 전산화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03 국제 협력 활성화와 홍보 기능의 강화

(1) 국제 협력 활성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 및 관련 사업 성과를 대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 학교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계 수준의 교육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진행하였다. 개원 이래 국제 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던 우리원은 2004년 대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제협력부와 홍보출판부를 대외협력부로 통합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날로 발전하는 우리원의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제 협력 업무의 기틀을 다졌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2004~2006 영문 초록집

관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국외 홍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수행, 해외기관과 협력관계 수립 및 유지, 기타 각종 협력 사업 등을 추진했는데, 특히 국외 홍보의 일환으로 다양한 업무와 연구 산출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영문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영문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의 역사, 경영목표, 주요 사업 및 연구 산출물,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영문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우리원을 방문하는 외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원은 전년도에 실시된 모든 연구사업의 초록만을 모아 엮은 '영문 초록집'도 매년 제작하여 전체 연구사업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초록집에 수록된 연구 보고서 중 내용이 우수하고 대외 홍보 가치가 큰 것을 선정하여 그 전문을 영어로 번역·출간하는 '우수보고서 영역본'도 매년 1~2종씩 제작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4종의 우수보고서 영역본이 제작됐으며, 연구 산출물의 우수성을 해외로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 국제 학술대회 개최

국제 학술대회는 국내외 우수 교육 관련 기관의 연구진들과 깊이 있는 토론으로 우리원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우리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였다. 우리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2004년 12월 20일에는 중국 북경인민교육출판사(PEP)에서 '한국-중국의 최근 교육동향과 국가수준 교육과정 비교'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고, 2005년 2월 26일에는 500여 명의 국내외 교육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원에서 '초등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라는 주제로 주한영국문화원과 한·영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2006년에도 국제 연구포럼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각 1건씩 개최했는데, 특히 9월 22일 개원 8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원이 개최한 '교육평가 체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세미나'에는 핀란드,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 교육평가 전문가와 국내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학업성취도, 대학입학시험제도, 문제은행, 영어인증제도 등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007년에도 1건의 국제 학술콘퍼런스와 2건의 국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6월 29일 우리원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외국어교육을 위한 기준 설정'에 대한 국제 학술콘퍼런스는 주한독일문화원, 주한영국문화원, 주한프랑스문화



2005.02.26 초등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한·영 국제 학술세미나



2006.09.22 교육평가 체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세미나

원, 알리양스프랑세즈, 한국독일어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행사로, 영국·프랑스·핀란드·일본 등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국내 대학교수들이 참여해 언어 평가기준에 관한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그 밖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초청에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적인 연구·개발 경험을 해외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홍보 기능의 강화

가. 새로운 기관 심벌 및 로고 제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CI(Corporate Identity)는 1997년 당시 설립준비기획단에서 심벌 및 로고를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제작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CI 사용에 관한 표준규정 및 매뉴얼이 없어서 활용 시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새로운 부문에 대한 확장 적용 또한 힘들었다. 한편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기관 이미지에 대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원은 2007년 8월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CI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1월부터 신규 CI를 교체 적용함으로써 기관 이미지의 통합적 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CI는 ‘Curriculum(교육과정)’과 ‘Evaluation(교육평가)’을 심벌 형태로 형상화하고, 입체형 심벌의 유기적인 동작을 통해 변화하고 진보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표현하였다. 또한 심벌에는 초·중등교육의 미래 지향성을 상징하는 녹색계열 색상과 신뢰와 전문성을 상징하는 청색계열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우리원의 영문 로고타입인 KICE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원은 CI 개편과 함께 영문 명칭을 기존의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에서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으로 일부 변경하였다.

나. 언론 홍보 강화

2003년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수정답 사건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언론 홍보의 효율화를 위해 언론 관련 업무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우리원은 2004년 초부터 홍보출판부 주도로 보도자료 배포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뉴스 브리핑을 원내에 공지하여 교육 관련 정보 공유에 도움을 주었다. 이어서 같은 해 7월에는 상황별 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언론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언론취재 대응 결과를 인트라넷을 통해 상



20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I



2008 한국교육신문과의 공동 기획 시리즈 '수업의 달인'



2004.05 웹진 창간호 초기 화면

시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한편 우리원은 교육 관련 출입기자와의 협력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자들의 취재 진행 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기자들의 사전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원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주요 매체를 이용하여 기관의 연구 성과 및 연구 관련 사업을 다각적으로 소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영어교육 개선, 선진 교육시스템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언론사와 공동 기획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교육 관련 출입기자들과 동반 취재하여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다.

다. KICE 웹진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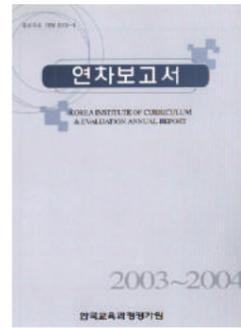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설립 이후 기관지 '교육광장'을 꾸준히 발행해 왔다.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2004년 5월에는 웹진 'e-KICE'를 창간하였다. 웹진을 발행하게 되면서 기존 교육광장의 발행 부수와 지면은 그대로 유지되되 발행 횟수를 다시 연 2회로 줄여 발간하게 되었다. 웹진은 다양한 교육 관련 칼럼과 콘텐츠로 꾸며졌으며, 매일 초 전국의 교육 관계자 중 등록회원 약 1만 8,000여 독자에게 발송되었다. 하지만 웹진은 게재되는 교육 관련 내용이 다소 무거운 온라인 매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기관지 교육광장과 콘텐츠 중복, 투입 예산 대비 저조한 접속률, 활용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우리원은 2008년 2월 통권 45호를 마지막으로 웹진을 교육광장과 통합 개편하게 되었다. 비록 웹진 발간은 중단되었으나 콘텐츠 제작 역량이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우리원은 보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광장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판형과 디자인도 새롭게 일신하고 발행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다시 확대했다⁰². 이와 함께 교육광장에 수록된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이북(e-Book)과 PDF 파일로 탑재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도모하였다.

라. 연구 성과 홍보물 제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원 이래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관운영 현황 및 주요

02 '교육광장'은 2017년 12월까지 연 4회(계간(80쪽 분량))으로 발간해오다 2018년에는 연 3회로 발간하게 되었다.

연구 실적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05년 발간된 연차보고서부터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연구 요약편’과 ‘기관현황 수록편’으로 이원화해 발간하였다. 기관의 연구 결과를 요약 소개하는 ‘연구초록집’도 개원과 동시에 매년 발간하였는데, 2004년부터는 연구초록집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2005년에는 ‘연구리포트’로 발간 체제를 정비하였다. 기존의 연구초록집이 연차보고서의 수록 내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리포트는 수록 대상 과제를 핵심 연구과제 중심으로 압축하고 내용을 심화시켰다. 특히 도표와 그래프, 이미지 활용을 극대화한 개조식 편집 체제를 취함으로써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 밖에도 우리원은 연구 성과 공유와 연구 산출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부터 도서회원제를 운영하였으며,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도서 및 연구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행출판 체제를 통해 실비로 보급하였다.



2005 2003~2004년 연차보고서



2005 연구리포트 2004

연구 업무의 안정과 확장

01 연구의 현장 활용도 향상

0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관련 연구 강화

03 교수학습 연구의 지속적인 확대

04 온라인 채점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01 연구의 현장 활용도 향상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기획 목표는 ‘연구의 교육현장 활용도 향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원은 교육과정 개선(개정) 및 그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개선, 수업평가 모형의 개발, 중앙단위 교수학습개발센터로서의 역할 정립, 학교성적 신뢰성 제고, 내신성적 부풀리기 현상에 대한 대책,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의 안정적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우리원은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공 영역별, 부서별 협의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과제 선정 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의 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웹사이트를 이용한 원내의 연구수요 파악,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하위직 연구원들의 참여 폭 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기본 연구사업의 경우 1인 2과제 원칙 준수, 동일 부서 내 유사 과제 수행 고려, 연구과제 배분 시 연구원의 수행 능력 및 전공 적합성 고려, 가급적 연구원이 희망하는 과제 배분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점검 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 수립, 수행 과정, 결과 산출에 대한 부서별 검토·심의 체제를 강화하고,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검토·심의 과정에 외부전문가 및 수혜자를 참여시켰으며, 연구 종료 후 종합평가회 개최, 연구 모니터링제 도입·운영, 연구 수행 매뉴얼의 개발·활용, 연구 수행 관련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연구 수행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산출,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심의·평가 절차를 강화했으며, 연구 산출물의 교육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논의 절차도 강화하였다.



2005.01.20 교수학습개발센터 수업 방법 및 수업·평가 자료 공모전 시상식

0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관련 연구 강화

(1)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시에, 교육과정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위상을 드높인 시기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발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원은 2004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기본과제와 수탁과제로 수행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먼저 우리원은 2004년 ‘교과별 교육 내용 적정화 연구’와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를 기본과제로 수행하여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양한 수탁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한 수학과 영어 교육과정의 단계형 수준별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였다.

2005년부터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기본과제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를 비롯하여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와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였고, 수탁과제로는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시안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

2006년은 우리원이 2005년 연구에 기초하여 산출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수정·보완 및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해였다. 교과 교육과정 연구로는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 및 제2외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정안을 산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11개 기본과제를 수행하였고, 교육과정 총론 연구로는 총론 개정 시안을 수정·보완하는 연구와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지원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를 초등학교급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005 교과별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2005.07.14 개원 7주년 기념 세미나
-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2007 초·중학교 교과별 해설 연구 개발

2007년에는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를 비롯한 6개 과제를 기본과제로 수행하였다.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비전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역량의 준거와 영역 설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2008년 기관 간 협동 연구로 연구 범위 및 참여진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의 주요 수탁과제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 연구·개발’을 들 수 있으며, 우리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으로 15개 수탁과제를 수행하였다. 해설서에 대한 연구·개발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것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분류해 수행하였다. 이전까지 연구기관에서 총론과 각론을 일괄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 연구는 교육과정 전문기관으로서 우리원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2004~2007년 기간의 여러 기본과제와 수탁과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원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2) 교과서 연구 및 검정 사업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정 사업이 종료된 2002년 이후에는 교육과정에 연구가 집중되면서 교과서 관련 기본 연구과제가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이에 근거한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및 검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본 및 수탁과제를 편성하고 수행하게 되었다.

가. 교과서 관련 연구 수행

2004년에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의뢰로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전반에 걸쳐 국정교과서 제도의 구체적인 현황과 장·단점을 검토하고, 검정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단계적 검정화 추진을, 중등학교의 경우 국어·도덕·국사 교과서의 검정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같은 재단의 위탁 과제로 ‘교과서 상시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편 체제 정립을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시개편 체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받은 ‘교과서 편찬 제도 개선을 위한 요

구조사 연구: 국정도서의 검정화를 중심으로'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교과서 제도의 변화가 우리 학교교육에 미칠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은 의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검정제의 개선, 교과서 인정제의 확대, 국정교과서의 검정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위탁받은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원은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 개발 이후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교과서 검정 사업과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공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 교과용도서의 추가 검정 계획이 수립되면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우리원은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제교육진흥원(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위탁받아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서 매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 첫해인 1999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시청각자료 2종을 포함한 6종 7책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까지 매년 수준별 한국어 및 회화 지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 소개를 위한 책자와 오디오테이프, VTR, CD 등 37종 45책이 각 언어권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교재 및 자료들은 매년 외국 공관에 발송되었다.



2005.06.16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1999~2004 재외동포용 교재

03 교수학습 연구의 지속적인 확대

(1) 2004년 교수학습 부문 연구

2004년 교수학습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운영, 교수학습센터의 교수학습 자료 질 관리 체제 연구 등에 추가하여 학교교육 내실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교원의 교실수업, 학생평가 전문성 제고와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기준을 개발해 제공하고, 활용 방안도 제시하였다. 4개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2004년 교수학습 부문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4.12.16 제7차 교육과정 운영 실태 세미나



2005.11.10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국제 세미나



2005 교수학습 자료 안내

첫째, 중앙단위의 교수학습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동 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의 질 개선 및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각 교과와 각종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들을 개발·수정·보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셋째, 2002~2004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통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0개 교과별 평가도구 및 적용 연구를 단계별로 수행하였다. 넷째, 현장성 높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하여 교실수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5개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자료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수업 방법 및 평가 자료 공모를 통해 교사 참여를 확대하였다.

(2) 2005~2006년 교수학습 부문 연구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가 안정적으로 확립된 2005년 이후에는 계속 과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부문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 교수학습연구본부에서 수행한 기본과제는 2002년부터 시작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KICE-TLC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 '수업평가 기준 개발 연구' 등의 계속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05~2006년에 우리원에서 추진한 교수학습 부문의 기본과제 연구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운영' 연구에서는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부분별 향후 운영 방안 및 3단계 발전 계획을 제시하였다. 둘째, 2002년부터 교육과정 현장 정착을 위해 계속과제로 추진되어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2006년 5차 연도 연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셋째, 2004년부터 수행해 온 '수업평가 기준 개발 연구'도 2006년 모두 마무리되었다. 넷째, 2005년에 신규과제로 '교수학습 상황과 주요변인 분석' 연구를 추진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관련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3) 2007년 교수학습 부문 연구

2007년 교수학습 부문의 기본과제는 '초등 초임교사의 수업전문성 발달 자료 개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총 4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2007년의 연구 성과 및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 관리·운영 과제를 계승하여, 교사 전문성 발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자료를 연구·개발하였다. 둘째,

2007년 교수학습 부문 기본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2007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웹사이트 관리·운영	KICE-TLC(교수학습개발센터)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 내용 제시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Ⅰ) :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실 학습 비교 분석을 통한 교실 학습 개선에 대한 방향 제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Ⅰ)	다문화교육에 대비해 교수학습 지원의 개념적 틀과 교육과정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도출
초등 초임교사의 수업전문성 발달 자료 개발 및 지원 방안 연구	초등 초임교사가 수업뿐만 아니라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초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양성·연수·장학의 관점에서 제안

2007년 2월 개정·고시된 교과별 새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교수 지식(PCK) 및 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셋째, 학습 연구에 주력하여 수업 상황에서의 학습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미래 학교의 지향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기 과제인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를 시작하였다. 넷째, 교수 학습 관련 현안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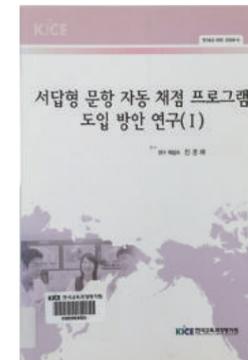


2007.10.05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04 온라인 채점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각 교과별 검사는 전체 평가 문항의 20~30%가 서답형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채점은 우리원 주관 하에 채점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일정 기간 동안 합숙 채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집 체제로 시행된 2007년의 경우 총 채점 문항 수는 131개, 대상 답안지는 7만 3,600여 장이었으며, 채점교사 430명, 평가 전문가 및 관리요원 50명으로 구성된 채점본부를 3박 4일 동안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숙 채점 방식은 채점교사의 수업 결손 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고, 채점 인력과 장소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시간적 제약 때문에 채점자 신뢰도 유지를 위한 복수채점 및 모니터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서술형 평가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우리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채점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서답형 평가 실시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인터넷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서답형 문항을 채점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온라인 채점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한 채점 방식으로 기존 합숙형 채점 방식이 갖는 시·공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2006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Ⅰ)



2007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체 답안에 대한 복수채점 및 모니터링 기법을 도입하여 채점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

1차 연도에는 온라인 채점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기반 소프트웨어의 탐색, 온라인 채점 업무의 분석과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운영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 연도에는 기초연구를 토대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완비하고 채점 대상 교과 및 인원 수를 확대하여 중학교 3학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3차 연도 연구에서는 대규모 평가에서의 온라인 채점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채점 연수부터 온라인 채점, 데이터 분석, 결과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자동화 및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기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최적화하여 전국 규모의 평가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였다. 특히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서울시 고1 학생 약 12만 명의 5개 교과 서답형 문항 채점에 적용하여 온라인 채점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전국단위 채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온라인 채점시스템은 고등학교 서답형 문항 채점을 우리원에서 전담하게 된 2010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문항 채점에 적용되었으며 이후 중등교사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및 평가에 대한 LAN/WEB 기반 전산채점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2010년의 경우 전국 2,200개교 약 63만 2,000명의 국어·수학·영어 교과 총 22개 문항에 대해 채점관리자 107명, 채점자 약 3,500명이 17일 동안 서답형 문항 온라인 채점시스템을 사용하여 채점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수행되는 초·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채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3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로 지정된 공영채점기관에서 우리원이 개발·배포한 서답형 문항 온라인 채점시스템을 사용해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을 수행하였으며, 초등학교 평가가 폐지된 2014년부터는 우리원에서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서답형 문항 채점을 서답형 문항 온라인 채점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국가고사 관리 업무의 확대

제 4 절

01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1세기 고학력 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의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DEET)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으로서 2003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 요청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시험 공고 및 시행을 담당할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공동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출제 및 인쇄, 채점 및 성적 통지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원에서는 ‘2005학년도 MEET·DEET 시행’을 목표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체계를 연구하게 되었다. 먼저 고부담의 국가 정책 사업을 성공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팀 중심으로 기간 조직과 특임 조직의 성격을 조화시킨 원장 직속의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사업단이 구성되었다. 사업단 구성은 사업단장 1명, 연구팀장 1명, 행정팀장 1명, 연구팀원 4명, 행정팀원 3명으로 이루어졌다.

기초연구를 통해 시험 개요를 마련한 뒤 문항을 개발하여 2004년 2월에는 의·치의학교육입문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 본 시험 체계를 정비하고 ‘2005학년도 MEET·DEET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8월 본 검사를 시행하였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적인 평가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원은 매해 시험 시행 이후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해 나갔다. 무엇보다 검사 영역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2007학년도부터는 의학, 치의학 모두 3개 영역으로 검사 영역을 정비하였고,

01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시행

02 한국어능력시험 사업 확대

MEET·DEET 시험 개요(2005~2008학년도)

연도	분야	검사 영역	문항 수	응시 인원	비고	
2005학년도	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35	828명	
	치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공간능력	4개 영역	220	1,668명	
2006학년도	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25	1,46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수 감소 • 의학 응시 인원 증가 • 경쟁률(2:1)
	치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공간능력	4개 영역	210	1,355명	
2007학년도	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00	2,59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의학 검사 영역 3개로 축소 • 문항 수 감소 • 응시 인원 증가로 경쟁률 높아짐(4:1)
	치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00	1,784명	
2008학년도	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00	3,94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인원 증가로 경쟁률 높아짐(6:1)
	치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00	2,234명	

지속적으로 시험을 통해 문항 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응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경쟁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

02 한국어능력시험 사업 확대

(1)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신설

한국어능력시험은 2006년 제10회 시험까지 1종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 미디어 수출 확대에 따른 한국문화의 국외 보급 확대에 인한 한국어 관심 증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시험 장소를 추가 신설하고 시험 횟수를 늘리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07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종류 및 명칭



제11회 시험부터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 Business-TOPIK)'이 신설되어 2종 체제가 되었다.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이 새로이 개발되면서 기존 한국어능력시험의 명칭도 변경되었는데, 기존 시험이 일반 목적 시험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를 부각하여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 Standard-TOPIK)으로 결정되었다.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의 탄생은 법무부가 2007년부터 시행한 '무연고해외동포방문취업제'와 관계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재외동포에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서, 취업 자격을 부여할 때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면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이 탄생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무연고해외동포방문취업제 실시와 함께 우리원에 실무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을 의뢰하였다.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으로는 특정 직업군의 업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한국 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우리원은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새롭게 개발하여 2007년 제11회 시험부터 적용하였다.

(2) 한국어능력시험의 양적 성장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국가와 응시자 수는 2004년을 전후하여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당시 활발하게 일어난 한류의 영향 및 중국 수험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시행 국가 수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16개국에서 실시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이 2006년에는 28개국에서 실시되었다. 2005년까지 한국어능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국가 및 응시자 수(2004~2007년)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시행 국가 수	16개국	25개국	28개국	28개국
응시자 수	1만 5,279명	2만 3,401명	3만 1,270명	4만 3,813명



2007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별 문제집



2007.04.22 제11회 한국어능력시험 현장

력시험이 시행된 국가는 주로 아시아 국가이거나 한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위주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응시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 2004년 1만 5,279명이었던 응시자 수가 2007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하여 4만 3,813명에 이르렀다.

나아가 시험의 시행 횟수도 늘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어능력시험은 연 1회 실시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연 2회, 매년 4월과 9월 셋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이 진행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대학(원) 입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수험자들이 시행 횟수 증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연 2회 시험을 모두 시행하였으나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두 번의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 1회의 시험만 시행하였다.

(3)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실용성·신뢰도 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더 나은 평가도구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갔다. 3종의 문제지를 이용해 6등급을 평가하는 통합평가제 실시와 문항 틀 고정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확산되고 중·고급 응시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험의 실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어능력시험 초반에는 응시자 수가 '초급>중급>고급' 순으로 전형적인 피라미드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중급>초급>고급' 혹은 '중급>고급>초급'의 단지형 분포를 보였다. 시험 시행 초기 특성상 초급 응시자들을 배려하던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우리원은 6종의 문제지를 활용한 평가 방식 개선을 주제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등급별로 다른 문제지를 이용하지 않고 초·중·고급의 대등급별로 시험을 실시해 점수에 따라 1~6등급의 소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보했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원은 2006년에 시행된 제10회 시험부터 3종의 시험지를 적용하였으며, 점수에 따라 6등급을 평가하는 통합평가제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등급 부여 방식이 바뀌면서 시험 때마다 개발해야 할 시험지가 3종으로 줄어드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출제 및 관리의 실용성이 제고되었다.

한편 매회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유형이 달라 수험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는 평가 문항 틀 고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에 사용된 모든 문항 유형을 추출하고 영역별 평가 목표를 측정하기 적합한 평가 문항을 선정·검토한 후, 한국어능력시험 네 영역의 문항 유형을 고정시킨 평가 문항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2007년 제11회 한국어능력시험부터는 고정된 평가 문항 틀에 맞춘 출제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문항 유형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고 수험자들의 시험 대비가 용이해지는 등 한국어능력시험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국제 협력 업무의 활성화

01 해외기관과 협력관계 확대

02 해외연수 및 지원 사업

01 해외기관과 협력관계 확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제 협력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05년 10월 국제 협력 중장기 발전 방안이 포함된 '국제 협력 업무 업그레이드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원은 교류협정을 체결한 몇몇 기관과 활발히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주한 외국공관과의 교류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독일, 영국, 칠레, 프랑스, 호주 등의 공관과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과 동시에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과 새롭게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우리원은 학술연구 발전과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의 주요 대학 및 유관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관 간 협동 연구 수행, 기관 간 인적교류 확대, 연구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설립 이래 해외 선진 교육기관의 노하우와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05년 3건, 2006년 1건, 2007년 5건 등 지속적인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공동 연구와 인적교류 및 정보 교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5.09.22
주한영국문화원과의 교류협정 체결



2006.05.19 프랑스 CIEP와의 교류협정 체결



2007.07.23 중국교육부고시중심과의 교류협정 체결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 서 해마다 우리원을 방문하는 외국 인사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그 수도 증가했 다. 방문 수치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총 25회 130명, 2005년 총 26회 193 명, 2006년 총 33회 180명, 그리고 2007년에는 총 40회 349명으로 증가했다. 해외기관이 우리원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요청에 충분히 대응하지는 못했으나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에 각각 1 주일씩 우리원의 연구자가 라오스 현지에서 파견되어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교과 서 개발 설계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 년 주한영국문화원과 공동 연구 수행, 2007년 미국 UCLA 측정기준학생평가연 구소 및 평가연구센터(CRESST)와 공동 연구 수행 등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02 해외연수 및 지원 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제적 마인드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교육의 장점을 발굴하고 강화하기 위해 해외연수 및 지원 활동을 적극 전 개했다. 연구진의 연구 능력과 일반직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는 매년 직원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첫 해인 2003년에는 총 5개 팀 10명 을 대상으로 일주일 내외의 단기연수를 진행했으며, 2004년에는 처음으로 장기 연수자 2명을 선발해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미국 UCLA에서 각각 6개월씩 연 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2004년에는 총 6개 팀 9명이 유럽과 미국에서 단 기연수를 받았으며, 처음으로 일반직이 연수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미국 UC버클리와 아이오와대학교에 각각 6개월, 2개월씩 장기

연수자를 선발해 보냈으며, 8개 팀 9명이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 국제기구 방 문, 학회 참석 및 발표 등의 형태로 단기연수를 받았다. 2006년 역시 2명의 장 기연수자를 선발해서 영국과 중국에서 각각 6개월, 2개월씩 연수 후 해당 국가 의 교육평가시스템과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외에 2명이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단기연수를 실시했다. 2007년에는 미국 조지메 이슨대학교에서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관련 장기연수가 6개월간 실시됐 고, 총 3팀 4명의 연수자를 대상으로 북유럽과 미국 단기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 유수의 국제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연구원들 의 논문 발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실시했다. 2004년 사업 시작 초기에 는 4~5명의 소수 인원이 동 사업의 일환으로 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로는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서 매년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해외 우수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또한 우리원은 국제 교육 연구사업을 통 해 교육 선진국 유관기관 방문 및 해외정보 수집과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과제의 규모를 매년 확대함으로써 다루는 정보의 넓이와 깊이를 지속적으 로 확대시켜 나갔다.

2008

제3장

질 높은 교육 연구, 신뢰받는 교육평가 사업을 수행하다

2010

- 제 1 절 •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
- 제 2 절 • 정보시스템 및 연구지원 강화
- 제 3 절 • 수준 높은 교육 연구 수행
- 제 4 절 • 수능 체제 안정과 지속
- 제 5 절 • 국가고사 관리 업무의 다양화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

제 1 절

01 성과주의 적용에 따른 조직 개편

02 연구실 직제 신설

03 국제 협력의 강화

04 정동 청사 이전

01 성과주의 적용에 따른 조직 개편

(1)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 요구

성과주의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던 중 등장한 일종의 표어였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언제나 성과 중심의 경영을 추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있어 성과주의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정부에서 직접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주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진행된 조직 개편은 업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조직 개편과는 그 성격이 달랐으며, 적용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나이나 학력 위주의 연공주의에 기대어 기관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이 달성한 실적과 연계하여 급여, 승진 등 보상을 실시하는 인사시스템은 구성원들의 저항도 많고 이해 또한 힘들었다. 결국 성과주의 조직문화는 조직 구조 이면에 있는 인사, 채용, 교육, 평정 등 인사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우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2) 경영환경에 대한 반성과 성과주의 기반 마련

성과주의 적용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년부터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경영정보 중심으로 개선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직원 교육 측면에서도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원의 핵심가치, 글로벌 교육 등 역량 기반 교육훈련 체계인 CBC(Competency Based Curriculum)를 도입하여 자기주도적인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선임 연구원들이 신입 연구원들을 멘토링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연



구원들의 연구역량 제고에 힘썼다.

한편 우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관 연구기관 평가에서 2005년 10위를 차지한 이후 2006~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최하위 판정을 받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기관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2010년 봄부터 시작된 컨설팅은 약 4개월 동안 17개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며 종료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관발전 방안 TF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에 따른 이행과제들을 분석하고 관련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원은 외부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기관 변화관리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성과주의 경영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3) 조직 개편 및 관리시스템 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시기에 한국어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등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탁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연구 및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에서 교수학습연구본부를 분리·신설하였고, 교과서 검정, 초·중등교사임용시험 등 중요 정책은 기간 조직과 특임 조직의 성격을 조화시킨 사업단으로 구성함으로써 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과용도서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부서를 교과서연구본부로 재편하여 교과서 선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상시 검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우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표준지침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직 4단계, 행정·전문직 5단계였던 직급을 각 3단계로 단순화시키고,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지침에 따라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경영환경

2010.11.22 기관발전위원회 균형성과평가제도(BSC)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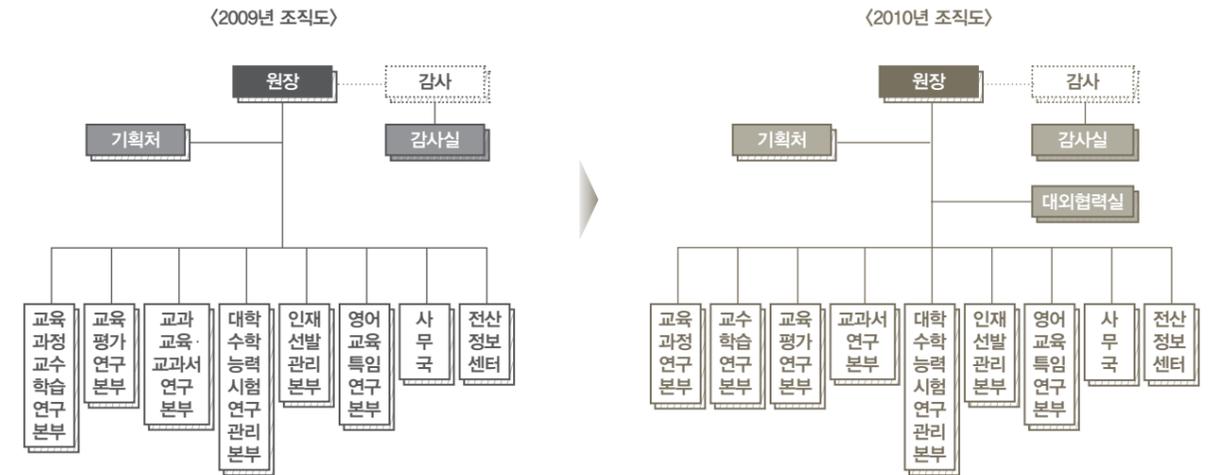


2010.11.29 BSC 관련 전 직원 변화관리 교육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급 변천

직종	직급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직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행정직, 전문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책임행정·전문원 선임행정·전문원 행정·전문원

성과주의 적용에 따른 조직 변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울러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기관의 규모와 방대한 기능을 고려한 부원장제 신설, 상시 성과관리를 위한 기관자체평가위원회 상설 운영 등 여러 이행과제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갔다.

02 연구실 직제 신설

(1) 연구 효율성을 위한 조직 검토

외부적 환경 변화와 내부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은 목표와 사명에 입각하여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의지를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 내 인적·물적자원과 정보기술을 통합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년 연구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이 연구 효율성 제고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고민하였다. 당시에는 연구본부 아래 기본과제별로 팀을 설치해 운영하는 구조였으며, 이러한 체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근본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선 장기 연구와 연속적 사업에 항상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수시 위탁사업과 긴급과제에 대한 수행력과 팀 운영의 기본철학 및 성과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팀제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며 의사결정 과



2008.05.19 제6대 김성열 원장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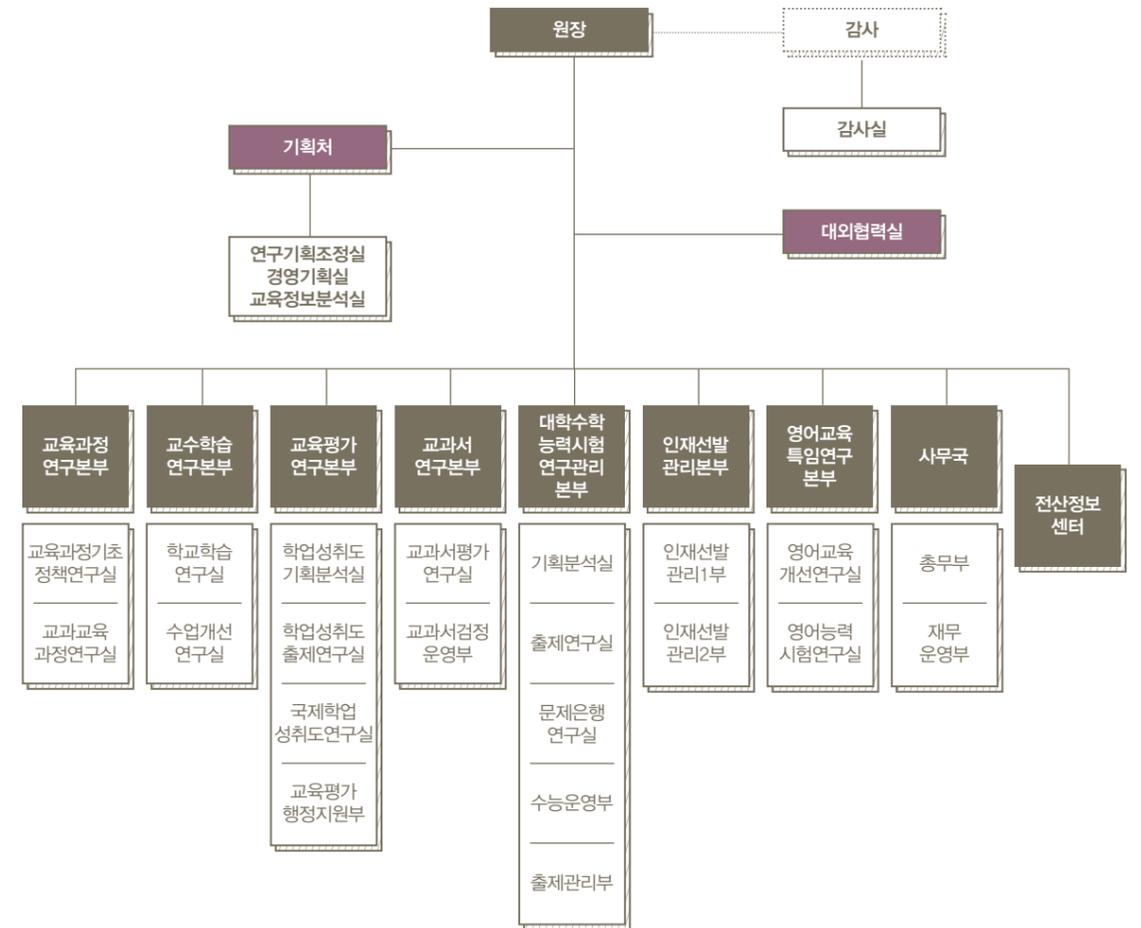
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우리원은 조직 목표 측면에서 조직의 정체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의 우선순위 및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직 전체의 연결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직 형태 측면에서는 정책결정 과정 및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역할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며,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2) 팀제에서 연구실 체제로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년 12월 31일 연구의 질 제고 및 연구 성과 확대를 위해 기존의 본부 아래에 중점 연구과제별로 단위사업부인 '연구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부터 '1처 6본부 1국 1센터' 체제를 시행하였다.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 아래에 교육과정신진화연구부 및 교수학습개선연구부를 두었으며, 교육평가연구본부 아래에 학업성취도평가연구부 및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부를 두었고, 교과교육·교과서연구본부 아래에 교과교육연구부, 영어교육특임연구본부 아래에 영어능력시험연구개발부를 각각 설치했다. 이후 2009년 12월 28일에는 연구부 명칭을 '연구실'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 연구본부 하에 연구실 체제가 확정·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실 직제를 바탕으로 한 조직 개편은 우리원 연구 업무 추진에 있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첫째, 직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서 연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집중적인 연구 추진이 가능해졌다. 둘째, 장기 비전에 따른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 설정과 연구과제 발굴·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연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직도



결성이 제고되었다. 셋째, 각 연구실의 책임자인 중간관리직이 신설되어 각 기본과제 팀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위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집행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유발과 행동양식의 변화를 일으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03 국제 협력의 강화

2008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외협력부에서 홍보출판 업무와 국제 협력 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두 업무 간 시너지 효과가 크지



2008.09.26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

않고, 오히려 한 부서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개 조직이 묶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원은 2009년 조직 개편 시 '기획처' 산하의 4개 부서 중 2개 부서를 '국제협력부' 및 '홍보출판부' 등으로 분리시켰다. 이후 국제 협력 및 홍보출판 업무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2010년에는 원장 직속의 대외협력실로 두 부서가 다시 통합·개편되었다.

2008년 당시 우리원의 주요 국제 협력 업무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국제 학술대회 및 국제 연구포럼 개최,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정 체결 및 공동 연구, 영문 홍보물 제작, 직원 장·단기 연수 및 지원, 국제 교육 연구사업 추진 등이 있었다. 특히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존에 교류를 이어오던 호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해외 유관기관 연구자를 초청하여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를 2008년 9월에 개최하였다.

2009년은 국제협력부라는 단독 조직을 두고 기존의 국제 협력 관련 업무를 보다 세분화하여 추진했던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원은 기존의 국제 교육 연구사업을 더욱더 체계화하여 수시 연구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주한영국문화원과 'Asian Dialogues(AD)'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와 관련한 수시과제로 '세계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중학교 사회과·도덕과 교육과정 선진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으로 우리원이 처음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원장 직속부서인 대외협력실에서 국제 협력 업무를 관장하였다.



2008 기관 홍보 영문 브로슈어



2009.08.20 주한영국문화원 원장 일행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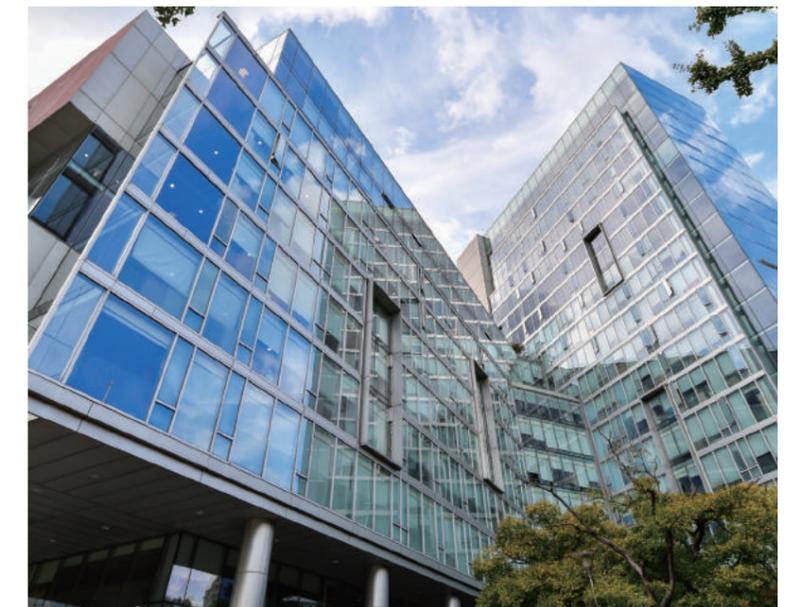


2010 개원 10주년 기념 단행본

이 시기에는 국제 학술대회 개최는 물론, 연구진의 해외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학술활동 대외 홍보, 국제 협력 관련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홍보, 영문 연구리포트 발간, 영문 초록 홈페이지 탑재, 영문 홍보물 제작,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양자·다자간 국제 협력 관련 연구,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국제 협력 관련 연구 및 홍보 등 큰 틀에서 국제 협력이 이루어졌다.

04 정동 청사 이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청담동에서 삼청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지 10년째인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우리원 청사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시 한번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다. 청사 이전을 위해 총무부에서는 이전부지를 다방면으로 조사하였고, 경영기획실은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청사 이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시 청사 이전 장소로 여러 곳의 후보지가 거론되었으나, 거리와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빌딩으로 이전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원은 2010년 1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이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10년 4월 정동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2010.04
서울 중구 정동 청사

정보시스템 및 연구지원 강화

제 2 절

01 수능정보시스템 개편

(1) 수능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시험 일정 조정이 이루어졌다.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3일에 개최됨에 따라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은 2010년 11월 11일에서 11월 18일로 1주일 연기되었고, 성적발표일은 2010년 12월 8일에서 12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산채점 일정은 기존 28일에서 24일로 4일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대입전형 일정 등을 고려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산채점 일정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이에 우리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제공 방법을 기존 오프라인 제공에서 온라인 출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성적통지표 및 일람표 인쇄 기간에 소요되는 약 4~5일의 채점 기간을 단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시스템(이하 수능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수능정보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접수에서 성적통지표 출력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통합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전자접수 시스템을 인터넷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사용자 편의성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원은 1995~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화 체제 개선 사업

수능정보시스템 개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화 체제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어,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01 수능정보시스템 개편

02 연구지원 사업 및 글로벌 세미나 강화

03 뉴스레터 창간 및 자료 DB 구축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화 체제 개선 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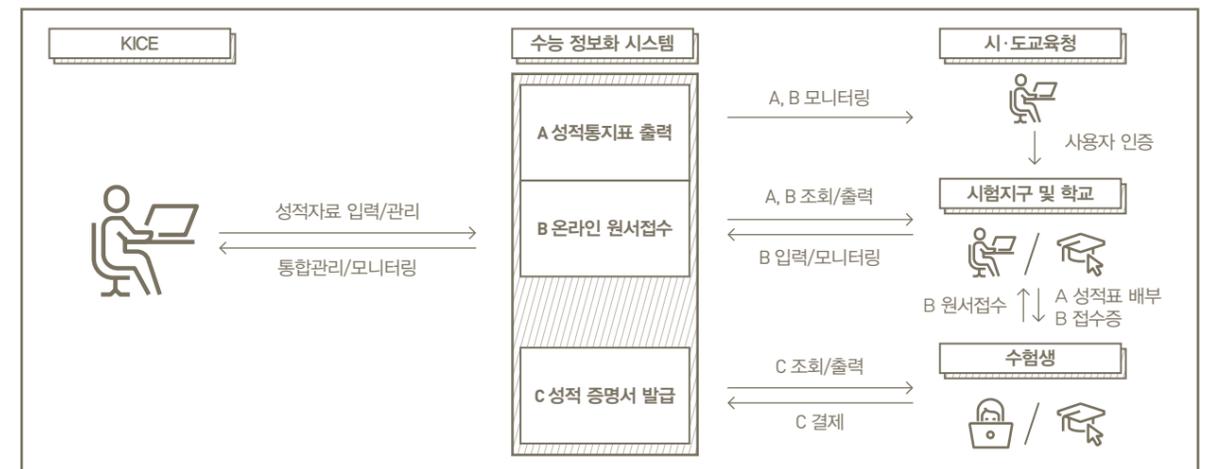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온라인 출력시스템 구축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 1995~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개발
- 통합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점의 신속성과 안정성 향상

수능 업무 처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능정보시스템의 보안과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며, 관련 인프라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원서접수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 시험지구 담당자, 학교 담당자 등으로 업무 담당을 세분화하였으며, 각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을 두었다. 학교 담당자는 수험생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취합된 수험생 정보를 시험지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며, 시험지구 담당자는 취합된 내용을 확인한 뒤 우리원으로 최종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관할 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성적통지표 출력은 인쇄 후 택배로 통지표 등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수능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학교 담당자가 출력 기간에 직접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우리원은 수험생에게 성적통지표를 전달하는 기간을 약 4~5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프린터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수능정보시스템 운영 과정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원은 수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0년 G20 행사에 따른 전산채점 일정 단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이후로도 채점 기간을 줄이고 수험생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수능정보시스템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02 연구지원 사업 및 글로벌 세미나 강화

(1) 각종 연구지원 사업 추진

가. 연구보고서 평가표 개선

연구과제 및 수탁 사업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각 과제에 특성화된 평가표 개발 등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우리원은 2008년 8월 연구보고서 평가표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기본 연구과제 보고서 평가표 및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수탁 연구과제 보고서 평가표 및 관련 양식을 구안하였다. 이후 2008년 말에 ‘연구보고서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개선 결과물을 기본 연구과제 및 수탁 연구과제 보고서 평가에 적용하였다. 특히 수탁 사업의 경우 연구형 수탁 사업과 비연구형 수탁 사업으로 구분한 평가표를 개발해 최초로 적용하였다.

나. 교육과정·평가 정책 페이퍼 발간 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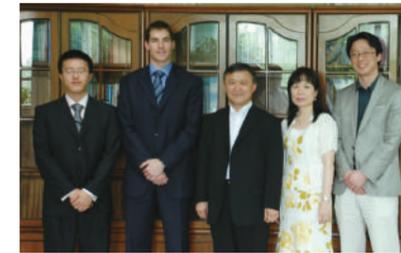
2009년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과교육, 교과서, 수능, 영어교육 등의 교육현안 이슈에 대한 현황 진단 및 해결 방향 제시를 통해 정책결정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교육과정·평가 정책 페이퍼 발간 사업(안)’을 수립하고 연구 관련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원은 ‘포지션페이퍼(Position Paper)’를 다음과 같이 발간하였다.



2009 포지션페이퍼

포지션페이퍼 발간 내역(2009년)

발간시기	제목
3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4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5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따른 수업 능력 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6월	말하기·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방안
7월	학업성취가 높은 학교의 교장들은 무엇이 다른가?
8월	국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서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9월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방안
10월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평가 방안
11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2008.06.20 주한뉴질랜드대사관 교육참사관 일행 방문



2009.10.13 미국 CRESST와 연구포럼 공동 개최

(2) 글로벌세미나 강화

우리원은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세미나를 2008년 9월 개최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주한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데이비드 그라돌(David Graddol)을 초청하여 ‘향후 10~15년 후의 바람직한 영어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21세기 영어교육 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기획부 주관으로 개최되던 연구포럼에 주한뉴질랜드대사관의 프랜시스 켈리(Frances Kelly) 교육참사관을 초청하여 ‘뉴질랜드 초·중등 교육 정책 및 전망’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보다 많은 해외 유관기관 교육관계자를 초청하여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핀란드 교육연구원(FIER) 요니 발리에르비(Jouni Valijarvi) 원장은 1월에 개최한 연구포럼에서 ‘핀란드 교육시스템은 무엇이며, 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였고, 뉴질랜드 교육부 카렌 스웰(Karen M. Sewell) 차관은 4월에 개최한 연구포럼에서 ‘뉴질랜드의 최신 교육동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미국 CRESST의 최길찬 연구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 기초한 학교평가 통계 모형’을 주제로, 존 허먼(Joan Herman) 공동원장은 ‘학교 책무성 검사와 학생 학습 향상: 미국의 교훈’을 주제로 강의하여 각각 10월과 11월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핀란드 교육에 관심이 고조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핀란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참석자들이 복도에 서서 발표를 경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우리원은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주최로 ‘국제화와 외국어 능력’이라는 주제로 ‘2010 Korea-OECD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교육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방한한 아프리카 고위 교육관료 연합대표단과 협



2010.10.22 2010 Korea-OECD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시 연구과제도 기존의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는 물론 주한영국문화원과 ‘Asian Dialogues(A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ASEAN 지역 교육 현황조사 기초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우리원에서 처음 시도한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과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03 뉴스레터 창간 및 자료 DB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 성과물의 적극적인 대외 확산·홍보를 통하여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7월 뉴스레터 ‘KICE e-소식’을 창간하였다. ‘KICE e-소식’은 온라인 뉴스레터 회원 약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되었으며,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수시로 발송되었다. ‘정례호’ 및 ‘행사안내’ 2종으로 제작된 뉴스레터는 우리원의 주요 행사 및 각종 간행물을 소개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확산·홍보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 뉴스레터 ‘KICE e-소식’ 주요 내용 및 기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 각종 세미나, 공청회, 포럼 등의 행사 개최 안내
- 각종 발간물 안내
- 개최 예정인 행사 및 시험 일정 등의 공지
- 행사 관련 자료집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뉴스레터에 링크시켜 발송하여 자료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

한편 우리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관 발간물(학술지, 연구보고서)의 서지정보를 전문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DBPIA’에 연계하여 이용자가 DBPIA의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의 원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2009년 1월부터 제공되었으며,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원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의 각종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7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에도 우리원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료들을 탑재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준 높은 교육 연구 수행

제 3 절

01 교육과정 연구의 강화

02 검정 심사 기능의 체계화와 전문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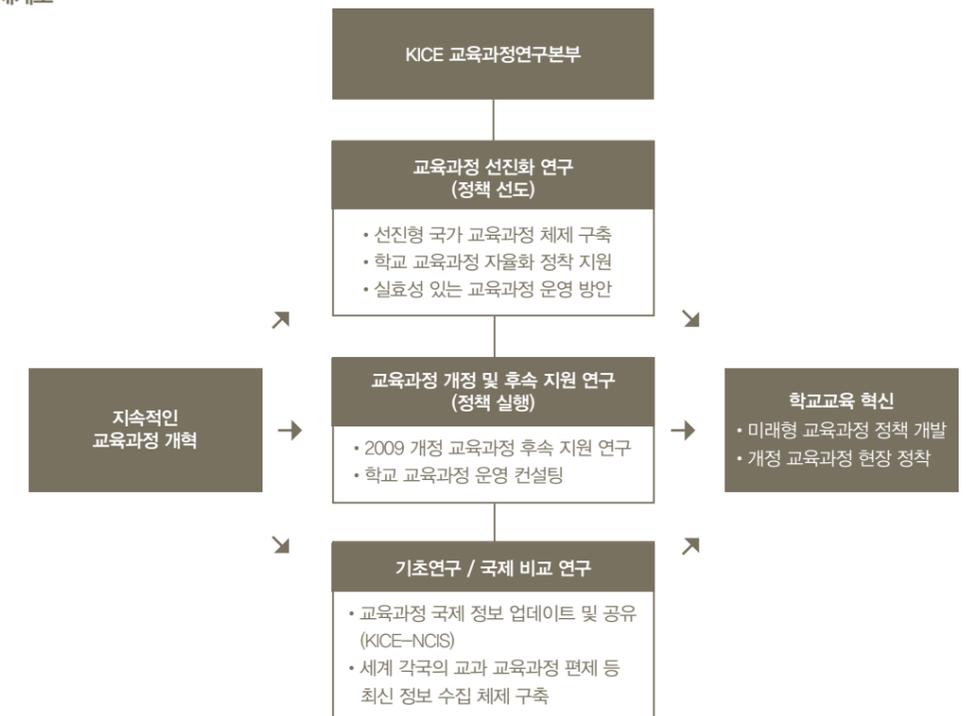
03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04 교육평가 업무의 정밀화

01 교육과정 연구의 강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및 교육과정 선진화 정책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 교육과정 개발 기관으로서 그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및 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교육과정 정책을 선도하고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실행 지원 및 교육 혁신을 도모하였다.

교육과정 연구 체계도



(1)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 기반 마련

정부의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방안' 및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요구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교육과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교육과정 개발 기초연구 주요 성과

- 교육과정 체제 개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분석·제공
-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 도모와 교육과정 개혁의 기본방향 설정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편제 및 시간 배당 체제 혁신 방안 제안
-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국가, 교육청 지원 역할 규정 제시 및 교육과정 주체의 역량 강화
-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향 제안

(2)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수행

2009년 7월 2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이 발표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를 기반으로 발의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 착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 협의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시안 개발 연구를 공식적으로 의뢰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가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시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시안 개발 연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상 및 학교급별 교육 목표 정비 -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 시수 조정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 시수 설정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정비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교육과정 고시 문서 체제 개선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관점에서 종래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지침 항목을 지원 사항으로 전환하고, 학교급별 지침과 공통 지침을 이원화하여 제시 -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 따른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학교급별 교육 목표 개선안 제시 -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교과군 및 학년군 도입 제시 · 고등학교 교과 영역제 및 교과(군)제 도입 제시 및 5단위 기준 과목 단위 제시 · 고등학교 국어 및 사회, 도덕의 과목 수 축소 조정을 통해 과목 수 적정화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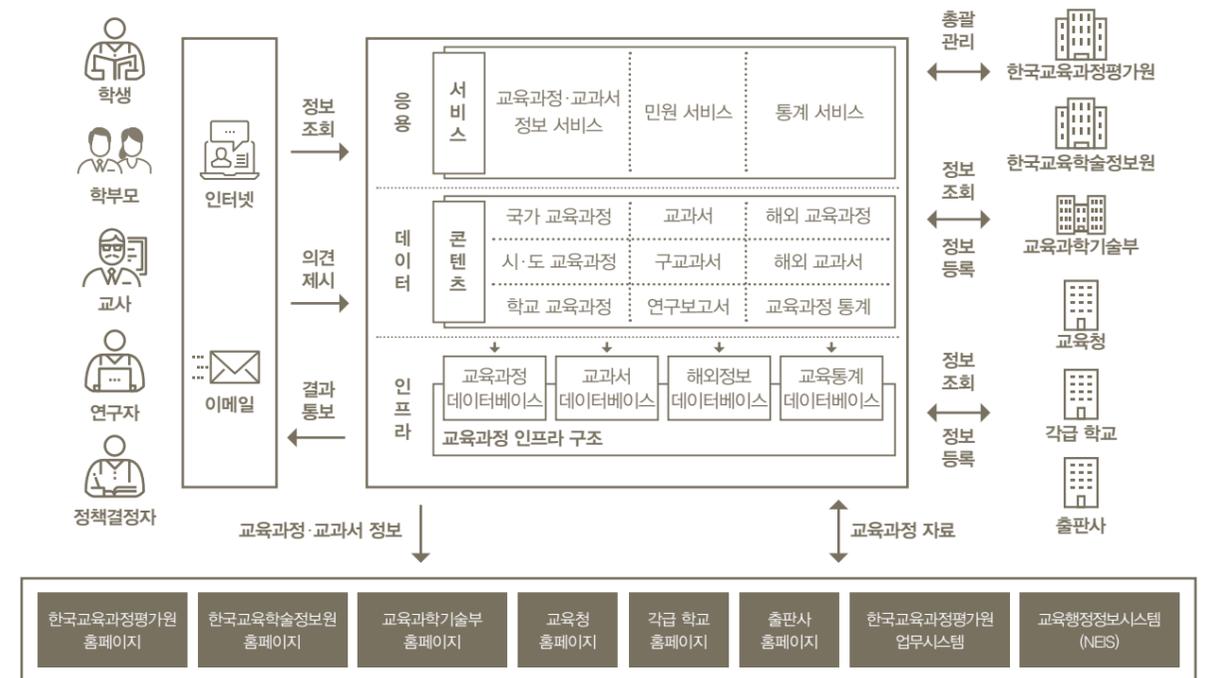
(3)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및 교과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의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학교현장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해당 시기에 수행된 후속 지원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

-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총론 외 19개 영역 집필 및 보급
-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체육·미술·음악·실과(기술/가정)·영어 교과] 및 보급
-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4개 영역 집필 및 보급
-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해설서(총론) 외 고등학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역사 포함) 및 중학교 선택과목(진로와 직업) 해설서 집필 및 보급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활동 모형 개발 연구

국가 교육과정 정보공유시스템(NCIC) 운영 체계도



(4) 국가 교육과정 정보공유시스템(NCIC)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교육과정 정보에 대한 공유,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새로운 교육과정 지식 창출 등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년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09~2010년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를 연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를 구축하였다. 정보공유시스템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과정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계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였다.

02 검정 심사 기능의 체계화와 전문 인프라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에 대해 그간 교육부 편수팀 주도로 진행된 검정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8년 12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 이전까지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연구기관인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우리원은 연구에 기반한 검정 업무 수행으로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질 제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우리원의 검정 업무 시행으로 24개월로 조정된 검정 기간 동안 재택 조사·심사제를 통해 검정 심사가 이루어졌고, 1인 3책 조사·심사 체제로의 전환, 점수 판정제 및 판정점수 기준의 적절성이 수정·보완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교과서 검정 업무는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라 2010~2012년에도 학교급 등 교육과정 적용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한편 2009년에는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교과서 검정 심사에 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주도하였다. 새 개정안에서는 검정수수료의 국고 지원을 명문화하고, 위원장 지명 방안과 기초조사 제도의 규정, 2차 심사제도의 폐지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제도 신설을 반영하였다. 검정 심사 과정은 종래에는 폐쇄형 합숙 심사였으나 이 시기부터 개방형 재택 심사로 전환되었으며,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 심사 결과보고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원은 고도의 전문적 심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관련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



2018 국가 교육과정 정보공유시스템(NCIC)



2006~2010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검정 심사 교과서

였다. 아울러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교과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전문기관 감수제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표현·표기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역사 분야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감수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근거한 교과서 검정 및 검정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교과서 검정 관련 연구도 수행하였다. 먼저 근간이 되는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을 주도하였고, 교과서 집필 방향을 설정하는 '교과별 편찬 준거 및 유의점'과 '집필 기준', 교과용도서 어휘의 기본 지침이 되는 '편수자료' 등을 개발해 해당 자료들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에 발맞춰 가는 교과서 개발, 심사,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원은 내용의 적정성, 정확성, 중립성, 보편타당성을 갖춘 교과용도서 검정을 통하여 민간 발행사들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검정 심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심사 과정 및 결과 공개 정책을 마련하였고, 검정 심사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검정 심사를 위해 교과서 검정 표기요류 검색 프로그램 및 웹 기반 검정 전산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도모하였으며,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고도화 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높여 나갔다.

나아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에서 검정 심사 합격 교과서를 적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선정 매뉴얼'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

교과서 검정에 대한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2010.07.21
2011년 고등학교 선택과목 검정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설명회

서 선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03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2008년 교수학습 부문에서는 총 4개의 기본과제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성과 및 의의는 아래 표와 같다.

2009년에는 계속과제로 ‘KICE-CRESST’ 공동 연구: CRESST 형성평가 프로그램(PowerSource®)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Ⅲ)-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고등학교 교실 학습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의 실



2008 CRESST 형성평가 프로그램(PowerSource®)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연구

2008년 교수학습 부문 주요 연구 성과 및 의의

연구과제	연구 성과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Ⅱ) : 우리나라, 핀란드, 호주의 중학교 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Ⅱ) : 우리나라, 핀란드, 호주의 중학교 과학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교실 학습환경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어·과학 중학 교수업 운영,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핀란드, 호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실 학습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공교육의 수월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 내용 교수 지식(PCK) 연구(Ⅱ) - 중등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 및 교사의 수업전문성과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내용 교수 지식(PCK)에 초점을 맞추어 중등 초임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입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SST 형성평가 프로그램(PowerSource®)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연구 	미국 UCLA 연구기관인 CRESST의 수학 대수 관련 연구 프로젝트 즉, 형성평가 전략 PowerSource®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Ⅲ) - 사회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과 프로토타입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활용 안내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다문화교육에서의 교과교육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

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종합 계획(안) 제안을 중심으로’가 진행되었다. 2009년에 새롭게 추진된 교수학습 부문 연구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2009년 교수학습 부문 주요 연구 성과 및 의의

연구과제	연구 성과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고등학교 국어과 교실 학습 연구 국내외 고등학교 과학과 교실 학습 연구 	미국과 일본 등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 과학 교실 학습의 특징과 문제점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실 학습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종합 계획(안) 제안을 중심으로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방안 모색 연구를 통해 정부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

2010년 교수학습 부문의 기본과제는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국가수준 장학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우수교사 인증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원에서 2010년에 수행한 교수학습 부문 연구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2010년 교수학습 부문 주요 연구 성과 및 의의

연구과제	연구 성과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국가수준 장학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국가수준의 연수 프로그램(예 : 신규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교원평가 관리자 및 평가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착근시키고 교원 전문성 개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교사 인증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 제도를 보완하고 수업전문성에 근거한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의 발전 방안 제안

04 교육평가 업무의 정밀화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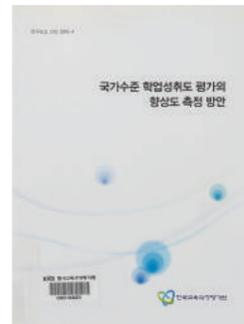
2008년 무렵 교육평가 연구의 주요 방향은 국가수준의 평가 관리 업무 역량 강화와 학교교육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였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국가수준 평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교화하는 연구와 학교교육에서의 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에 수행된 학교교육 지원 관련 연구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행평가 개선 연구’,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중학교 수행평가 적용 프로그램 개발’,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평가 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원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내실 있게 적용하고,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평가의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토대로 수준별 평가 방안을 도출하여 단위학교의 평가 방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국가수준의 평가 사업의 경우,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TIMSS)' 사업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사업도 국민기초교육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2008~2010년 기간 동안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9년부터 국가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수평가 체제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평가 체제 전환 배경

-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에 의거, 학생들의 학업성취 추이를 측정하여 학력부진학생을 줄이고,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며, 학생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
- 국가수준의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 교육과정 개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별·영역별 부진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 학교 간 선의의 학력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향상도 측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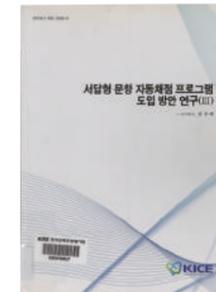
2010.06.04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결과 분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 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15개 항목의 39개 세부내용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매년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게 되었다.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연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및 결과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전수평가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출제 체제 개선과 분석업무 정교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맥락변인과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개선 연구를 통해 우리원은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들과 사례를 검토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체제 개선과 결과 활용 방안의 개선 연구에서는 전수평가 체제에서의 검사 동등화 방안, 성취수준 설정 방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 시행에 따른 교육맥락변인 탐색과 설문지 개발 연구에서는 전수평가 결과가 교육정책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맥락변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하고 그에 따른 학교, 교사, 학생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전수 시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서답형 문항 온라인 채점시스템 개발·적용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문항 채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점연수, 본채점, 관리자 웹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답형 채점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008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III)



2009.11.19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을 위한 공청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연구(2008~2010년)

시기	구분	연구과제
2008년	기본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행평가 개선 연구(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수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개선 연구(1)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09년	기본	2008년도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서답형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개발·적용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중학교 수행평가 적용 프로그램 개발
	수시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평가 방안 연구 -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0년	수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연구 - 점수 체제 개선과 결과 활용 방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 시행에 따른 교육맥락변인 탐색과 설문지 개발
	수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 기초한 학교평가 통계 모형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10년	기본	대규모 평가의 서답형 문항에 대한 온라인 채점시스템 적용 시 안정화 방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별 평가 틀 개발
	수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향상도 측정 방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연구
2010년	수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방안 연구
		체육, 음악, 미술 교과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
	수탁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문항 컴퓨터 채점화 방안 탐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연구 공모 및 심포지엄 개최
2010년	수시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 척도점수 산출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문항 컴퓨터 채점화 방안 탐색
	수탁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문항 컴퓨터 채점화 방안 탐색
		학교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학업성취지표와 평가모형 개발 - 학교효과 추정 모형 및 평가 체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체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 기반의 공시 체제를 보다 정교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반의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와 교육정보 활용을 통한 정책결정 기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교육정책도 추진되었다. 정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학습부진의 요인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 학교 정책을 200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2008 2007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본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수준

수능 체제 안정과 지속

제 4 절

01 선택형 수능 실시

02 수능-EBS 연계 강화

03 상대평가 체제 9등급 제도 시행

01 선택형 수능 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4학년도까지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을 모두 필수로 정하였으나 2005학년도부터는 영역별·과목별로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수능이 선택제로 바뀌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영향이 컸다. 즉, 수험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해 시험 과목을 임의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 선택형 수능의 기본 취지였다.

2004학년도에는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들이 모두 필수였고 제2외국어만 임의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5학년도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을 임의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한 영역만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것과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이 추가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였다. 아울러 각 영역별 문항당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중요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였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험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이 응시 가능한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5년 수능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 57만 4,218명 중 49만 4,708명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의 네 영역에 모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인 4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해당 영역 전체 응시생 중 각각 85.7%, 84.4%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수능이 대학입학전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확보하고 싶은 수험생의 심리에서 비롯되었다.

02 수능-EBS 연계 강화

2004년 정부는 'EBS 수능강의와 수능 출제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연계 대상이 강의인지 혹은 교재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연계 방식도 불분명하여 선언적 의미만 강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EBS 교재 품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수능과 EBS 연계 정책은 2010년 3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EBS 간 MOU를 체결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3월 19일 대통령이 EBS를 방문, 학생-학부모-교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능-EBS 연계 정책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2011학년도부터는 수능과 EBS 연계 교재가 70%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연계 방식은 영역별로 전체 문항 중 70% 문항을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명료화되었고, 연계 대상 교재도 각 영역별 '수능특강', '인터넷수능', '10주 완성' 등 120권으로 구체화되었다. EBS 수능강의도 연계 교재별·수준별 편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개념 강의를 개설하면서 수준별 강좌 편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

2010년 수능-EBS 연계 정책은 70%라는 구체적인 연계율이 제시되어 내실화되었고 EBS 수능강의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다양해지면서 모든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만들이 제기되었는데, 학생들은 연계 교재와 강의가 너무 많다는 불만과 교재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학교현장에서는 EBS 교재·강의가 학교수업을 대체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한 수능-EBS 70% 연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



2010.03.10
교육과학기술부-KICE-EBS 교류협정(MOU) 체결

>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EBS 연계 정착 방안 주요 내용

- EBS 연계 교재는 학교수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발
- 연계 교재 수를 언어·수리·외국어 기준으로 45권에서 24권으로 대폭 축소하고 모든 연계 교재의 PDF 파일 무료 제공
-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 교재를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하며, 만점자를 1% 수준으로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
- 양질의 연계 교재 개발을 위해 종전에는 <기획 → 집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 → 외부전문가 검토 → 발간> 단계로 진행하던 것을 <기획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집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차 감수 → 외부전문가 1차 검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차 감수 → 외부전문가 2차 검토 → 발간> 단계로 집필·검토 과정을 강화

러웠으며 연계 체감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EBS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EBS 연계 정착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왼쪽 표와 같았다.

이러한 조치 결과, 수능 연계 내실화 2년차부터는 EBS 수능강의가 전반적으로 내실화되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03 상대평가 체제 9등급 제도 시행

정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성적표에서 총점을 폐지하였으며, 수능 성적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역별 성적의 반영 여부와 영역별 점수 가중치 부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 응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의 유·불리 문제에 대비하여 원점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표준점수 체제에 의해 수능 성적을 발표함으로써 성적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등급(9개 등급)을 제공하였다.

이후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 및 내신 부풀리기 방지 목적으로 상대평가 체제의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수능에서도 성적 위주의 서열화를 줄이고 다양한 전형요소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을 완전 등급제로 전환하여 기존의 백분위 점수와 표준점수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정성적 자료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수능 등급제는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로또 수능'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수능 등급제는 우수 학생 변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수능의 변별력 약화에 따른 논술 및 면접 대비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등급이 1~2점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고, 평가의 신뢰성 역시 저해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등급제 수능은 1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기존 점수 체제로 환원하게 되었다.



2007.11.15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발표

국가고사 관리 업무의 다양화

제 5 절

01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및 시행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 법안의 심의 중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사한 목적의 시험인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기초연구를 의뢰하였다. 우리원에서는 2006년 3월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법학적성시험의 성격 및 내용, 시험 과목 등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그해 9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대학원 개편에 따른 시험제도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우리원은 법학적성시험의 출제·인쇄 및 채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시행을 담당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법학적성시험연구·개발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사업단은 사업단장 1명, 연구팀장 1명, 행정팀장 1명, 연구팀원 7명, 행정팀원

01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및 시행

02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시행

03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타당성 제고 노력

4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원은 2008년 1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응시는 791명이었고 대학생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응시하였다. 이후 예비시험 결과 분석 등을 통해 2008년 8월 본 검사 시행 준비를 모두 완료하였다.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험 영역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3개 영역이었다. 언어이해 영역은 40문항으로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였다. 추리논증 영역 역시 40문항으로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였다. 논술 영역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시문을 선정하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3문항을 출제하여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였다.

02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시행

국민보건 증진에 더욱 기여하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2005년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되었고, 구체적인 학제가 ‘2+4’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은 2년간의 대학 교양교육을 마친(또는 당해연도에 마칠 예정인) 다양한 학과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년의 대학 교양교육을 마친 후 약학대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2011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약학대학 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사)한국약학교육협회의와 계약체결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출제 및 인쇄, 채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계약 당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사업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다른 시험 역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후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PEET의 기본적인 체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6.09.28
법학적성시험 기초연구 결과 발표 공청회



2009.09.30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모형안 공청회

우리원에서는 시험 성격이 유사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사업단에 PEET 업무를 함께 부과하면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약학시험사업단을 구성하였다. 2008년 12월 시작된 기초연구를 통해 우리원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모형 및 문항지침을 개발하고, 예시문항 및 점수 체계를 설계하였다.

예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년 8월 ‘2011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진행하였다. 언어추론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의 소재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과 고등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였으며, 생물추론·화학추론·물리추론에서는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각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였다. 시험 결과는 평가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및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였고, 화학추론 영역의 경우에는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각각 별도의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하였다. 점수는 약학대학 입학전형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대학별로 평가 영역(과목)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타당성 제고 노력

‘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가 시작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이후 개선 방안 도출 등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 이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점수와 전문대학원에서 의 학업성취도, 적응 정도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검사 영역 및 문항 수, 문항 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문항 배점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 안정적인 사업 시행, 그리고 사업 시행에 대한

MEET·DEET 시험 개요(2009~2011학년도)

연도	분야	검사 영역	문항 수	응시 인원	비고	
2009학년도	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25	5,725명	- 2008학년도 100문항에서 2009학년도 125문항으로 문항 수 증가 - 경쟁률(3.6:1)
	치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25	2,116명	
2010학년도	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25	6,443명	- 경쟁률(4.1:1)
	치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25	2,549명	
2011학년도	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25	7,385명	- 경쟁률(4.4:1)
	치의학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 I 자연과학추론 II	3개 영역	125	2,398명	

평가 연구라는 순환적 관계를 실질화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응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그만큼 고위험·고부담 사업으로 변모하였다. 국가적인 평가 사업을 계속 위탁받으면서 수행 사업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역시 이를 위탁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공동협의회에 이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결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년 7월 5일 업무 이관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8월 5일 업무 이관 관련 사항을 수탁계약서에 명시하면서 이관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다.

2011

제4장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으로 거듭나다

2014

제 1 절 • 최적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조화

제 2 절 • 연구 기획 기능 강화 및 시스템 개선

제 3 절 •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

제 4 절 • 무결점 수능을 향한 노력

제 5 절 • 국가고사 관리 효율화

최적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조화

제 1 절

01 부원장 직제 도입

02 성과관리시스템의 합리화

03 글로벌 대외협력 강화

04 지방이전사업단 설치 및 노동조합 설립

01 부원장 직제 도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년 경영관리 분야의 과제를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조직 생존력 강화 차원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조직의 안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부원장 직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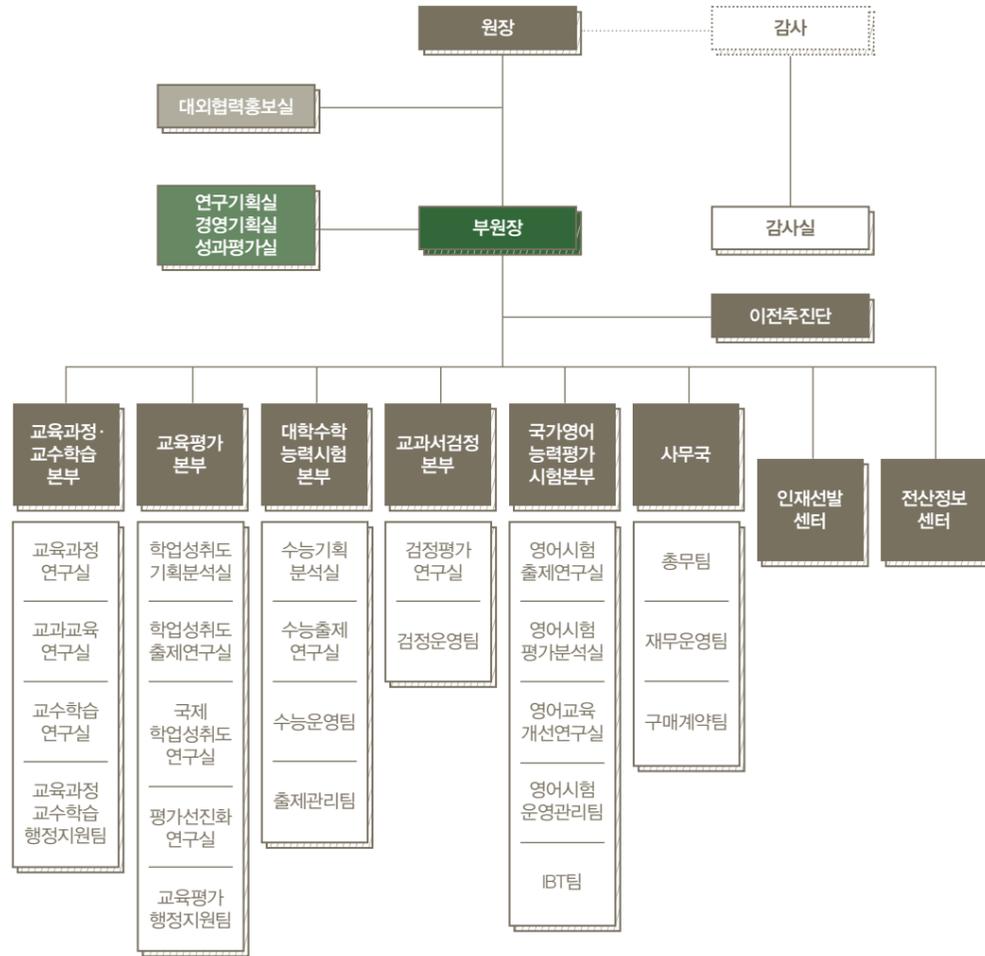
우리원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2월 26일 부원장직을 신설하였으며, 내부공모를 통해 이양락 박사가 부원장으로 선출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부원장은 직속으로 연구기획실, 경영기획실, 성과평가실을 두었으며,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원장 직제 신설 이후 변화된 우리원의 조직 및 부원장 직속실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았다.

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직속부서를 마련해 조정함으로써 우리원은 원장의 통솔 범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기관장의 리더십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부원장 직속실 주요 업무

연구기획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사업계획,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사업 심의 및 조정·평가 당해연도 및 차기연도 과제 발굴 및 운영 정책현안 대응, 중장기 연구 및 협동 연구 기획
경영기획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및 정원 관리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편성·배정 및 관리 정부 및 국회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계획 수립·운영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경영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개발·관리

201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직도



02 성과관리시스템의 합리화

(1) 성과평가실 신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여러 외부 변화에 직면했다. 공공기관 성과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원에도 성과연봉제가 실시되었고, 이진아웃제 역시 신설되었다. 연공서열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연구직, 행정직의 직급은 3개로 단순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성과주의를 향하고 있었다.

성과주의는 잘 활용하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잘못 적용될 경우에는 역으로 조직을 빠르게 와해시킬 수도 있다.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사, 급여, 승진 등 모든 보상의 몫이 줄어들게 되

고, 그 줄어드는 몫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낸 다른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구성원들이 우려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성과주의는 모든 공공기관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평가의 공정성·타당성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었다.

합리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 '성과'를 정량적으로 계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마다 성과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년 단위의 단기성과주의 평가 방식의 폐해도 줄여야 하고, 개인 및 부서 이기주의도 억제해야 하며, 보여주기식 실적 양성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합리적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원은 2011년 1월 전담부서로 성과평가실을 신설하였다.

(2) 합리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위한 노력

기존에는 개인의 역량을 중이기에 수기로 적어서 평가하였으나 개인역량 및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IT 솔루션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성과평가실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TF팀에서는 외부 컨설팅 업체와 함께 'KICE 성과관리시스템(K-PMS)'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은 균형성과평가제도(BSC) 기반의 조직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경영목표 및 기관평가의 실적을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와 연계시키는 방법이었다. 우리원은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 및 교육 등을 수차례 실시하면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09.30 KICE 직급, 보수 및 직원평정 체제 개선안 설명회



2013.12.04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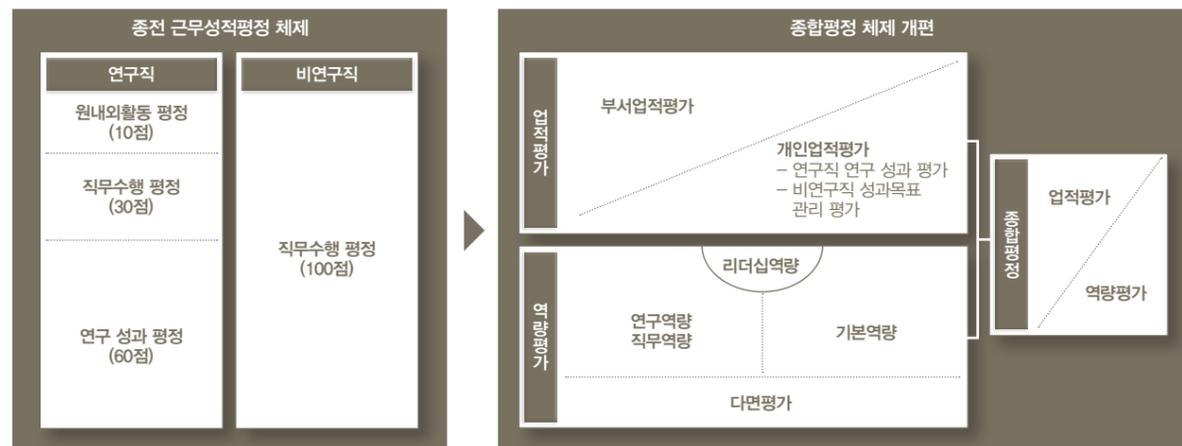
먼저 4대 경영목표 및 13대 추진과제를 고객, 운영, 인프라 관점에서 구분해 반영하고 이를 성과 관점으로 연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부서 단위 성과관리 체계를 관리하는 IT 솔루션은 외부 업체를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정립하였으며,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하여 각 핵심 업무를 KPI로 정리하고 부서·실·팀별 직무 기술 작업을 2010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나갔다.

조직평가뿐 아니라 직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직원평정시스템 역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했다. 우리원은 BSC 기반의 조직평가 IT 솔루션과는 별개로 직원평정시스템을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과 협조해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개선에 집중하여 평정시스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외부업체를 통해 2011년부터 KICE 직원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직원평정 관련 전 직원 교육을 통해 평정의 관대화, 극단적 평정 등의 문제점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3) 종합평정 체제의 합리적 개편

새롭게 구축한 성과관리시스템과 직원평정시스템은 각각 조직의 업적평가와 개인의 역량평가를 분담하였다. 이로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년 상반기 평정부부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결합시킨 '종합평정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특히 2011~2012년 사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TF팀'에 29명, '직원평정체제개선위원회'에 20명을 투입하는 등 많은 인력을 동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서별 KPI 총 65개를 도출하여 업적평가에 활용하였다. 또한 역량평가에 있어서도 첫

'업적평가+역량평가'의 종합평정 체제 구축



실시하는 IT 기반 평정인 점을 감안해 매년 전 직원 설명회 1회, 직종별·직급별 교육 6회를 실시함으로써 평정 시 오류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2012년부터 실시된 종합평정 체제는 평정 결과 활용에 있어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KPI를 이용한 조직평가와 목표관리(MBO) 방식의 개인역량평가를 종합함으로써 이후 수년 동안 기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03 글로벌 대외협력 강화

(1) 대외협력홍보실을 통한 대외협력 업무 수행

2011~2014년 무렵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관련 조직이 크게 변모하였고, 업무의 범위와 성격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원은 2011년 기획처 아래 '대외협력홍보실'을 두었다. 대외협력홍보실의 기능은 언론 홍보 업무, 대외협력 업무, 출판 및 온라인 홍보 업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국제 협력 기능은 대외협력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주요 대외협력 업무로는 국제 학술대회 개최 추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사업 수행, 국제기구와의 우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국제교류 및 국외출장 지원 등이 있었으며,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MOU 체결, 국내외 유관기관 인사 대상 홍보 및 연수 등도 대외협력 업무의 한 축을 차지했다.

우리원은 이러한 대외협력 업무의 일환으로 기관 공식 국·영문 홍보 브로슈어 및 국·영문 주요 업무 홍보자료를 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e-book 형태의 홍보자료도 제작하여 국·영문 홈페이지에 각각 탑재하였다. 또한,



2012.02.16
프랑스 교육관계자 일행 내방

프랑스 ENS(École Normale Supérieure de Lyon), 영국 CF(Curriculum Foundation), 영국 Ofqual(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일본 NCUEE(National Centre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등 해외 유관기관과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추진하였고, 일본 대학입시센터(NCUEE) 주관 한-미-일 공동 국제 학술세미나에 우리원 연구자를 참여시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 Ofqual과는 2012년 우리원 주관 교육평가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발표자를 초청하였으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Ofqual 주관 국제 협력 연구에 참여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ERO(Education Review Office) 원장 일행 등 총 316명의 해외 유관기관 직원이 37회에 걸쳐 우리원을 방문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2012년에는 대외협력홍보실이 원장 직속의 독립부서로 바뀌었다. 대외협력 업무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호주 ACARA(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베트남 VNIES(Vietnam Institute for Educational Science) 및 HNUE(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등의 해외 유관기관과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원은 VNIES 주관 국제 콘퍼런스에 연구자를 참석시켜 한국의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고, 또한 HNUE 교수진이 수능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2년에는 총 29회에 걸쳐 308명의 해외 유관기관 직원이 우리원을 방문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부의 연구자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총 8회 14명), 해외 유수의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총 9회 11명).



2012.05.24 한·미 공동 세미나 현장



2013.10.22 UNESCO 펠로우십 참가자 일행 방문



2013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 글로벌협력실의 출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부원장 직속의 글로벌협력실을 출범시키면서 국제 협력 본연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13년에는 일반적인 해외 유관기관 인사의 우리원 방문은 물론이고, UNESCO LMTEF, UNESCO IBE, UNESCO Bangkok NEQMAP, UNESCO Bangkok ERI-Net, OECD GPS, World Education Forum 등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KICE-NZQA 워크숍, UNESCO Bangkok NEQMAP Steering Group Meeting, UNESCO Bangkok ERI-Net Annual Seminar, 2013 KICE 국제 학술심포지엄 등의 국제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거나 해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2013년 10월에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6차 OECD PISA Governing Board(PGB)에는 OECD 관계자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80여 명이 참석해 PISA 2012 결과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 PISA 2015 예비검사 준비 상황, PISA의 장기적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우리원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실제로 'KICE 교육개발협력 추진 방안', 'KICE의 UNESCO IBE 디플로마 프로그램 참여 방안 구안' 등 2건의 교육개발협력 추진 방안 관련 연구를 2013년 처음으로 수행하였다.

2014년은 경영목표에 글로벌 협력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였다. 당



2013.10.31 KICE 국제 학술심포지엄



2014.09.15 제1차 글로벌 교육포럼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비전은 ‘창의교육을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이었으며,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경영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영목표에 입각하여 우리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 교육부 장관 일행, 스리랑카 교육부 차관 일행, 태국 방콕시 교육국 일행 등의 해외 인사들이 우리원을 방문하여 상호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였고, UNESCO-APCEIU(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와의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UNESCO-APCEIU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원 방문 연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 협력 관련 동향 탐색,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연구진의 연구 능력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글로벌 교육포럼’을 창설하여 2014년 9월 ‘국가수준 평가에서의 인지진단 모형 적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글로벌 교육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제2회 글로벌 교육포럼을 추가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이어나갔다.

04 지방이전사업단 설치 및 노동조합 설립

(1) 지방이전사업단 설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07년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4일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이전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확정안에서 우리원은 인력개발기능군에 포함되어 지역 내 우수한 교육 관련 인프라와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등을 감안해 충청북도 이전이 결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3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우리원은 2012년 12월까지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기반 조성 미흡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공사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원은 2013년 12월 말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다.

이러한 지방이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이 필요했으나, 기관 내에 이러한 인력이 전무했다. 따라서 우리원은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지방이전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설계 및 공사 기간 중 지속적인 현장 확인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2011년 3월 28일 지방이전 업무 전담부서인 ‘지방이전추진사업단’을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 지방이전추진사업단 주요 업무

- 신규청사 공간 소요현황 및 배치 계획 수립 및 결정
- 청사 건축에 관한 사항(설계, 시공, 감리 등)
- 지방이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이전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
-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
- 청사 이전 계획 수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이주 직원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신규청사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설립

2013년 6월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부가 66명의 인원으로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우리원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2013년 12월 9일 기본협약 체결과 12월 30일 능

를성과급 차등지급률 합의 등을 이끌어냈다. 기존에 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우리원은 2014년 노동조합과 총 23회의 교섭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진행하여 임금인상률 정부 기준(1.7%) 준수, 2014년 임금협약 시 기본연봉의 누적식 차등률(+4%~-3%) 적용, 성과연봉 차등률의 경우 직급별 ±15%(비간부직 ±10%) 완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전 직원 설명회 및 끝장토론을 개최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이끌어냈다.

2015년에는 노동조합 창립 이후 약 2년 만에 본협약을 체결하여 노사 긴장관계를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도입 과정에서 전 직원 설명회를 4회 개최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다수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15년 11월 30일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투표 이후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중 미이행 항목(능률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에 대해 12월 전 직원 투표를 실시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2013년 공공연구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부가 창립된 이래 2017년에는 3개의 노조가 추가로 창립되었다. 이후 새로 설립된 3개 노조 중에서 1개 노조가 다른 노조와 결합하면서 우리원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공공연구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노조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7년 9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복수노조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조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하였다.

> 복수노조 단일화 추진과정

- 2017년 6월 26일 :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문 게시(제3노조 교섭 요구)
- 2017년 7월 3일 : 제1노조가 상기 공고기간 중에 단일화 절차 참여
- 2017년 7월 25일 : 제3노조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인원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제3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게시
- 2017년 7월 31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제1노조가 이의신청 제기)
- 2017년 8월 21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 일정 게시(공공노조의 이의신청 기각)
- 2017년 8월 24일 : 공감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 획득(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 결정과-247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조는 교섭대표 노조 지위 획득 후 2차례의 단체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2017년 11월 22일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3) 감사원 종합감사 및 국정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오류 등 특정 분야에서만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의 감사 등을 수감하였다. 그러던 중 우리원은 2011년 예산·회계 집행과 조직·인사관리 업무 처리 실태, 주요사업 추진 실태, 임직원 복무기강 등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었다. 감사는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 과장을 단장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원에는 감사인원 19명(감사원 11명, 교육과학기술부 8명)이 투입되어 2011년 2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감사가 진행되었다.

실지감사 이후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에게 15건의 질의서를 보냈고, 우리원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원장 명의로 작성하여 2011년 3월 4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같은 해 6월 30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 결과가 확정되었으며, 우리원의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접수되었다. 감사 결과는 총 16건이 통보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처분 통보된 16건의 사안에 대해 원칙대로 조치하였다. 당시 우리원 정원은 24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51명이 징계처분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해당 감사가 매우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2014년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8억 파스타’ 사건이 발생하여 대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014년 10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원이 위치한 건물 1층 파스타 업소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지출내역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골자는 해당 업소에 실제 쓴 액수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것처럼 꾸며 카드 결제를 한 후 업소로부터 일정 커미션을 받아내 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후 국내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사실 확인 없이 ‘8억 파스타’라는 문구와 함께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원은 사건 직후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파스타 업소는 기관이 소재한 정동빌딩에 위치해 있는 데다 해당 건물에 입점한 유일한 음식점이었으며, 이동 편의와 회의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기 적합해 회의 시 자주 이용



2014.04.16
2014년도 감사실 업무보고

했다. 또한 참석자들이 해당 식당을 이용할 경우 주차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어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외부위원들이 해당 식당을 선호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는 2015년 3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재무·회계 담당자 등 직원 5~6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1만여 건을 기관 일정 등과 일일이 대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업무 특성상 교수나 교사 등과의 회의 및 워크숍 등이 잦아 식대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또한 명확했다. 결국 경찰은 '8억 파스타' 사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비록 아무 일 없이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2014년 '8억 파스타' 사건은 당시 우리원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큰 아픔을 준 사건이었다.

연구 기획 기능 강화 및 시스템 개선

제 2 절

01 중장기 연구 및 연계·협동 연구의 활성화

02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도입

03 기관 홍보 전략의 다각화

01 중장기 연구 및 연계·협동 연구의 활성화

(1) 1년 단위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는 크게 기본 연구, 수탁 연구, 수시 연구로 구성된다. 이 중 수탁 연구는 외부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우리원의 정체성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외부기관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수시 연구는 긴급한 과제들을 회계연도 1년 내에서 수개월의 단기간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사업은 기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개원 이래 우리원은 다양한 기본과제들을 수행해 왔으나 대부분 1년 단위로 구성된 연구였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연구 계획에서부터 연구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는 데까지 1년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연구로 기획되어 추진된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런 연구과제를 1년 내에 서둘러 결과를 산출하고 정책 제언까지 개발하는 것은 연구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이 시간 제약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2년 이상의 중장기 연구를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질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종합적 중장기 연구 수행

기준에도 동일한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2년 이상 진행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1년 내에 전체 연구 대상(학교급 또는 교과)을 다루지 못할 때는 연차를 달리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년부터 이러한 유형의 중장기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성취 우수 학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이루어졌다⁰³. 또한 2011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2012년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이 연구되었고, 연이어 2013년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중장기 연구는 연차별로 학교급 또는 교과를 달리한 채 유사한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주로 교육과정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2011년부터 중점적으로 발굴·수행한 중장기 연구는 2년 이상의 연구 기간이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시작연도에 전 과정을 연차별로 기획하고 각 연차별로 연구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 연구 성과가 누적되도록 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되는 연도에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종합적으로 집대성되도록 했다.

이러한 종합적 중장기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교수학습 분야에서 2010년 수행된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연구: 학습전략 및 동기유발 프로그램 개발’은 2011년과 2012년까지 이어졌으며, 교육평가 분야의 대표적인 중장기 연구로는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5년 동안 수행되었다.

03) 2011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교육 향상도 분석 연구
2012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도 및 향상도 추이 분석 연구
2013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도 및 향상도 추이 분석 연구



2013 중학교 동기 향상 프로그램

(3) 각종 연계·협동 연구의 활성화

연계·협동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독으로 수행할 때 제한되는 연구의 영역 및 범위를 극복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특정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협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먼저 연구제안제도를 통해 원내 연구원들이 협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제안된 과제가 실제로 채택·수행될 경우에는 원내외활동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정책 연구(실무)협의회를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점검하는 체계도 갖추었다.

2011년부터는 협동 연구 추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먼저 2011년에는 연구사업운영규칙에 협동 연구사업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는 우리원 연구에 공동 연구원이 적합한 업무와 적합한 인원으로 참여하는지 검토하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계획서 심의 강화와 사업 종료 후 외부 공동 연구원 평가를 통한 질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2012.09.21 KICE-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공동 학술대회

주요 연계·융합 연구

시기	연구 내용	연계·융합 내용
2011년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책임기관으로서 전체 연구를 총괄하면서 교과교육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협동 연구팀으로 한국교육개발원팀이 선정됨
2012년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	국내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미국에서는 교육부가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교육 체제, 학력향상 지원 학교의 성과 분석, 도약 학교에 대한 연구를 각각 진행하였고, 상호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그 결과를 비교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
2012 ~ 2013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특성과 채점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우리원과 음성인식기와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한 SKT가 협력하여 자동채점 프로토타입을 개발·고도화
2012 ~ 2016년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중장기 연구	대규모 평가시험의 서답형 문항에 대한 채점 경험을 보유한 우리원과 자연언어 처리 프로그램 전문가가 협력하여 국내 최초의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
2013년	ADHD 학생의 뇌영상 진단 및 뇌기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뇌과학 분야와의 협동 연구를 위해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 뇌과학연구소와의 협동 연구 진행



201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말하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201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2014년에는 본부별 산·학·연 협동 연구과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별 KPI 설정을 통해 산·학·연 협동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참여 연구자, 추진 실적, 기대효과 등의 중간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기본·수탁·수시 연구사업에서 연계·협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굴·수행되었다.

이러한 중장기 연구와 연계·협동 연구의 발굴은 2011년부터 시작된 연구 기획 TF팀의 운영과도 관련이 깊다. 우리원은 연구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기존의 부서 중심 연구과제 발굴 및 검토 시스템을 연구 기획 TF팀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연구 기획 TF팀은 우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대내외적 교육환경 및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발굴을 위해 통합적·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발족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원은 부서별 과제 뿐만 아니라 향후 기관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교육과정·평가 전문기관 및 정책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 2011



2013.12.03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시연 및 세미나

년에는 기획처장이 연구 기획 TF 위원장으로, 부서별 실장들이 TF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신진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후 연구 기획 TF팀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는 과제기획팀, 과제발굴팀으로 구분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02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도입

2009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목표관리를 위한 운영체제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사전 목표치 설정 및 실적의 비교 평가기준이 지표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기관의 전략적 목표와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원은 ‘기관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발전위원회 제2분과의 주요 업무로 2010년 6월 25일 ‘KICE 성과관리시스템(K-PMS)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KICE 성과관리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정·평가 전문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 구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며, 연구와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원은 개발을 함께 진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하 뒤 1차 연도 개발계획에 따라 2010년 10월 연구사업관리시스템(RIMS)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원은 2차에 걸친 고도화 사업을 통해 RIMS를 점차 발전시켜 나갔다. 먼저 2012년에는 기존 RIMS의 기능 개선, 원내 경영정보시스템(MIS)과의 연계를 위해 연구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어서 2015년에는 1차 고도화 이후 시스템의 기능상 미비점 보완·개선, 사용자 편의 증대, 정보 공유 및 자료 출력 기능 강화 등 연구사업 관리의 체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한 2차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RIMS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동 연구회에서 개발 중인 출연연⁰⁴ 재정정보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있다.

0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약칭

03 기관 홍보 전략의 다각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수

능이나 교사임용시험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갈수록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호적 언론 관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원은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 SNS의 폭발적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홍보 전략을 다각화하였다.

(1) 언론 관계 구축의 강화

우리원은 정확하고 우호적인 언론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언론 관계 구축을 보다 강화하였다. 먼저 기관 홍보 업무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민간 분야에서 활약하던 홍보 전문가를 2011년 대외협력홍보실장으로 임용하였다. 이러한 홍보 전문인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능 전·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체별 기자간담회 개최 횟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축된 우호적인 언론 관계를 활용하여 한국교육신문에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연중 기획보도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2013년에는 코리아헤럴드, KTV, 월간조선 등의 매체에 인터뷰와 기고를 지속함으로써 연구와 사업 성과에 대한 활발한 언론 기고 활동을 수행하였다.

(2) 언론 모니터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2011년 뉴스 스크랩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언론 모니터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먼저, 뉴스 검색시스템을 상시가동하고자 2012년 언론 모니터링 전담직원을 배치하였다. 모니터링 전담직원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약 20여 개 언론매체의 기관이슈와 교육 관련 뉴스 전반을 검색한 후 당일 오전 9시 전에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에 탑재함으로써 원내 직원들의 교육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4년에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사의 초판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도 전달 가관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오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4년 11월 27일 세계일보 1면에 실린 “수능 출제위원 서울대 편중 여전” 보도와 관련하여 가관 확인을 통해 ‘평가원 20% 이하 거짓 해명’을 ‘평가원 전체 위원 중 21% 해명’으로 바로잡는 등 다수의 기사 제목과 내용 오류를 정정할 수 있었다.

(3) 연구 성과 확산·보급 방법의 다양화

우리원은 2012년 기관 메인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하였다. 특히 SNS 사용 확대에 발맞추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식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계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웹 서비스를 통한 홍보 활동을 보다 내실화하였다.

한편 2013년은 기관이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우리원은 개원 15주년 기념 단행본인 '2020 한국 초·중등 교육의 향방과 과제'를 2013년 8월 21일 발간하여 정부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MOU 체결기관, 국회 등에 배포함으로써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정립 그리고 효과적인 확산을 이룰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10년 이상 지속된 홍보자료의 구성을 쇠신하고 내실화를 다진 시기이기도 하다. 기관지 '교육광장'은 원내 주요 사업 관련 기획특집을 강화하여 교육전문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KICE 뉴스레터'도 기관 연구 성과 소개 코너를 증편하였다. 더불어 교육광장 모바일 매거진을 전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4) 소통을 통한 홍보의 활성화

2008년 기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한 CI 결과물에 2종의 기관 캐릭터도 함께 산출되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원은 2014년 기관 캐릭터 사용 활성화를 포함한 CI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캐릭터 명칭 공모를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하였다. 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캐릭터의 최종 명칭이 2014년 8월에 확정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배우미'와 '이꼬미'라는 이름은 기관 캐릭터에 활력을 부여하였고, 이후 우리원은 각종 홍보물 발간과 기관 사업에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렵고 딱딱한 연구기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원은 2011년 'KICE 뉴스레터'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기관지 '교육광장', 2016년에는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까지 기관 대표 발간물 구독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08.21 개원 15주년 기념 행사



2013.08.21 개원 15주년 기념 단행본



2014.08.21 기관 캐릭터 '배우미'와 '이꼬미'



2016.12.05~23 기관 대표 발간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

제 3 절

- 01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연구를 통한 창의 인재 육성
- 02 선도적인 교실수업 개선과 개별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강화
- 03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
- 04 교육평가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솔루션 구축

01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연구를 통한 창의 인재 육성

(1)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자 학교교육 실천의 근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새로운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 변화의 추세와 양상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양적인 팽창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질 높은 지식을 선별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역량'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개념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도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다. 2007년 연구인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 핵심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에서는 핵심역량



2013.10.16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평가 개선 방안 탐색 세미나

의 의미, 준거 및 주요 영역을 도출함으로써 핵심역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듬해 2008년에는 미래의 직업세계 전망 및 평생교육 환경에서 본 핵심역량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09년에는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2009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지원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잠시 유보되었다. 그러나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우리원은 2012년부터 다시 핵심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핵심역량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적용 및 실행 관련 연구

과제명	연구 성과 및 의의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2012)	- 미래사회 변화의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방향을 진단한 후, 미래의 교육 요구를 핵심역량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구상할 목적으로 수행 - 이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국가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 방안',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제안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 교과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2013)	- 2012년도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연계 전략을 탐색하고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특히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 - 이 연구에서는 교과별 중점 개발 핵심역량을 선정한 후 그 기본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도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2013)	- 이 연구는 '미래사회 대비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선정 및 의미 규정', '주요 국가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태 분석',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제시'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함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혁신(2014)	- 21세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방안 탐색', '고등학교 사회와 과학 융합과목 개발 방안 모색', '고등학교 융합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수행·수시평가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함 - 이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교육 및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내신 9등급제 개선', '성취평가제 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체제 및 점수 체제 개선' 방안 등을 제안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2014)	- 이 연구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2015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함 - 연구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통 지침을 설정하고, 핵심역량 반영 지침, 교육 내용 구성 지침, 성취기준 진술 지침, 문서 체제 구성 지침 등을 제시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핵심역량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가장 커다란 성과는 무엇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구조, 절차 및 참여 주체 등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우리원은 미래 교육과정 방향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안하였

으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학습량을 감소시키는 '교과별 주요 내용 위주의 구조화'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 연구진의 소통·협업을 위해 '각론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교육부에 제안하여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기간 동안 운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정에 현장교사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일정 비율의 현장교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선도적 교육과정 정책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중등학교 교육 전반, 즉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교육 실천과 직결된 현장 기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원은 학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을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2014년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 교육과정 정책 연구는 다음과 같다.

- > 주요 교육과정 정책 연구(2011~2014년)
- 체육·음악·미술 교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 및 내용 국제 비교
-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 고등학교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 주5일 수업제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 체육·음악·미술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계에 관한 국제 비교
- 통일 대비 북한의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교육과정 정보 서비스(CUTIS) 개선 및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 비교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 교과 교육과정 쟁점 및 개선 방향 : 도덕,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2014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2012.09.12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방안 탐색 포럼



2013.07.12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탐색 세미나

(3)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2009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이래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다양한 기초연구에 근거해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하였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 후속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였다. 2011~2014년 기간 동안 우리원은 이미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현장적용 지원 연구들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 : 시스템과 정보의 안정화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 국가수준 교육과정 형식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 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안
-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2014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02 선도적인 교실수업 개선과 개별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강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2014년 시기에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와 학생 맞춤형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전개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실현을 위한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2014년에 설립된 선행교육예방센터에서는 선행교육 예방 및 선행학습 근절을 통한 초·중등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공교육정상화법' 및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와 초·중등 학교현장 지원을 수행하였다. 주요 업무는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관련 연구·홍보자료 개발, 공교육 정상화 관련 교원 연수자료 개발 및 보급,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관련 실태 파악, 정책 효과 분석 및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과교육의 질 관리 개선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공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1)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

2011년 교수학습 부문에서는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 '교과 교실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학업성취 우수 중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 분석', '외국의 교수학습 혁신 정책 및 우수사례 분석' 연구가 기본과제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2011년의 연구 성과와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환경에서 요청되는 학습자의 핵심역량과 그에 따른 교사 전문성 역량의 변화를 고찰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발전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교과별 실현 양상을 제시하여, 향후 보완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이 기존의 교육환경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교수학습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실제적인 단위학교 교실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과교실제 수업 원리와 교실환경 구성 원리를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 효과성 변인들 중에서 학교 내적 변인의 핵심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학업성취 우수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 교수학습 실태 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학습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외적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서 내적 과정 변인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2011.12.16
외국의 교수학습 혁신 정책 및 우수 사례 분석 세미나

넷째, 외국 교수학습 정책의 단편적 소개를 넘어서 해당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수학습 혁신 정책의 현장 확산을 위한 조건을 규명하였으며, 3개국(영국, 프랑스, 덴마크)의 교수학습 혁신 정책 및 우수 사례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21세기 교수학습 혁신 정책 설계도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탐색

2012년에는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수학습과 평가 연계 방안’,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 분석’ 및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초등학생 지원을 위한 수업 전략과 학습환경 설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각 연구의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교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공동 연구원으로 하여 교과교실 실 원리 적용 수업안을 개발하고 학교현장에 실험 적용함으로써 실증적 결과 중심으로 학교현장 밀착성과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하여 교과교실제와 관련된 21세기 교육 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검증은 진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 교육정책(evidence-based educational policy)’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업성취 우수 중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 분석에 이어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특성 및 특성 간 메커니즘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정적인 지원 방안과 잠정적인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실현의 측면에서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

닌 학생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문제행동의 유형화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일반학급 내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학생들을 지도·지원하기 위한 수업 전략과 학습환경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2013년에는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초등학생 지원을 위한 수업 전략과 학습환경 설계 방안의 효과성 검증’ 연구와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이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시기에 해당 기본과제와 더불어 특별한 요구를 지닌 개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탁과제들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다. 2013년에 수행한 연구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초등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과별 지원 방안 및 행동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각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세부 실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둘째,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실태 및 학습환경을 분석하고 학습에 대한 요구와 지도교사의 지원 요구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기본방향, 지원 대상(학생, 교사, 학부모) 중심의 영역별 지원 방안, 자원 지원 및 연계·협력 방안, 지원 주제별(학교, 교육청, 정부) 역할과 과제 등을 나누어 제안하였다.

(4)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014년에는 ‘중학생의 수학·과학 정의적 특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방안 탐색’, ‘초등학교 교과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기본과제로 수행되었다. 2014년에 수행한 연구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PISA와 TIMSS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 실태 및 정의적 성취가 낮은 원인 분석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 자기효능감, 가치 인식 등의 정의적 특성을 함양하기 위한 정규수업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둘째, 2013년에 수행된 ‘초등학교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연구’에 이어 특히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에 해당되는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해 보다 초점화하여 이 학생들을 지도·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2014 초등학교 교과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도출하였다.

셋째, 초·중학교 연계선상의 학생들이 학교급의 전환이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환기 학생들에게 펼쳐지는 중요한 변화의 장면과 위기의 양상들을 학교현장에 밀착하여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효율적인 교수학습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공교육적 지원 장치를 제시하였다.

넷째, 다양한 인지적, 정서·행동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영역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03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

정부는 2005년 5월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 같은 해 12월 대통령의 영어교육 개선 대책 수립 지시, 2006년 4월 ‘영어교육 혁신을 위한 추진 체제 구축 방안’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5월 30일 우리원 내에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정부의 영어교육 혁신 방안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수행,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전문위원회(영어평가방식개선 전문위원회, 영어교사능력향상 전문위원회) 및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건설당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센터 설립 이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주요 연구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 혁신 방안’, ‘초등영어 1·2학년 연구학교 운영’, ‘영어수업 개선 연구 대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포함된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을 통해 해외에서 개발된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여 학교 영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우리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평가도구 도입에 대한 사전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으로 2012년 말 수능 대체 여부를 결정하고, 1급은 일반인용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대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는 2009년 영어



2006.08.02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 개소식

교육특임본부로 확대되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영어교육특임본부에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개발 및 영어교육 개선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발이 진행되었다.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추진 과정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예비검사 실시(2009.05~12)
 - ※ 1차(33개교, 4,300명) → 2차(43개교, 5,300명) → 3차(78개교, 1만 600명)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개발 방향 공청회(2010.06)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예비검사 실시(2010.09~2011.03)

이후 2011년 영어교육특임본부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부로 바뀌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영어교육특임본부에서는 영어교육개선연구실과 영어능력시험연구실 2개의 실을 운영하였으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부에서는 영어시험출제연구실, 영어시험평가분석실, 영어교육개선연구실, 영어시험운영관리팀, IBT팀 등 3개의 실과 2개의 팀을 운영하였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방식으로 출제, 시험 시행, 채점, 성적 보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학생들은 시험장의 컴퓨터를 통하여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영역의 시험을 치르고, 출제, 채점, 문제는행 운영, 출제 및 채점자 연수 등이 모두 VDI 상에서 진행되는 최첨단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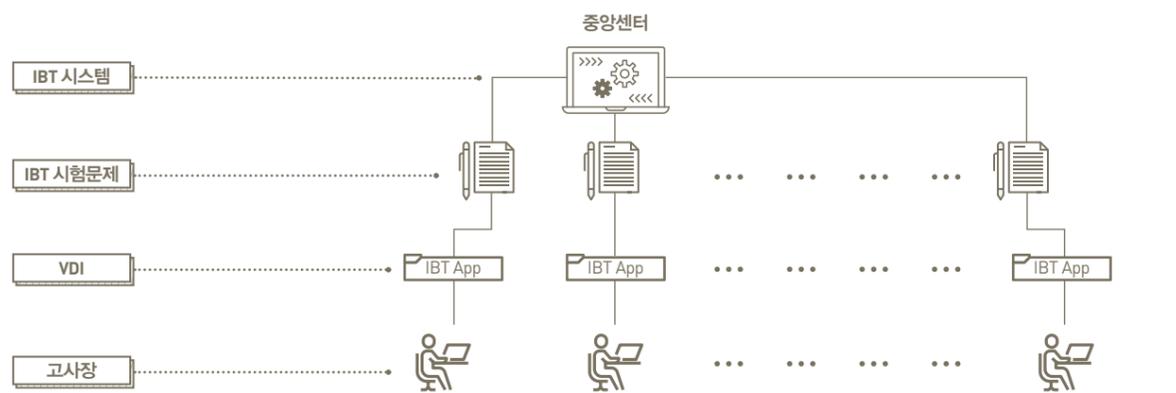
한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부의 영어교육개선연구실에서는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1년 3월 30일에는 영어중점창의경영학교 워크숍을 실시하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에 따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고자 했다. 같은 해 5월 26일에는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의 ‘학교가 중심이 되는 영어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연설에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방안’,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EBS에서는 ‘학교 영어교육 지원’에 대해 발표를 실시했다.



2011.05.2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공개 토론회 자료집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인프라 구성 방식



※ VDI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

2012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수시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적용 대학은 부경대, 공주대, 창원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대진대, 강릉원주대였다. 이를 위해 우리원은 2012년 5월 9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시행 세부 공고를 발표하였고, 그해 두 번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본 시행이 실시되었다. 2012년 6월 24일에 실시한 1차 시험에는 총 643명이 응시하였고, 같은 해 7월 29일에 실시한 2차 시험에는 총 776명이 응시하였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수준 설정(standard setting)을 통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 및 희망 학과에 따라 2급(기초학술영어)과 3급(실용영어)을 선택하여 치를 수 있었으며, 한 학생이 1년에 두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와 2차 개별 학생의 시험 성적은 동등화하여 제공되며, 학생들은 한 회의 성적을 선택하여 대학에 제출할 수 있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기존의 독해, 문법, 듣기 위주의 학교 영어교육을 말하기, 쓰기를 동시에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존의 합숙형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은행 기반 출제 방식을 적



2011.05.2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공개 토론회



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 국가수준 시험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시험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2013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폐지 이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부는 2014년 영어교육센터로 바뀌면서 영어 듣기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영어교육센터는 교수학습본부로 통합되었다.

04 교육평가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솔루션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년 6월 성태제 원장 취임 이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선도하는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교육평가 연구의 주요 방향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 선진적 교육평가 방법을 적용한 연구,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대안 제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현대화 등이었으며, 이에 따라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평가 연구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1) 평가선진화연구실 신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평가 연구로서 컴퓨터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모형과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21세기 미래사회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한 평가모형 및 평가 문항 개발 연구,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수학



2012.03.13~16 성취평가제 시행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중학교 핵심교원 연수

습 지원을 위한 교육평가 정책 방향 연구 등 고등사고력이 포함된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원에서는 2012년 1월 1일 교육평가본부에 평가선진화연구실을 신설하고, 2013년 1월 평가개선연구실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곳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연구와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평가 개선 연구들을 진행하였고, 교실에서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 도입 연구, 서술형 평가를 위한 연구자료 개발 및 포털 구축,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 종합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원에서는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정착화를 위한 지

교육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내역(2012~2014년)

2012.01.01	교육평가본부 '평가선진화연구실' 신설
2012.02.20~2014.12.31	성취평가제 연수 및 자료 개발
2012.02.20~2013.12.31	고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시범학교 운영 지원
2012.03.22	고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시범학교 운영담당자 연수
2012.06.13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지원 홈페이지 오픈
2012.08.28~29	성취평가제 중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 개최
2012.11.15~16	성취평가제 중학교 현장지원단 활동 사례 발표회 개최
2013.01.01	교육평가본부 '평가선진화연구실'을 '평가개선연구실'로 명칭 변경
2013.01.01~2013.12.31	중학교 재이수제 시범학교 운영 지원
2014.03.01~2017.12.31	중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결과 모니터링 지원
2014.03.01~2015.02.28	학생평가 개선 홍보자료 개발
2014.12.31	수행평가 지원 포털 구축



2013 2013학년도 중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매뉴얼



2012 성취평가제 지원 포털(assess.kice.re.kr)

원 사업으로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중학교 핵심교원, 중학교 현장지원단의 워크숍을 통해 단위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성취평가제 안착을 지원하였다. 또한, 성취평가제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성취평가제의 운영과 홍보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관련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연수, 성취평가제 온라인 강좌 개설,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취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원은 학생평가 개선 및 홍보자료와 학생평가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의 학생평가를 지원하였으며, 초·중학교 성적표 개선, 고등학교 성적표 산출 프로그램 개발·지원, 수행평가 평가도구 제작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구축 등 단위학교의 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였다.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현대화 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연구는 교육평가 본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연구실과 기획분석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교과별 출제 및 결과 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단·중기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출제, 시행, 점수 체제, 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중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은행, 검사 구성, 시행, 점수 체제, 결과 저장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서답형 문항의 한국어 답안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단어·구 수준의 답안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채점 전문가를 돕는 지원도구로써 채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우리원은 2014년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답안에 대한 정규화 과정의 분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학생 답안 및 채점 결과 데이터 입출력 방식의 정교화, 학생 정답 템플릿 작성도구의 편의성 강화, 한국어 처리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보강 등을 통하여 그 실용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우리원은 문장 수준의 답안을 자동채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여 프로그램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기존 연구된 서답형 문항 온라인 채점시스템을 전수체제에 본격적으로 적



2013 대규모 평가를 위한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정교화 및 시범 적용



2014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용성 검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연구 및 사업 내역(2011~2014년)

2011.05.25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자료 활용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1.06.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계 세미나 개최
2011.12.0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심포지엄 개최
2011.12.09	중단척도 구축 결과 세미나(KICE 정책포럼) 개최
2012.05.24	기초학력 향상 정책 분석 및 기초학력 도약학교의 성공 사례 연구 세미나 개최
2012.07.10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력향상 지원 방안 탐색 학술세미나 개최
2012.09.2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별 성취 결과 분석 관련 세미나 개최
2012.12.0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개최
2013.12.0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개최
2014.06.27	2014년 '국가단위 평가 자료 분석 연구' 공모(2014.06.27~07.07)
2014.09.2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교육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 개최
2014.12.0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심포지엄 개최

용하여 채점의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높여 나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연구로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연결된 검사 동등화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학생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강·약점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지진단 모형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 탐색, 학업 성취 프로파일 분석 및 결과 보고 방안,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한 인지진단 프로파일 분석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학생 학업성취의 변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중단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확장 구축하여 초·중·고 학생 성장에 따른 학업성취의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단위학교에서 평가 문항 및 정보를 활용하여 수시로 학력진단 및 교수학습 개선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지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두 가지 평가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초학력 점검 기능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초학력 정책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2013.12.03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시연 및 세미나



2013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4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우리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방 교육행정 선진화 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과 정책 평가, 학습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점검을 위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 특성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일반 연구자들에게 국가단위의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모 받아 관련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지원 서비스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조사로 전환된 2017년 이후에도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활용한 연구 공모를 통해 우리원은 지속적으로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결점 수능을 향한 노력

제 4 절

01 수능 조직의 체계화 및 세분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년 12월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로 개편하고, 하위 조직으로 기획분석부, 출제연구부, 문제은행연구부, 수능운영부, 출제관리부, 행정지원팀을 두었다. 2004년 이래 연구관리처로 격상되었던 조직이 다른 부서와 수평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은 우리원의 수능 사업이 비상체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듬해 2009년 12월 28일에는 기획분석부가 기획분석실로, 출제연구부가 출제연구실로, 문제은행연구부가 문제은행연구실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는 기관 전체의 연구원 조직은 ‘실’ 체제로, 행정원 조직은 ‘부’ 체제로 명칭을 분리한 결과였으며, 행정지원팀은 이 시기에 폐지되었다. 이로써 우리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 아래에 3실 2부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본부의 명칭을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로 변경하였다.

2011년 5월 3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의 하위 조직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기획분석실과 출제연구실이 각각 수능기획분석실과 수능출제연구실로 변경되었다. 앞서 우리원은 교육평가본부에 있는 기획분석실과 출제연구실을 수능본부와 구분하기 위해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과 학업성취도출제연구실로 각각 명명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수능본부 하위 조직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었다. 문제은행연구실은 폐지되었으나 문제은행 사업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수능출제연구실로 배정되었다.

이 시기에 명칭보다 더 큰 변화는 행정조직을 ‘부’ 체제에서 ‘팀’ 체제로 변경한 것이었다. 기관 전체의 조직 개편에 따라 수능운영부는 수능운영팀으로, 출제관리부는 출제관리팀이 되었다. 기존에 비공식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영역팀도 이 시기에 공식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이때부터 수능출제연구실 하위 조직으로 언어팀, 수리팀, 외국어팀, 사회탐구팀, 과학탐구팀, 직업탐구팀,

01 수능 조직의 체계화 및 세분화

02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능 방향성 정립

03 문항 오류 예방을 위한 노력

04 이미지스캐너 도입 및 보안 강화

제2외국어팀 등 7개 영역팀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영역주무로 불리던 영역팀장은 보직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영역별 팀원도 이전보다 확충되었는데, 특히 언어, 수리, 외국어 담당 연구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문제은행실이 폐지되면서 문제은행실 소속 연구원이 수능출제연구실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는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한 수능-EBS 연계 정책에 따라 수능교재의 감수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2012년 12월 22일에는 언어팀이 국어팀, 수리팀이 수학팀, 외국어팀이 영어팀, 제2외국어팀이 제2외국어/한문팀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영역 명칭이 언어, 수리, 외국어에서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뀌고 제2외국어팀의 영역 명칭에 따라 조정된 결과였다. 이로써 각 영역팀은 수능본부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02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능 방향성 정립

수능의 시험 체제나 점수 체제의 변화는 학교교육에 늘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변화나 사교육 의존도의 증가는 국가·사회·개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3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KICE-EBS 간 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하면서 수능에서 EBS 교재 연계 비율은 기존의 30%에서 70%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능-EBS 교재 간 70% 연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렵고 연계 체감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EBS 연계 교재의 수가 너무 많고 강의를 듣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은 물론, 학교수업이 EBS 교재·강의 풀이 수업으로 대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 내실화의 요구와 필요성 역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KICE-EBS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EBS 연계 정착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 방안의 요지는 첫째 EBS 연계 교재는 학교수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개발하고, 둘째 연계 교재 수를 언어·수리·외국어 기준으로 45권에서 24권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연계 교재는 모두 PDF 파일로 무료 제공하며, 셋째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 교재를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하며 만점자를 1% 수준으로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양질의 연계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집필 과정을 단계화하면서 교재의 질을 강화



201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안내 자료집 3종

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2일 'EBS 대표와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EBS 연계 교재 오류가 제기되는 등 연계 교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면서 EBS와 수능 연계 정책은 위기를 맞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BS는 교과연구·개발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 단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면서 2012년에는 연계 교재의 품질과 수능강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사교육업체의 주가가 연계 정책 이전 대비 1/4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학생들이 연계 교재를 통해 혼자 공부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다. EBS 수능강의로 인해 공교육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EBS 교재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능강의와 별도로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공교육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수능의 체제 변화나 관련 제도 도입·시행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보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교재 및 강의 연계 정책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능 방향 정립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03 문항 오류 예방을 위한 노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과정에서 문항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2007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역 간 소재 중복 문항에 대한 사전 점검 체제가 필요했다. 이에 우리원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1차 및 2차 검토용 문항 결재 시 영역 담당 총괄기획 및 평가위원의 검토, 총괄 평가위원 등의 검토 과정을 통해 소재 중복 문항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영역 간 교차검토 시 타 영역 지원 검토자의 전공 부분에 대한 상세한 수요조사, 지원 검토자에 대한 사전 문항 소개 및 서면 검토 병행 등을 진행하여 영역 간 교차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출 문항 시비를 없애기 위해 언어 영역에서는 기출 문항 지문 DB를 구축하여 활용하였으며, 수리 영역에서는 그림 및 증명 문항 DB를 구축하였다. 한편 2007학년도 수능까지는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실무심사위원회'가 출제위원만으로 운영되어 심사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원은 2007학년도 수능 이후부터는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13.08.20

수능-EBS 연계 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

한편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의심사가 끝나고 성적표를 배부한 후에 물리 II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원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심사 처리 과정을 보완하였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총괄위원장을 출제연구부장에서 수능처장으로 격상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영역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출제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매뉴얼화되어 있었으나 출제위원 협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수능 문항 분석 및 DB 구축 등의 업무는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원은 출제연구부의 주요 업무와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수리 영역 단답형 문항의 전산 채점이 어려운 관계로 정답이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도록 문항을 조정하였다. 만약 문항에 따라서 수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풀이 과정에서 얻은 답에 적당한 변형을 가하여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도록 출제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출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민원 역시 제기되었다. 이에 2010학년도 수능부터는 미국 SAT,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참고하여 정답이 한 자리 자연수인 문항도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05'와 같이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경우를 오답으로 채점하였으나 채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를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변경하였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출제 및 검토위원단의 증원을 통해 출제에 완벽을 기하고자 했다. 출제본부 구성 시에는 출제위원단을 전년보다 6명 증원하여 출제본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검토위원을 8명 증원하여 문항 난이도 예측 및 검토 능력을 강화하였다.

04 이미지스캐너 도입 및 보안 강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원 이후부터 2010년까지 OMR답안지 및 OMR판독기를 지속적으로 채점시스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답안지 인수, 판독, 판독 확인, 정보 확인 등 전산채점 절차에 따라 실물 OMR답안지가 이동되면서 각 업무별로 활용되었고, 이는 답안지 보안관리, 답안지 원안 훼손 가능성 등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원은 지속적인 전산채점 업



2012.11.27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무 혁신 및 채점 기간 단축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서답형 문항의 웹 채점 기반에 이용되던 고속 이미지스캐너를 활용해 전산채점 업무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원은 2011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60만 명 및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0만 명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OMR판독기의 결과 및 속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성능, 고품질의 이미지스캐너를 활용해 채점 절차를 간소화하고 OMR스캐너를 이용한 채점 절차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다양하고 풍부한 이미지 스캔 수치를 이용하여 향후 채점 방식 자동화 적용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OMR스캐너의 판독 결과와 이미지스캐너의 스캔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단순 처리 속도만 비교하더라도 기존의 OMR판독기는 시간당 5,000매의 속도였으나 고속 이미지스캐너는 시간당 9,000매의 처리 속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추후 보다 효율적이고 진화된 채점시스템을 구축하고 채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기존 고속스캐너에 시간당 3만 6,000매 처리가 가능한 초고속스캐너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채점의 신속성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15년에는 향후 점진적인 이미지스캐너 개선을 위하여 초고속스캐너 2기를 추가 도입하였다. 이로써 우리원은 초고속 이미지스캐너 4기와 고속 이미지스캐너 20기로 전국단위 시험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 지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전산채점을 위하여 도입된 이미지스캐너는 OMR답안지 이동 없이 채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모든 답안지 이미지는 업무 단계별 이력 관리를 통해 처리되었으며, 답안지 원본은 판독 즉시 재봉인되어 훼손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답안지 원안 이용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전산채점의 보안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11 고속 이미지스캐너

국가고사 관리 효율화

제 5 절

01 주요 국가고사 관리 업무 이관

02 교사임용시험 사업의 전문화

03 연구에 기반한 검정고시 사업 수행

01 주요 국가고사 관리 업무 이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고사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시험 시행 절차상의 공정성,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 높은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여러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고사를 문제없이 시행해 왔다. 이렇게 국가고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의 국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평가 전문성, 그리고 착실히 쌓아온 국가고사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국가고사 관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모든 국가고사 시험들은 늘 잠재적 혹은 실제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국가고사 전담 연구 및 행정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늘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가고사 수행으로 인해 우리원의 업무 증가 및 위험 부담 가중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특히 사업단장 등이 타부서 소속으로 본연의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합숙 중심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출제 업무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출제 결과가 기관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법학직성시험,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등 총 4개 국가고사의 유관기관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고, 2011년 이관을 모두 완료하였다. 이처럼 주요 국가고사의 유관기관 이관을 통하여 우리원은 궁극적으로 과중한 정책 사업 수행 부담을 완화하여 기관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이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추진하였다. 의·치의학/약학시험사업단의 각 입문검사 출제·관리 업무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약학교육협의회에 단계적으로 이관하였고, 법

주요 국가고사 이관추진 내역

구분	주요 업무	이관기관	이관추진 실적 및 성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한국어능력시험 출제 및 인쇄 • 한국어능력시험 채점 및 성적 발표	•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능력시험 주관기관 이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고(2010.01.19) • 한국어능력시험 주관기관 이관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2010.01.20) • 이관 TF 협의회 참석(2010.05.26) • 한국어능력시험 이관 계획에 따른 예산 사전 이관(2010.06.25) • 전산채점 및 성적처리 관련 프로그램 및 노하우 전수(2010.07.19) • 홈페이지 축적 자료 이관(2010.12.01~15)
• 법학/의·치의학전문 대학원입문검사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 각 시험 출제 및 인쇄 • 각 시험 정답 확정, 채점 및 결과 통계 분석	• 법학/의·치의학 전문대학원협의회, 약학교육협의회	• 입문검사 출제·인쇄·채점 업무 이관 관련 실무 협의(수시) • 업무 이관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 체결(2010.07.05) • 업무 이관 관련 사항 수탁계약서에 명시(2010.08.05)

학적성시험사업단의 법적성시험 출제·관리 업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단계적으로 이관하였다.

특히 우리원은 전문대학원입문검사(법학, 의·치의학),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의 출제·인쇄·채점 업무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각 전문대학원협의회/약학교육협의회가 독자적으로 해당 고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02 교사임용시험 사업의 전문화

(1) 교사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체제의 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9년 초등교사임용시험, 2001년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다듬어 왔던 출제와 채점 체제 및 시험관리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갔다.

2011년에는 출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부터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자격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였고, 출제위원이 최근 3년간 재직학교에서 출제했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항을 징구하여 유사 문항은 출제에서 배제하였으며, 교내 특강자료와 모의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험생 인터넷 카페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출제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 인력을 증원하고 출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문항의 타당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본부 주관의 합동검토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우리원은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채점을 위해 2008년부터 전격 도입한 전산채점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1G LAN 네트워크망을 도입하여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였다. 또한 채점 항목 수와 ID를 점검·수정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과목별 특성과 채점 부담을 고려하여 채점위원을 적정

배치하였으며, 채점 관련 문의와 협의가 많이 발생하는 국어와 영어 과목의 담당 평가위원을 증원하였다. 이와 함께 전산채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전산출력 채점 점수표와 채점 결과표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하였다.

(2) 교사임용시험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모색

교사임용시험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문항 오류가 3건 발생하여 채점 결과를 재통보하고 수험생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기관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다. 이에 2012년에는 교사임용시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교사임용시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사업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사임용시험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출제 문항을 분석하고 이의신청 내용을 점검하여 시사점을 출제에 반영하였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간과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수능 이후로 연기하였고, 과중한 출제 및 채점 업무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선발과목 수를 전년도 37개에서 28개로 줄여서 출제 및 채점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사임용시험 체제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와 시험규칙 개정 등을 통해 3단계 전형을 2단계 전형 체제로 변경하여, 초등교사임용시험은 2012년부터, 중등교사임용시험은 2013년부터 각각 적용하였다. 아울러 교사임용시험의 이관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 연구와 업무 이관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2011.01.28
교원임용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3) 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 구안 및 현장 적합성 검증

교사임용시험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교사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조직정비 방안 등에 관한 단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 초등교사임용시험에 적용한 2단계 전형의 점진적 개선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1차 서답형 문항을 출제할 때 완성형이나 단답형보다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서술형 문항을 확대하였으며,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초안 작성용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중등교사임용시험의 경우 2단계 전형을 2013년부터 새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출제 및 채점 적용 연구를 통해 출제·채점 방식과 절차를 기획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원은 교육학 논술과 전공 서답형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산출하고 문항당 배점을 결정하였으며, 영어 듣기평가 예시문항을 개발하여 응시자들에게 사전 안내하였다. 또한 전공 서답형을 전산으로 채점하기 위해 전산채점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채점 방안 수립 후 차질 없이 성적을 산출하여 시·도교육청에 제공하였다.

(4) 교사임용시험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사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서 국가고사의 안정적인 수행 체제와 교사임용시험의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교사임용시험사업단의 조직을 정비하고, 시험관리 업무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교사임용시험 전산채점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화시키는 한편, 교사임용시험 문항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교사임용시험사업단 운영을 전담하는 정규직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임용시험센터 소속 인력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고, 연구 기반의 교사임용시험사업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기본 연구과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개의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임용시험센터 시험관리 담당자의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시험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시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기별 상세 업무를 표준화하여 매뉴얼로 개발하였다.

전산채점시스템의 경우 2014년부터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전공 서답형과 함께 교육학 논술도 전산으로 채점할 수 있도록 전산채점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

한 기능들을 안정화하였다. 또한 수기 채점하던 초등교사임용시험의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문답지를 분리하고 전산채점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신규 적용하였다.



2012.07.18 검정고시 제도 개선 연구 공청회

03 연구에 기반한 검정고시 사업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검정고시 관련 연구의 시초는 2002년 수탁 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고입·고졸 검정고시 제도 개선 연구'였다. 이 연구는 당시 새로 개정 시행되던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고입·고졸 검정고시의 시험 과목 조정, 관련 법규 정비 등 검정고시의 시행·관리와 관련된 제반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하지만 우리원 설립 이후 2010년 무렵까지 검정고시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검정고시를 담당하는 인재선발관리센터에 센터장만이 연구원으로 배정되어 연구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인재선발관리센터에 연구직 2명이 배치되면서 검정고시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우리원은 2012년을 기점으로 검정고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검정고시 제도 개선 연구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2012년 검정고시 관련 연구

- 연구제목 : 검정고시 제도 개선 연구
- 연구성격 : 수탁 연구과제
- 연구내용
 - 개정된 교육과정 체제에 적합한 검정고시 과목 및 출제 범위 설정
 - 시험 과목 면제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의 조정 방안 제시
 - 검정고시의 명칭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시
- 정책기여
 -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검정고시 시험 과목 선정에 대한 대안 제시
 - 검정고시 시험 면제 과목의 범위 및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

특히 2012년 연구를 통해 우리원은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각각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졸업

학력 검정고시'라는 명칭의 출발점이 되었다.

2013년에는 인재선발관리센터의 명칭이 임용시험센터로 바뀌면서 일부 조직의 변화가 있었으나 검정고시 관련 연구는 계속 이어졌다. 무엇보다 2013년에는 검정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큰 획을 긋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에 적용되고 있는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2013년 검정고시 관련 연구

○ 연구제목 : 검정고시 문제은행식 출제시스템 개발 연구

○ 연구성격 : 수탁 연구과제

○ 연구내용

- 검정고시 문제은행 성격 분석 및 검토
- 검정고시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문제은행 문항 개발 및 문제은행 검사지 구성 방안 제시
- 문제은행 구축에 필요한 전산 체제 제시

○ 정책기여

- 컴퓨터를 활용한 검정고시 시행시스템 도입 제언
- 평생학습계좌제와 검정고시 문제은행과의 연계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은행 문항카드의 내용 및 행동 영역, 난이도 및 변별도, 예상 풀이 시간, 출제 근거 등의 구성 요소들은 이후 초졸 및 중졸 문제은행 문항 출제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검정고시 문제은행 문항으로 분류되



2014.11.07
검정고시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세미나

고 있는 '기출변형 문항'과 '문제은행 신출 문항' 등의 분류도 해당 연구를 통해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2013년에 이루어진 문제은행식 출제시스템 연구는 검정고시의 문제은행 문항 출제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검정고시 관련 연구가 기본 및 수시 연구과제로 성안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때문에 2014년에는 검정고시 관련 연구가 기본 연구과제나 수시 연구과제로 성안되지는 않았으나 수탁 연구과제는 계속 이어졌다. 2014년에 이루어진 검정고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 2014년 검정고시 관련 연구

○ 연구제목 : 검정고시 반세기, 반성과 미래 전망

○ 연구성격 : 수탁 연구과제

○ 연구내용

- 우리나라 검정고시 제도의 역사적 조망
-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 탐색
- 검정고시 제도의 현황조사 및 주요 쟁점 도출
- 미래사회 대비 검정고시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

○ 정책기여

- 검정고시 출제의 이원화 등 미래사회 대비 검정고시 제도 재정립
- 다양한 대안교육 제도의 통합적 기능 강화

이 연구는 검정고시의 출제 방안 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는 아니었으나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관련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검정고시 자체 출제 내용 기준 수립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시험 체제 마련 필요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진일보한 형태의 검정고시 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원은 단순히 검정고시 문항을 출제하는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정고시 제도 및 출제 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검정고시 제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였다.

2015

제5장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KICE로 도약하다

2018

제 1 절 • 창의·융합 인재 양성 연구

제 2 절 • 교육평가시스템의 진화

제 3 절 •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제 4 절 • 새로운 수능 체제 운영 방법 모색

제 5 절 • 충북 시대 개막과 KICE의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연구

제 1 절

01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교과서 연구

02 학생 중심 수업 및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실현

03 학교교육 내실화 연구 활성화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이자 중국 최대 사회과학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CAS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은 전 세계 사회과학 분야 싱크탱크의 대외 영향력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2015년 11월 10일에 세계 100대 싱크탱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16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1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30위), 한국개발연구원(78위), 아산정책연구원(91위),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99위)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원이 세계 100대 싱크탱크로 선정된 것은 기관의 연구역량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우리원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01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교과서 연구

(1) 핵심역량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연구

2015년에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



2015.04.24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개 토론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세부 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핵심역량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개정 절차 전반을 선도하였으며 교육과정 개정 과정 및 결과 도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과제명	연구 성과 및 의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I(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연구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 관리를 하는, 일종의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둠 - 초등 통합 외 21개 과제, 총 252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시안을 연구하고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시 고시에 기여

(2)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의 실행 방안 탐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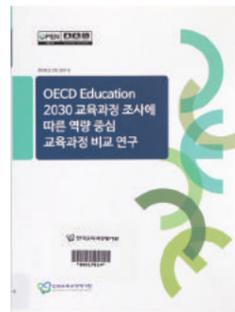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핵심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적용 및 실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현장 지원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적용 및 실행 관련 연구

과제명	연구 성과 및 의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2015)	- 교과별 핵심역량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및 교육과정 사례 분석, 핵심역량 증진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별 요구 및 수업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 실행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교수학습 방안, 평가 방안 및 기타 지원 방안 등을 탐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2017)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교의 핵심역량 함양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형 연구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향 탐색, 핵심역량 도입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사례 분석, 단위학교 핵심역량 교육과정 설계 모형 및 사례 개발 등을 추진

(3) Post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후속 역량 연구 추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완성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향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 등을 발굴하는 탐색 연구와 더불어 2030년대의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구조를 탐색하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2017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조사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과정 비교 연구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관련 연구

과제명	연구 성과 및 의의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 OECD Education 2030	-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한 교육과정 조사 연구로서, 교육과정 설문지 개발,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 및 2015 교육과정 분석, OECD 본부와의 협력 연구 등을 수행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 : 체육과와 수학과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는 2016년도에 수행된 국제 교육과정 조사의 후속으로 각 교과별 내용 체계에 대한 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함 - 우리원은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내용 맵핑 작업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선 방향과 현실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굴하였음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조사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과정 비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교육 개선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량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됨 - 교육과정 조사에 참여한 13개국 중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10개국을 대상으로 그 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미래역량 선정 및 그러한 역량을 교육과정에 구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로 삼음

02 학생 중심 수업 및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실현

2015~2018년에는 수업 개선, 학습부진학생 지원, 교수학습 자료, 교사 전문성 향상의 영역에서 교수학습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수업 개선, 학습부진학생 지원, 교수학습 자료 영역에서 4개의 기본과제를 수행하였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2015년에 수행한 기본과제의 연구 성과와 의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6년 교수학습 부문에서는 수업 개선, 학습부진학생 지원, 교수학습 자료,

2015년 교수학습 부문 연구 성과 및 의의

과제명	연구 성과 및 의의
중학교 교실 내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 학교와 교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인성교육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여 교실 내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지원 방안 : 중학교 국어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교육 실태 및 인식 실태를 국가 정체성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의 기본방향을 설정 - 글로벌 시티즌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구성 요소들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구안 -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별 교수학습안 프로토타입을 개발·제공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전략 개발	- 2014년에 수행했던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 지원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연계 지원 방안을 학교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지원 전략을 모색하고,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들의 개발 및 시범 적용을 통해 초·중학교의 교수학습 연계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들을 제안
고등학교 영어말하기 수행평가 지원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	- 영어말하기 수행평가 시행의 어려움에 대한 학교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영어말하기 수행평가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현장 시범 적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고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영어말하기 수행평가 활성화에 기여

교사전문성 향상의 전 영역에서 4개의 기본과제를 수행하였다. 2016년에 수행한 기본과제의 연구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2016년 교수학습 부문 연구 성과 및 의의

과제명	연구 성과 및 의의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 고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고등학교 영어과 교수학습·평가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절대평가 체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실현 방안을 모색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 학교교육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도출
일반고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안(Ⅰ) :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일반고 학습부진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을 탐색하고 교수학습 지원 요구를 분석하여 이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모색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혁신 지원 방안	-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실수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교실수업에 대한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수렴함으로써 수업 혁신의 필요성 및 방향을 공유하고 수업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 - 실제 교실수업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 혁신요소 12가지를 추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업 혁신 사례를 소재자로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보급

2017년에도 교수학습의 전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7년에는 5개의 연구가 기본과제로 수행되었으며, 각 과제의 연구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2017년 교수학습 부문 연구 성과 및 의의

과제명	연구 성과 및 의의
일반고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안(Ⅱ) : 수학, 영어 교수학습 지원 전략 개발을 중심으로	- 일반고 학습부진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 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교사용), 교과 학습 방법 안내 자료(학생용), 교과 학습태도 및 정의적 특성 진단 프로그램(학생용) 등의 교수학습 지원 전략을 개발·보급 - 보통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이 평생학습 사회에 대비한 학습 역량을 기르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진로·진학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
초·중학교 학습부진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Ⅰ)	- 초·중학교 학습부진학생들의 학업적·정서적 성장 과정과 변화의 계기를 4년간 추적·분석하는 질적 중단 연구 설계를 통해 학습부진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지원과 환경조성의 핵심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학생들의 학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인 정서적 특성들의 발달 및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습부진학생들의 지도·지원의 효과적·효율적 방안을 모색
지능정보사회의 교사 역할 및 역량 탐색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학교교육과 교사의 발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전망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개발된 시나리오에 비추어 교사의 역할 변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 및 역량 제고 방안을 탐색
고등학교 교과별 수업-평가 연계 방안 연구 :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개별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연계한 수업-평가 연계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수학과 영어 교과 수업 및 평가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 연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 공교육을 통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업-평가 연계 모형 구안 및 수학, 영어과의 수업-평가 연계 모형의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Ⅱ)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중심으로	- 2030년 미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환경의 측면에서 탐색 - 미래 교수학습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방향을 구현한 가상적 교수학습 자료를 학교 급별, 교과·영역별로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2030년 미래사회 대비 교수학습 정책 제언 및 이를 실현해갈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



2017.10.19 미래사회 대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 탐색 탐색 세미나

2018년에는 교수학습 부문 연구로 ‘초·중학교 학습부진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Ⅱ)’, ‘창의성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교실 문화 조성 방안(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초학문적 융합 수업 현장 실행 연구’,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연계 연구: 중학교 국어, 역사, 수학, 기술·가정,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관련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우리원에서 수행하는 교수학습 연구의 주요 기능인 ‘혁신적이며 선도적인 수업 개선’,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실현’, ‘교사 전문성 향상’, ‘기초학력 보장’ 및 ‘각종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의 다섯 가지 기능을 골고루 담아냄으로써 우리원은 국가의 교수학습 정책을 지원 및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03 학교교육 내실화 연구 활성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학교교육 내실화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편성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안착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2017년에 우리원에서 수행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2015년	2016년	2017년
-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적용 체제 개선 방안 마련 - 중학교 자유학기 실행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안(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가이드북 개발) - 한국형 교사 학습공동체 모델 개발 및 정책 제안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탐색 - 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탐색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경영 방안 탐색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코딩 체계 구축을 통한 교과 간 연계·융합 학습 강화 방안 탐색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총론 및 17개 교과 대상)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교 핵심역량 함양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간 연계·융합교육 운영 방안 탐색 - 2015 개정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탐색 - 학교 예술교육에서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방안 탐색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총론 및 16개 교과 대상)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지원 연구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총론 및 289개 교과목 교육과정 개발). 나아가 최근 고시된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 지원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교과별로 평가 준거 성취기준, 평가기준, 단원·영역별 성취수준, 예시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주요 성과는 오른쪽 표와 같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동시에 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 방안도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

>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단위학교 및 교실수업 적용 지원을 위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수행

-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학교문화, 지원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운 것을 실생활 맥락에 적용하는 경험을 통하여 배움을 삶과 연계하여 타인과 협력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원리 제안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학교 교과 간 연계·융합 교육 방안 안내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 연구도 진행하였다.

(2)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연구 수행

2016년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상황·맥락적 관점에서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가이드북’, ‘학교 기반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경영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실천 자료를 제공하였고,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연구 틀을 제공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단위학교 대상의 정부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및 시·도교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구체화한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 초·중·고등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을 구체화하는 평가 준거 성취기준, 평가기준, 단원·영역별 성취수준 개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는 예시 평가도구를 제공하여 학교현장의 평가 방법 선도

>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를 안내하고 선도하는 준거 자료 제공

-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준거 자료 제공
-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성취평가제 운영에 필요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제공

육청 수준의 연수 기초자료를 개발·제공하였다.

(3)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사회 학교교육 방향 설정 기초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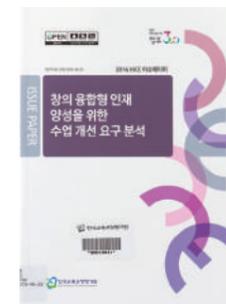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장기 관점의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과교육을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사회 대비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과교육의 변화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미래사회 대비 교과교육의 방향 및 교육비전 제시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설계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도별 미래사회 학교교육 관련 연구(2016~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래 초·중등학교 교과교육의 방향 및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미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 탐색 및 교수학습 예시자료 개발	미래 교과교육을 위한 차세대 평가의 방향 정립 및 평가모형 개발

> 미래사회 학교교육 방향 설정 연구의 주요 성과

- 미래사회 대비 정책 선도의 한 축으로서 미래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여
- 2030 미래사회 대비 초·중등학교 교과교육의 설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미래 교과교육 전망 관련 연구의 이론적 근거 제공
- 미래사회 대비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교교육의 방향과 이를 구현하는 예시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 증진
- 학교교육의 중심인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전 영역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연구 수행



2016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개선 요구 분석

교육평가시스템의 진화

제 2 절

0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체제 강화

(1)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서비스 제공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국가단위 평가 자료의 공개 및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활용 서비스 시스템’(fNAEA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시작하였다. fNAEA 시스템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개관, 학업성취도 리포트, 학업성취도 맞춤형 정보, 맞춤형 학력진단 검사,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원은 2013년 ‘학업성취도 리포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매년 학업성취도 표와 학업성취도 포커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성과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수준, 지역 규모, 학생 성별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수준 및 학교의 학력 향상 특성을 보여주는 성취수준 지표와 학교 향상도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포커스는 웹진 형태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의성 있는 주제와 연결·분석하여 교육정책이나 학교현장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15년에는 기초통계정보와 단위학교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학업성취도 맞춤형 정보’가 추가되었다. ‘기초통계정보’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규모, 교육청, 학생 성별 및 학교와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결과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학교 상세정보’에서는 단위학교의 교과 내 영역별 성취율,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풍토, 수업 참여도, 교과태도, 학업적 효능감 등의 학교생활 및 학습 관련 정의적 특성, 각 교과별 문항별 정답률 및 답지 반응 분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수학습에 대한 개

0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체제 강화

02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 연구

03 형성평가·과정 중심 평가·수행평가 연구



2018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naea.kice.re.kr)

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2017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표집학교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6년 ‘맞춤형 학력진단 검사’를 개발해 기존에 출제·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항과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탑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맞춤형으로 검사지를 자동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검사지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내용 또는 난이도별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단위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지를 구성하거나 또는 특정 영역에의 교수학습 기능을 하는 검사지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문항단위의 성취수준 설정을 통해 어떤 검사지를 구성하든지 성취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분할점수가 검사지별로 자동으로 산출되어 단위학교에서 학력 점검을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지원’은 일반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공모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원은 일반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세미나 형태로 축소하여 연구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력진단 검사를 활용한 교실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현장연구를 학술연구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자동채점 기술 적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채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인식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자동채점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어 단어·구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개발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여러 평가도구와 문항에 시범 적용하였고, 개발이 완료된 2015년부터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채점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동채점 기술은 답안을 주로 단어·구 수준으로 작성하는 중학교 사회 과목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이에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채점에서는 중학교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국어, 과학 과목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채점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과목까지 확대하여 자동채점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단어·구 수준 답안을 중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포커스 창간호



2015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심으로 자동채점 대상 학교급 및 교과를 점차 확대 적용함으로써 채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자동채점 프로그램과 현행 온라인 채점시스템의 통합, 문자인식기술 적용을 통한 지필 답안의 전산화 등에 따른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단어·구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2014년부터는 답안 길이를 문장으로 확대해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어 문장은 조사나 어미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유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고 생각이 빈번하여 기계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우리원은 그동안 축적된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과 기계학습 기반 자동분류 원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한 문장 정도의 답안을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 프로토타입을 설계한 이후 2015년 이를 정교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6년에는 채점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면서 프로그램을 보다 고도화하였다.

이러한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우리원은 2017년 2월 6일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허를 신청했으며, 총 4건에 대해 특허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는 기본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였다.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관련 특허 취득으로 우리원은 연구 결과를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권과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16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및 적용

02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 연구

(1)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안착화 지원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준거참조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교육·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성취평가제의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2년부터 성취평가제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각종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성취평가제 도입 직후인 2012년~2013년에는 교육부 위탁을 받아 교과별 성취평가제 운영매뉴얼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 고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시범학교 운영 지원, 성취평가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성취평가제 연수 및 자료 개발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중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운영



2012.08.08~10 고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시범학교 교과별 담당자 연수



2012.09.05~06 성취평가제 중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



2015 성취평가제 적용 안내 자료

방안(2012), 성취평가제의 고등학교 적용 방안(2013),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성적통지표 개선 방안(2013)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성취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14년에는 성취평가제 홍보자료 개발, 성적표 산출 프로그램 개발, 수행평가 지원 사이트 구축 등의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2014),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방안(2014) 등의 연구도 수행하였다.

우리원은 2015년 이후에도 성취평가제를 포함한 학생평가지원포털 개선 및 홍보자료 개발, 학생평가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지원, 학생 성적표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학교 교과별 수행평가 도구 개발, 수행평가 매뉴얼 및 평가 결과 기록 예시 개발 등 지속적으로 학생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적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2015),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성취평가 결과 자료 분석(2017) 등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2) 중등학교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생평가 지원 사이트 운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성취평가제를 비롯하여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학생평가지원포털’을 구축·운영하기 시작했다. 학생평가지원포털에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성취평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원하였다.

우리원은 2013년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지원 사이트’와 ‘서술형 평가 포털’을 개발하였고, 2014년에는 ‘수행평가 지원 포털’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어서



2017 학생평가지원포털(glassess.kice.re.kr)

2017년에는 링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학생평가 관련 사이트를 완전 통합하여 재구축 하였다. 이러한 재구축 사업을 통해 학생평가지원포털의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포털의 수행평가 도구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과정 중심 수행평가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03 형성평가·과정 중심 평가·수행평가 연구

(1) 형성평가 연구 및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학교현장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4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1차 연도 연구에서는 형성평가 관련 학교현장의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온·오프라인 평가 시행을 통합·관리하는 형성평가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설계하였다. 이어서 2015년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성취기준 정보에 기반한 평가도구의 제작과 평가 시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문항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2016년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시행된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입력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채점시스템과 피드백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 4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전 연도에 개발한 형성평가 하위시스템들을 고도화 및 통합하고, 중학교 수학교과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형성평가시스템에는 중학교 1~3학년군 수학 전체 성취기준에 대한 형성평가 도구와 피드백 자료를 탑재하여 교육 관계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핵심역량 평가 연구 및 개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교육평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2016년부터는 핵심역량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지원하고 교실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실평가 방안을 도출하고 교과별 평가 자료 및 적용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를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2016년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교실수업 수준에서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활용 가능한 학생평가 방안을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 구안하고 의

사소통 역량에서 23개, 공동체 역량에서 28개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2017년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더하여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한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영어과의 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그것의 적용 방안을 실제로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원은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쟁점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평가 자료집을 교과별(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영어과)로 제작·보급함으로써 학생의 핵심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교실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행평가 연구 및 개발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수행평가 확대·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7년 '중등학교 수행평가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수행평가 정책 실행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행평가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원은 최근 수행평가 확대·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행 주체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의 이해 및 추진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행평가 정책 실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평가 확대·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우리원은 수행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학생평가지원포털에 탑재함으로써, 교사들이 수행평가 도구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과별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2017년에는 초등학교 1~4학년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영어, 통합교과의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우리원은 2018년 초등학교 5~6학년에 활용할 과정 중심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학생평가지원포털에 지속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2017.01.20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 토론회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제 3 절

01 OECD·IEA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활용도 제고

(1) PIS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 세미나

201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요 경영목표로 제시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의 영향으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은 3년 주기의 ‘PISA’와 4년 주기의 ‘TIMSS’가 12년 만에 같은 해에 시행되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였다. 2015년 5월에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UNESCO 회원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급 대표들이 모여 ‘교육 2030: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향하여’라는 인천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부대행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UNESCO 방콕이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연계의 의미와 목적’이란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우리원은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업으로 2016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국제 교육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PISA와 PISA-D 연구에 기반한 글로벌역량과 학습의 질 제고’라는 주제로 글로벌역량,

01 OECD·IEA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활용도 제고

02 글로벌 협력 사업 확대

03 글로벌 공동 연구 활성화



2015.05.18 2015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공동 워크숍



2016.03.10~11 한-OECD 20주년 기념 국제 교육콘퍼런스

세계시민교육,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사회에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하고, OECD가 주관하는 PISA 관련 연구 성과를 각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발표·공유하였다. 특히,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2일차 콘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6년 한-OECD 국제 교육콘퍼런스 발표 내용(2일차)

발표 주제 및 발표자
한국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 특성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 : PISA 2012 읽기와 과학을 중심으로 - 박혜영(KICE), 구자욱(KICE)
일본의 PISA 결과 분석 및 일본 교육정책에 준 영향 - Akiko Ono(일본 국립 교육정책연구소)
PISA 2012 상위국의 문제해결력 성취에 대한 교육맥락변인 영향력 비교 분석 - 김성숙(KICE), 한정아(KICE)
수학과 읽기 성취에 나타난 성별 격차 비교- PISA 결과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은? - Joel Rapp(이스라엘 국립교육측정평가기구)
과제 수행을 통한 디지털 읽기 성취 예측 : PISA 2009~2012 과제 적응 과정의 효과 - Johannes Naumann(독일 괴테프랑크푸르트대학교)

콘퍼런스 2일차에는 교육부 차관, 주 OECD 대표부 대사를 비롯하여 OECD 사무국, UNESCO, 캄보디아 교육부, 영국,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초청된 8명의 해외 인사와 22명의 국내 교육전문가가 발표·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멕시코 대사, 이스라엘 대사 등을 포함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교사, 대학생 등 국내외 유관기관 소속의 교육 관련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 한-OECD 국제 세미나’도 주관하게 되었으며, 세계의 석학들과 함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2017.11.29 한-OECD 국제 세미나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내 시행 및 연구를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OECD PISA와 IEA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및 ICILS(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가 있으며, 우리원 개원 이래 지난 20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PISA 2015에는 72개국에서 약 54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168개교에서 5,74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TIMSS 2015의 경우 초등학교는 49개 국가에서 약 31만 명이 참여하였고, 중학교는 39개 국가에서 약 27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49개교, 중학교 150개교에서 9,97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ICILS 2013에는 세계 18개국에서 약 6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50개 중학교에서 2,88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PISA 2018과 TIMSS 2019, ICILS 2018이 동시에 시행된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3~5년의 주기를 가진 평가로 지난 주기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성취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증거에 기반하여 교육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검사로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평가 영역 내용 전문가와 교육평가 영역의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첨단 기술이 사용된다. 때문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미래 학생들을 위한 평가 영역을 제안하고 혁신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2017.05.24
ICILS 2018 예비검사 학교 책임자 및 감독교사 연수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행 경험을 통해 국내 연구진은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며, 국내 평가에서도 선진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필검사 형식으로 시행되었던 PISA는 2015년 시행 때부터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하여 시뮬레이션 기능이나 응답 결과에 따라 다음 문항이 결정되는 상호작용 문항 출제가 가능해졌고,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시간과 같은 메타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스템은 채점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사람이 직접 채점하던 문항 중 일부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채점이 가능해졌고, 온라인상에서 채점 코드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채점자 간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맥락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도 학생, 학교장, 학부모 외에 교사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 응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TIMSS의 경우도 기존의 지필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TIMSS 2019부터는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eTIMSS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eTIMSS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였다.

02 글로벌 협력 사업 확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개발협력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우리원은 교육 분야 노후와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2015년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기관 비전과 중장기 발전목표 등에 반영하였다.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국제 교육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강화’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전문성 기반의 ‘교육개발협력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 업무 기반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교육 업무 조직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2013년 글로벌협력실이 신설된 이후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참여 및 수행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KICE 교육개발협력 추진 방안’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교육개발협력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관심과 협조이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기초연구 결과에 기반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를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2014년부터 본격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2014~2017년)

연구사업명	수행 기간	수행대상국	주요 내용
방글라데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2014 ~ 2015년	방글라데시	-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 현지 및 초청 연수
몽골 교육과정 평가 및 감사 과정	2015년	몽골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기반 교육의 질 관리 개념, 목적, 역할, 기능 등 프로그램 개발과 초청 연수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및 시행에 대한 컨설팅	2015~ 2016년	캄보디아	- 교육평가 및 시행 컨설팅 - 현지 및 초청 연수, 지속 역량 강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자료집 제작
캄보디아의 OECD PISA-D 사업 성공적 시행 지원 : 평가 역량 강화	2015~ 2018년	캄보디아	- OECD 주관 PISA-D 참여국의 안정적 시행 지원 및 평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캄보디아 교과서 집필 관계자 교육과정 및 평가 역량 개발 연수 사업	2017년	캄보디아	-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교과서 집필진 역량 강화
에콰도르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수	2016~ 2018년	에콰도르	- 에콰도르 중등교육 형평성 제고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기초학력 강화 방안 모색 - 에콰도르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미얀마 기초교육 증진을 위한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 컨설팅	2017~ 2018년	미얀마	- 미얀마 국가수준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에 기여 - 미얀마 교육과정 개선 및 국가수준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미얀마 정부 5개년 교육 개혁에 기여

적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동안 우리원을 방문하거나 국제회의 및 공동 연구 등의 교류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꾸준한 네트워크 관리 및 확대를 추진하였다.

한편, 교육개발협력의 일환으로 OECD는 2015년 새롭게 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Post-2015 교육의제로서 PISA for Development(PISA-D)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우리원은 2015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석을 확정된 캄보디아의 멘토 국가로서 PISA-D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캄보디아의 교육 환경에 맞춘 학습성과 및 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 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2017.04.07 캄보디아 교과서 집필 관계자 방한



2016.09.09 에콰도르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원의 기본과제로도 캄보디아의 국가 및 지역수준 평가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 새롭게 교육개발협력의 파트너가 된 미얀마와의 협력은 기존 캄보디아 교육부와의 성공적인 개발협력 추진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기초 교육에 대해 미얀마는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국가수준에서의 평가 체제 틀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원은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컨설팅하며 성공적인 개발협력을 이끌었다. 2016년부터 진행된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다른 ODA 사업과 비교하여 수원국의 만족도 평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KOICA 사업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3년간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3 글로벌 공동 연구 활성화

(1)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MOU 체결 확대

개원 이래 국외 교육기관과 MOU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MOU 체결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만 6개의 국외 교육 관련 기관과 추가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에 MOU를 체결한 6개 국외 교육기관은 유네스코 방콕,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몽골 교육평가센터(EEC; Education Evaluation Center), 콜롬비아 교육부,

2018년 국외 교육 관련 기관 MOU 체결 현황

연번	체결기관	연번	체결기관	연번	체결기관	연번	체결기관
1	중국교육부고시중심	11	미국 CSE/CRESST	21	핀란드 FIER	31	베트남 VNU-USSH-Hanoi
2	뉴질랜드 ERO	12	미국 ETS	22	일본 NCUEE	32	뉴질랜드 NZQA
3	호주 CC	13	주한영국문화원	23	프랑스 ENS	33	UNESCO APCEIU
4	호주 ACER	14	중국 PEP	24	영국 Curriculum Foundation	34	UNESCO Bangkok
5	UNESCO 알마티 지부	15	중국 BEEA	25	영국 Ofqual	35	UNESCO IBE
6	프랑스 CIEP	16	몽골 SSIA	26	호주 ACARA	36	몽골 EEC
7	영국 UCLES	17	주한프랑스문화원	27	베트남 HNUE	37	콜롬비아 교육부
8	미국 ACT	18	중국 연변대학교	28	베트남 VNIES	38	캄보디아 교육부
9	영국 AQA	19	중국 TAEA	29	베트남 VNU-USSH-HCMC	39	IEA
10	영국 QCA	20	네덜란드 Cito	30	베트남 VNU-ULIS-Hanoi	40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2015.05.21 몽골 교육평가센터와의 MOU 체결식



2015.05.18 유네스코 방콕과의 MOU 체결식

캄보디아 교육부, IEA였다. 2018년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0개의 국외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글로벌 공동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국제 협동 연구 활성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 연구사업의 운영 방향 중 하나로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성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협력 확대’를 설정하고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동 연구 강화와 글로벌 사회에서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를 추진하였다. 기본 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 기준에서도 과제 유형 측면에서 기관 간 산학협동, 부서 간 협동 연구를 최소 1개 이상 신규 발굴하며, 내용 측면으로는 국제 협력·글로벌 연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우리원은 2017년 ‘글로벌역량 교육정책 및 실태 분석을 위한 국제 협동 연구(1)’를 중점 연구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팀의 주도 하에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와 UNESCO 방콕(UNESCO Office in Bangkok)이 참여하는 국제 협동 연구로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역량 교육정책 및 구현 과정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새로운 수능 체제 운영 방법 모색

제 4 절

01 문항 완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착

02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03 영어 영역 절대평가 시행

04 중장기 수능 발전 방안

05 포항지역 지진에 따른 수능 연기

01 문항 완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착

(1) 출제 및 검토 시스템 개선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수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류 및 정답 시비 없는 완성도 높은 문항 출제가 요구된다. 하지만 완벽한 수준의 문항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994학년도 첫 수능 시행 이후 2018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8건, 모의평가에서는 7건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영역별로는 국어 영역 1건, 수학 영역 1건, 한국사 영역 1건, 사회탐구 영역 3건, 과학탐구 영역 6건, 직업탐구 영역 2건,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건이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영어와 생명과학Ⅱ에서 2건의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3월 15일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으며,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한국사와 물리Ⅱ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7년 3월 28일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

- 검토진의 위상과 기능 강화

- 검토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출제위원장급의 교수로 임명하여 검토 기능 강화
- 기존의 출제위원단 소속 평가위원을 검토위원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교수·박사급으로 위촉하여 과목당 1명씩 배치함으로써 검토위원의 전문성 보완

- 문항 오류 점검 강화

- 출제와 검토의 이원적 구조 강화 : 검토 의견이 보다 객관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출제진과 검토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 검토위원장 주관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고교 교육과정 적합성, 기출 문제 중복 여부 등을 다각도로 점검
- 검토위원장 주관의 ‘문항점검위원회’를 별도 신설하여 문항의 오류 가능성 집중 점검

> 2017년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

- 검토 기능 보장

-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검토자문단 구성·운영(8명 내외)
- 검토위원의 검토 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문항을 검토하여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출제 근거 확인 강화

-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확인 필수화
- 출제 근거에 대한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

- 출제·검토진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출제 오류 유형 및 발생 원인 분석 사례집 마련
-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오류 사례 교육 강화

이러한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출제 및 검토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출제 및 검토 시스템



출제위원단에서 출제 및 공동 검토를 통해 문항 초안이 완성되면, 영역(과목)별 검토위원이 개별 검토·공동 검토를 통해 소재 및 제재의 적절성, 중의적 해석 가능성, 자료의 타당성 등 문항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을 도출하고, 검토회의에서 검토위원과 출제위원이 협의를 통해 수정하게 된다. ‘출제위원 자체 검토→검토위원 검토→검토회의→문항 수정’ 과정이 2차에 걸쳐 실시되며, 이후 문항점검위원회 점검과 타 영역·교과 전문가 교차검토, 최종 상호검토 등을 거쳐 문항을 확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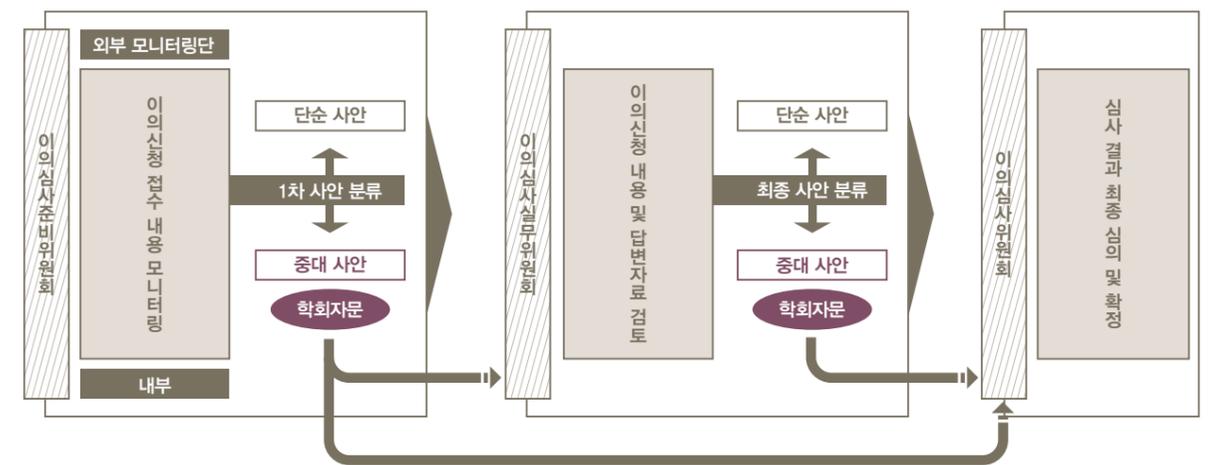
한편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에 따라 조기안착 문항 등 간과하기 쉬운 문항 등에 대한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 2017년 검토위원장 직속의 검토자문단을

신설했다. 검토자문단에서는 검토위원의 개별 및 공동 검토 의견, 문항 수정 이력 등을 모니터링하여 출제·검토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 시 문항점검위원회 및 영역 간 교차검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제도 정착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항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2005학년도 수능부터 문제 및 정답과 관련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의신청제도는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오답 또는 복수정답 등 각종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시험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학년도 수능부터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조기에 발견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문항 오류 최소화 방안 모색

다양한 대입전형자료 중에도 수능은 여전히 신뢰도 높은 대입전형자료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수능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오류 없는 문항 출제의 요구는 더욱 엄중해지고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출제

과정과 이의심사 과정 역시 끊임없이 보완되고 엄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출제와 검토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출제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출제와 검토 절차를 정교화하고 오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되면서 출제와 검토 업무 부담 또한 날이 증가하고 있다.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오류 없이 공정하게 수능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계속 변화·발전하는 학문적 내용을 출제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에도 벗어날 수 있어 학문적 논란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전형자료로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수능 오류의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준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폭넓게 공유해야 할 것이다.

02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한국사 과목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필수과목이었으나 선택형 수능 체제의 전환으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사회탐구 영역 과목 응시자에게 반드시 국사(한국사) 과목 성적을 제출하도록 지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사는 국민공통기본 교과목으로 1학년에서 이수하기 때문에 3학년에서 다시 준비하기가 어렵고, 서울대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최상위권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지 않게 되자 학교수업에서도 국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5학년도 이후로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2013학년도의 경우 전체 수험생 중 7.1%,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 중에서는 12.8%만이 국사에 응시하였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수능 응시 경향에서 드러난 한국사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로 인한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역사적 사고력 부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를 주장하였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2013년 10월 25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통해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2014.07.01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 탐색 세미나

분리하여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시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 9등급제를 적용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 시험에 응시해야만 하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한국사 필수화 발표 이후 사교육이 확산되고 수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2014년 2월 4일 ‘한국사 사교육 수요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사 필수화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수능 한국사 영역 시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수능 한국사 영역 시험 개요

– 출제 기본방향

-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한국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 단위·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게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고르게 출제한다. 단위 통합적인 문항도 출제할 수 있다.
-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가 되었더라도 재출제할 수 있다.

– 출제 범위

- 한국사 영역의 출제 범위는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다.
- 문항의 소재는 8종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수록된 내용을 활용한다.

–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배점

- 출제 문항 수는 20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소요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점, 3점으로 차등 배점을 부여한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 체제로,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간 내용 수준이나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국사 내용들을 선정하고 재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출제하고 있으며, 우리원은 향후 변화하는 교과서 체제에 따른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03 영어 영역 절대평가 시행

상대평가 체제 아래에서 수능 영어시험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가중시켜, 영어 과잉학습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4년에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도입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영어 절대평가 시험 체제 및 점수 체제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험 체제 및 점수 체제가 확정 발표되었다.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제기조(출제 기본방향, 문항 유형, 배점 등)는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등급 산출 방식만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등급 수는 기존 수능 점수 체제 및 한국사 점수 체제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9등급으로 결정하였으며,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원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부여했다. 수능 영어 영역 시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시험 개요

- 출제 기본방향

-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문항의 소재를 선정하되 다양한 내용의 대화문/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한다. 각 문항의 대화문/지문은 수험생의 배경지식에 부합하거나 배경지식과 언어 능력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 유창성과 함께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휘 및 어법 문항도 출제에 포함한다.

- 출제 범위

- 영어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중 '영어 I', '영어 II'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2014.10.20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1차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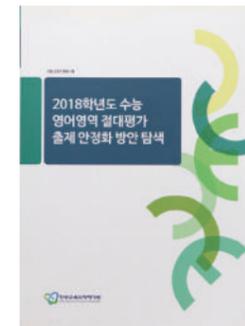
2015.08.24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험 체제 및 점수 체제 방안 세미나

- 어휘 수준은 시험 과목 중 교육과정상 최대 어휘를 포함한 과목인 '영어 II'의 약 2,500 단어 수준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교과서의 어휘 수를 포함한다. 단, 빈도수가 낮은 어휘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석을 달 수 있다.

-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배점

-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영어 영역의 출제 문항 수는 전체 45문항으로, 간접 말하기를 포함한 듣기 17문항과 간접 쓰기를 포함한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된다. 시험 시간은 종전과 같이 듣기평가 시간이 25분 이내, 읽기평가 시간이 45분 내외로 총 70분이다.
- 영어 영역의 배점은 듣기 문항과 읽기 문항 모두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소요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점, 3점으로 차등 배점을 부여한다.

절대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절대 난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능의 난이도는 응시생 및 문항 특성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어 문항의 절대 난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과 같이 정해진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할 경우 절대 난도를 유사하게 유지하더라도 응시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준비도 등에 의해 매 시험의 등급 비율이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으며, 등급별 비율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입전형자료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원은 단계적인 차원에서 수험생의 학력수준과 시험 준비도 등 응시생 특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성취기준별 문항 유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급별 최소 능력자 집단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검사지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016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출제 안정화 방안 탐색

04 중장기 수능 발전 방안

(1) 수능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치면서 국가수준 대입선발시험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수능의 성격과 역할은 교육·사회적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주요 쟁점은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한 쉬운 수능'과 '대입전형자료 제공을 위한 변별력 높은 수능' 중 어떤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로 수렴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핵심역량을 표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수능 체제 개편의 목적

과 기본방향 설정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핵심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 없이 학교 공부만으로 입시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써, 고교 교육과정 및 대학입학전형과 연계한 수능 체제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도입·확대는 수능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범위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출제 범위, 시험 과목 등 수능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수능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수능 체제 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계열 구분을 완화하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8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시안’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및 선택과목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수능 자체를 자격고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입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부는 2017년 8월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능은 초·중·고 12년에 이르는 교육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임과 동시에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시험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절대평가를 확대 적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한국사, 영어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절대평가 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학교현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절대평가의 쟁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절대평가의 등급 수, 등급 구분 점수는 변별력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절대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영역별 성격, 기능 및 등급 산출 방식에 대한 기초연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수능 체제 개편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학령기 인구(6~21세)는 2015년 892만 명에서 2025년 70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 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15년 66만 명에서 2025년 45만 명으로, 2015년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응시생 수 및 대학 진학자 수의 감소 역시 예상되면서 수능 체제를 포함한 대입제도의 개편과 함께 수능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은 교육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이며, 이러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핵심역량 평가 체제로의 전환은 평가 영역, 문항 유형, 점수 산출 방식 및 결과 보고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확대 및 고교학점제 적용, 내신 성취평가제 등 교육현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서술·논술형 문항의 도입 요구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입시제도, 대학 교육과정 등에 대한 기초분석과 더불어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 시 예상되는 채점 인원, 기간, 소요 비용,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원은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다형 문항의 개선, 보완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 측정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2017 지능정보사회의 교사 역할 및 역량 탐색

05 포항지역 지진에 따른 수능 연기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상북도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기상청 관측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으며, 포항 지역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지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에는 2018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진 당일 포항지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1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동고, 포항고, 포항여고 등 다수 시험장에 균열이 발생했고, 각종 기자재가 파손되었으며,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수능 관련 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특히 현장에 급파된 행정안전부장관은 포항 고사장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수능을 연기할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정부는 11월 15일 오후 8시 20분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을 2017년 11월 23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수능이 자연재해로 연기된 것은 1993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였다. 정부는 연기 결정 이후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와 교육부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입전형 조정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은 다음과 같았다.

>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

- 철저한 시험관리를 통해 연기된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
- 피해지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험장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 추진
- 대입전형 일정 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피해지역 수험생의 학사관리, 심리 안정 지원 및 수험준비 지원



2017.11.16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기사

2017.11.19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 회의



2017.11.23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발표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지진 발생 직후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장학사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차질 없이 안전하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응책

- 응시원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철저
- 수험표 사전 교부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조치
- 지진 발생 대비 예비시험장 확보
- 수능 1주일 전 기존 진행 절차 재실시
- 시험지 보관 장소 보안 강화 및 보관 상태 확인
- 중앙협력관 운영 기간 연장 및 교대 근무 실시

천재지변에 따른 갑작스러운 수능 시행 연기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으나 모든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7년 11월 23일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는 긴급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출제 오류가 없었던 무결점 수능으로 평가되면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충북 시대 개막과 KICE의 미래

제 5 절

01 신청사 완공과 지방이전 완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인력개발기능군으로 분류되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2007년 7월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2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이전 업무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부 위탁사업의 확대와 신규 사업의 추가 위탁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정규직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물 소요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우리원은 이미 승인된 지방이전 계획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여 지방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이전 인원	328명	401명(73명 증가, 잔류 없음)
청사 면적	1만 9,703㎡	2만 2,234㎡(2,531㎡ 증가)
이전 비용	521억 원	602억 원(81억 원 증가, 청사 건축비 582억 원)
이전 시기	2012년 말	2018년 1월



2016.09.06 신청사 착공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12월 신축청사 이전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하였다. 충북혁신도시에 건설될 신축청사는 우리원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합리적이고 독창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원은 청사 건립 과정에서 대내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2015년 6월에는 기본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2016년 CM(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및 시공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6년 9월 6일 충청북도 진천군 신축청사 현장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김영수 원장을 비롯하여 설문식 충청북도 정부부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안재덕 진천군의회 의장, 공사 관계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였다. 착공식에서 김영수 원장은 “충북혁신도시에 신청사를 완공하여 이전하게 되는 2018년은 우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신청사 완공은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 분야를 위시하여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후 약 1년 6개월의 건설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27일 새로운 청사가 준공되었다. 신청사는 부지 2만 5,000㎡, 연면적 2만 2,234㎡, 지하 1층, 지상 5



2018.04.04 충북혁신도시 진천 신청사 개청식



2018.04.04
신청사 개청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이상설훈 제막식

층의 규모이며, 300석의 콘퍼런스홀, 200석의 대회의실, 224석의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공용 공간과 200실 규모의 연구실과 지원 기능을 갖춘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원은 2018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자료실 이전을 시작으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부서별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고, 2월 5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이전 계획된 11개 기관 중 10번째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충청북도 진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청식을 4월 4일 개최하였다. 개청식에는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상섭 충청북도 정부부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기관장, 지역 대학 총장, 주요 교육 관련 학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성기선 원장의 기관 비전 발표 및 건축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의 축사, 신청사 시설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기선 원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진천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현장과의 소통 및 지역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1세기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으며, “단위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연구를 강화하고,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체제를 마련하며,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교육의 길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본 행사 이후에는 내빈들과 함께 자료실, 채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신청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1층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한편 개청식에 앞서 우리원은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이름을 콘퍼런스홀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상설훈’이라는 현판과 인물 설명

동판을 제작하여 콘퍼런스홀 앞에 설치하였다. 또한 이상설기념사업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여하는 제막식을 개청식 부대행사로 마련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02 미래를 향한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제9대 김영수 원장이 2017년 6월 사임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 하반기 동안 진천 시대를 함께할 새로운 원장 선임을 추진하였다. 약 3개월의 선임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31일 제10대 성기선 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새로운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선임되면 경영책임을 확보하고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경영목표를 작성하여 임기 동안 기관운영의 지표로 사용한다. 성기선 원장은 취임 이후 우리원 내부 인력들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경영목표를 만들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영목표 TF팀과 부서장들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경영목표에 대한 집필과 검토를 진행하였다. 경영목표 작성 과정에서 원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 직원 의견수렴 절차와 내·외부전문가의 자문 등 절차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2018~2020년을 관통하는 성기선 원장의 경영목표에는 ‘21세기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학생 중심의 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 연구기관’, ‘세계적 수준의 교육평가사업 수행기관’, ‘교육현장과 소통·협력하는 교육정보 서비스기관’이라는 중장기 발전목표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4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충북 시대를 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첫 경영목표는 그 이전의 전통과 새



2017.06.30
제9대 김영수 원장 이임식

2018~2020년 경영목표 체계도



2017.11.01
제10대 성기선 원장 취임식

롭게 변화하려는 역동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원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03 글로벌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을 향해

우리원은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사업을 발굴·수행해오고 있으며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및 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 중심의 교육가치를 구현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시기를 맞이하여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개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원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현장의 사업 지원 및 현장과의 소통 체제 구축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화 정책 지원 방안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교육평가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고자 한다. 우리원의 대표적인 교육평가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안정적 출제 및 신뢰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표집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2019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평가 체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PISA, TIMSS, ICILS 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참여자들의 결과 활용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심층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우리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가수준 교육평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평가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셋째, 교육현장과 소통·협력하는 교육정보 서비스기관으로서 자리 잡고자 한다. 그동안 연구사업의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온 데 비해 연구 결과를 공유·확산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 및 교육현장과의 소통에는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현장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자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서 검정 등 각종 평가사업에서 수요자 대상 맞춤형 교육정보 서비스



2018.07.10
2018년도 KICE-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정책협의회

2018.05.02
IB 교육과정 현황과 쟁점 탐색 세미나



2018.06.28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정보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부문별 변천과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개원 이래 국가 교육과정 개정 연구, 교과용도서 검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오늘날, 우리원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현장과 소통·협력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 연구와 세계적 수준의 교육평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 1 장 • 교육과정·교과서

제 3 장 • 교육평가

제 5 장 • 국가고사

제 2 장 • 교수학습

제 4 장 • 대학수학능력시험

제 6 장 • 기관운영

section

01

교육과정·교과서

01. · 개요

교육과정·교과서본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교과용도서의 연구 및 검·인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8년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과 동시에 교육과정연구본부로 출발하였다.

이후 시기별로 교육과정 분야가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과서 등의 타 분야와 결합 또는 분리되면서 크고 작은 조직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본부의 명칭과 주요 업무 역시 변화하였다. 2016년 1월 이래로 현재 부서명인 교육과정·교과서 본부의 명칭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본부



산하에 2실(교육과정연구실, 교과교육연구실), 2센터(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교과서검정센터), 2부(교육과정지원부, 교과서검정운영부)와 수탁 사업을 운영하는 2개 사업단(학교체육중앙지원단,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을 두고 있다.

02. · 주요 업무 현황

(1) 교육과정 연구 및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교육과정 총론 및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 교육과정 정책 국

제 비교 연구, 유치원 및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 등을 기본 과제로 수행해 왔으며, 교육과정 관련 현안 연구를 위한 수시 연구과제와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발주한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교육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과정 관련 콘텐츠를 탑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교육과정 관련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 교과교육 연구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교과별 교육과정 실행 및 지원 연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 교과 간 연계·융합 연구, 교과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현장 안착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3)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정 수행

교과용도서 및 검정 관련 연구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의 연계성 연구, 교과서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교과용도서 검정 시행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현재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서책형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 검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해서 검정심사관리위원회,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4) 학교체육·예술교육 연구 및 지원 사업 수행

2016년 5월 학교체육예술교육특임센터가 마련되었으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학교체육중앙지원단과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단에서는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예

〈교육과정·교과서본부 명칭 변천사〉

시기	명칭
1998 ~ 1999년	교육과정연구본부
2000 ~ 2001년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 교과서연구본부
2002년	교육과정연구실, 교과교육연구실
2003 ~ 2004년	교육과정연구본부
2005 ~ 2008년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
2009년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 교과교육교과서연구본부
2010 ~ 2012년	교육과정연구본부, 교과서연구본부
2013 ~ 2015년	교육과정본부
2016 ~ 2018년 현재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슬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및 홍보, 교사 대상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예설 및 학교체육포털을 구축하여 학교현장에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국가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 혁신에 기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우리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교육과정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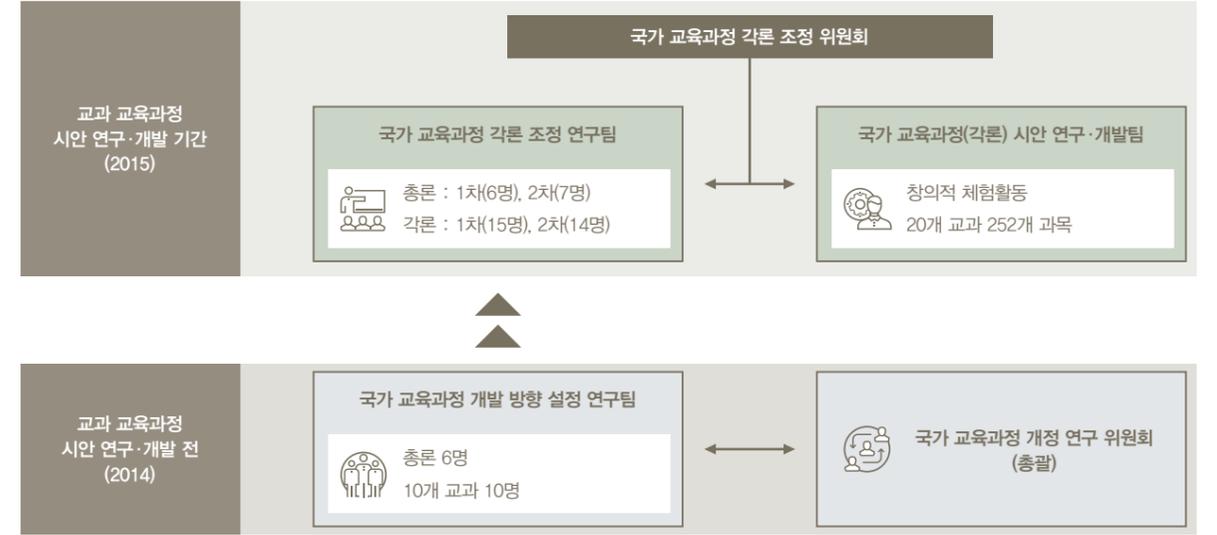
가.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수행한 국가 교육과정 개발이었으며, 본격적인 준비는 2004년부터 수행되었다. 우리원은 2004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2005년부터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를 비롯하여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와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중점 개발 연구하였다. 2006년에는 2005년 연구에 기초하여 산출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수정·보완 및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원에서 연구·개발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로 고시되었다.

나.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년 7월 2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발표하였고, 우리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발의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로 고시되었다.



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국가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21개 과제 총 252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다.

(2) 국가 교육과정 적용 지원을 위한 노력

가.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이후 국가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지원 연구가 이러한 후속 연구 수행의 첫 출발점이었다. 먼저 1998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 연구'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탐색'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는 교육과정 및 평가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초등학교 1, 2학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단계적인 교육과정 지원 연구를 기

본과제로 수행하였다.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는 수탁과제로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각 교과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 및 적용 지원 체제, 편성·운영·평가 등 7차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 차원의 연구였다. 국제 비교와 교육과정 평가 등의 연구 결과는 2003년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현행 교육과정 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시, 부분적, 지속적 개정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2007년 2월 28일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에는 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2007년 이후 개정 교육과정 및 우리원의 후속 지원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이후 개정 교육과정과 후속 지원 연구>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0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총론 외 19개 영역 집필 및 보급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체육·미술·음악 실과(기술·가정)·영어) 및 보급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4개 영역 집필 및 보급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해설서(총론) 외 고등학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역사 포함) 및 중학교 선택과목(진로와 직업) 해설서 집필 및 보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 활동 모형 개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 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1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Ⅰ) -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Ⅱ) - 일반고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코딩 체계 구축을 통한 교과 간 연계·융합 학습 강화 방안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교의 핵심역량 함양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간 연계·융합교육 운영 방안 연구

한편 정부에서는 2013년에 자유학기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6년 3월부터 이를 전면 도입·시행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원은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에 따른 원활한 적용을 위해 교육과정의 상황·맥락적 실행 관점에서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가이드 북'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연구 틀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단위학교 대상의 정부 정책 지원 및 시·도교육청 수준의 연수 기초자료, 단위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실천 자료를 제공하였다.

나.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구축 및 운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8년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09년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 공유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 2010년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 시스템과 정보의 고도화 연구'를 수행하고, 2011년부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를 구축(<http://ncic.kice.re.kr>)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서비스 사이트인 CUTIS와의 통합을 통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3~2014년에는 정부 3.0 사업 실행과 함께 고도화 발전 시기를 거쳤다. 특히 2014년도에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공개·공유 및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NCIC시스템 개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메뉴 구성 및 검색 기능 개선, 시스템 전반 고도화 등 NCIC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NCIC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뿐 아니라 세계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및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의사소통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3)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의 방향 제시 및 정책 선도

지난 20년간 교육과정·교과서본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연구를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선도를 위한 연구 결과물들을 산출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우리원에서 수행한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의 방향 제시 및 정책 선도를 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2007, 2008)
-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2009)
-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2012)

-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2013)
-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2015)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2017)

(4)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교육 개선 연구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교육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에는 수학, 사회과부터 시작하여 각 교과의 내용 체계화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3년까지 매년 여러 교과들이 참여하여 각 교과교육의 목표 및 학교교육에서의 교과교육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 개별적인 교과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습 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인권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전통음악교육 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001년에 시작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는 2년 동안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을 분석하여 학교교육 내실화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2003년에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의뢰로 예·체능계 교과에 대한 평가 체제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고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과교육의 변화 방향 및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3년에는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6년에는 미래 초·중등학교 교과교육의 방향 및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연구를 수행하였다.

(5) 교과서 연구 기반 조성 및 검·인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가. 교과서 개발 및 정책 연구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연구는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서 상에 따라 교과별



로 구체적인 교과서 예시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국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용도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교과서 개발 연구는 2002년까지 학년 및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수행되었고, 개발 과정들은 '교과용도서 체제 개선 연구'를 통해 매년 실험본 개발 과정 및 이듬해 정본 개발 과정을 기술한 연구 결과물로 5년차 연구까지 산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원은 교과용도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교과용도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차기 교과용도서 개발에 대한 발전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우리원에서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교과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1999년에는 과목별 적절한 교과용도서 합격 중수를 제안하는 '2종 교과용도서 과목별 적정 합격 중수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0년에는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로 '교육과정·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하여 국정제를 점차 축소하면서 검정제와 인정제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나. 교과서 검정 심사의 체계화와 전문적 인프라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교과서 검정 심



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은 2000년부터 중학교 1학년 교과용도서 25종의 검정을 시작으로, 2001년에 중학교 2학년 교과용도서 20종과 고등학교 기본교과 20종, 일반 선택과목 29종, 전문교과 9종의 교과용도서 검정이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중학교 3학년 20종,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 68종의 교과용도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검정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8년 12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전까지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법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면서 우리원은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질 제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검정 대상 교과에 대하여 매년 교과서 검정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검정 심사 및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전문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시행 결과 분석에 기초한 정책 및 시행 방안 개선 등 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탄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교과서 검정은 이후에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학교급 등 교육과정 적용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우리원은 2009년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교과서 검정 심사에 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주도하였다. 검정 심사 과정은 종래에는 폐쇄형 합숙 심사였으나 이 시기부터 개방형인 재택 심사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 심사 결과보고서도 요구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정 심사는 기초조사, 본심사, 이의신청 심사로 시행되는데, 우리원은 고도의 전문적 심사 수행을 위한 심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이를 기초하였으며, 관련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전문기관감수제를 운영하였는데, 표현·표기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이, 역사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감수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근거한 교과서 검정 및 검정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원에서는 다양한 교과서 검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과서 집필 방향을 설정하는 '교과별 편찬 준거 및 유의점'과 '집필 기준'의 개발, 교과용도서 어휘의 기본 지침이 되는

'편수자료'의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에 발맞추어 가는 교과서 개발, 심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원은 검정 심사를 위해 교과서 검정 표기오류 검색 프로그램 및 웹 기반 검정 전산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도모하였으며,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고도화 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높여나갔다. 또한 학교에서 검정 심사 합격 교과서를 적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선정 매뉴얼' 개발 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과서 선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사업은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초·중·고 교과용도서 23교과목 374책을 검정하여 302책의 최종 합격을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2017.9.8)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디지털교과서 검정 7개 교과목 69책에 대한 검정이 실시되었고, 2018년 3개 교과목, 2019년 1개 교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검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18년에는 초·중·고 총 15개 교과목에 대한 서책형 검정이 예정되어 있다.

04. · 향후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교육과정·교과서본부에서 향후 수행해 나가야 할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과정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 방향을 제대로 진단

하고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셋째, 교과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문서로 제시된 교육과정은 학교수업에서 교수학습으로 구현된다. 최근에는 교과 구분의 정당성, 교과에서의 필수 지식 및 기능, 융합 수업, 교과 역량 등이 쟁점이 되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학교 교수학습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미래사회 대비 교과용도서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학습자는 물론이고 미래의 학습자들은 기존의 서책 중심의 교과용도서만으로는 좋은 교수학습 결과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와 관련하여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과용도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모형 등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과 정책 선도가 필요하다. 우리원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신뢰성 높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과서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교과용도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발행 체제의 자율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교과서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교과교육 개선 연구, 교과서 관련 연구 및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01. · 개요

교수학습본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분야 기초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학교 교실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학과 연수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년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작으로 현재의 교수학습본부에 이르기까지 교수학습 관련 연구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적 수준의 초·중등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 마련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가수



준에서의 교육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에 맞춰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교수학습 지원 전략의 수립, 교수학습 자료 개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2. · 주요 업무 현황**(1) 교수학습 분야 기초 및 정책 연구 수행**

교수학습의 실태 분석을 통해 선도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초·중등학교의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 다문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행동,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4)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

교과별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 교직 경력별 수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초등교사 입문 프로그램, 중등교사(교과별) 입문 프로그램, 교사 전문성 발달 프로그램 및 다양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의 맞춤형 수업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5) 선행교육 예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지원

2014년 설립된 선행교육예방센터에서는 선행교육 예방 및 선행학습 근절을 통한 초·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공교육정상화법’ 및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와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관련 연구·홍보자료 개발, 공교육 정상화 관련 교원 연수자료 개발 및 보급,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관련 실태 파악, 정책 효과 분석 및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과교육의 질 관리 개선 등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공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03. · 주요 성과**(1) 교실수업 개선과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실수업 개선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및 수업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내외

조성하고, 교수학습 국제 비교 연구, 교수학습 관련 현안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2)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선도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 교과 내 통합 수업 자료, 사이버 학습 자료, 학습부진의 원인 분석에서부터 지도·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3)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

교수학습 특성 및 우수 교수학습 사례 분석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교육 시사점을 분석하고 현장 기반 교육정책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공교육 지원 방안 연구도 함께 수행하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학생 특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과 정의적 특성, 학습코칭, 글로벌 시티즌십, 문화다양성, 창의성 등 학생의 특성 분석 및 역량 증진에 기반한 연구 수행을 통해 학습자 중심 교육 실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미래 교수학습 방향을 분석, 전망하는 연구도 함께 수행하였다. 한편 우리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현장 실천 중심으로 효과적인 수업 운영 사례 및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행 연구 방법을 일반화시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하였다.

(2)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우리원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교과별 내용 교수 지식(PCK)에 기반한 수업 컨설팅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이론과 실천을 접목한 양질의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및 교과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교사교육 및 미래 교사 역량 제고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학습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교육 및 지능정보사회 대비 교사 역량 제고 방안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www.classroom.re.kr)는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2002년 이래 현장 교수학습 개선 및 교사교육을 지원해 왔다. 우리원은 현장연구를 거쳐 교과교육의 방향을 도출했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를 통해서 현장 수요가 높은 교과별 교육용 콘텐츠와 교과별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3)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연구(1998년)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1999년)는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가 3년간 수행되었다.

아울러 우리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에 대한 개념과 영역을 설정하고 국내외 맞춤형 학습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 연구를 수행하여, 맞춤형 학습의 영역을 교수, 평가, 교육과정, 학교조직, 파트너십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정리하였다.

2009년에 수행된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연구는 국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데 큰 그림을 제시하였다. 이후 우리원은 2010년과 2011년에 학습부진학생들의 특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하였고,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학교현장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KICE 기초학력 가이드’를 개발·보급하였다.



2012 KICE 기초학력 가이드

2012년과 2013년에는 일반적인 교실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될 수 없는 경계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2014년과 2015년에는 초·중학교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해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점에 놓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교육적 지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2016~2017년에는 입시전형의 변화로 인해 일반고 진학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 간 학력 격차의 문제를 조망하고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고 학습부진학생을 돕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 국가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가. 기초학력 보장 1.0: 보정자료 개발 및 보급

2002년도부터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 현상을 파악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정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였다. 이후 2008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5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기초학력을 진단하였는데, 우리원에서는 해당 교과의 보정자료를 개발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을 제시하면서 ‘학습부진학생 최소화’를 위한 책임지도’를 제안하였다.

나. 기초학력 보장 2.0: 단위학교 역량 강화

2008년도에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통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에게 ‘학력향상 중점학교’(이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명칭 변경)를 운영하도록 지정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단위학교에 직접 배분하였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모형을 설계하고,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각종 진단도구와 지도자료들을 개발하였으며,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꾸꾸(KuCu; Keep Up, Catch Up, www.basics.re.kr)’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학교현장에 보급하였다. 또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다. 기초학력 보장 2.5: 학교 밖 지원시스템(119 서비스)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1년 6월 기초학력 보장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지도·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의뢰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 정서심리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부진원인을 진단하고, 학습코칭과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병·의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기초학력 보장 3.0: 학생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점을 도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13년 단위학교 내의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에 1,166개 학교를 ‘두드림(Do-dream)학교’로 지정해 지원하였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두드림학교는 교감, 담임,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여 다중지원팀을 조직한 후, 학습부진학생의 원인진단과 학습코칭, 외부치료 등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5) 각종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가.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꾸꾸(KuCu)’

(www.basics.re.kr): 2009년~현재

메뉴	내용	대표 자료
초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선별,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자료 3R(읽기·쓰기·셈하기) 중심의 기초학습 지원 자료 초등 교과 보정교육을 위한 교과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3 교과학습 진단평가 초등학교 입문기 지원 프로그램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과 보정교육 자료 맞춤형 진단·학습 자료
중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선별,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자료 중등 교과 보정교육을 위한 교과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과 보정교육 자료 맞춤형 진단·학습 자료
주제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주제별 자료: 교과와 관련된 학습 자료 비교과 주제별 자료: 학습부진학생의 심리·정서,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영어 자기주도 학습 자료 한글해독 및 읽기 보충 교재 문제해결력 신장 프로그램 학습 주제별 오개념 및 지도 자료 수학/과학 개념 설명 동영상 학생/가정/지역사회 연계 자료 학습유형 검사 학습저해요인 검사 정서·행동·환경 진단검사 수학/사회 학습동기 검사 학교생활적응도 검사 자기조절학습 검사
교원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비교과 학습도움 프로그램 학습부진학생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교 전환기 프로그램 놀이학습 프로그램 동기향상/학습코칭 프로그램 강점 기반 학습도움 프로그램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기술 훈련 프로그램 행동 조절 프로그램 온라인 교원 자율연수 프로그램(12종)

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대응 사이버학습 콘텐츠: 2014년~2015년

〈단위: 차시 및 회〉

학교급	학년	과목					주제별 학습	평가	창의인성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초등학교	1학년	51	77				국어: 40 수학: 30 교과융합: 38		54
	2학년	60	80						
	3학년	57	98	61	79				
	4학년	58	90	66	78				
	5학년	69	86	73	76				
	6학년	69	87	56	75				
중학교	1학년		62			국어: 72 영어: 30 교과융합: 30	수학: 12 사회: 16 과학: 9		
	2학년		58	80	86				
	3학년		47		94				
총계		1,873차시					240차시	37회	54차시

〈주제별 학습 콘텐츠 및 창의인성 사이버학습 세부 과목명〉

- 한글 익히기, 맞춤법 익히기
- 핵심 개념학습, 수행평가 대비 기능학습
- 개념원리 수학 사전, 문장제 해결과제, 수학동화
- 강점 기반 진로탐색과 자기개발
- 초·중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좌
- 사이버 서당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기르기 등

다.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진단평가 및 보정자료

(www.hijump.or.kr): 2013년~2018년 4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직업기초능력(국어, 수학, 영어)

진단평가 및 보정학습 프로그램〉

과목	평가 문항	학습 차시
국어	30문항(3종)	44차시
수학	32문항(3종)	125차시
영어	24문항(3종)	46차시

〈특성화고 인성·기초학력 향상 지원 운영가이드〉



- 특성화고 인성·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개요
- 특성화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특성화고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 배치·활용
- 행·재정 지원 사항

04. . 향후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원 이래 실제적인 교실수업의 전문성 향상 및 질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밀착형 연구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국가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정책 개발 및 정책의 학교현



장 착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원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차별화된 전문성 기반의 교수학습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원은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교사교육에 관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및 효과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역시 요구된다.

셋째, 국가의 교수학습 수준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우리원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초·중·고등학교 현장의 수업 개선에 직접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현황과 요구에 기반한 교수학습 지원 관련 과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원에서 수행하는 여러 연구가 학교현장에 보급되어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연구 기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01.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내외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및 학교단위 학생평가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평가 연구 개발과 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및 시행,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체제 개선 및 교사 지원 체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평가 업무는 1998년도에 출범한 '교육평가연구본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2011년부터 '교육평가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성취평가 도입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평가본부에 '평가선진화연구실'이 신설되었으며, 2013년 '평가개선연구실'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교육평가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및 시행은 2016년부터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연구본부에서 수행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교육평가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02. 주요 업무 현황

(1) 교육평가 연구 개발과 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교육평가본부에서는 국가수준의 대규모 평가 사업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출제 및 시행 체제, 점수 체제, 결과 활용 체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교육평가본부의 장기 발전 방안 연구는 이러한 체제 발전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안정화 및 현대화

학업성취도 평가는 1998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평가의 목적, 대상, 평가 영역, 문항 유형, 시행 시기, 표집 방법, 점수

체제, 결과 분석과 활용 방안, 교육맥락변인의 수집 범위,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등의 측면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특히 전수 시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채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평가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점수 체제의 현대화를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3)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및 국제 협력 강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OECD 주관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주관의 수학·과학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및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가 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업무는 검사 시행 전 문항의 개발과 검사 도구 번역 및 번안, 시행용 검사 도구 제작 및 표집 업무가 있으며, 시행을 위해 학교 책임자 및 감독자, 질 관리자 연수, 시행 후 채점 및 결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학생평가 체제 개선 및 교육평가 정책 선도

우리원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진적인 학생평가 체제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초·중등학교의 교육평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5) 학생평가 전문성, 평가 방법 등 교육평가 내실화 지원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학생평가 체제를 학교현장에 내실 있게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평가 자료 개발 및 보급,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지원, 학생평가지원포털 운영, 교사 평가 전문성 함양 연수 등 초·중등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평가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요 성과

1998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

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및 표집 시행 시기(1998~2002년)를 거쳐 성취수준 설정, 척도화, 동등화 등의 방법론적 도약기(2003~2005년), 표집 시행의 확대와 전수평가의 준비 시기인 양적 확대기(2006~2008년), 전수 시행 체제로의 전환 및 평가 결과의 의무 공시 시기(2009~2012년),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전수 시행 축소 시기(2013~2014년), 교육과정 체제 개선 시기(2015~2016년)를 거쳐 2017년 표집평가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기들을 거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크게 정책 지원, 평가의 신뢰성·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대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보였다.

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와 기초학력 점검을 위한

정책 지원 성과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 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15개 항목의 39개 세부내용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매년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게 되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체제 전환 배경과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제정의 바탕에는 학교의 책무성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수준에서 기초학력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에 대한 안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의 공정성, 신뢰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및 결과 분석, 전수체제 전환에 따른 체제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정교화, 공시 지원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체제 시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평가 결과 기반의 공

시 체제를 보다 정교화하였으며, 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반의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와 교육정보 활용을 통한 정책결정 기능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교육정책 결정 및 추진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 수립 후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2009년 추진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책임지도·지원 및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단위학교의 학업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기 위한

채점시스템의 도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속적으로 체제가 발전되어 왔으며, 전수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의 안정적인 시행과 결과 산출을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시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왔다. 또한 우리원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며, 연구 결과를 학업성취도 평가에 적용하였다.

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문항 답안의

온라인 채점시스템 적용

많은 문항 수의 서답형 문항 답안을 표준화된 절차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하기 위해 우리원에서는 온라인으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채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채점시스템은 채점자의 공모부터 시작하여, 채점자 선정 및 교체, 채점자 연수, 표집채점 및 전수채점, 채점자 간 신뢰도 산출 등 서답형 답안의 채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채점시스템은 2007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에 최초 적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로 인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문항 출제에 있어서 단답형 답안뿐 아니라 과정을 진단하기 위한 복잡한 형태의 문항 출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채점 기간이 단축되어 단위학교에서의 기초학력 보정 기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채점 결과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자동채점 기술 적용

한국어 단어·구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2012~2014년)에서 여러 평가도구와 문항에 시범 적용을 하였고, 개발 이후인 2015년부터는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채점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우리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단어·구 수준 답안을 중심으로 자동채점 대상 학교급, 교과를 점차 확대 적용함으로써 채점자 수 감축을 통한 채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한편 답안 길이를 문장으로 확대하여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하였다. 2014년에 프로토타입을 설계한 이후로 2015년에는 이를 정교화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6년에는 채점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고도화하였다. 이러한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 2월 6일자로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허를 신청하고 4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서의 이례적인 것으로, 기본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기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구, 국가단위 평가 자료의 공개 및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3

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활용 서비스 시스템’(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 iNAEA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https://naea.kice.re.kr)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개관, 학업성취도 리포트, 학업성취도 맞춤형 정보, 맞춤형 학력진단 검사, 연구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필요에 따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부터는 단위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학력진단 및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력진단 검사 자동구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요 성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개원과 동시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0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가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안정적 시행 및 양적 성장

TIMSS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신인 국립교육평가원이 주관하였으며 1991년 우리나라 초·중등 수학 교육과정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3년의 예비검사를 거쳐 1994년 11월에 4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TIMSS 본검사를 시행하였다.⁰¹ 가장 최근에 시행된 TIMSS 2015의 경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49개교, 중학교 150개교에서 9,97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TIMSS 1995 이후 현재까지 수학, 과학 영역에서 최상의 성취를 유지하고 있다.

⁰¹ TIMSS 1995는 우리나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북반구 시행 보다 빠른 남반구의 시행 일정에 맞추어 1995년이 아닌 1994년 11월에 시행되었으며, TIMSS 2007 이후의 시행 일도 남반구의 시행 일정을 따라 북반구의 시행일정보다 앞서 평가를 치르고 있다.

PISA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98년에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부터 평가 틀, 문항 개발 및 검토에 적극 참여하였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의 평가 영역에서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는 역량 평가로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TIMSS와 구별된다. PISA의 본검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최초 주기인 PISA 2000에는 43개국에 참여하였으며, 주기가 거듭될수록 참가국 수가 늘어나 PISA 2015에는 72개국에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PISA 2000에 146개교 5,131명의 학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PISA에 참여해 왔으며 최근 주기인 PISA 2015에는 168개교에서 5,74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OECD 참여국을 기준으로 정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 순위는 읽기 영역에서 1~8위, 수학 영역에서 1~4위, 과학 영역에서 1~9위로 꾸준히 상위 수준을 유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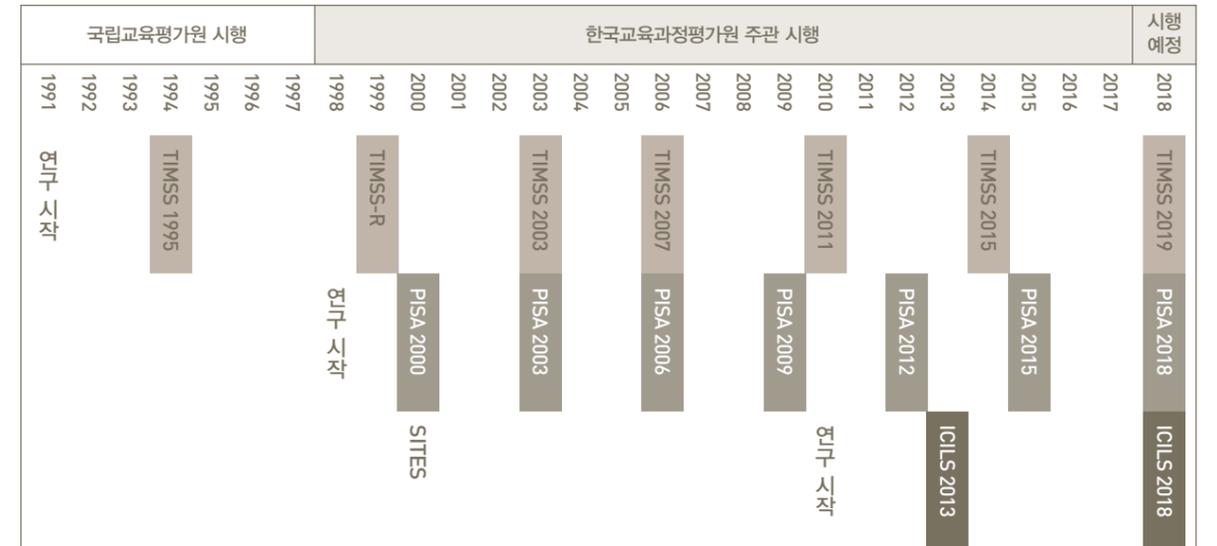
교육평가본부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IEA에서 주관한 교육정보화 국제 비교 연구(SITES)에도 한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국제적으로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13.5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는 ICILS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ICILS는 2010년에 최초로 연구를 시작하여 평가 틀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였으며, ICILS 2013 본검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학교 2학년을 검사 대상 학년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ICILS 2013에는 세계 18개국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50개 중학교에서 2,88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나. 국제 학업성취도 결과 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마련 지원

PISA, TIMSS, ICILS는 3~5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므로 교육정책의 영향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교육평가본부의 국제 학업성취도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은 교육부가 증거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검사 시행 연도>



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가 정책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개선의 사례로 이어진 예는 다음과 같다.

읽기 교육의 경우 2000년대 초기 교육정책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같이 주로 학교 도서관이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자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2000년대 후기부터 읽기 교육정책은 교사, 가정, 지역사회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년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 종합추진 방향, 2011년 초·중등학교 독서 활성화 방안 등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국제 학업성취도의 평가 틀과 문항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주요한 참고 요소가 되었는데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3~4학년군에 숫자 배열에 대한 규칙 탐구 활동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계산기 활용이 도입되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의 통계 영역에서 실생활 맥락에서의 표·그래프 등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TIMSS의 평가 틀과 문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PISA 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이지만 학습 흥미도와 행복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자유학기제의 전면 도입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정을 명시하였다.

ICILS 평가 틀에는 컴퓨팅 사고력이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경향에 맞추어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컴퓨팅 사고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ICILS 평가 틀에 포함되지 않는 운영체제나 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 관련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일상적인 사용 방법으로 내용을 조정하여 국제 평가기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질적 향상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미래 학생들을 위한 평가 영역을 제안하고 혁신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행



경험을 통해 국내 연구진은 평가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국내 평가에서도 선진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최초 지필평가 방식으로 시행되었던 PISA 2000 이후 3주기인 PISA 2006부터 과학 영역에 대해 컴퓨터 기반 평가를 병행 실시하였고, 순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PISA 2015부터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하였다. PISA 2015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면서 학생 설문을 위한 지필 검사지를 제작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학생 개인에게 유형에 따른 설문 문항을 할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사 설문과 학교장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응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TIMSS의 경우도 기존의 지필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TIMSS 2019부터 태블릿 PC나 컴퓨터에서 평가할 수 있는 eTIMSS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eTIMSS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였다.

라. 국제본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본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

리원은 PISA 이사회(PISA Governing Board)나 IEA 총회에 참여하여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의결하고 NPM(National Project Manager) 회의나 국가연구책임자(NRC; National Research Coordinators) 회의를 통해서 실무진 간 시행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2016년 3월에는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국제 교육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학생평가 연구 및 현장 지원의 주요 성과

우리원은 교육평가본부 평가개선실을 주축으로 2012년부터 국가수준의 대규모 평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학교현장의 학생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화된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파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 선진적인 교육평가 방법 연구를 통한 학교평가 정책 선도

① 성취평가제 도입 및 적용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2년부터 성취평가제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2~2013년은 성취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기로 성취평가제 이해도 제고와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는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단계로 성취평가제 운영에 따른 신뢰성 제고와 운영 모니터링 방안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중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운영 방안 연구(2012)
- 성취평가제의 고등학교 적용 방안(2013)
-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성적통지표 개선 방안(2013)
-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방안(2014)
-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2014)
-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적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2015)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성취평가제 내실화 방안(2015)
-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성취평가 결과 자료 분석(2016)

② 학생평가 선도 연구

최근 학생평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평가’가 강조되고, 교수학습과 연계된 ‘수행평가’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화·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선진적인 학생평가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첫째, 학교교육의 방향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학교현장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수행평가 확대가 요구되면서 중등학교 수행평가 정책 실행에 관한 연구(2017)를 진행하였다.

셋째, 핵심역량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을

지원하고 교실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실평가의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교과별 평가 자료와 그것의 적용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를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2012), 평가 방법 개선 종합 방안에 따른 교과별 적용 연구(2013), 21C 미래사회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평가 모형 및 평가 문항 개발(2013)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평가 방안 탐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나. 학생평가 방안의 학교현장 안착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개선실을 주축으로 2012년부터 성취평가제를 포함한 학생평가 개선 방안이 학교현장에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① 성취평가제 및 학생평가 운영·홍보자료 개발

2012년부터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도입 및 안착을 위해 각종 운영·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성취평가제 및 학생평가 운영·홍보자료 현황>

구분	연도별 자료명	성과
운영 자료	<성취평가제 운영 자료> 2012 • 성취평가제 운영매뉴얼 [중학교용] • 성취평가제 운영매뉴얼 [전문교과용] •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성취평가제 2013 • 성취평가제 교과별 운영매뉴얼 [10개 교과] •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성취평가제 [개정판] 2014 • 성취평가제와 평가도구 개발 - 교과별 자료집 [5종] • 성취평가제 적용 이렇게 하세요 [고교 보통교과용] • 성취평가 분할점수 산출 프로그램	• 성취평가제 운영 지침 및 가이드 제공

구분	연도별 자료명	성과
운영 자료	2014 •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성취평가제 [고교 보통교과용] • 고등학교 성적표 자동산출 프로그램 2015 • 성취평가제 적용 이렇게 하세요 - 교과별 자료집[5종] • 중학교 성적표 자동산출 프로그램 개발 •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이해 및 실제 [고등학교 보통교과용] • 성취평가 결과 분석에 기초한 피드백 [5종] 2016 • 학생의 성취도 파악을 위한 평가 결과 분석, 이렇게 하세요! [개정판] <학생평가 운영 자료> 2014 • 교과별 수행평가 방법 개선 방안에 따른 수행평가 예시 문항 자료집 - 국어·수학·영어 • 서술형 평가 문항 자료집 [1종]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어떻게 할까요? 2017 •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어떻게 할까요? [초등 1종, 중등 1종]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8종] •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수행평가 문항 자료집 [초등 7종] •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수행평가 문항 자료집 [중등 10종]	• 서술형 및 수행평가 도구·지침 제공 • 기타 학생평가 운영 지침 및 가이드 제공
	2012 • 성취평가제 홍보리플렛 • 성취평가제 홍보영상 [e-리플렛] 2015 • 함께하는 성취평가제 컨설팅 이렇게 하세요! 2016 •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실평가 홍보영상 • 학생평가지원포털 홍보 및 활용 안내	• 성취평가제·학생평가 이해도 제고 및 인식 확산

② 성취평가제 및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 전문성 연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개선실은 성취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교사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 학교 운영, 현장 지원단 및 관리자 연수,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최근 2016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행평가 지원단 및 교사 연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정 중심 수행평가 정책이 현장에 내실화 있게 정착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③ 학생평가지원포털 운영

우리원에서는 성취평가제를 비롯하여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평가지원포털(<https://stassess.kice.re.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성취평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평가 개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콜센터 운영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평가지원포털>



<성취평가제 및 학생평가 운영 지원 콜센터>

- 목적: 성취평가제 및 학생평가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통한 지원 서비스 강화와 현장지향적 지원 체제 마련
- 방법: 콜센터 전담 조원 배치
- 운영 기간: 2014년 4월 14일 ~ 현재
- 효과: 성취평가제 및 학생평가 운영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및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의견 수렴
- 기타: 콜센터 문의 사항을 학생평가지원포털의 FAQ에 탑재하여 콜센터 운영 효과성 제고



04. · 향후 전망

향후 교육평가본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평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지향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먼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2017년 표집평가로의 전환에 따른 목적의 변화, 체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반영한 평가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역량 평가, 컴퓨터 기반 평가를 구현하여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평가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PISA, TIMSS, ICILS로 대표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주기를 거듭할수록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양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안정적 시행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산출 및 심층연구의 다변화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단위의 학생평가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궁극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학교현장에 학생평가 방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평가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업과 함께, 미래 인재 육성에 적합한 선진화된 평가 방법을 탐구하여 교육 관련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파급·운영되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section
04

대학수학능력시험



01. · 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분부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출제·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된 1998년 이래 다양한 명칭으로 변화해 왔다.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을 목표로 하는 시험으로 우리원 설립 이전인 1994학년도에 대학 입학선발을 위한 시험으로 도입되었다. 수능은 대학입학학력고사가 지나치게 단편적 지식과 암기 위주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시험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암기력 중심에서 탈피하여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시험 과목 또는 영역의 확대를 비롯하여, 시험 문항 수, 시험 시간, 점수 체제의 변화 등 여러 차례 수능 개편이 있었다. 또한 난이도 조절, 수험생의 시험 부담 경감,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등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수능의 시험 영역, 계열별 영역·과목 선택 방식, 문항 수, 성적 산출 방식 등도 변화해 왔다. 현재 201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총 8개 영역의 41개 과목에서 980개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02. · 주요 업무 현황

수능분부는 2018년 현재 수능기획분석실, 수능출제연구실, 수능운영부, 수능출제관리부의 2실 2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능기획분석실과 수능출제연구실은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와 채점 결과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능운영부와 수능출제관리부는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본부 운영, 인쇄와 채점,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수능의 안정적인 출제 방안 연구

가. 모의평가 및 수능 출제

수능 관련 출제는 6월과 9월에 치러지는 2회의 모의평가와 11월에 시행되는 수능을 합쳐 매년 3회 이루어진다. 출제본부 구성을 위해 각 과목별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을 당해 자격조건에 맞는 교수와 현장교사로 섭외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친 후 각 과목별 당해연도 출제 방향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비공개로 구성되는 출제 합숙본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여 현재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총 41개 과목에서 980개의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당해연도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6월과 9월의 수능 모의평가를 통하여 수험생들의 능력 수준 및 집단 특성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과목별로 적절한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아울러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들에게도 새로운 문항 유형이나 평가 수준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수능 출제인력풀 확충 및 유지 관리

수능 출제인력풀은 2003년 언어 영역 복수정답 파문 이후 출제시스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에 구축되어 확충과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원활한 출제·검토위원 섭외를 위해서는 우수한 출제위원의 유지와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며, 우리원은 수능 출제인력풀 확충을 위해 대학과 교육청, 중등학교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다. EBS 연계 교재 감수

정부의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따라 각 과목별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감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제 과정에서 EBS 연계 교재와 강의를 70% 연계하여 수능 문항에 반영하고 있다.

라. 수능 및 모의평가 문항DB 유지 관리

출제 과정에서 적절한 난이도 유지와 출제 유형 분석을 위해 수능 및 모의평가 문항DB를 구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2) 수능 출제 및 인쇄·채점 관리

가. 수능 및 모의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인쇄와 채점 수행 등

각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교육부 위탁을 받아 수능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출제 문항의 인쇄, 포장, 배포 및 채점 업무도 유관기관과 부서의 협조 하에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모의평가 및 수능 성적표 발급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나.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관리 계획 수립 및 출제본부 운영

매년 2회의 모의평가와 1회의 수능 출제를 위한 출제본부 설치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출제본부에 참여하는 출제위원단, 검토위원단, 관리위원단을 포함한 전체 합숙 인원이 모의평가에서는 20일, 수능에서는 34일 간 합숙을 통해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3)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가. 이의신청 처리

시험 후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각 과목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이의신청의 중대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후 외부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을 확정·발표하고 있다.

나. 학교현장 반응 모니터링

학교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이후 출제에 반영하고 있다.

(4) 수능 및 모의평가 결과 분석 연구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가. 채점 결과 분석

당해연도 모의평가 및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발표하고,

모의평가 및 수능의 출제 안정화를 위해 응시자 특성과 문항 및 검사 특성 등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를 출제·검토위원단에 제공하고 있다.

나. 수능 성적 기초분석 결과 발표

수능은 중등교육의 종결 시기에 치러지는 국가수준 시험으로, 평가 결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학교별, 지역별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이전 연도 수능 성적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를 정례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 수능 자료 제공

수능 성적 결과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교육통계시스템(EDS)에 학교별 영역·과목별 등급 비율과 표준점수 평균 및 개인별 영역·과목별 등급과 표준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EDS에서는 총 11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연계, 가공하여 개인 및 기관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03. . 주요 성과

(1)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수능 출제 및 연구를 통한

수능 안정화

가. 오류 없는 문항 출제를 위한 출제 체제 개선

2003년 언어 영역 복수정답 파문 이후 '수능 출제·관리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수능 출제관리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출제위원 선정 풀(pool) 확대 및 다변화, 문항 출제 및 검토 체제 개선, 이의신청 처리 절차 공식화를 통해 출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후 우리원은 문제지 및 정답표 체크리스트 작성, 출제 근거자료 확인, 이의신청 모니터링단 운영,

문항점검위원회 신설, 검토지원단 추가 등 그 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여 왔다. 세부적인 연도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능 출제 체제 연도별 개선 사항〉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출제·관리 개선기획단' 발족 -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 총리실 정책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체제 개선위원회' 등 민·관 합동의 2개 분과위로 구성, 2004년 3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안 발표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안(2004.03.12) 발표 - 출제위원 선정 풀(pool) 확대 및 다변화 - 출제위원 검증시스템 강화 - 문항 출제 체제를 점진적인 개방형 체제로 개선하고 출제와 검토위원 간 이견 조정 체제 구축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지 및 정답표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제 근거자료 확인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제업무오류 및 출제·검토지침서 개발 · 출제 과정에서 데이터 확인 및 유사·인접 전공 교차검토 절차 강화 · 이의신청 심사 기간 연장 및 개선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제 근거자료 서식에 실제 데이터 첨부 항목 추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 모니터링단' 운영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출제오류 개선을 위한 조직 운영 -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방안(교육부, 2015.03.31) - 수능 '출제위원단' 개선 운영(문항 출제 과정 개선) : 영역 특성에 따른 출제 기간 확대 및 출제 인력 확충 - 수능 '검토위원단' 개선 운영(출제 오류 점검 강화) - 수능 '문항점검위원회' 신설(출제 문항의 점검 과정 개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위원장 직속의 검토지원단 신설

나. 수능-EBS 연계

2004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수능을 EBS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연계율 등 몇 차례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부터 연계 대상 교재에서 70% 이상을 연계하여 출제하도록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원, EBS 간에 교류협정(MOU)을 체결

하였다. 이후 수험생의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연계 교재 수를 축소하고 EBS 연계 교재의 질 제고를 위한 교재 감수위원회 감수 절차 정비 등을 통해 EBS 연계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

다. 문제은행 구축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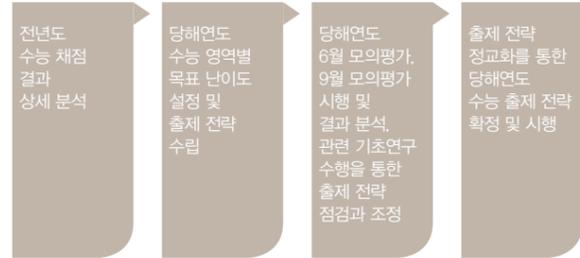
폐쇄형 합숙식 수능 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수능 출제에 적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에 '문제은행연구부'를 신설하고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및 제반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부담 시험인 수능의 성격상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문항 보안 문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항의 교육과정별 적합성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수능 출제에 직접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2)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출제 안정화 전략 수립 및 교육정책 지원·선도

가. 난이도 일관성 유지를 위한 출제 전략 정교화

대입전형에서 수능 성적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부터 수능의 난이도는 매년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수능 난이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 수능부터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출제하고자 하였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쉬운 수능'을 표방한 만점자 1% 방침은 응시생 특성 예측이 어려워진 2014학년도 수능을 기점으로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학습을 보완하면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출제하겠다는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원에서는 난이도 안정화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 및 연구 기반의 출제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난이도 안정화를 위한 주요 질 관리 체제는 다음과 같다.

〈수능 난이도 안정화를 위한 관리 체제〉



나.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및 절대평가 적용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절대평가로 출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원은 해당 연구 결과를 수능 출제에 적용하여 필수과목으로서의 한국사 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영어 절대평가 적용

2014년 교육부는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였고, 우리원은 이를 수능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출제에 적용하였다.

(3) 출제·관리 체제 개선 및 적용을 통한 수능 안정화

가. 수능 출제인력풀시스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4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능 출제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스템도 개선·정비해왔다. 안정적인 섭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는 필요한 출제 인력에 대해 6배수·8배수 등 인원 확보에 주력하였고, 2012년에는 인력풀 신청·관리·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도 정비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인력 섭외에 대한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나.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수능 지원 강화

2008학년도까지 수능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점자 또는 확대 문제지와 음성평

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경중 시각장애 수험생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보다 20분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2009학년도부터 장애인에 대한 수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7배를, 경중 시각장애 수험생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1.5배를 연장 운영하였다.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도입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다. 수능정보시스템

2010년부터 수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사업이 시작되어 수능 원서접수, 시험장 배치, 온라인 문답지 정보 관리, 응시료 환불, 성적표 출력, 성적 전자메일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우리원은 수능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스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라. 수능 시행 지원 체제

수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출제뿐만 아니라 합숙본부 운영, 문제지 인쇄, 포장,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원은 인쇄나 포장 과정에서 분류 작업 오류 등이 없이 배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점검·보완하고 있다.

(4) 대국민 서비스

가.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고객만족도 향상

수능 관련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적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성적 제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채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위기상황 대처

수능의 출제, 인쇄 및 배포,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 우리원은 그동안 신종플루 유행, 모의평가 문항 유출, 포항지역 지진 발생 등의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무사히 수능 사업을 시행하였다.

04. · 향후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까지 수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수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현행 수능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학령기 인구 감소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수능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수능 체제와 성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맞춰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및 선택과목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

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수능 자체를 자격고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입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부는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17.8.3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안 발표가 1년 유예되면서 새로운 수능 체제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수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영역, 문항 유형, 점수 산출 방식 및 결과 보고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자유학기제 확대 및 고교학점제 적용, 내신 성취평가제 등 교육현장의 전반적인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미래사회 변화와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수능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능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된다. 수능 결과 자료는 대입전형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수립이나 국가 교육과정 개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맥락변인을 수집·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EDS에 참여하고 있는 항목관리기관 및 시·도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의 자료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출제위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몇 차례 출제 오류가 겹치면서 오류 발생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출제위원을 꺼리는 출제위원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평가나 교원평가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일정을 할애해야 하는 출제위원 섭외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안정적인 출제를 위해서는 우수 출제위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01. ·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설립 이후 각종 국가고사를 수행·관리해 왔다. 국가고사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시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선별·분류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원에서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고사는 총 13종이다. 이 중 정책에 의해 종료된 국가고사도 있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국가고사도 있으며, 우리원의 평가 전문성을 살려 체계를 정비한 이후 타 기관이나 협의체에 넘겨준 국가고사도 있다. 2018년 현재 우리원에서는 4종의 국가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고사 업무 내역〉

-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1998년 ~ 2011년)
- 고입선발고사(1998년 ~ 2017년)
- 검정고시(1999년 ~ 현재)
- 국비유학생선발시험(1999년 ~ 2009년)
- 한국어능력시험(1999년 ~ 2010년)
- 일본공대유학생선발시험(1999년 ~ 2000년)
- 초등교사임용시험(1999년 ~ 현재)
- 중등교사임용시험(2001년 ~ 현재)
- 교육전문직시험(2001년 ~ 2007년)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2004년 ~ 2011년)
- 법학적성시험(2008년 ~ 2011년)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2010년 ~ 2011년)
- 지방공무원임용시험(2015년 ~ 현재)

설립 초기 2종의 국가고사를 수행했던 부서는 고사관리본부로서, 고사기획부와 고사운영부를 두고 시험을 수행·관리하였다. 이후 여러 조직 개편을 거쳐 2013년에는 임용시험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센터장 외에 연구직을 2명으로 늘렸으며, 2014년에는 초등, 중등, 검정고시사업단장 등 센터장 외

에 연구직을 5명으로 확대했다. 이후 연구에 기반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발굴하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초·중등교사임용시험, 검정고시 관련 기본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게 되었고 사업단장 및 팀장, 팀원이 배치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관련 연구, 사업 시행 및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8년부터는 국가고사본부로 그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02. · 주요 업무 현황

주요 국가시험인 검정고시, 초등교사임용시험, 중등교사임용시험 사업 등에 대한 출제, 인쇄, 문항 및 이의신청 처리, 채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출제·인쇄 업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출제위원단 구성 및 역할,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참여할 사업단이 확정되면 사전 워크숍을 통해 출제업무를 익히고 출제위원단을 섭외·위촉한다. 매뉴얼 제작, 각종 계약 의뢰 및 발주가 이루어지면 출제 합숙본부를 개설하게 된다. 출제 합숙본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문제지를 제작·검토·확정한 후 인쇄에 넘기고 문항카드, 채점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제작한다. 출제 합숙본부에서 문제지가 완성되어 인쇄본부로 보내지면 인쇄에 들어간다. 이후 정해진 일정 에 따라 해당 시·도에 인계한다.

(2) 문항 및 정답 이의신청 처리 업무

시험 시행 당일 시험 성격에 따라 초·중등교사임용시험은 문항만, 객관식 시험인 검정고시 등은 문항 및 정답이 본원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문항 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문에 따라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 발표 일정도 통보한다. 이의신청은 이의심사사전위원

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이의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며, 심사 이후 확정된 정답을 공개한다.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3) 초·중등교사임용시험 채점 업무

시·도별 선발 과목과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채점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채점 기간, 채점조 편성, 채점 매뉴얼이 작성되고, 채점장 설치 등 채점 합숙본부 개실을 준비한다. 채점 합숙본부에서는 채점위원 워크숍을 통해 문항의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 등을 숙지한 다음 채점위원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가채점을 실시한다. 가채점 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 기준을 수정, 보완, 확정하면 채점에 들어간다. 하나의 답안을 채점위원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하며, 채점 완료 후 채점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이후 채점 검증위원회를 거쳐 채점 성적자료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제공한다.

(4)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구

연구에 기반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합숙본부 내에서 설문조사 및 평가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전체 사업 완료 후에 우리원 사업 참여자와 타부서 및 외부 관계관이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전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 사업 과정에서의 요구사항 및 향후 점검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안, 개선 방안 점검, 문항 분석 및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03. . 주요 성과

(1) 초등교사임용시험

가. 초등교사임용시험의 안정적 시행

시험 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 주관의 초등교사임용시험은 시·도교육청이 원서 교부와 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주관 교육청으로부터 시험 출제·채점과 인쇄 및 배부 업무를 의뢰받아 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평가지표 개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험 체제가 2단계에서 3단계 전형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3차 시험으로 치러지는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교사로서의 교직적성과 인성을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면접 문항을 출제하여 시·도교육청에 제공하고 있다.

다. 초등교사임용시험 체제 간소화의 성공적 안착

3단계 전형의 임용시험을 몇 년간 시행한 결과 선다형에 대한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장기간에 걸친 시험 실시로 인해 응시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우리원은 3단계 전형의 1차와 2차 전형을 통합한 제1차 시험에서 교직논술 시험을 논술형 1문항으로 출제하고, 교육과정 시험은 서술형·단답형·완성형 등의 서답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간소화된 시험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라. 전산채점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

초등교사임용시험은 중등교사임용시험과 비교할 때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문답지에 작성한 답안을 수기로 채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기채점은 문답지에 기재한 점수를 엑셀로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채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4년부터 전산채점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제1차 시험에 대한 채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채점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마.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 수업 실연 시험의 타당도 제고

우리원은 2008년부터 교직적성 심층면접 문항을 출제하여 시·도교육청에 제공하고 있으나,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문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수업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두 가지 시험의 문항 출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였다.

(2) 중등교사임용시험

가.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안정적 시행

초등교사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 시험 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험 출제·채점과 인쇄 및 배부 업무를 의뢰받아 현재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중등교사임용시험은 출제하는 과목이 많고 경쟁률도 높아서 시험 출제·채점과 인쇄 및 배부 업무의 복잡도 역시 매우 높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간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 전산채점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

2008년부터 적용된 3단계 전형 체제에 발맞추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년에 제2차 시험 논술형 문항에 대한 전산채점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전산채점시스템을 개발한 후 채점에 적용하였다. 초기에는 하드웨어 및 전산채점시스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채점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음은 물론 채점의 효율성도 높였다.

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평가지표 개발

3단계 전형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및 전문성

을 갖춘 우수한 교직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교사임용시험에 이어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도 중등학교 교사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교사로서의 교직적성과 인성을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제3차 시험의 면접 문항을 출제하여 2010년 1월부터 시·도교육청에 제공하고 있다.

라.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수업 실연 시험의 타당도 제고

3단계 전형에서 중시하고 있는 수업 능력을 보다 타당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문항의 출제를 위탁하였다. 이에 우리원은 2011년 1월부터 두 가지 시험의 문항을 출제하여 시·도교육청에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 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를 선발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마. 중등교사임용시험 체제 간소화의 성공적 안착 및

전산채점의 안정화

3단계 전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개정된 시험규칙에 의거하여 중등교사임용시험도 2013년부터 2단계 전형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단계 전형의 1차와 2차 전형을 통합한 제1차 시험에서 교육학 시험을 논술형 1문항으로, 전공 시험을 기입형 15문항, 서술형 6~9문항, 논술형 2문항으로 출제하여 응시자들의 전공 소양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 사용했던 전산채점의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채점 절차를 정교화하여 전산채점의 안정화를 기하였다.

(3) 검정고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에 기반한 사업 수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가고사를 관리하고 있다. 검정고시 출

제 업무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1999년에 시행된 검정고시부터이다. 당시 우리원은 교육부로부터 출제 업무 위탁 의뢰(1998.11.28)를 받고,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협의회(1999.1.18)에 참여하는 것으로 검정고시 출제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9년의 검정고시 시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검정고시 출제 개요 및 출제본부 운영〉

- 출제 형식: 객관식 4지 선다형
- 출제 문항 수: 고입·고졸 각 과목별 25문항 (단, 공통(수학)은 20문항)
- 출제 문형: A, B형
- 출제 과목:

구분	영역	과목	비고
고입 자격	필수	도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6과목)	총 14과목 출제
	선택	음악, 미술, 체육, 한문 중 1과목	
고졸 자격	필수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국사(7과목)	총 27과목 출제
	선택	음악 I, 미술 I, 체육 I, 한문 I, 교련 중 1과목	
		선택 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본부 개설 및 운영
 • 1999년 제1회 시험: 1999.03.23~04.05(14일)
 • 1999년 제2회 시험: 1999.07.16~07.30(15일)

이후 검정고시는 매년 우리원이 출제 및 인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해오고 있다. 출제 합숙본부를 운영하면서 수행해 온 검정고시는 일부 시험 과목이 변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고, 2012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1문항에 복수정답이 나타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원은 검정고시 출제 및 검토 과정을 더욱 정교화하면서 최근까지 문항 오류 및 복수정답이 없는 시험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3년은 검정고시 출제 및 시행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먼저 검정고시의 명칭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전까지 검정고시 명칭에는 ‘입학’과 ‘졸업’이 혼용되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졸업학력’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하여 학교급 간의 구분 단계를 명확하도록 개선하였다.

〈검정고시 명칭 개선〉

기존 명칭 (2013년까지)	개선 명칭 (2014년 이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명칭 유지)

그리고 검정고시의 문항 출제 방식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는데, 검정고시의 일부 문항을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해 나가고, 기출 문제 영역도 출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원은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3년에 ‘검정고시 문제은행식 출제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검정고시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방안 및 문제은행 검사지 구성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고졸 검정고시의 출제 교과목 수를 축소 조정하였다. 고졸 자격시험에서 선택 II(기술·가정 계열 및 제2외국어 계열)를 제외하고, 선택 I 과 II를 ‘선택’으로 조정하면서 필수 6과목, 선택 5과목이 되었다. 이러한 출제 교과목 변경은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다년간 쌓아온 출제 노하우를 통해 출제위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리 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2017년 검정고시 출제 개요를 우리원이 처음 검정고시를 출제하였던 1999년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학교급이 2개에서 3개로 증가하였다. 즉 1999년에는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를 출제하였으나 2017년에는 초졸, 중졸 및 고졸 등 3개 학교급의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출제하고 있다. 출제 문형은 1999년에는 A와 B형 두 가지 유형을 출제하였으나 2017년에는 단일형 한 가지 유형

〈검정고시 위탁 초기와 현재의 출제 내용 비교〉

구분	1999년	2017년	비고
명칭	고입자격·고졸학력 검정고시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2개 학교급에서 3개 학교급으로 출제 과목 및 문항 수 증가
출제 교과목	41개 과목	31개 과목	출제 교과목의 수는 축소
출제 문형	A, B형	단일형	복수형에서 단일형으로 변경
적용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정규학교 적용 교육과정에 준하여 출제 원칙 유지, 단 일부 적용 연도 조정하여 시행

만을 출제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6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하였으나 2017년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출제하고 있다.

우리원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검정고시 문항을 출제할 때, 기존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취기준의 출제 비중을 크게 하고, 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성취기준의 출제 비중을 초기에는 낮추고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 방안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바뀐 교육과정으로 검정고시가 연착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문항을 출제할 때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성취기준을 반영하는 내용 영역 및 지식·이해·적용의 행동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수험 준비를 해온 응시자들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응시자들이 사용하는 교재·지역·성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검정고시 관련 기본 및 수시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검정고시의 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4)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후,

199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대한민국 국가시험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시험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의 결과는 대학(원) 입학, 한국어 교원 자격의 취득,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한국 기업체 취업 등에서 명실상부한 공식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국가가 전 세계 모든 대륙의 39개국으로 확대되고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 수가 9만 2,00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능력시험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시험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시험 시행 국가 분포 역시 아시아권이나 재외동포 거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재외동포의 주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된 것도 의미가 크다.

셋째,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체제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표준화하고 각 교육기관의 평가 체제를 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다수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체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정비하였으며,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의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다.

넷째,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험이기는 했으나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향후 한국어능력시험이 특수 목적이나 특정 수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변형되거나 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유형의 시험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이 200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 많은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 다시 말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수준 결정에 이 시험의 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어 평가 및 한국어 교육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이 제시한 평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평가도구 개발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공하여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만큼 유목적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교육계 최초로 국가수준의 합의된 평가척도를 제안하였다. 이 시험을 통해 그동안 시도되었던 민간 차원의 한국어 능력 평가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한국어를 소개하고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 표준적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표준화 시험으로서 평가도구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넷째, 공인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한국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이 단순한 평가도구로서의 가치를 넘어 한국어 능력 소지자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도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능력시험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국의 위상과 함께 시대적·사회적·학문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였다.

04. · 향후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이래 다양한 국가고사의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구축하였다. 또한 새롭게 시도되는 각종 국가고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고사관리 노하우를 사업 이관과 함께 기관 또는 협의체에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고사 체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향후 우리원에서는 국가고사 시험 문항 출제 및 채점관리에서의 완전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체계화, 정교화, 표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고사본부에서는 연구에 기반한 사업 수행을 강조하면서 2015년부터 사업과 관련된 기본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단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연구원을 배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받으면서 연구와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국가고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본부 차원에서도 원내외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고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응시자들의 경쟁률도 높아지면서 시험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임용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민원에 대한 대응 체제를 보다 체계화하면서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 방안 또한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검정고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평

생교육의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 탈북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 다양한 수험생의 증가, 다양해지는 응시 목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초·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사 선발 체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소수의 역량 있는 교사 선발 체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I. 기획조정

01. 개요

기획조정본부는 연구기획실과 경영기획실로 구성되어 있다.⁰² 연구기획실은 연구 기획 및 연구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지원하는 노력을 전개해

⁰²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연구기획실, 경영기획실, 성과평가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 성과평가실이 폐지되면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기관평가 수임 업무, 부서 및 실무 업적 관리 및 평가 업무가 연구기획실로 이관되었다.

오고 있다. 또한 연구기획실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우리원의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함께 제도 관리, 국정감사 수감 등 정부부처 및 국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균형적인 재원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주요 업무 현황

연구기획실에서는 먼저 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의 연구사

업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며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연구사업팀 평가 등의 세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우리원이 수행한 기본·수시·수탁 연구들을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외부에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포지션페이퍼’, ‘이슈페이퍼’, 연구·정책브리프 ‘통’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 정기 서면 보고’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매달 보고하고 있다. 교육 분야 네트워크 참석 업무로는 교육부, 교육 유관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각종 사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청람교

육포럼’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원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그 밖에 연구 인력 관리와 관련된 업무로는 차년도 연구사업팀 구성 및 조정, 당해연도 연구사업팀 변경, 각종 위원회와 사업단 구성 등이 있고, 연구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로는 정기적인 학습포럼 운영, 학술 논문 게재 지원, 전공별 연구실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연구기획실에서는 원장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기관평가 수임 업무, 고객만족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 비전 및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원장의 경영목표 수립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연구기관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설명자료 준비 등 실사평가 수임 대비, 기관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부서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원은 기관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을 2012년부터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기획실은 부서 및 실·부 KPI를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각 부서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KPI의 실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구성원들의 노력이 우리원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향해 집중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예산의 편성·배정 및 관리 업무, 국회 및 정부 관련 업무, 조직의 정원 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업무를 진행한다. 우리원은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며, 제





출된 예산안은 5월 말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국무총리실에 제출되고, 다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아 정기국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연구원의 출연금 예산으로 확정된다. 국회 및 국정감사 관련 업무로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국정감사 관련 업무와 국회 및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및 이에 따른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 진행되는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감원) 계획을 통해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을 통하여 5개년 단위의 총 정원 변동(증감) 예측 및 방향을 설정하여 정원을 관리한다.

03. . 주요 성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대내외적 교육환경 및 사회적 요구 변화

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연구기획실은 전공별 연구실을 운영함으로써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전공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획실은 KICE 학습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원내 구성원들에게 교육 관련 최신 동향 및 인접 학문의 연구 경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내 구성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기여하고 있다.

최종보고서 평가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부원장을 팀장으로 한 총인원 15명의 '2017년 기본과제 최종보고서 평가 방식 개선 TF팀(2017.5.10~2017.11.30)'을 조직·운영하였다. TF팀에서는 기존 원내 최종보고서 평가 방식과 다른 집체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타 기관 사례 벤치마킹, 전 연구원 공유 및 원내 연구원 설문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보고서 심사 방법 변경(안)을 도출하고, 기본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심사 실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입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연구 성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정책브리프 '통'을 제작·배포하고 매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원의 연구 성과가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현장에 적시성 있는 자료,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획실은 제7대 원장 이후 지금까지 우리원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된 목표를 설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뚜렷한 비전과 함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선도하는 교육과정 및 평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매년 출연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조직 운영 및 기획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상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실용적, 창의적, 현실적 제안을 발굴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통·공감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해왔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성공적 수감을 통한 기관의 대외 신뢰성 확보, 규정 정비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4. . 향후 전망

연구기획실은 우리원 차원에서 연구사업을 기획하는 부서로 입지를 다져왔으나 아직까지 연구 기획 기능이 과제 발굴 절차를 운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연구기획실의 연구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즉각적인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타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 및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를 발굴하는 데도 역점을 기울



일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선도하는 질 높은 연구가 수행되도록 연구사업 관리 체계를 자체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기획실은 우리원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목표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발전 워크숍, 업무성과 발표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성과지표 및 목표 수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조직 차원, 부서 차원, 개인 차원의 목표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잘 정의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 정도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체계적 성과 관리, 성과와 보상의 연계, 코칭 기회 활용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우리원의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영기획실은 대내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정부출연금의 확대를 위해 연구회 및 정부부처, 국회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조직 혁신과 업무 프로세스, 조직 구조 등을 개선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핵심 업무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선진화를 선도할 것이다.

II. 국제교육

01. ·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 분야 노하우와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교육개발협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역량 국제화를 기관 비전과 중장기 발전목표 및 역점 경영목표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교육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강화'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전문성 기반의 '교육개발협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 업무 기반 조직을 2013~2014년 글로벌협력실, 2015년 글로벌교육센터, 2016년 글로벌교육본부로 점차 확대 개편하였다. 2018년 현재는 국제교육협력실에서 교육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2. · 주요 업무 현황 및 성과

(1) 방글라데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지원

방글라데시 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현지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현황 및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원은 방글라데시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관련 전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었다.

(2) 몽골 교육과정 평가 및 감사 과정 연수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몽골 교육과정 평가 및 감사 과정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를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몽골에 교육과정 평가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몽골의 교육적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리원은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 평가 관련 컨설팅을 통해 몽골 교

육 역량 제고 및 평가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3) 캄보디아의 OECD PISA-D 사업

OECD는 2000년부터 시행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하여 PISA for Development(PISA-D)를 제안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한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4년간 캄보디아의 협력국가로서 지원을 전개하였다. PISA-D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원은 캄보디아와의 교육개발협력을 통한 교육 접근성 및 형평성 확대와 함께 캄보디아 초·중등교육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교육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고,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4) 에콰도르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한국의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경험을 공유하고, 에콰도르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를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에콰도르 교육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8명을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협력의 다양한 실행을 제공함으로써 에콰도르 초·중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교사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종료 후에도 에콰도르 주도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5) 미얀마 기초교육 증진을 위한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 컨설팅

미얀마 정부의 기초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과 그에 따른 국가수준 평가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간의 교육평가 연구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기존 캄보디아 PISA-D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원은 미얀마 국가수준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현지 교육과정 개선 및 국가수준 평가시스템 개선에 기여하였다.

(6) 캄보디아 교과서 관계자 방한 연수 사업

외교부의 요청으로 2017년 캄보디아 교육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교과서 집필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제공하였다. 또한 우리원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캄보디아 교육공무원의 교육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03. · 향후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설립 이래 국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OECD와 UNESCO 등의 국제기구 및 국내의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관리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2030년까지 미래사회의 교육 비전 아래 우리원이 가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중장기적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해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Ⅲ. 홍보출판

01. 개요

홍보출판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원은 언론매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요 연구사업이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원 당시 언론 홍보와 출판 업무는 기획조정실 산하 대외협력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는 홍보출판실에서 전담 중이다.

02. 주요 업무 현황

(1) 언론·온라인 홍보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지속적·상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업무

를 실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는 매월 'KICE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우리원 대표 발간물의 전자책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2) 출판 홍보

우리원 연구사업 성과의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기관지 '교육광장'*,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우수 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요약·정리한 'KICE 연구리포트'를 연 1회, 연간 단위 사업보고서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교육광장은 2018년 연 3회 발간

(3) 대외관계 구축

홍보출판실에서는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원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주요 사범대 및 교육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국내 104개 기관과 교류협정(MOU)을 체결하였다.

(4) 기관 이미지 관리

연구사업 홍보 활동에 일관된 기관 CI(Corporate Identity)와 2종의 기관 캐릭터(배우미, 이끄미) 활용을 독려함으로써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원 성과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연구사업 성과 확산

홍보출판실에서는 우리원의 주요 연구사업 성과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노출 빈도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구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며, 대표 발간물을 언론매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2) 학술지의 질적 수준 발전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는 1998년 창간 당시 연 1회 발간되었으나, 2003년 연 2회, 2009년 연 3회를 거쳐 2016년에는 연 4회로 발간 규모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지위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 2003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지원하는 등 홍보출판실의 전반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

(3) 홍보 전략 강화

성과 확산 노력의 효율적 점검과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2011년 온라인 뉴스 스크랩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동으로 기사를 검색했던 이전과 달리 자동 검색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정보를 원내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대외언론 활동지침과 언론 홍보 업무매뉴얼을 제·개정함으로써 언론 홍보를 체계화하고, 언론 관련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4) 기관 이미지 제고

2015년 기관 캐릭터 2종에 대해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려 노력하였다. 또한 개원 20주년 기념 엠블럼을 신규 제작하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CI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여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기관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04. 향후 전망

홍보출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 홍보 체제의 정교화, 홍보 전략의 다변화, 기관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온라인 홍보 혁신 등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원은 최근 모바일 기기 및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해 기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 네트워크 운영도 보다 정교화하여 상호 신뢰를 강화할 것이며, 교육 현안에 대해 적시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홍보출판실은 효과적인 홍보출판 업무를 통해 연구 성과 확산 및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IV. 경영지원

01. 개요

경영지원본부는 기관경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사무국으로 출발하여 현재 경영지원본부로 개편되었으며, 2017년 기준 총무부, 재무운영부, 구매계약부, 자료·기록물관리부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02. 주요 업무 현황

경영지원본부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⁰³

<경영지원본부 각 부서별 주요 업무>

2017년 기준

부서	주요 업무
총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임용, 승진, 상벌 등 인사 관리 직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및 복무 관리 노사관계 업무 문서 수발, 통제, 관리 및 직인 관리 비상계획, 민방위 및 방호·보안 등 안전 관리 의식·의전 등 행사 관련 업무 시설, 설비 및 차량 운영 관리
재무 운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및 경비 지출 등 회계 관리 자금 및 기금 총괄 운영·관리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서 관리 회계 결산 급여, 연금, 보험 등 관련 업무
구매 계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 취득, 관리 및 처분 재물조사 총괄 관리 물품구매, 시설공사, 일반·전산운영 등 각종 계약 체결 연간단기계약 체결 및 업체 관리 각종 국가고사 관련 문제지 및 단안지 인쇄, 전산편집 등 계약 체결
자료·기록물관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연구자료의 효율적 제공 기록물관리 정책 수립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⁰³ 2018년 1월 조직 개편에 의해 총무부는 운영지원부와 인사부로 분리되었고, 자료·기록물관리부는 정보관리본부로 이동하였으며, 2018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성과 평가실 폐지로 직원평정 업무가 인사부로 이동하였다.



03. 주요 성과

(1) 채용절차 개선 및 시스템 도입

가. KICE 인재상 수립

기존에는 인재상 부재로 인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성 및 지속성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조직 미션, 비전 및 원내의 환경 분석을 통해 기관의 핵심가치와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재상을 정립하였다.

<KICE 4대 인재상>

<p>창의적인 전문인</p> <p>전문성 창의성 수월성 문제해결 능력</p>	<p>도전적인 글로벌인</p> <p>리더십 글로벌 마인드 도전 변화</p>	<p>소통하는 협력인</p> <p>화합, 협력 팀워크 수용성 의사소통력</p>	<p>신뢰로운 책임인</p> <p>신뢰, 책무성 도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감</p>
---	--	--	---

나. 외부 전형위원 인력풀 시스템 구축

당초 연구기획실에서 관리하던 국내 연구자의 소속학교, 학과, 전공 등의 정보를 전산단말기에 입력해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전형위원 제척사유에 따른 가중치 설정으로 섭외 가능한 연구자 명단을 산출하여 위촉 업무를 실시하였다.

다. NCS 기반 채용제도 및 채용솔루션 도입

우리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여 블라인드



채용과 병행해 학벌 중심이 아닌 업무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2016년 하반기 행정직 채용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채용절차 구축·관리를 위하여 채용 업무 솔루션 임차계약을 전문업체와 2016년 하반기부터 체결하고 사용함으로써 채용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및 법인카드 감사시스템 도입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의 실시간 조회로 정확한 자금 흐름 파악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2016년 도입하여 매년 약 150여 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인카드 감사관리시스템(이글아이)을 통해 카드 사용내역 및 특이사용 건 조회로 회계심사의 정확성을 강화하였다.

(3) 금융사고 예방시스템 강화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우리원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 이상 출금 시 지정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실시간 전송하게 함으로써 출납담당자와 책임자 간 상호 견제 및 은행 비위행위를 견제하고, 출금 즉시 실시간 확인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정부 구매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 감사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계약 관련 전문교육을 수강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구매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04. · 향후 전망

앞으로도 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관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무부는 비정규직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부 권장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재무운영부는 회계시스템 기능 고도화, 회계 서식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한 업무 편의성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매계약부는 계약 관련 각종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규정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각종 정부 정책 또한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료·기록물관리부는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록물관리 관련 절차 정비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V. 정보관리

01. · 개요

정보관리본부는 연구 및 업무 결과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실적물의 DB화를 통한 지식 기반 경영체제 구축, 각종 전자문서의 체계적 관리, 정보보안 관리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식자산의 전산화를 통해 기관의 가치를 증진하고, 우리원이 정보화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그에 필요한 정보화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사 등 채점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전산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02. · 주요 업무 현황

(1) 정보화 기획 및 관리

우리원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관리, 기타 정보화통합관리체계(EA; Enterprise Architecture)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세부 업무로는 각 부서의 정보화 사업을 위한 사전 협의, 업무 협업, 산출물 관리 등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시설 등 우리원 주요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2)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은 경영정보시스템(MIS)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산관리, 회계관리, 세무관리, 자산관리, 급여관리, 인사관리 등 우리원의 핵심적인 자금과 인력을 관리한다. 또한 그룹웨어를 통해 문서작성 및 관리, 전자결재, 문서유통 및 포털 기능으로 전자계시판, 일정관리, 자원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보보안의 주요 업무로는 정보보안 관리 계획 수립, 정보보안 심사분석, 내부 보안감사 등이 있으며,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및 침해사고 예방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각 부서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솔루션 도입 추진 및 방화벽 등 각종 보안 솔루션을 운영·관리한다. 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VPN, 각종 보안 처리를 위한 ACL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주요 업무로는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 관련 내부 관리계획, 각종 절차서 수립 및 이행 점검,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교육 등이 있다.

(4)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및 성적 전산처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 배치, 성적통지표 온라인 발급 등 시행과정 전반의 업무를 위해 전국단위 통



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초고속 이미지스캐너를 통해 판독을 하고, 정보 확인, 답란 확인 및 성적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채점서버 등 각종 채점 기반시설을 운영·관리한다.

(5)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채점 및 성적 온라인 제공

전국연합학력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단답형) 전산채점과 서답형 답안 이미지 분할 및 온라인 채점, 초·중등교사임용시험 서답형 답안 이미지 분할 및 온라인 채점, 중등 전산채점 및 채점 결과 온라인 제공 등 우리원 주요 채점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관리한다.

03. · 주요 성과

(1)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전산인프라 구축은 우선 청사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원은 1998년 LAN 구축 완료 및 인트라넷(메일, 전자계시판)을 도입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기

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999년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종로구 삼청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자료실, 전산실 및 채점 작업 공간을 확충하고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2010년 정동청사 이전 및 전산실 구축,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화 체계 개선 구축, 2012년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구축 등 체계적인 인프라 및 네트워크 장비들을 도입, 재구조화하였고, 이전 신기술을 접목한 기능 고도화 작업을 병행하여 오늘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었다.

(2)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3년부터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규정관리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였다. 우리원은 KIMS 구축으로 지식경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지식 창출, 기관의 가치 증진 및 지속적인 전산화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매년 업무 변화 환경에 따른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진행 중인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구축 관련 각종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테스트 및 기능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약칭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 정보보안 강화

정보관리본부에서는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본원의 시스템 및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보안장비(UTM)와 디도스 방어(Anti-DDoS) 장비를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였고, 웹방화벽을 설치하여 각종 최신 공격으로부터 우리원의 웹사이트들을 보호하였다. 그 밖에도 내부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및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USB 솔루션을 도입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원내 직원들의 PC를 악성

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준수 절차서 등 각종 절차서를 수립·시행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절차와 점검 사항 등을 체계화하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4) 수능정보시스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화 체제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수능정보시스템은 현재 전국단위 시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단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수능 업무 전반의 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축하였으며, 성적통지표 등 각종 통계자료를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온

라인 출력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산채점 기간을 기존 채점 기간 대비 최대 8일(평균 5일~11일 → 평균 3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출력물 배송비,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출력 일용요원 인건비 등 각종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택배 발송을 통하여 제공되던 각종 성적통지표 등 통계자료의 보안 문제 및 자료 훼손 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5) 이미지 채점 고도화

전산채점 업무 혁신을 위하여 우리원은 고속 이미지스캐너를 활용하여 전산채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채점시스템 구축 및 채점 기간 단축을 위해 초고속스캐너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 초고속 이미지스캐너 4기와 고속 이미지스캐너 20기로 전국단위 시험 및 각종 채점 관련 사업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 수능정보시스템 개편 및 이미지 채점 고도화를 통하여 원서접수 및 성적통지표 등 출력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준으로 답안지 인수부터 최종 성적통지표 출력까지 전산채점 일정을 평균 5일(20일 → 15일) 단축시키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전산채점 일용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하였다.

04. · 향후 전망

앞으로도 정보관리분부는 우리원의 안정적인 IT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최신 IT 기술로 정보화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재배치, 네트워크망 개선 및 서버 가상화 도입을 통해 IT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원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확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해킹 등에 대비하여 정보보안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KIMS)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향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기능을 테스트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안정적

인 재정정보시스템 연착륙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국단위 시험 통합정보시스템은 추후 사용자별로 특화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진행할 것이다.



자료로 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

- 01 • 연표
- 02 • 주요 수상 내역
- 03 • 조직도
- 04 • 역대 원장 및 부원장
- 05 • 비전

- 06 • CI 및 캐릭터
- 07 • 연도별 기본 연구 목록
- 08 • 연구사업 수 변동 추이
- 09 • 수능 응시자 수 변동 추이
- 10 • 국제 학업성취도 변동 추이

- 11 • 교과서 검정 심사 현황
- 12 • 주요 간행물 변천사
- 13 • MOU 체결 현황
- 14 • 운영 웹사이트 현황
- 15 • 재직자 및 퇴직자 명단

01 연표

1994

- 12.03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발표 :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고 민간기관으로 전환

1995

- 0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방침 발표

1997

- 08.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공포(법률 제5344호)
- 09.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기획단 설치·운영
- 12.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관 인가 및 설립 등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원 선임
- 12.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5551호)
- 12.31 국립교육평가원 폐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시행규칙 공포(교육부령 제702호)

1998

- 01.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 초대 박도순 원장 취임
- 01.01 상임감사체제 도입
- 01.03 1998년도 사무식 개최
- 01.20 중요규정 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을 내용으로 한 창립 이사회 개최
- 조직 및 정원 : 2본부 1국 5실(정원 140명)
- 01.24 개원 기념식 개최
- 08.11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 개시
- 08.21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 시행 개시
- 09.01 직제규정 개정 : 3본부 1국 2실 9부 1팀
- 조직 개편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연구본부 분리, 연구조정팀 신설
- 09.01 기관지 <교육광장> 창간호 발간
- 09.08 1998년도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개시(09.08~09.10)
- 09.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개설
- 11.18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30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 창간호 발간

1999

- 0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 교육부에서 인문사회연구회(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지도감독기관 변경
- 04.05 고입자격·고졸학력 검정고시 시행 개시
- 05.01 국비유학생 1차 선발시험 시행 개시
- 05.01 비상임감사 체제로 전환

1999

- 06.14 청사 이전(서울 강남구 청담동 → 종로구 삼청동)
- 10.22 한국어능력시험(KPT) 시행 개시
- 11.17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28 초등교사임용시험 시행 개시

2000

- 01.01 조직 개편 : 3본부 1국 1실 11부
- 교육과정연구본부 폐지,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 및 교과서연구본부 신설
- 01.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영문 기관명 및 로고 특허청 등록
- 08.01 한국교육개발원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8.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11.15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31 제1대 박도순 원장 퇴임

2001

- 01.01 제2대 김성동 원장 취임
- 07.23 교원연수센터 운영
- 07.26 중2, 고등학교 2종 교과용도서 검정 최종 합격자 발표(중 : 28개 출판사 87책, 고 : 44개 출판사 185책)
- 11.07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22 검·인정 사업, 중2, 고등학교 검정 최종 합격 발표
- 12.09 중등교사임용시험 시행 개시

2002

- 02.01 조직 개편 : 6실 1국 12부
-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 및 교과서연구본부 폐지
- 교육과정평가연구실, 교과교육연구실, 교수학습지원특임연구실 및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연구실 신설
- 04.12 인정도서 최종 합격 발표
- 07.03 한국교원대학교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7.26 검·인정 사업, 검정 교과용도서 최종 합격 발표
- 08.0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재검정(법과 사회, 한문고전) 최종 합격 발표
- 08.23 제2대 김성동 원장 퇴임
- 09.14 제3대 이종승 원장 취임
- 11.06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29 검·인정 사업, 인정도서 최종 합격 발표
- 12.01 기초학력 보장자료 개발 및 보급(기초학력 보장 1.0)

01 연표

2003

- 01.01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한국학술진흥재단)
- 01.01 조직 개편 : 5본부 1실 1센터 1국 12부
- 실급 직제 명칭 본부 변경, 전산정보센터 신설
- 04.08 국회도서관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4.18 미국 ACT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6.20 교수학습개발센터 웹사이트 개설
- 08.02 영국 AQA, QCA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8.05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전자접수 전용 홈페이지 운영 개시
- 11.05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24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사항 처리 방침 결정 : 언어 영역 17번 문항 복수정답 처리
- 12.04 제3대 이종승 원장 퇴임
- 12.24 제4대 정강정 원장 취임

2004

- 01.05 조직 개편 : 4본부 1센터 1국 2처 12부
- 기획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처 신설
- 02.16 대학수학능력시험 인력풀 인터넷 공모 실시
- 05.17 웹진 <e.KICE> 창간호 발간
- 08.29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 DEET) 시행 개시
- 11.17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구분 폐지, 영역별 선택형 수능 도입
- 원점수 없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표시
- 직업탐구 영역 신설,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 아랍어 과목 신설

2005

- 01.01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 등재학술지 선정(한국학술진흥재단)
- 01.03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 03.08 직제규정 개정 : 정원 173명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개선을 위한 수능 전담인력 확충
- 08.10 미국 ETS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8.17 안국동 분관 입주식 개최
- 11.23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2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공청회 개최
- 12.13 초등학교 통합교과,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체육과, 미술과, 음악과, 실과(기술·가정), 영어과 공청회 개최(12.13~12.21)

2006

- 05.19 프랑스 CIEP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6.01 직제규정 개정 : 정원 186명
-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담인력 확충, 사무원 직종 삭제
- 08.02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 개소식 개최
- 11.16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14 교육과정 개정 시안 토론회 개최(12.14~12.26)
- 12.24 제5대 정강정 원장 취임(연임)

2007

- 08.28 조직 개편 : 4본부 2센터 1국 2처 1실 15부
- 교과서평가연구부 및 교과서검정운영부 신설, 감사역 명칭 변경(감사실)
- 11.15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14 CI 개발 완료
- 12.24 제5대 정강정 원장 퇴임
- 12.24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사항 처리 방침 결정 :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11번 문항 복수정답 처리
- 12.25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Ⅱ 재채점 결과 발표

2008

- 02.12 지방이전 계획 승인
- 05.16 제6대 김성열 원장 취임
- 08.21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09.23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 주제 :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
- 11.13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15 201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 시안 행정 예고
-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 최대 응시 가능한 과목 수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
-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을 추가
- 12.31 검정 심사 기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확대

2009

- 01.01 조직 개편 : 6본부 1센터 1국 1처 1실 21부
-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 교육평가연구본부, 교과교육교과서연구본부,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본부, 인재선발관리본부, 영어교육특임연구본부 신설
- 01.14 제1회 KICE 학습포럼 개최
- 03.20 <포지션페이퍼> 창간호 발간

01 연표

2009

- 07.13 뉴스레터 <KICE e-소식> 창간호 발송
- 08.23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개시
- 08.28 검정수수료 전액 반환 청구 소송 접수(원고 : 천재교육 외 63명, 청구액 136억 원)
- 09~12 2009 개정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9~12월)
- 09.29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 11.11 국립국어원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16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 11.23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심사 결과 발표
-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I 19번 문항 복수정답 처리

2010

- 01.06 초·중등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를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위탁
- 03.10 교육과학기술부(MEST),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4.01 청사 이전(서울 종로구 삼청동 → 중구 정동)
- 04.2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
- 탐구 영역 최대 선택과목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
- 06.10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화 체제 개선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성적표 온라인 출력
- 08.29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시행 개시
- 09.01 녹번동 분관 청사 입주식 개최
- 09.16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지원(기초학력 보장 2.0)
- 기초학력향상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 개발 완료 및 각종 지원자료 탑재
- 10.28 평가 전담부서인 '성과평가실' 신설
- 연구기획조정실에서 '평가' 기능을 분리
-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총무팀에서 성과평가실로 이관
- 11.18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수능 문제 EBS 연계 70% 시행
- 듣기평가 테이프에서 CD로 변경
- 12.09 직급 통합 시행(연구직 4직급 → 3직급, 일반직 5직급 → 3직급)
- 12.28 성과연봉제 도입

2011

- 01.04 법학적성시험(LEET) 업무 이관

2011

- 01.24 초·중등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업무를 국사편찬위원회로 위탁
- 02.02 청사 매각 승인
- 02.15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웹사이트 개설
- 02.21 제6대 김성열 원장 퇴임
- 03.16 제7대 성태제 원장 취임
- 03.28 지방이전사업단 설치
- 03.30 직제규정 개정 : 정원 244명
- 교과서 검정 사업 확대 및 예산정원제 도입에 따라 정원 증가
- 05.03 조직 개편 : 5본부 2센터 1국 1처 17실 9팀 1단
- 이진추진단 신설, 부단위 직제 팀단위 명칭 변경
- 05.20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 DEET) 업무 이관
- 05.20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업무 이관
- 05.31 연구사업관리시스템(RIMS) 개발
- 06.0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업무 이관
- 06.28 성과관리시스템(K-PMS) 구축
- 07.20 이미지 채점 방식 도입 기반 구축 : 초고속 이미지스캐너 도입
- 09.0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기초학력 보장 2.5)
- 09.23 <이슈페이퍼> 창간호 발간
- 09.30 교과서검정본부 분관 청사(녹번동) 이전(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22번)
- 10.04 가천의과학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11.1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탐구 영역 선택 최대 3과목 제한
- 수리 영역 범위 조정 및 과목 변경
- 11.10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미지스캐너 채점 방식으로 전환
- 12.16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 업무 이관
- 12.26 조직 개편 : 5본부 2센터 1국 17실 10팀 1단
- 부원장 직제 신설, 기획처 삭제, 평가선진화연구실 신설
- 12.26 재계약 거부 제도(2진아웃제) 시행
- 12.29 자료실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2012

- 01.01 초대 이양락 부원장 임명
- 01.01 직제규정 개정 : 정원 267명
- 국가고사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 국제전문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통합

01 연표

2012

- 03.02 직원평정시스템 구축
- 03.21 근무성적평정시스템 개편 및 관련 규정 개정 : '업무성과평가'와 '개인역량평가' 체계 정립
- 04.12 부서 및 실/부 업적평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체제 도입
- 05.14 2011년 연구기관 평가 '장려기관상' 및 '우수기관장상' 수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 09.07 초·중등 경제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를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위탁
- 10.22 연구사업관리시스템(RIMS) 1차 고도화
- 11.08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22 조직 개편 : 5본부 1센터 20실 13팀 1단
- 전 부서 직제 명칭 변경, 교과서검정본부 삭제, 사무국을 경영지원본부로 확대 개편, 홍보출판실 신설

2013

- 02.01 직제규정 개정 : 정원 276명
- 기능직 및 일반직 정원 통합
- 05.07 2012년 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상' 및 '우수기관장상' 수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 06.0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설립
- 06.14 재계약 거부 제도(2진아웃제) 폐지
- 08.23 개원 15주년 기념 단행본 발간 : <2020 한국 초·중등교육의 방향과 과제 :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 09.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승인 통보
- 11.07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20 서울특별시교육청 상호교류협약(MOU) 체결

2014

- 01.01 조직 개편 : 4본부 4센터 16실 13팀 1단
- 영어교육센터 신설, 정보화센터 직제 변경(BT개발운영팀 폐지)
- 03.15 제7대 성태제 원장 퇴임
- 04.11 제8대 김성훈 원장 취임
- 05.29 충북 이전기관 및 지역대학 상호교류협약(MOU) 체결
- 07.14 조직 개편 : 4본부 5센터 16실 14팀 1단
-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신설
- 08.12 한국교육학회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8.20 기관 홍보 캐릭터(2종) 명칭 선정 : 배우미, 이고미
- 09.0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사업 제안 및 운영 지원(기초학력 보장 3.0)
- 10.31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 11.13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2014

- 11.20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발표
-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2014.10.31)'에 따라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든 수험생들의 응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결정
- 11.24 제8대 김성훈 원장 퇴임
- 11.2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심사 결과 발표
- 영어 영역 25번 복수정답 처리
-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II 8번 복수정답 처리
- 12.11 종전부동산 매각 완료(서울 강남구 청담동 15-1, 35-13)

2015

- 01.01 조직 개편 : 4본부 5센터 14실 14팀 1단
- 영어교육센터 삭제, 글로벌교육센터 신설,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직제 변경, 팀 직제 명칭 변경(행정지원팀 → 행정팀)
- 02~09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2~9월)
- 04.10 제9대 김영수 원장 취임
- 05.18 UNESCO Bangkok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05.18 2015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국제 세미나 개최
- 주제 :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연계의 의미와 목적
- 06.27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 개시
- 08.31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08.31/09.02 2회)
- 10.13 IEA 상호교류협정(MOU) 체결
- 11.12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13 연구사업관리시스템(RIMS) 2차 고도화

2016

- 01.01 조직 개편 : 7본부 2센터 17실 14부 1단
- 직제 명칭 변경, 기획조정본부,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연구운영실, 자료·기록물관리부 신설, 센터급 부서 본부 격상, 팀제 명칭 부로 변경
- 02.26 기록물관리 체계 수립
- 03.22 초·중등 역사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 위탁
- 05.16 2015년 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상' 수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 05.30 캄보디아 PISA for Development(PISA-D) 출범식 개최
- 06.01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협약 체결
- 09.06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착공식 개최
- 09.20 연구·정책브리프 <통> 창간호 발간
- 10.27 직제규정 개정 : 정원 278명
- 무기계약직 신설

01 연표

2016

- 11.17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24 제1회 KICE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 11.25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심사 결과 발표
 - 한국사 14번 문항 복수정답 처리
 -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9번 정답 없음 처리
- 12.05 대한상공회의소 상호협력약(MOU) 체결

2017

- 01.25 기관 캐릭터(배우미 및 이끄미) 상표 등록 완료
- 02.06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특허 4건 취득
- 03.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설립
- 06.20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 자율 시행(표집학교 의무 시행)
- 06.30 제9대 김영수 원장 퇴임
- 08.07 학생평가지원포털 재구축
- 10.31 제10대 성기선 원장 취임
- 11.15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연기 발표
 - 포항지역 지진 발생으로 11월 16일(목) 실시 예정인 수능을 11월 23일(목)으로 일주일 연기
- 11.23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2.04 2018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 임용시험센터(→ 국가고사본부), 정보화센터(→ 정보관리본부) 부서 명칭 변경, 글로벌교육본부 직제 삭제
 - 고교학점제지원센터, 학생평가지원센터,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신설

2018

- 02.05 청사 이전(서울 중구 정동 → 충북 진천군 덕산면)
- 04.04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개최
- 06.28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02 주요 수상 내역

인문사회연구회 발전기관상
수상일자 : 2004.07.23
수상처 : 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장려기관상
수상일자 : 2012.05.14
수상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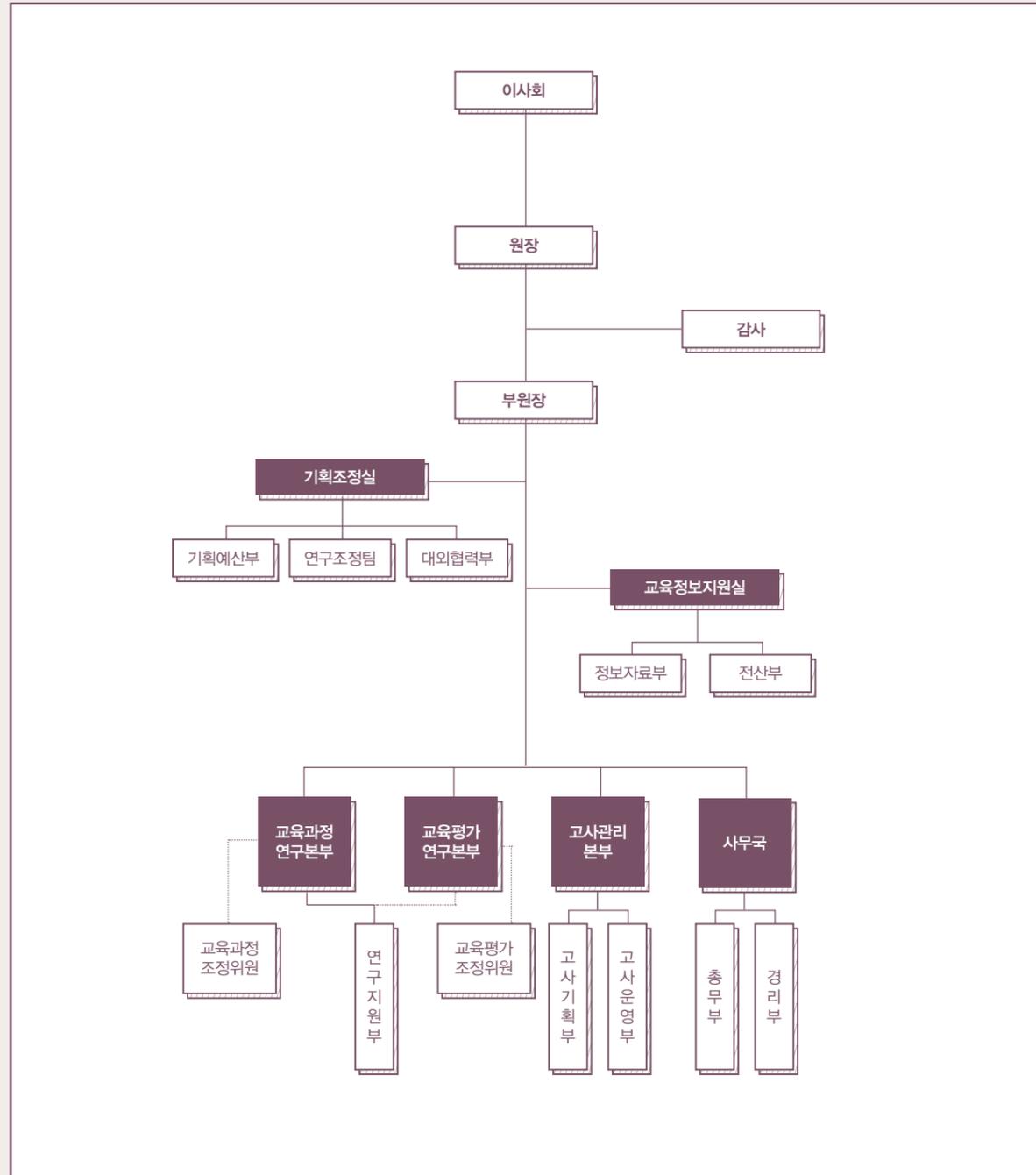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상
수상일자 : 2013.05.07
수상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상
수상일자 : 2016.05.16
수상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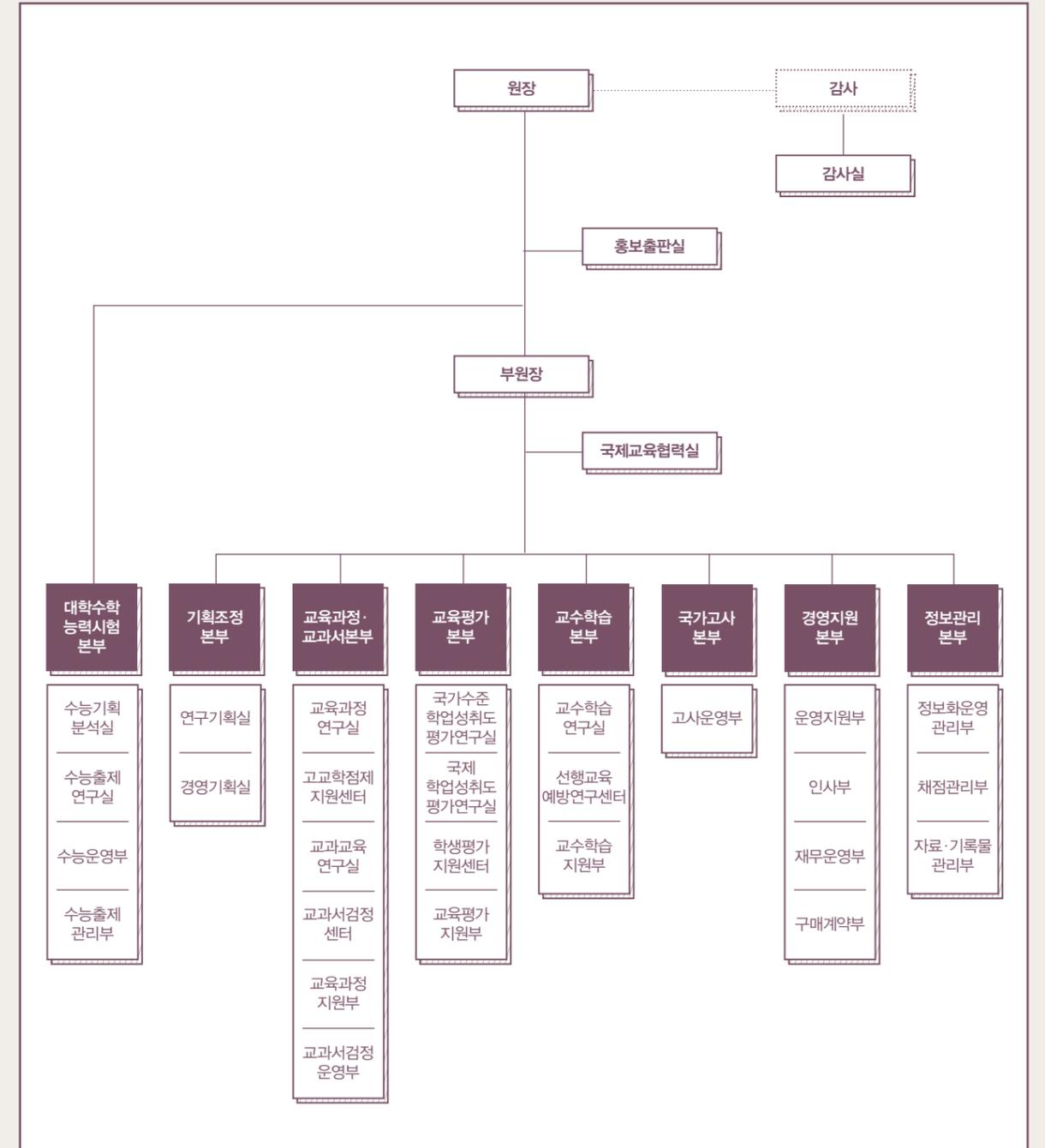
가족친화기관 인증
수상일자 : 2016.12.20
수상처 : 여성가족부

03 조직도

1998년 조직도



2018년 조직도



04 역대 원장 및 부원장

원장



1대 박도순
1998.01.01 ~ 2000.12.31



2대 김성동
2001.01.01 ~ 2002.08.23



3대 이종승
2002.09.14 ~ 2003.12.04



8대 김성훈
2014.04.11 ~ 2014.11.24



9대 김영수
2015.04.10 ~ 2017.06.30



10대 성기선
2017.10.31 ~ 현재



4대, 5대 정강정
2003.12.24 ~ 2006.12.23
2006.12.24 ~ 2007.12.24



6대 김성열
2008.05.16 ~ 2011.02.21



7대 성태제
2011.03.16 ~ 2014.03.15

부원장



1대 이양락
2012.01.01 ~ 2014.04.27



2대 조난심
2014.04.28 ~ 201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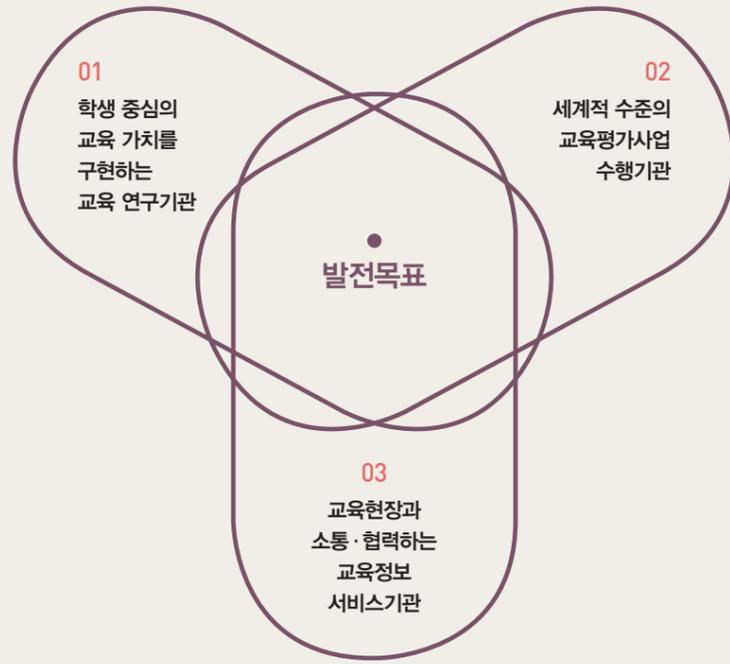
3대 이화진
2016.01.01 ~ 2017.12.31



4대 박순경
2018.01.01 ~ 현재

05 비전

● 비전
21세기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과정·평가 연구기관



● 추진전략



06 CI 및 캐릭터

기관 CI(Corporate Identity)



CI 소개

CI는 우리원을 상징하는 'Curriculum'과 'Evaluation'의 첫 번째 알파벳 C와 E를 심볼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입체형 심볼의 유기적인 동작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도약·진보하는 교육 전문 연구기관임을 표현하고 있다. CI 컬러 중 녹색은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색상으로 발전하는 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점을 상징하고 있으며, 청색은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우리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상징하고 있다.

기관 캐릭터



캐릭터 소개

우리원의 핵심 연구 분야인 교육은 곧 배움을 의미한다. 배우미 캐릭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로고는 배움을 향한 모습을 상징하며, 이꼬미 캐릭터가 기를 들고 뛰는 모습은 그룹에서 선두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앞에서 우리를 이끄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연도별 기본 연구 목록

1998

-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 초등학교 재량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 1998년도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초·중등 교육과정 평가 방안
-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 개발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보고 및 분석 방안 연구
- 대학입학 면접전형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
-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 연구
-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시험 개선 연구
- 언어·외국어(영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을 위한 문항 개발
- 교육정보센터 구축 방안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장기 발전 방안 연구

1999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 교육과정·평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초등학교 1, 2학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 교육과정·평가 국제 비교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연구
- 2중 교과용도서 과목별 적정 합격 중 수 연구
-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 고등학교 : 독서 / 작문 / 한문 Ⅰ, Ⅱ / 영어 Ⅰ / 프랑스어 Ⅰ, Ⅱ / 화학 Ⅰ / 독일어 Ⅰ, Ⅱ / 지구과학 Ⅰ
-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 고등학교 : 총론 / 미술 / 수학 / 경제 / 가정 / 세계사 / 기술
-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Ⅱ)
- 교육과정·평가 Data-Base 구축 연구

-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 현장 적용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출제지침 개발 연구
 - : 독일어 Ⅰ, 프랑스어 Ⅰ, 에스파냐어 Ⅰ, 중국어 Ⅰ, 일본어 Ⅰ, 러시아어 Ⅰ

2000

-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 중학교 교육과정·평가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비교 연구(Ⅱ)
 - 주요국의 학교 교육과정·교육평가 운영 실태 분석
-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실행 방안 연구
- 중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국어, 수학과 보충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수학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Ⅰ)
-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Ⅰ)
- 초등학교 1중 도서 체계 개선 연구(Ⅱ)
 -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도덕, 과학, 체육, 미술, 영어, 실과
- 인권 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Ⅰ)
- 교과교육에서의 통일 교육 강화 방안 연구(Ⅰ)
 - 초등 도덕, 사회, 국어과의 통일 교육 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 교과교육을 통한 환경 교육 강화 방안
 - 우리나라와 외국의 환경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 21세기 한국 전통음악 비교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 초등학교 3, 4학년 성취기준, 평가기준 개발 연구
- 2000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Ⅰ)
 - 사회·수학 분검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제2차 교육정보화 국제 비교 연구(SITES)
 - 교육에서의 ICT활용을 중심으로
- 컴퓨터를 이용한 중학교 학력검사 개발 연구
- KICE 심리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언어·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 연구
- 교육과정·평가 DB 구축 연구

2001

-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Ⅰ)
 - 교육과정 문서 및 적용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Ⅱ)
-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비교 연구(Ⅲ)

- 국가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수학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실과(기술·가정)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 연구
- 교과교육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연구
 - 초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 중·고등학교 도덕, 사회과 통일 교육 자료 개발 연구
- 환경 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연구·개발
- 고등학교 교육과정·평가에 대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초등학교 1중 교과용도서 체계 개선 연구(Ⅲ)
 - 국어, 과학
-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개발 연구
 - 도덕, 실과, 체육, 미술, 영어
-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Ⅰ)
 -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운영을 중심으로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 총론,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 2001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 총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 개발 연구(Ⅱ)
 - 시티켓(CT & CAT)의 유지 관리 및 서비스 개선
- 사고력검사 개발 연구(Ⅰ)
 - 비판적 사고력검사 예비 문항 개발편
- PISA 2000 평가 결과 분석 연구
 - 총론, 읽기, 수학, 과학
- 초등영어 교수 능력 신장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연구
- TIMSS-R 국제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 분석
- 일본·중국·대만 대학입시 제도 연구
- 제2차 교육 정보 기술 활용 국제 비교 연구
 - 2단계 국내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Ⅰ)

2002

-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Ⅱ)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를 중심으로
-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비교 연구(Ⅳ)
 -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중심으로
-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연구
-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 좋은 수업 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 : 총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영어
- 도덕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체육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미술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영어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실과(기술·가정)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영어 수준별 평가의 한국 적용 가능성
 - 한·영 국제 공동 연구
- 초등학교 1중 도서 체계 개선 연구(Ⅳ)
 - 국어, 과학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체제 연구
- 초등학교 교수학습 방법 연구 :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 초등학교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 초등학교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 초등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 초등학교 영어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 KICE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수학습 자료 DB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200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Ⅰ)
 - 총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 개발 연구(Ⅲ)
- 사고력검사 개발 연구(Ⅱ)
- 2002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 수학, 과학 문제 해결 영역을 중심으로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2003) : 예비검사 시행
- 중등 영어 교수 능력 진단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 연구(Ⅰ)
 - 중등 수학과
- KICE 웹사이트 확대 구축
- KICE 교육정보 통합망 구축 연구
-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Ⅱ)
 - 교과교육에서 ICT 활용 방안 연구
- 제2차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국제 비교 연구
- KICE 교실수업 개선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2003

-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Ⅲ)
-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Ⅰ)
- 과학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제2외국어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
- 도덕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체육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미술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영어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관리·운영
- 초·중등학교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KICE와 시·도교육청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 KICE 웹사이트 확대 시스템 개발 연구
- 중학교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 중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자료 개발 연구
- 중학교 영어과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개발 연구
-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자료 개발 연구
- 중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자료 개발 연구
-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 2003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2003)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Ⅱ)

2004

- 제7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교과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 제7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Ⅱ)
 - 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중심으로
 - 총론,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
- 초·중등학교의 갈등 해결 교육에 관한 연구
- 2004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운영
- 교실 수업지원 OFF-Line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
- 교수학습센터의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질 관리 체제 연구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연구(Ⅲ)
- 수업 평가기준 개발 연구(Ⅰ)
- PISA 2003 결과 분석 연구
- 교사, 수업, 그리고 학생 성취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 교사의 학생평가 실태 조사 및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 분석
 -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모형과 기준
 -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2005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
-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 지원 연구
-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과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체육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미술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2005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운영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Ⅳ)
- 수업 평가기준 개발 연구(Ⅱ)
- 교수학습 상황과 주요 변인 분석
- 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총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PISA/TIMSS)
 - 2005년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 PISA 2003 결과 심층분석 연구
-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연구(Ⅱ)

2006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Ⅱ)
-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 지원 연구(Ⅳ)
-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수학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체육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수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및 교과별 내용 교수법(PCX) 개발 연구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도구 개발·적용 연구(Ⅴ)
- 수업 평가기준 개발 연구(Ⅲ)
- 2005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과학, 사회, 국어, 수학, 영어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변화 추이(2003~2005년)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06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 PISA 2006 본검사 시행
-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연구(Ⅲ)
-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Ⅰ)

2007

-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Ⅰ)
-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국가 교육과정의 평가 체제 연구(Ⅰ)
-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 지원 연구(Ⅴ)
- 국내외 교실학습 연구(Ⅰ)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Ⅰ)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별 내용 교수 지식(PCX) 연구
- 2007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2007) 본검사 시행 보고서
- TIMSS 2003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 특성
-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2003~2006년 변화 추이)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Ⅱ)

2008

-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 혁신 방안 연구(Ⅰ)
-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연구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 국가 교육과정의 평가 체제 연구(Ⅱ)
 -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 교과용도서 평가 연구(Ⅱ)
 -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기준 설정
-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연구(Ⅰ)
- 국내외 교실학습 연구(Ⅱ)
 - 우리나라 핀란드, 호주의 중학교 국어와 과학 수업을 중심으로
- 교과별 내용 교수 지식(PCX) 연구(Ⅱ)
 - 중등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 교실 내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연구(Ⅰ)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 유형 및 기준 개발 연구
 - 중등 기술·가정, 미술,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행평가 개선 연구(Ⅰ)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개선 연구(Ⅰ)
- 2008년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TIMSS)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TIMSS)에 나타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성취 변화의 특성
 -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09)
 - 예비검사 시행 보고서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 TIMSS 2007 결과 보고서
 - 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2003~2007년 변화 추이)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연구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Ⅱ)
 - 사회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2008 CRESST 형성평가 연구 프로그램(CRESST Formative Assessment Research Program)과 KICE 공동 연구 방안
- 2008 국제교육 연구·사업
- 중학교 환경교육 선진화 연구
- 중등학교 제2외국어/한문 교과의 운영 실태 분석
- 영어교사의 실제적 영어쓰기 지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Ⅲ)
-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Ⅱ)

2009

- 교육과정 분권화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국가 교육과정 관련 문서 체제 개선 연구
- 초등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연구
-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멘토링 체제 연구
 -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KICE-CRESST 공동 연구 : CRESST 형성평가 프로그램(PowerSource©)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Ⅲ)
 -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중학교 수행평가 적용 프로그램 개발
-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평가 방안 연구
 -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연구
 - 점수 체제 개선과 결과 활용 방안
- 2009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TIMSS)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교과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 국어, 도덕,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 수학과와 과학과를 중심으로
-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연구
- 학교 교육과정 평가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
-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교과용도서 평가 연구(Ⅲ)
 -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 국내외 고등학교 교실 학습 연구
 - 국어과와 과학과를 중심으로
- 교수학습 자료 선정 기준 개발 연구
 - 중학교 사회과, 기술·가정과를 중심으로

-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평가도구 개발
- 영어교사의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 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보고 개선 방안 연구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
-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을 위한 난이도 예측 방안 연구
 - 수리와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주요정책 구현 방안 연구
-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2010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활동 모형 개발 연구
-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 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초·중등학교 교과교육 내용의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을 중심으로
-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국가수준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초등 PCK를 중심으로
- 학업성취 우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 분석 연구
- 우수교사 인증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 2010 KICE-CRESST 공동 연구
 - : CRESST 형성평가 프로그램(PowerSource®)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정책 방향 연구
-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향상 방안 연구
- 이공계 진학생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교육 개선 방안 연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연구
-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방안 연구
- 체육, 음악, 미술 교과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
- 2010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TIMSS)
- 교과서 개발 및 편찬 과정에서의 쟁점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연구
 - 2005~2010학년도 결과에서의 교육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
- 2011학년도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
- 영어로 진행되는 초등영어 수업 평가도구 개발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적합한 문항 유형 개발 연구
-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
 - 시스템과 정보의 고도화
-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연구
 - 학습 전략 및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

- 학교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학업성취지표와 평가모형 개발
 - 학교효과 추정 모형 및 평가 체제를 중심으로
-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 2011년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및 웹 기반 검정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2011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 체육·음악·미술 교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 및 내용 국제 비교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 중학교 국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 교과교실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 학업성취 우수 중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 분석
- 외국의 교수학습 혁신 정책 및 우수 사례 분석
- 중학교 학생의 수학과 학습 특성 연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교육 향상도 분석
-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방안
- 2011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TIMSS)
-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평가모형 개발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 2011학년도 성적 결과를 중심으로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따른 기 개발 문제은행 문항 활용 방안
-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정 교과서 질 관리 방안
-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
-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에 따른 영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 영어 학력 격차 실태 및 해소 방안
-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 후 지속적 전문성 신장 방안
- 국가 교육과정의 정보 공유 시스템 KICE-NCIS 구축 연구 : 시스템과 정보의 안정화
-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연구 : 강점 기반 학습 도움 프로그램 개발
- 학교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학업성취지표와 평가모형 개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단 척도 구축
-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2012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
- 주5일 수업제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수학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 제고 방안

-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계에 관한 국제 비교
- 통일 대비 북한의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수학습과 평가 연계 방안
-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 분석
-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수업 전략과 학습 환경 설계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도 및 향상도 추이 분석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방안 및 교과별 성취 결과 분석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PISA 2012
- IEA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 TIMSS 2011/ICILS 2013
-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 대규모 평가를 위한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방안 연구
- 인지진단 모형을 적용한 학업성취 프로파일 분석 및 결과 보고 방안
- 부가치치 모형을 적용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를 위한 출제 체제 구축
- 2014 수능 체제 대비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
- 교과서 검정의 개방형 심사 체제 연구
- 스마트(SMART) 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특성 및 심사 기준 개발
- 교과서 정책의 효과 분석
-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국제 비교
- 교과서 언어 표현 개선 방안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읽기 문항 난이도에 미치는 iBT 환경요인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말하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한 고등학교 영어 수업 모형 제안
 - 말하기, 쓰기를 중심으로
-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연구 :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 학교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학업성취지표와 평가모형 개발

2013

-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 비교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육평가가 연계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안 탐색
 - 영어 교과 사례를 중심으로
- 서책과 디지털교과서 병행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 사회,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현행 교과용도서 법규의 개정 방안

- 서책과 디지털교과서의 동시 심사 체제 구축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 인정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도 및 향상도 추이 분석
- ADHD 학생의 뇌영상 진단 및 뇌기반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및 출제 방안
- 대규모 평가를 위한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정교화 및 시범 적용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PISA 2012 결과 분석 및 PISA 2015 예비검사 시행 기반 구축
- IEA 국제 비교 연구 : ICILS 2013 본검사/TIMSS 2011 결과 분석 및 2015 평가도구 개발
- PISA와 TIMSS 결과에 기반한 우리나라 학생의 정의적 특성 함양 방안
- 성취평가제의 고등학교 적용 방안
- 기초학력 이하 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한 인지진단 프로파일 분석
-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수업 전략과 학습환경 설계 방안의 효과성 검증
-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 2011~2013학년도 수능 난이도의 관련 변인과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 분석
- 국어·수학·영어 A형 시험 지원을 위한 문제은행 운영 방안
-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른 수준별 수능의 개선 방안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난이도 조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인쇄 및 채점 기간의 단축 방안 연구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Ⅱ)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채점 신뢰도 및 타당도 향상 방안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말하기 영역 및 쓰기 영역에서의 통합형 문항 유형 개발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기반한 스마트 교육용 말하기 학습 콘텐츠 개발
- 교사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방안
-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4

-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 교과 교육과정 쟁점 및 개선 방향
 - 도덕,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효과 제고 방안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현 방안 탐색
-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

-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과서 발전 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변화 추이 분석
- ADHD 학생을 위한 뇌기반 훈련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별 성취 결과 분석 및 출제 방안
-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용성 검증
- IEA 국제 비교 연구 : ICILS 2013 결과 분석/TIMSS 2015 시행 예비검사 시행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결과 심층분석 및 PISA 2015 예비검사 시행
- 국제 교육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한 학습성과지표 개발 연구
 - 수학, 읽기 영역의 학습성과 명세화 및 평가 방안
-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Ⅰ)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 도입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 체제 발전 방안
-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 고등학교 영어 쓰기 수행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 중학교 영어 교과서 기반 말하기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영어 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Ⅲ)
- 중학생의 수학·과학 정의적 특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방안 탐색
- 초등학교 교과별 학습 코칭 프로그램 개발
 -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교사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방안(Ⅱ)
-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수립

2015

- 국제 비교를 통한 국가 교육과정 적용 체제 개선
-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Ⅰ)
-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읽기 능력 개발 방안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초등학교 교과서의 어휘 실태 분석 연구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방안(Ⅰ)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종단자료에 기반한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분석
-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연구
-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IEA 국제 비교 연구 : TIMSS 2015 본검사 시행 / ICILS 2013 심층 연구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PISA 2015 본검사 시행 및 PISA 2012 상위국 결과 비교 분석
-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적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 도입(Ⅱ)

- 문항관리시스템 개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구축 및 세부 출제 방안
- 중학교 교실 내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 중학교 국어과, 사회과를 중심으로
-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전략 개발
-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
-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방향 및 기준의 개선 방안
-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 개선 연구Ⅰ : 현행 평가 체제 분석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정책 개선
- 국제 교육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한 학습성과지표 개발 연구(Ⅱ)
 - 읽기, 수학 학습척도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연구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중학교 국어, 수학, 영어과 교육의 질 관리 방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 국어, 수학, 영어 교육과정 이수 점검 및 학습 증진 방안 연구(Ⅰ)
- 교사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방안(Ⅲ)
 - 교사 학습공동체 모델 개발 및 실행
-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활용 연구 동향 및 시스템 고도화
-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및 시행에 대한 컨설팅

2016

-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개선 방안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안정화 방안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경영 방안 연구
-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Ⅱ) : 총론, 국어, 사회과를 중심으로
-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Ⅰ)
 -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 인문소양 강화를 통한 인성교육 방안
 - 중등 국어과·역사과·도덕과를 중심으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운영 방안(Ⅱ)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연구
-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및 적용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 도입(Ⅲ)
 - 채점 및 피드백 시스템 개발
-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에서의 학생평가 방안
 -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
-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
-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 일반고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안(Ⅰ) :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혁신 지원 방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 국어, 수학, 영어 교육과정 이수 점검 및 학습 증진 방안 연구(Ⅱ)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학교교육 강화 정책 고찰
-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 IEA 국제 비교 연구 : TIMSS 2015 결과 분석/ ICILS 2018 평가 체제 구축 검사 시행 기반 구축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PISA 2015 결과 분석 및 PISA 2018 예비 검사 시행 기반 구축
-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 검정고시 과목 면제 중심으로
-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 개선 연구 Ⅱ
 - 평가 체제의 개발
-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어휘 표준 구축 방안(Ⅰ)
 - 표준화 대상 어휘 선정 및 목록화
-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위학교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및 시행에 대한 컨설팅Ⅱ
-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Ⅰ) :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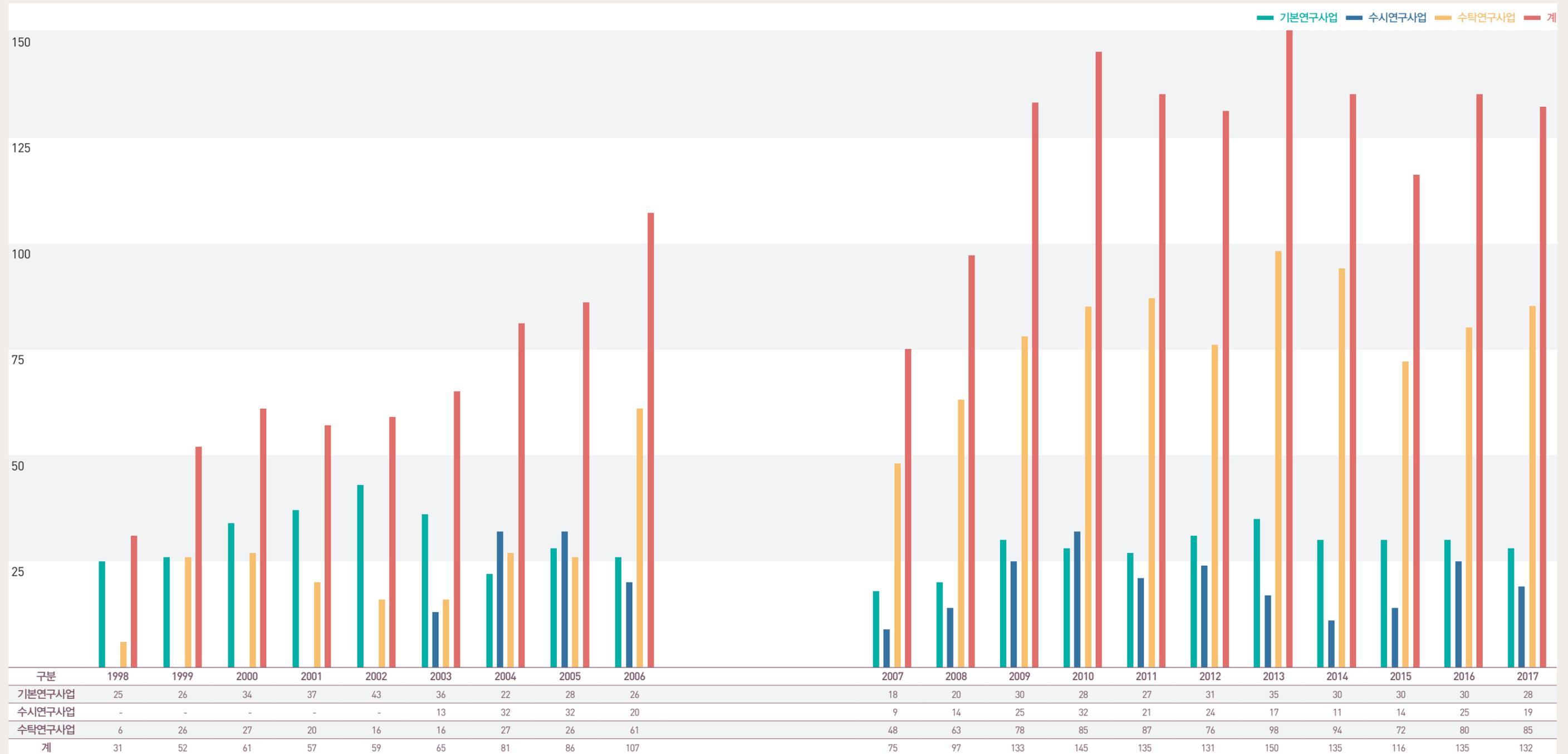
2017

-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안정화 방안 연구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연구
- 학교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방안 연구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Ⅲ)
 - 총론, 중등 국어과, 중등 사회과를 중심으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간 연계·융합 교육 적용 방안 연구
-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Ⅱ)
 - 일반고를 중심으로
- 학교 체육·예술교육의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운영 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학업성취 및 정의적 특성 분석
-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연구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 도입(Ⅳ)
 - 형성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적용
-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과별 평가 자료 개발 및 적용
 -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
- 중등학교 수행평가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연구
- 일반고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안(Ⅱ)
 - 수학, 영어 교수학습 지원 전략 개발을 중심으로

- 초·중학교 학습부진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Ⅰ)
- 지능정보사회의 교사 역할 및 역량 탐색
- 고등학교 교과별 수업·평가 연계 방안 연구
 -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KICE 전문성 기반 국제 교육개발협력 사업 추진전략 및 실행 방안 연구
- 글로벌역량 교육정책 및 실태 분석을 위한 국제 협동 연구(Ⅰ)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PISA 2015 결과 심층 분석/ PISA 2018 예비검사 시행
- IEA 국제 비교 연구 : TIMSS 2015 심층 분석 및 TIMSS 2019 평가 기반 구축/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 2017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출제 연구
-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 체제 개선 연구 Ⅲ
 - 임용시험 체제의 시범 적용 및 정교화
-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어휘 표준 구축 방안(Ⅱ)
 - 어휘 표준 및 허용 범위 설정
- 국가단위 평가의 수요자 중심 정보 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맞춤형 학력진단 검사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Ⅱ)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 초·중등 학교교육 성과 종단 연구
 - 기초연구 및 종단 조사 체제 구축

08 연구사업 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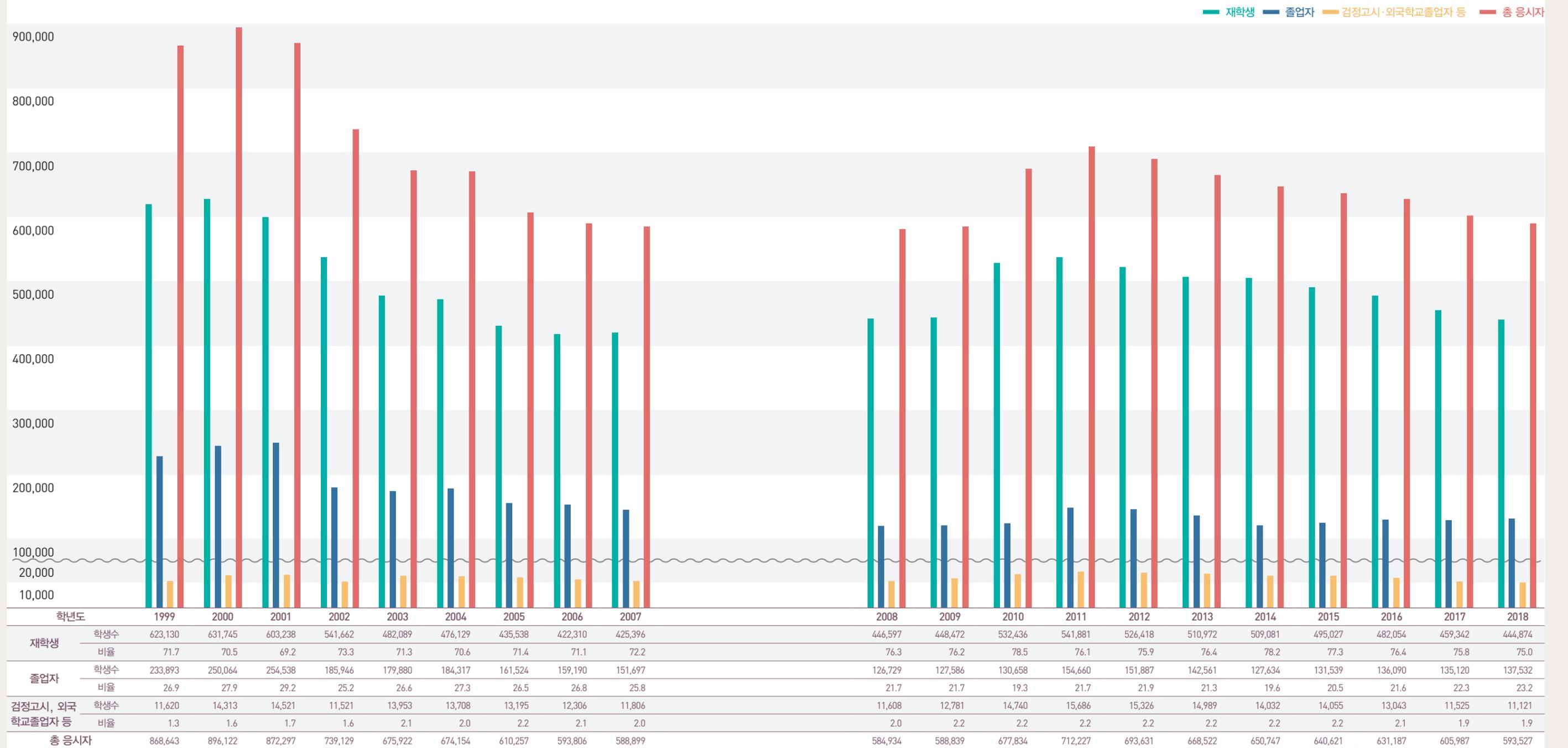
단위 : 건



09 수능 응시자 수 변동 추이

1999~2018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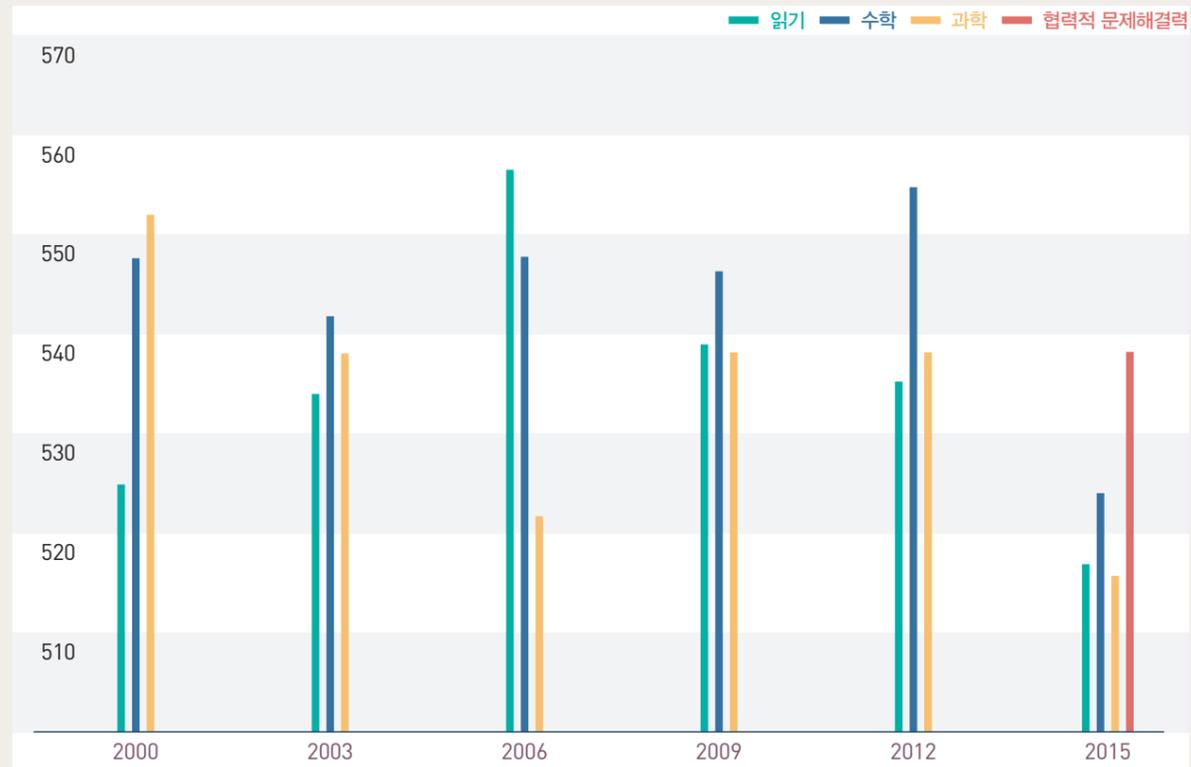
단위 : 명 / %



국제 학업성취도 변동 추이

PISA 성취도 변동 추이 [2000~2015]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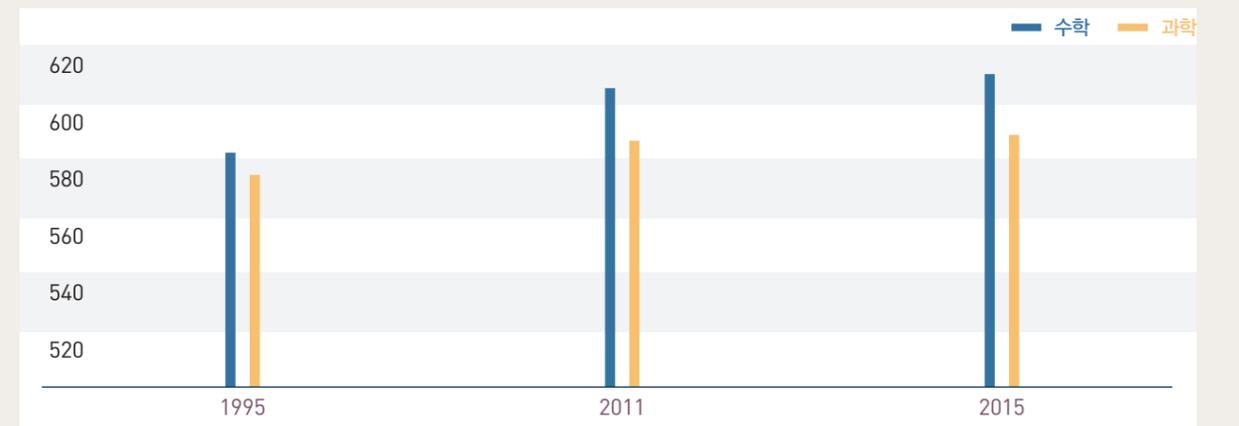
영역	연구 주기 (참여국 수)	PISA 2000 (43개국)	PISA 2003 (41개국)	PISA 2006 (57개국)	PISA 2009 (75개국)	PISA 2012 (65개국)	PISA 2015 (70개국)	
읽기	평균점수	525	534	556	539	536	517	
	순위	OECD	6	2	1	1~2	1~2	3~8
		전체	7	2	1	2~4	3~5	4~9
수학	평균점수	547	542	547	546	554	524	
	순위	OECD	2	2	1~2	1~2	1	1~4
		전체	3	3	1~4	3~6	3~5	6~9
과학	평균점수	552	538	522	538	538	516	
	순위	OECD	1	3	5~9	2~4	2~4	5~8
		전체	1	4	7~13	4~7	5~8	9~14

영역	연구 주기 (참여국 수)	-	PISA 2015 (51개국)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균점수	-	538
	순위	OECD	2~5
		전체	3~7

TIMSS 성취도 변동 추이 [1995~2015]

초등학교 4학년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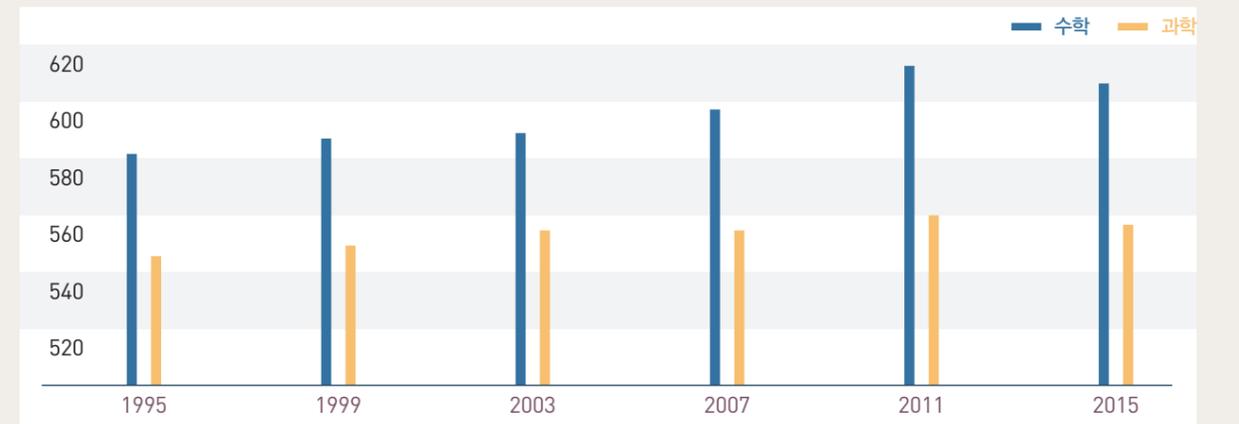


단위 : 순위(평균점수)

영역 / 주기	TIMSS 1995	TIMSS 2011	TIMSS 2015
수학	2 (581)	2 (605)	3 (608)
과학	1 (576)	1 (587)	2 (589)

중학교 2학년

단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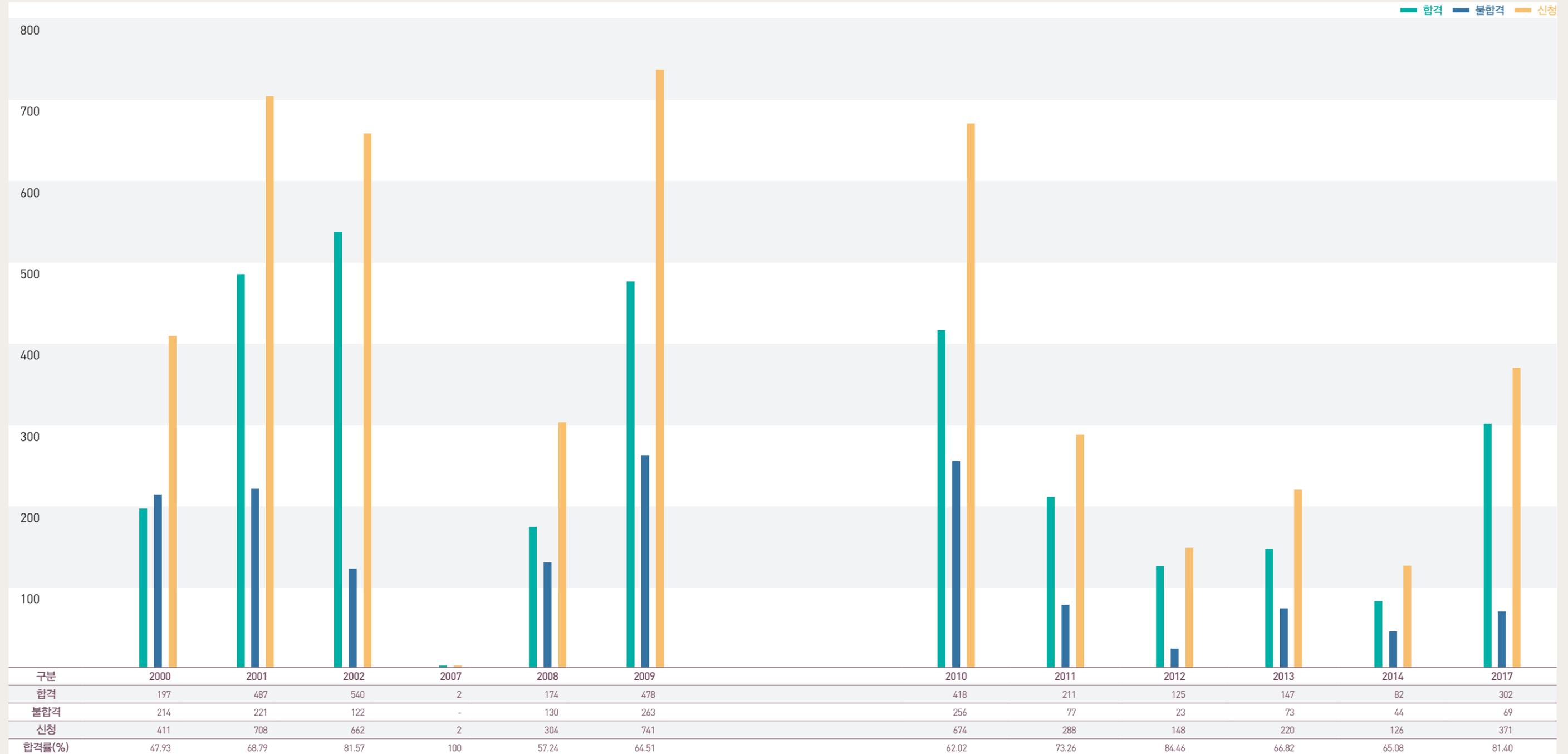
단위 : 순위(평균점수)

영역 / 주기	TIMSS 1995	TIMSS 1999	TIMSS 2003	TIMSS 2007	TIMSS 2011	TIMSS 2015
수학	3 (581)	2 (587)	2 (589)	2 (597)	1 (613)	2 (606)
과학	4 (546)	5 (549)	3 (553)	4 (553)	3 (560)	4 (556)

11 교과서 검정 심사 현황

연도별 본검정 합격 현황

단위 : 책



12 주요 간행물 변천사

1 연구보고서(기본·수시·수탁)



5 연차보고서



2 기관지「교육광장」: 1998년 9월 1일 창간



6 포지션페이퍼: 2009년 3월 20일 창간



3 학술지「교육과정평가연구」: 1998년 12월 30일 창간



7 이슈페이퍼: 2011년 9월 23일 창간



4 연구리포트



8 연구·정책브리프 '통': 2016년 9월 20일 창간



※ 2015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간물에 표준화된 디자인이 적용됨

13 MOU 체결 현황

국내

기관명	MOU 체결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03.06
한국교육개발원	2000.08.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09.20
서울교육대학교	2000.08.01
이화여자대학교	2001.03.13
고려대학교	2001.08.31
한국교원대학교	2002.04.24
국회도서관	2002.07.03
경인교육대학교	2018.03.23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04.08
서울대학교	2003.10.15
광주교육대학교	2003.10.15
상명대학교	2006.05.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11.28
공주대학교	2008.12.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01.16
한국연구재단	2009.02.19
부산교육대학교	2009.04.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09.06.10
국립국어원	2009.06.24
교육과학기술부(MEST)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009.07.0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09.11.11
경상남도교육청	2010.03.1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0.07.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07.1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CEF)	2010.11.11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	2010.11.15
인천광역시교육청	2010.11.17
한국교육공학회	2011.10.04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2.03.08
공주교육대학교	2012.04.16
공주교육대학교	2013.02.15
공주교육대학교	2013.03.25

기관명	MOU 체결일
한국교육심리학회	2013.04.10
국토지리정보원	2013.09.27
대한측량협회	2013.10.30
서울시교육청	2013.12.20
국립해양조사원	2014.02.14
충북이전기관 및 지역대학	2014.05.29
한국교육학회	2014.08.12
서울맹학교 점자도서출판부	2014.10.20
한국교육평가학회	2014.10.29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2014.10.29
한국교육과정학회	2015.05.06
국립중앙의료원	2015.08.24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5.09.1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10.01
밝은성모안과의원	2015.10.1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6.01.22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2016.02.02
성균관대학교	2016.06.01
한국초등체육학회	2016.07.26
한국체육학회	2016.08.10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16.08.25
연세대학교	2016.08.26
대한상공회의소	2016.09.19
한국체육교육학회	2016.12.05
육아정책연구소	2017.02.1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04.24
일본스포츠교육학회	2017.05.26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2017.06.24
서전중학교	2017.10.27
서울용원초등학교	2017.11.07
대신중학교	2017.12.04
경기도교육청	2017.12.08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2018.03.2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2018.03.21

국외

기관명	MOU 체결일
중국교육부고시중심	1999.07.05
뉴질랜드 ERO (Education Review Office)	2007.07.23
호주 CC (Curriculum Corporation)	2018.03.26
호주 ACER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 Research)	2000.03.10
UNESCO 알마티 지부	2000.03.14
프랑스 CIEP (Le Centre International d'Etudes Pédagogiques)	2000.04.01
영국 UCLES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2000.05.10
미국 ACT, Inc.	2000.10.01
영국 AQA (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	2006.05.19
영국 QCA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nd Authority)	2002.06.24
미국 CSE/CRESST (Center for the Study of Evaluation and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and Student Testing)	2003.04.18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03.08.04
주한영국문화원	2003.08.05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People's Education Press; PEP)	2005.03.18
중국 북경교육고시원 (Beijing Education Examinations Authority; BEEA)	2005.08.10
몽골 SSIA (State Specialised Inspection Agency)	2005.09.22
주한프랑스문화원	2007.07.24
중국 연변대학교	2007.07.25
중국 천진시교육고시원 (Tianjin Municipal Educational Admission and Examinations Authority; TAEA)	2007.07.26
네덜란드 Cito	2007.09.14
핀란드 FIER (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2008.09.05
일본 대학입시센터 (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NCUEE)	2008.09.08
프랑스 ENS (The Ecole Normale Supérieure de Lyon)	2010.07.03
영국 Curriculum Foundation	2010.09.09
영국 Ofqual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2011.05.20
호주 ACARA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1.07.01
베트남 HNUE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07.04
베트남 VNIES (Vietnam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s)	2011.07.05
베트남 VNU-USSH-HCMC (Vietnam National University-University of Science and Humanities(Ho Chi Minh City))	2012.03.20
베트남 VNU-ULIS-Hanoi (Vietnam National University-University of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Hanoi))	2012.07.19
베트남 VNU-USSH-Hanoi (Vietnam National University-University of Science and Humanities(Hanoi))	2012.07.19
뉴질랜드 NZQA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	2013.02.19
UNESCO APCEIU (UNESCO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013.02.21
UNESCO Bangkok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2013.02.21
UNESCO IBE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2013.02.21
몽골 EEC (Education Evaluation Center of Mongolia)	2013.11.20
콜롬비아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of Colombia)	2014.08.28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of the Kingdom of Cambodia)	2015.05.18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15.05.20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KAERA)	2015.05.21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KAERA)	2015.05.27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KAERA)	2015.08.10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KAERA)	2015.10.06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KAERA)	2015.10.06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KAERA)	2018.04.13

14 운영 웹사이트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KICE 대표 홈페이지로 주요 연구 및 사업 소개, 연구보고서 등 각종 연구 성과 자료, 행사 소식 등을 제공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re.kr/>

우리나라와 세계 교육과정, 지역·학교별 교육과정 등을 소개



교과서검정시스템

<http://tbh.kice.re.kr/>

검정 신청, 검정 일정, 공지사항 등 안내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꾸꾸(Ku-Cu)'

<http://www.basics.re.kr/>

학습부진학생의 선별, 진단, 지도·지원을 위한 평가문항, 교과학습 자료, 학습부진 진단도구,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학생평가지원포털

<https://stassess.kice.re.kr/>

성취평가제 운영 지원, 수행평가 과제 개발, 학생평가 지원 자료 등을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www.suneung.re.kr/>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 안내, 기출문제와 수능 관련 자료 제공



교수학습개발센터

<http://www.classroom.re.kr/>

초·중등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 수업 전문성 개발 자료, 교사 TV 제공



영어교육개선 홈페이지

<http://english.kice.re.kr/>

영어 말하기·쓰기 수업 모형 및 평가 등 정보 제공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

<https://naea.kice.re.kr/>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 및 변화 추이 정보 등을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

<http://csatscorecard.kice.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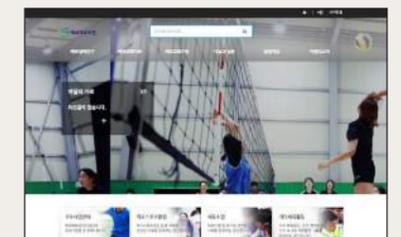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민원관리 등



학교예술교육포털

<http://artsedu.kice.re.kr/>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등 학교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제공



학교체육포털

<http://pesg.kice.re.kr/>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자료, 학교 체육 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정보 제공

15-1 재직자 명단

2018년 7월 기준

소속	성명	직급
원장	성기선	-
부원장	박순경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본부	박진동	연구위원
	한혜정	연구위원
	조용기	선임연구위원
	양정실	연구위원
	이용상	연구위원
	최윤정	행정원
	박상혁	행정원
	허진	행정원
	이지영B	행정원
	반민주	행정원
	엄성호	책임행정원
	김찬호	선임행정원
	박동준	선임행정원
	안영국	행정원
	김지현	행정원
	이근호	연구위원
	이승미	부연구위원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이미숙
이병천		연구위원
백경선		연구위원
이혜원		연구위원
이주연		부연구위원
이수정		부연구위원
김미지		전문연구위원
문이슬		전문연구위원
이광우		선임연구위원
이경연		선임연구위원
권점례		연구위원
김진숙		연구위원
민용성		연구위원
김현미		연구위원
김기철		연구위원
조보경		부연구위원
윤지환		부연구위원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김현정A
	이민형	부연구위원
	임유나	부연구위원
	김혜숙	연구위원
	양윤정	선임연구위원
	이미경	선임연구위원
	노은희	선임연구위원
	박은아	연구위원
	주형미	연구위원

소속	성명	직급
교육과정·교과서본부	변희현	연구위원
	이영미	부연구위원
	배주경	부연구위원
	신호재	부연구위원
	김종윤	부연구위원
	이재진	부연구위원
	박진용	연구위원
	서지영	선임연구위원
	김덕근	연구위원
	김성혜	연구위원
	윤지훈	연구위원
	안종욱	부연구위원
	차조일	부연구위원
	김현수	부연구위원
	이지수	부연구위원
	장민정	선임행정원
	최정호	책임행정원
	교육평가본부	박해진
이영주		행정원
장선진		행정원
정학준		선임행정원
강대민		선임행정원
장일		행정원
신동현		행정원
조지민		선임연구위원
동효관		연구위원
김성숙		선임연구위원
김경희		선임연구위원
김완수		연구위원
김미경		연구위원
송미영		연구위원
김명화		연구위원
최인봉		연구위원
장의선		연구위원
교육평가본부		김희경
	이재봉	연구위원
	김경주	연구위원
	정혜경	부연구위원
	박상복	부연구위원
	서민희	부연구위원
	성경희	부연구위원
	김소연	부연구위원
	양성현	부연구위원
	김창환	부연구위원
	강민경	부연구위원

소속	성명	직급	
교육평가본부	김성경	부연구위원	
	김광규	부연구위원	
	박준홍	부연구위원	
	유은정	부연구위원	
	한정아	전문연구위원	
	조성민	연구위원	
	김현경	연구위원	
	상경아	연구위원	
	이채희	부연구위원	
	이소연	부연구위원	
	박상욱	부연구위원	
	최지선	부연구위원	
	정채관	부연구위원	
	김현정B	부연구위원	
	이은경	부연구위원	
	구남욱	부연구위원	
	교수학습본부	이인화	부연구위원
		진성균	부연구위원
김인숙		연구위원	
진경애		선임연구위원	
이명애		선임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위원	
임해미		연구위원	
박지현		부연구위원	
이명진		부연구위원	
박혜영		부연구위원	
박종임		부연구위원	
김유향		부연구위원	
이상아		부연구위원	
배화순		부연구위원	
박진희		선임행정원	
김정훈		책임행정원	
교수학습본부		전윤산	선임행정원
		김순강	선임행정원
	유수용	행정원	
	이준석	행정원	
	최정윤	행정조원	
	홍미영	선임연구위원	
	김태은	연구위원	
	박선화	선임연구위원	
	오상철	선임연구위원	
	전효선	연구위원	
	문영주	연구위원	
	박태준	연구위원	
	노원경	연구위원	

소속	성명	직급	
교수학습본부	박지선	부연구위원	
	장근주	부연구위원	
	우연경	부연구위원	
	오택근	부연구위원	
	최성희	부연구위원	
	임윤진	부연구위원	
	주현우	전문연구위원	
	권서경	전문연구위원	
	홍선주	연구위원	
	이문복	연구위원	
	최정순	부연구위원	
	정연준	부연구위원	
	안유민	부연구위원	
	김영은	부연구위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최영인	부연구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이영태	부연구위원
		안지연	부연구위원
이동욱		부연구위원	
이병문		책임행정원	
김선주		선임행정원	
김성신		행정원	
정경식		행정원	
이창훈		연구위원	
시기자		선임연구위원	
신진아		연구위원	
박인용		부연구위원	
임은영		부연구위원	
이문수		부연구위원	
구슬기		전문연구위원	
권영락		연구위원	
권태현		부연구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김승현	부연구위원
		이경남	부연구위원
	김재홍	부연구위원	
	최인선	부연구위원	
	송민호	부연구위원	
	김준식	부연구위원	
	박용효	부연구위원	
	민호기	부연구위원	
	김상범	부연구위원	
	서민철	연구위원	
	박주현	부연구위원	
	송성민	부연구위원	
	김민성	부연구위원	
	정대성	부연구위원	
	김재근	부연구위원	
	백은진	부연구위원	
	김미영	연구위원	

소속	성명	직급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김동영	연구위원	
	구자욱	연구위원	
	이인호	연구위원	
	이신영	부연구위원	
	변태진	부연구위원	
	백종호	부연구위원	
	심현표	부연구위원	
	이동원	부연구위원	
	이현동	부연구위원	
	권유진	부연구위원	
	함승연	연구위원	
	윤영순	연구위원	
	김영춘	연구위원	
	손민정	연구위원	
	이용백	연구위원	
	장호성	연구위원	
	국가고사본부	이미영	부연구위원
		김경량	부연구위원
박창희		선임전문위원	
임혜균		전문위원	
김주용		전문위원	
박현욱		전문위원	
윤대현		전문위원	
박기준		선임전문위원	
서춘호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이민영		전문위원	
경영지원본부		김진구	선임연구위원
		이양락	선임연구위원
		김경훈	선임연구위원
		박소영	선임연구위원
		정영근	선임연구위원
		조윤동	연구위원
		신항수	연구위원
	박영수	연구위원	
	이상하	연구위원	
	남민우	연구위원	
	이광상	연구위원	
	박도영	부연구위원	
	정은주	부연구위원	
	유창완	부연구위원	
	이소라	부연구위원	
	손목영	선임전문위원	
	심재목	책임전문위원	
	황철현	책임전문위원	
이영석	전문위원		
김수현	전문위원		
정진원	전문위원		
정수백	책임행정원		

소속	성명	직급		
경영지원본부	권혁준	선임행정원		
	피교철	책임행정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상현	행정원		
	김동건	전문위원		
	배진우	행정원		
	곽희길	선임행정원		
	장민우	행정원		
	김명주	행정원		
	박진수	행정원		
	주갑호	행정원		
	김재현	행정원		
	이복희	선임행정원		
	김은미	행정원		
	황은재	행정원		
	송보명	행정원		
	정보관리본부	김윤지	행정조원	
		왕미선	책임행정원	
정호영		행정원		
위성임		행정원		
강보라		행정원		
김수완		책임전문위원		
권홍성		선임전문위원		
이석주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정희석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윤현정		행정조원		
염동호		전문위원		
정주은		선임전문위원		
이윤석		전문위원		
장석준		전문위원		
감사실		최기근	전문위원	
		안남신	선임전문위원	
	이지영A	선임전문위원		
	김술아	전문위원		
	경영호	책임행정원		
	김은자	선임행정원		
	양미경	행정원		
	권성필	행정원		
	최동문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홍보출판실	김건웅	행정원	
		양정모	행정조원	
		국제교육협력실	장경숙	연구위원
			김형준	선임행정원
			민병수	선임전문위원

15-2 퇴직자 명단

2018년 7월 기준

퇴사일	성명	직급
1998.02.01	김동수	행정5급
1998.09.01	성병창	책임연구원
1999.02.20	임재훈	연구원
1999.03.01	김신영	책임연구원
1999.09.01	이소영	연구원
1999.09.01	이재승	연구원
2000.03.01	김재춘	책임연구원
2000.05.08	이은영	사서4급
2000.09.01	백순근	연구위원
2000.10.05	이창우	고사관리3급
2001.03.01	박태호	연구원
2001.06.01	정영국	연구원
2002.01.01	이동순	행정1급
2002.09.01	이명희	부연구위원
2003.03.01	이주섭	전문연구원
2003.03.03	김왕규	부연구위원
2003.06.27	이성흠	전문연구원
2003.09.01	김영인	전문연구원
2004.12.31	최석진	선임연구위원
2005.03.01	강신천	전문연구원
2005.03.01	박선미	부연구위원
2005.03.01	박문환	전문연구원
2005.04.01	반재천	전문연구원
2005.05.21	채선희	부연구위원
2005.09.01	김재철	전문연구원
2005.09.01	민병곤	전문연구원
2005.09.01	이춘식	부연구위원
2005.09.01	유영희	전문연구원
2005.09.28	전영석	전문연구원
2005.10.01	조영미	전문연구원
2005.12.31	이범홍	선임연구위원
2006.06.30	허경철	수석연구위원
2006.09.01	김수동	선임연구위원
2006.09.01	조일수	부연구위원
2006.09.01	김성진	부연구위원
2006.12.05	이인선	행정4급
2007.03.01	서유경	부연구위원
2007.03.01	박영석	부연구위원
2007.03.01	김정우	부연구위원
2007.09.01	민경석	부연구위원
2007.09.01	김선희	부연구위원
2007.09.01	김화경	부연구위원

퇴사일	성명	직급
2007.09.05	천미성	행정5급
2008.02.01	권석일	부연구위원
2008.03.01	강창동	선임연구위원
2008.03.01	오정준	부연구위원
2008.03.01	손원숙	연구위원
2008.03.01	김희규	부연구위원
2008.03.01	도종훈	부연구위원
2008.03.01	이현숙	부연구위원
2008.03.31	민경현	행정5급
2008.04.01	손홍찬	부연구위원
2008.08.31	신명선	부연구위원
2008.09.01	이재기	연구위원
2008.09.01	배수찬	부연구위원
2009.02.28	고호경	부연구위원
2009.03.01	엄지현	행정5급
2009.03.01	양길석	선임연구위원
2009.03.01	고정화	부연구위원
2009.03.01	최병택	부연구위원
2009.08.01	유진은	부연구위원
2009.08.31	공용식	전문3급
2009.08.31	김남희	부연구위원
2009.09.01	김진석	연구위원
2009.09.01	김민정	부연구위원
2009.09.01	조성기	부연구위원
2009.09.01	홍원표	부연구위원
2009.12.31	양배희	행정1급
2010.03.01	서보억	부연구위원
2010.03.01	유정애	연구위원
2010.03.01	이수정	연구위원
2010.03.01	정민주	부연구위원
2010.03.01	서근원	부연구위원
2010.03.01	전유아	부연구위원
2010.03.01	최홍원	부연구위원
2010.03.01	박선용	부연구위원
2010.08.23	신태수	부연구위원
2010.08.23	정은영	연구위원
2010.08.31	김소영	부연구위원
2010.08.31	조하연	부연구위원
2010.12.31	박종덕	책임행정원
2011.01.01	김도균	선임행정원
2011.02.01	김국현	연구위원
2011.02.07	남명호	선임연구위원

퇴사일	성명	직급
2011.02.07	신철수	선임행정원
2011.03.01	남가영	부연구위원
2011.03.31	김부미	부연구위원
2011.06.30	이의갑	부연구위원
2011.06.30	김영준	선임연구위원
2011.07.01	신선희	부연구위원
2011.07.31	연근필	책임행정원
2011.08.21	박종훈	부연구위원
2011.08.31	송현정	연구위원
2011.09.02	박경인	행정원
2011.10.04	이수련	선임행정원
2011.11.05	문민주	전문원
2011.12.01	정윤선	행정원
2011.12.31	신성균	선임연구위원
2011.12.31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2012.02.01	남진영	부연구위원
2012.02.01	이동주	부연구위원
2012.02.06	박유정	부연구위원
2012.02.27	은지용	연구위원
2012.03.01	이봉주	연구위원
2012.03.01	김영빈	부연구위원
2012.03.01	김연희	부연구위원
2012.03.01	김율린	행정원
2012.03.13	강대현	연구위원
2012.04.30	김수중	전문원
2012.06.30	장구향	선임연구위원
2012.08.26	최원호	연구위원
2012.08.31	최숙기	부연구위원
2012.12.31	김한영	행정원
2013.01.15	정영숙	책임전문원
2013.02.04	양승호	부연구위원
2013.02.15	김평원	부연구위원
2013.02.22	이동환	부연구위원
2013.02.28	박기범	연구위원
2013.02.28	송민영	부연구위원
2013.02.28	박재은	부연구위원
2013.02.28	손예희	부연구위원
2013.03.01	옥현진	부연구위원
2013.07.31	이영주	부연구위원
2013.08.16	박찬호	부연구위원
2013.08.20	이선영	부연구위원
2013.08.31	고현숙	부연구위원
2013.09.01	전영주	부연구위원
2013.12.31	김주훈	선임연구위원
2013.12.31	이인제	선임연구위원
2013.12.31	박백봉	책임행정원대우(계약직)
2013.12.31	박남화	책임전문원대우(계약직)
2014.02.24	전제철	부연구위원
2014.02.28	황인표	연구위원
2014.03.01	최혁준	연구위원
2014.03.01	김영란	부연구위원
2014.06.30	최승현	선임연구위원

퇴사일	성명	직급
2014.08.18	이영아	부연구위원
2014.09.01	심재호	연구위원
2014.09.01	신동광	연구위원
2014.09.01	김도남	연구위원
2014.09.01	김사훈	부연구위원
2014.12.31	이명준	선임연구위원
2015.02.14	정진석	부연구위원
2015.03.01	윤천택	부연구위원
2015.03.01	박지현	부연구위원
2015.03.01	남창우	부연구위원
2015.03.01	강보선	부연구위원
2015.03.01	전경희	부연구위원
2015.03.01	이미미	부연구위원
2015.03.23	구영산	부연구위원
2015.04.01	김지영	부연구위원
2015.05.28	진재관	연구위원
2015.06.30	김용환	선임행정원
2015.06.30	최종교	책임행정원
2015.07.01	오은순	선임연구위원
2015.08.14	황필아	부연구위원
2015.08.15	임황규	전문연구위원
2015.09.01	김용명	연구위원
2016.02.24	서영진	부연구위원
2016.03.01	이동엽	부연구위원
2016.06.30	조난심	선임연구위원
2016.09.01	안태연	부연구위원
2016.09.01	민재원	부연구위원
2016.09.22	임수연	부연구위원
2016.12.03	정원교	전문원
2016.12.31	이근남	선임연구위원
2016.12.31	조용웅	책임행정원
2016.12.31	임찬빈	선임연구위원
2016.12.31	윤현진	선임연구위원
2017.03.01	진의남	연구위원
2017.03.01	이상일	부연구위원
2017.03.01	김혜연	부연구위원
2017.06.01	양화정	행정원
2017.06.03	최완진	행정원
2017.08.28	김정호	부연구위원
2017.08.29	이정우	부연구위원
2017.09.01	김명정	부연구위원
2017.09.01	가은아	부연구위원
2017.09.01	이혜영	부연구위원
2018.01.05	김중후	행정원
2018.02.05	안동립	전문원
2018.02.24	강민구	부연구위원
2018.02.24	김유진	전문원
2018.03.01	곽영순	선임연구위원
2018.03.01	윤기준	부연구위원
2018.06.07	이한나	행정원
2018.06.30	이화진	선임연구위원
2018.06.30	정택하	선임행정원

편찬후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20년사 편찬 과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어, 홍보출판실이 실무진을 조직하고, 각 부서의 연구직과 일반직에 걸쳐 편찬 TF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1년에 걸쳐 편찬위원회와 실무진은 각종 자료들을 취합·발굴하면서 평가원 역사의 중요한 갈피들을 정성껏 모았습니다. 가연표를 토대로 편찬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으며, 박도순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가목차에 대한 고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 수집과 정리, 집필이 부단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해가 바뀌었고, 특히 올해 초에 우리원은 정동 청사를 떠나 충북혁신도시에 새 청사를 마련하여 등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어 온 20년사의 발간 작업은 더욱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내실 있는 연구기관, 보다 다채로운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왔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의 발간이 우리원 모두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이번 20년사 편찬 과정에서도 기록·보존해야 할 정수들을 정선했습니다만, 부족함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00여 쪽의 지면에 우리원의 출발과 발전, 성과, 의의 등을 모두 담아내는 데 아쉬움도 없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이런 부족함과 아쉬움은 훗날 30년사 편찬을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의 성공적 발간은 편찬위원회와 더불어 각 부서의 적극적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가능하였습니다. 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서 한결 같이 보태주신 관심과 협조, 편찬위원님들과 실무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용 집필을 맡아주신 이상우 작가님과 대통기획 기업문화연구소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편찬위원장
박순경

편찬위원회 명단

편찬위원장

박순경 부원장

편찬위원

박진동 기획조정본부장

이근호 교육과정·교과서본부장

조지민 교육평가본부장

홍미영 교수학습본부장

이창훈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진구 국가고사본부장

정수백 경영지원본부장

김수원 정보관리본부장

조용기 기획조정본부 선임연구위원

이광우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선임연구위원

이미경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선임연구위원

김성숙 교육평가본부 선임연구위원

이명애 교육평가본부 선임연구위원

오상철 교수학습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선화 교수학습본부 선임연구위원

이양락 국가고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소영 국가고사본부 선임연구위원

심재목 국가고사본부 책임전문원

김형준 국제교육협력실 선임행정원

최동문 홍보출판실장, 간사

자문위원

박순경 부원장

박도순 초대 원장,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성열 전 원장, 현 경남대학교 교수

조난심 전 부원장, 현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

이화진 전 부원장

이인제 전 교과교육·교과서연구본부장

양배희 전 사무국장

편찬실무진

양정실, 박상혁 기획조정본부

서지영, 노은희, 백경선, 박은아, 권점례, 장민정, 장일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진경애, 김미경, 구자옥, 박종임, 김순강 교육평가본부

김태은, 노원경, 김성신, 김선주 교수학습본부

시기자, 김동영, 함승연, 박인용, 임혜균, 윤대현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박도영, 박영수, 정은주, 김수현 국가고사본부

김찬호, 위성임, 김상현, 강보라 경영지원본부

안남신, 윤현정 정보관리본부

조현주 홍보출판실

민병수 국제교육협력실

도움주신 분들

총괄제작 조우기

총괄기획 배기수

기획진행 김동균, 신채은, 염경호

집 필 이상우

디자인 이병길, 전영인

촬영 이명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년사

홍보자료 PIM 2018-15

발행일 2018년 8월 20일

발행인 성기선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8

전화 043-931-0114

팩스 043-931-0888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기획편집 (주)대통기획 기업문화연구소
(02-2269-3613)

인쇄제작 (주)영은문화

【 비매품 】

ISBN 979-11-5788-677-7 93370

